

yearly *Fund Review* 2002

2003. 1

국내편

yearly *Fund Review*는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펀드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연금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초에 발간됩니다. 그러나 yearly *Fund Review*의 어떤 내용도 특정 증권이나 펀드의 매입·매도 추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작성 책임자: 연구위원 김근수 ☎ (02)3771-0642

내용 문의: 연구원 강창윤 ☎ (02)3771-0644

연구원 박기홍 ☎ (02)3771-0635

기타 문의: 연구조원 황은미 ✉ em425@ksri.org

한국증권연구원 홈페이지: www.ksri.org

서 언

*Fund Review*는 우리나라와 외국 펀드산업의 동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 1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새로운 정보의 필요성이라는 펀드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yearly Fund Review*는 2002년 각 월의 *Fund Review*를 작성하기 위해 수집되었던 모든 기사들을 정리한 것으로 월간 자료에서 누락되었던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함께 2002년도 펀드산업의 흐름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및 제도 변경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매월 수집된 기사들의 내용이 방대하여 부득이 국내편과 해외편으로 나누었으며, 1월에는 국내편이 2월에는 해외편이 발간될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월간 *Fund Review*를 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yearly Fund Review*가 펀드 산업에 관심을 가진 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들의 작성 책임을 맡았던 본원의 김근수 박사, 일별 기사를 선정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강창윤, 박기홍 연구원, 도안 및 편집에 정성을 다하였던 황은미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속한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획실 및 세종아트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2003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박상용

목 차

I

수탁고 동향

수탁고 동향 목차

수탁고 동향 요약

1. 금융권별 자산 규모의 장기 추이	I-1
2. 2002년 수익증권 수탁고 추이	I-2
3.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I-3
4. 채권 및 주식의 편입 현황	I-4
5. 신탁재산 운용 현황	I-5
6. 규모별 설정잔고	I-7
7. 고수익 및 비과세 펀드 추이	I-9
8. 신탁형 저축 추이	I-9
9. 추가형 및 단위형 펀드 추이	I-10
10. 고객 유형별 수탁고 추이	I-11
11.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추이	I-12

II

제도 동향

제도 동향 목차

제도 동향 요약

1.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II-1
2.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II-17

3. 증권거래법령 관련 규정	II-18
4. 보험업법령 관련 규정	II-20
5. 기타 펀드 관련 제도	II-21

III

펀드산업 현황

펀드산업 현황 목차

1. 1월	III-1
2. 2월	III-47
3. 3월	III-85
4. 4월	III-131
5. 5월	III-167
6. 6월	III-207
7. 7월	III-239
8. 8월	III-273
9. 9월	III-317
10. 10월	III-355
11. 11월	III-399
12. 12월	III-439

IV

해외 수탁고 현황

해외펀드 별권 발간

V

해외 펀드산업 현황

해외펀드 별권 발간

I	수탁고 동향
---	--------

수탁고 동향 목차

수탁고 동향 요약

1. 금융권별 자산 규모의 장기 추이	I-1
2. 2002년 수익증권 수탁고 추이	I-2
3.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I-3
4. 채권 및 주식의 편입 현황	I-4
5. 신탁재산 운용 현황	I-5
6. 규모별 설정잔고	I-7
7. 고수익 및 비과세 펀드 추이	I-9
8. 신탁형 저축 추이	I-9
9. 추가형 및 단위형 펀드 추이	I-10
10. 고객 유형별 수탁고 추이	I-11
11.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추이	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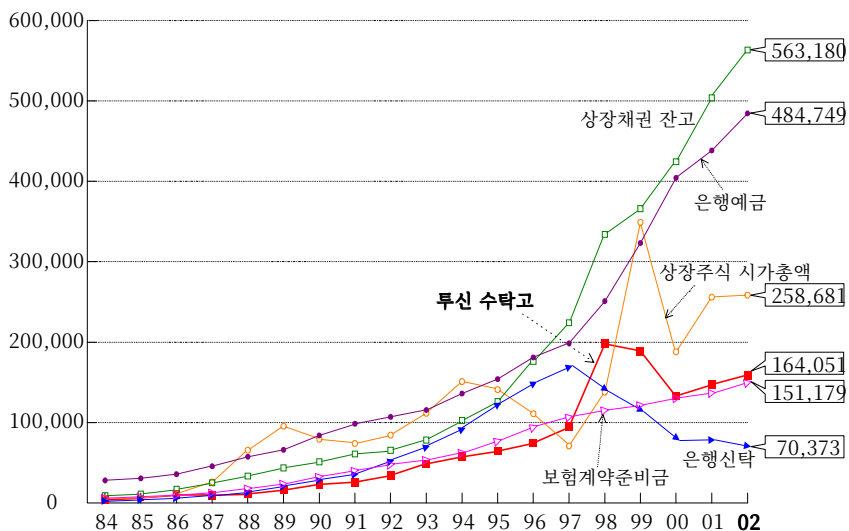
수탁고 동향 요약

- 투자신탁 전체 수탁고는 2000년 급락 이후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성격이 유사한 은행신탁은 1997년까지 투신 수탁고를 크게 앞섰으나, 은행 퇴출과 함께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여 2002년말 현재 70조원 수준을 기록
- 2002년 동안 투자신탁 수탁고는 16조8,300억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초단기 상품인 MMF의 변화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다행인 점은 MMF의 상관계수가 93.76%에서 91.94%로 미세하나마 하락하였으며, 주식형 및 혼합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펀드 대형화 추세 속에서 펀드 수가 6,525개에서 5,808개로 감소하였으며, 펀드 평균 규모도 2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가
-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의 합계가 15조8,000억원 수준에서 11조2,000억원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부실자산 처리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 전체 신탁재산에서 금융기관의 비중은 48%에서 45%로 3% 하락한 반면, 일반법인의 비중이 27%에서 30%로 증가
 - － 전체 신탁재산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기록하여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음
- 증권투자회사와 뮤추얼펀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모두 수탁고가 대략 3조6,000억원씩 증가하여 8조8,550억원과 6조6,420억원 기록
 - － 증권투자회사 및 뮤추얼펀드의 수탁고는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채권형의 증가가 전체 수탁고의 증가를 주도하였음

1. 금융권별 자산 규모의 장기 추이

금융권별 자산 규모의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단위: 10억원)



※ 보험계약준비금은 생보와 손보의 합계이고, 2002년 자료는 9월 현재임

※ 은행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합계임

자료: www.kitca.or.kr, '주식' 각호, '증권시장' 각호,
'금융통계월보' 최근호, '보험통계연감' 각호,
'조사통계월보' 각호, www.bok.or.kr

○ 은행, 증권 및 보험권 규모

- 은행: 은행 예금은 1997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은행 신탁은 1997년 경제위기를 정점으로 그 규모가 매년 하락하고 있음
- 증권: 상장채권 잔고는 국채 발행 증가에 힘입어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 속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보험: 보험계약준비금은 매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투자신탁 수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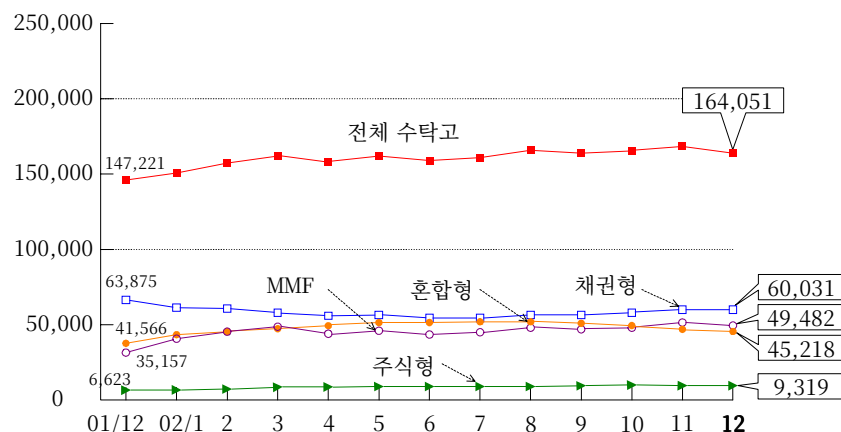
- 투자신탁 수탁고는 1998년의 급등과 2000년의 급락을 보인 이후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 164조510억원을 기록 (신탁형 제외)
 - 투자신탁 수탁고는 대우 사태 발생과 함께 급락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투신권의 투명성 제고 노력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현재 안정 상승 추세를 보임
 - 2002년 한해 동안 투자신탁 수탁고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16조8,300억원 증가
- 성격이 비슷한 은행 신탁의 경우 일부 은행의 퇴출과 함께 은행 신탁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수탁고가 꾸준히 하락

2. 2002년 수익증권 수탁고 추이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 2002년말 현재 전체 수탁고는 164조510억원 (신탁형 제외)으로 1년 동안 16조8,300억원 증가
- 주식형, 혼합형, MMF의 경우 각각 2조6,960억원, 3조6,530억원, 14조3,250억원씩 증가
 - 반면 채권형의 경우 3조8,440억원 감소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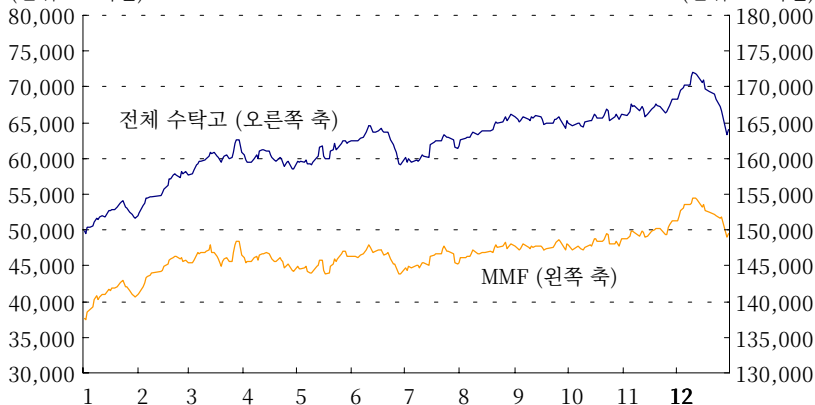
자료: www.kitca.co.kr

전체 수탁고와
MMF 수탁고 추이 비교

- 전체 수탁고는 여전히 초단기 상품인 MMF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주식형 및 혼합형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수탁고 변화는 MMF 수탁고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수탁고 변화에 MMF가 미치는 영향은 약간 하락하였으며, 대신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음
- 전체 수탁고 변화율에 대한 각 펀드 유형별 수탁고 변화율의 상관계수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장기채권형	단기채권형	MMF
2001년	-5.19%	11.27%	12.42%	34.89%	32.89%	93.76%
2002년	18.63%	15.17%	14.15%	9.47%	29.12%	9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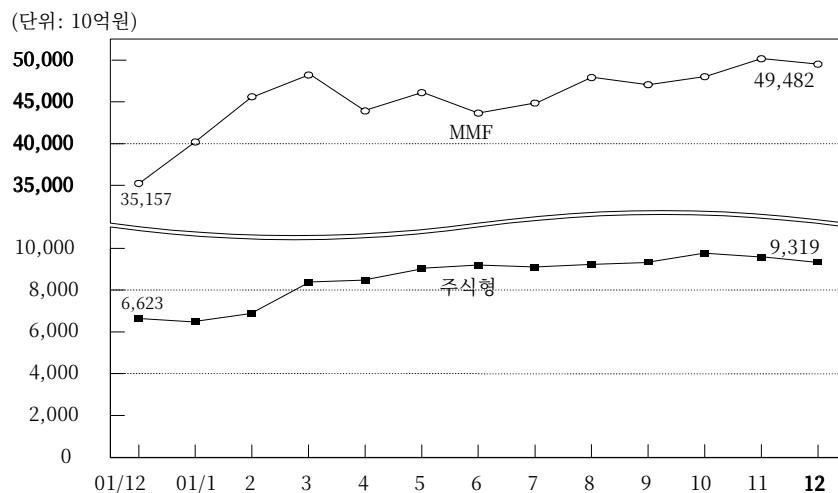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자료: www.kitc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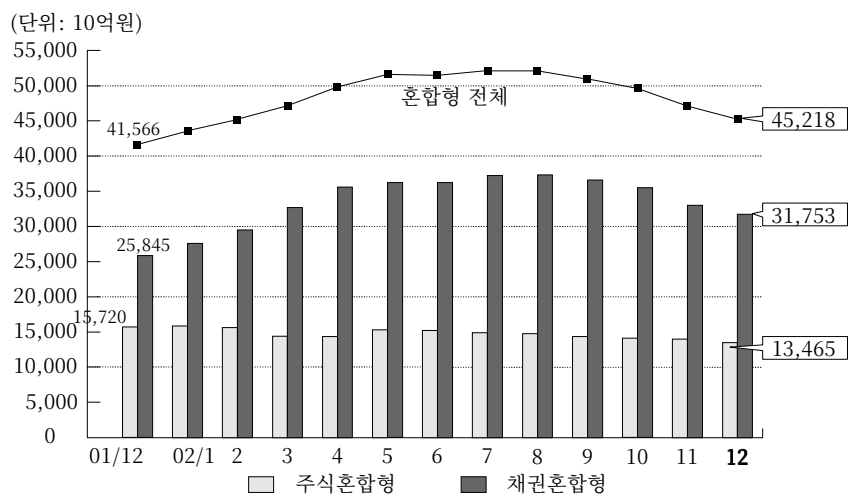
3.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주식형 및 MMF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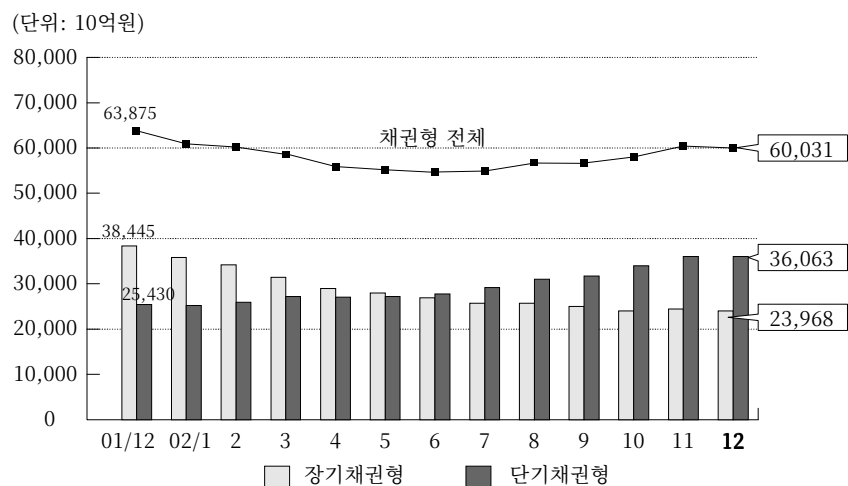
자료: www.kitca.co.kr

혼합형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자료: www.kitca.co.kr

채권형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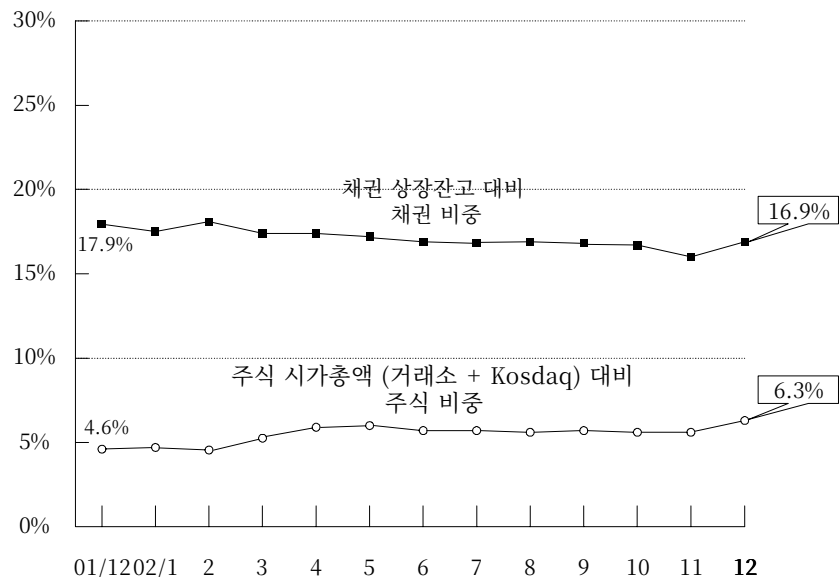


자료: www.kitca.co.kr

4. 채권 및 주식의 편입 현황

투신 채권 및 주식의
편입 비중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 채권 편입 비중은 1% 감소하였으나, 주식 편입 비중은 1.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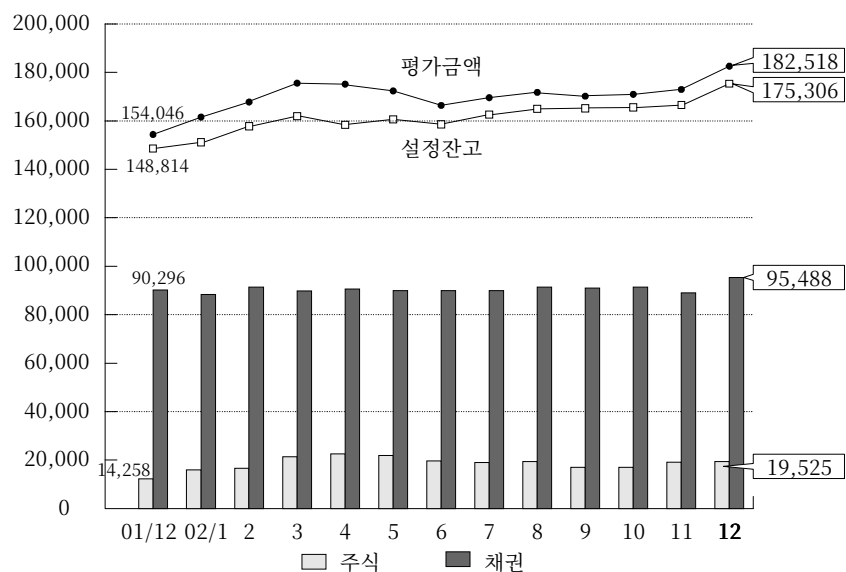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증권시장」 각호,
www.kosdaq.or.kr

투신 채권 및 주식의
편입 규모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 투신권에 편입된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금액은 각각 5조2,670억
원, 5조1,920억원씩 증가

(단위: 10억원)



※ 주식 및 채권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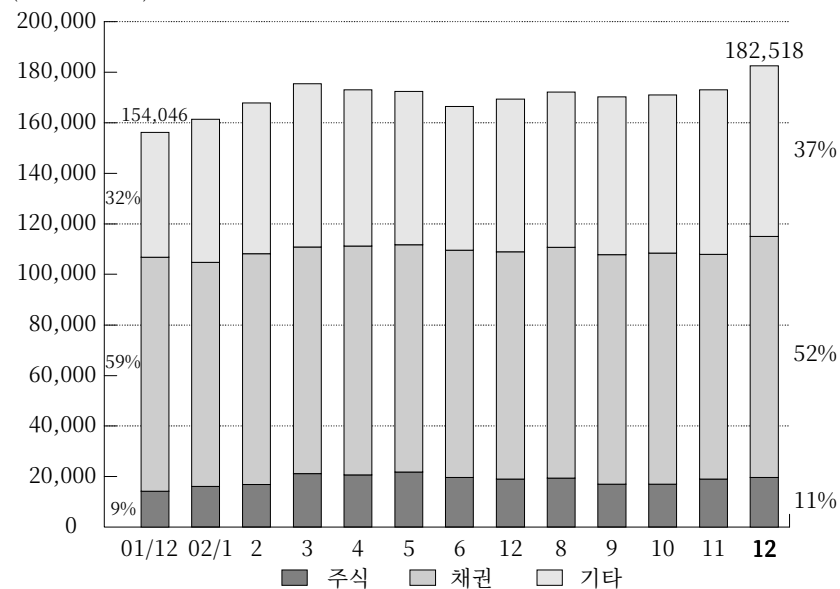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www.kosdaq.or.kr

5. 신탁재산 운용 현황

전체 신탁재산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 전체 신탁재산은 주식이 2% 증가한 반면 채권이 7% 감소하여,
주식 11% 채권 52% 기타 37%로 구성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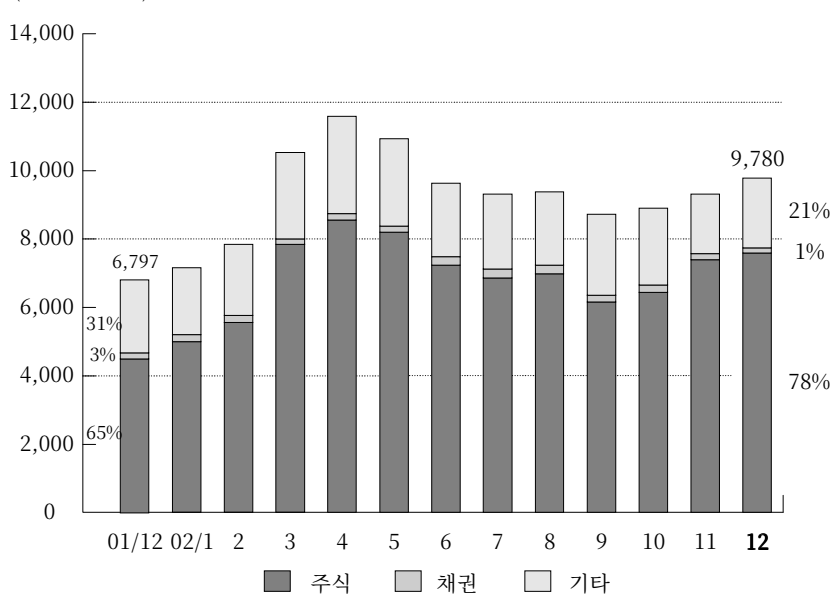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주식형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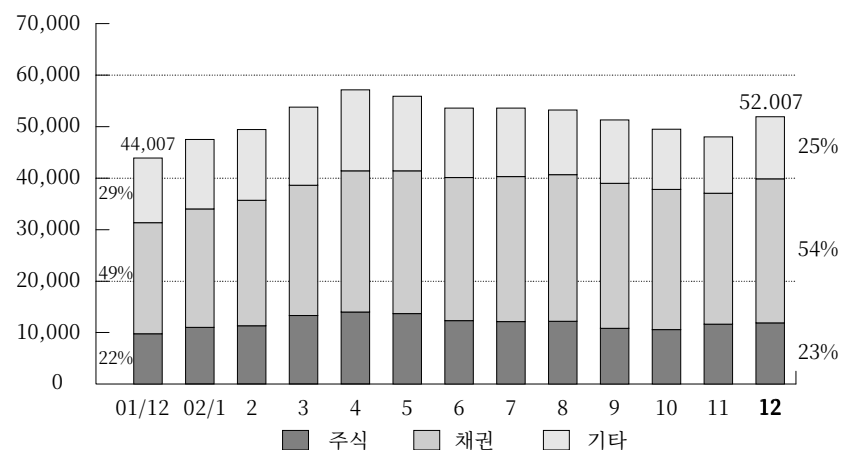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혼합형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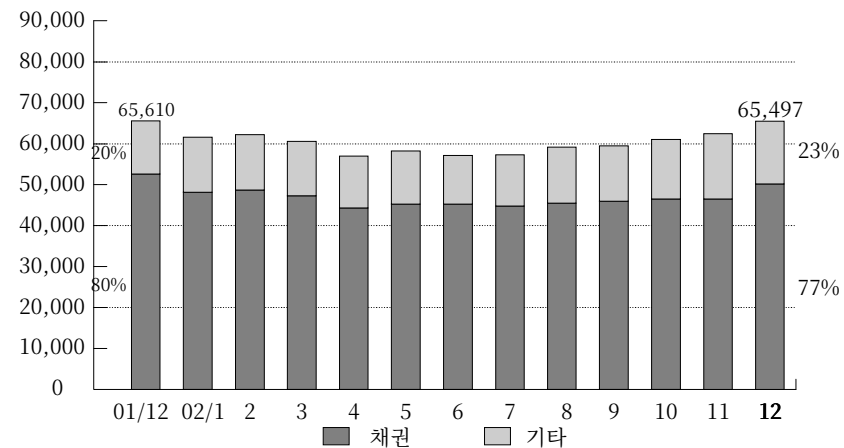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채권형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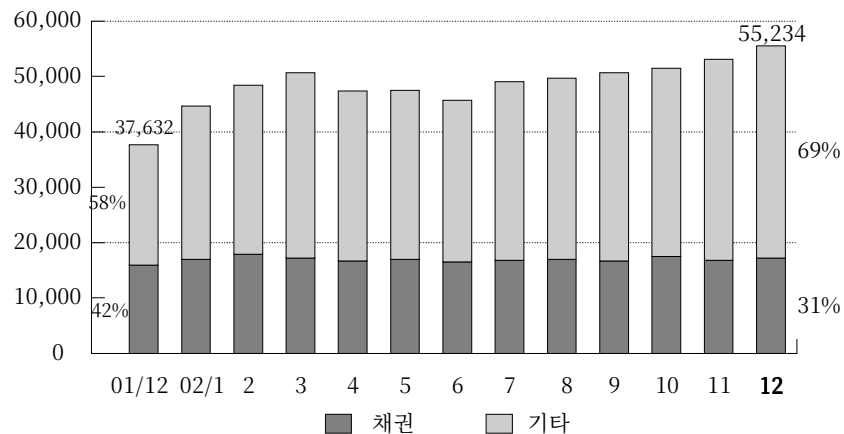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MMF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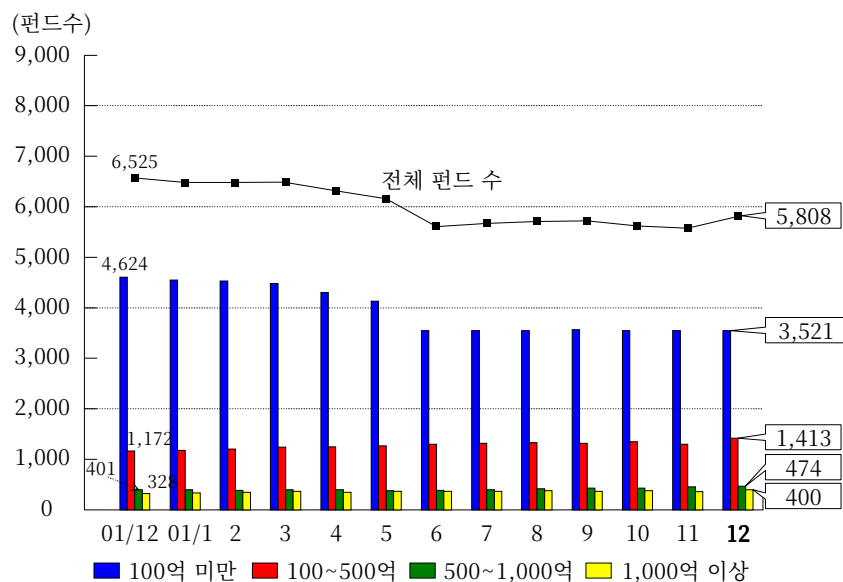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6. 규모별 설정잔고

규모별 펀드 수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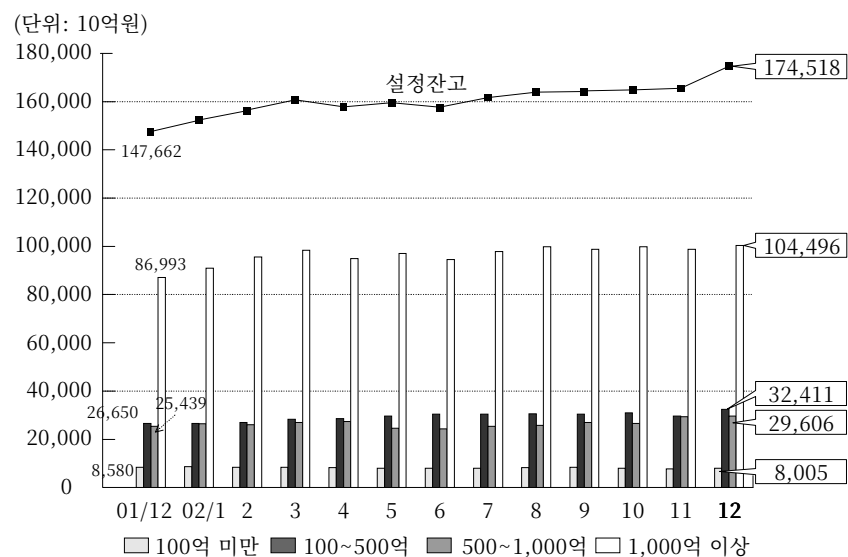
- 펀드 통폐합 작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전체 펀드의 수가 717개 감소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펀드인 100억 미만 펀드는 1,103개 감소
 - － 펀드 산업의 신뢰 회복에 따른 자산 유입 증가로 100억 미만 펀드를 제외하고는 설정 펀드 수 증가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규모별 펀드 규모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 100억 이상 펀드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 설정잔고는 전년말 대비 26조8,560억원 증가한 174조5,180억원 기록
 - － 100억 미만 펀드는 펀드 수의 감소와 함께 설정잔고도 5,750억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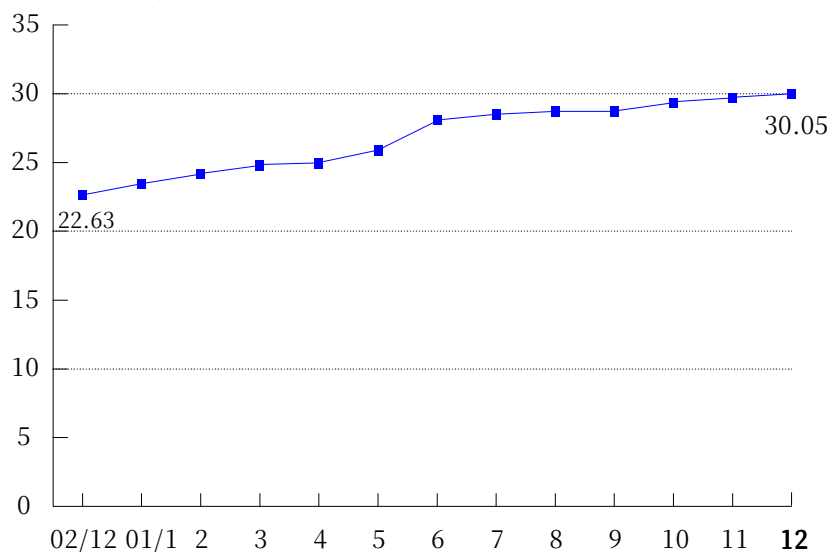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평균 펀드 규모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 펀드 평균 규모는 74억원 증가한 300억5,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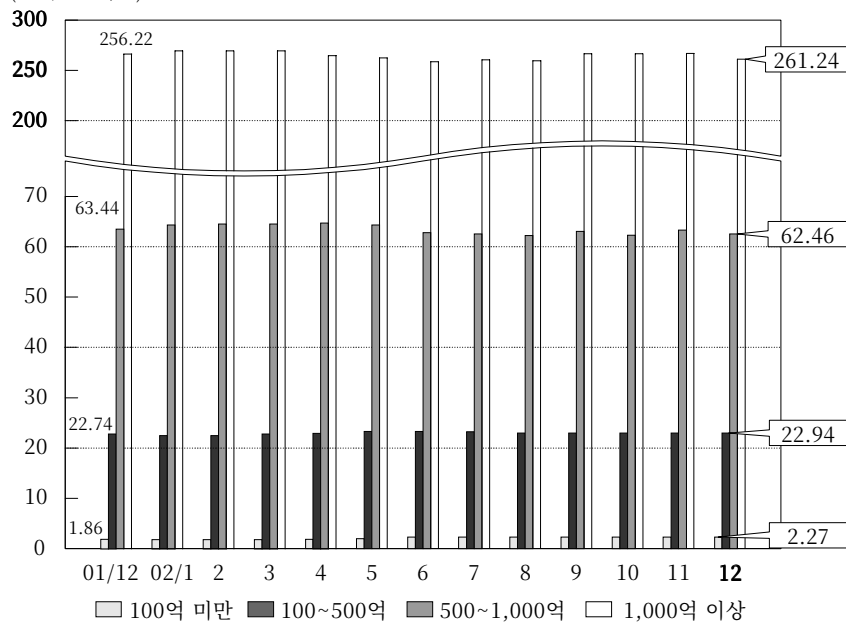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규모별 평균 펀드 규모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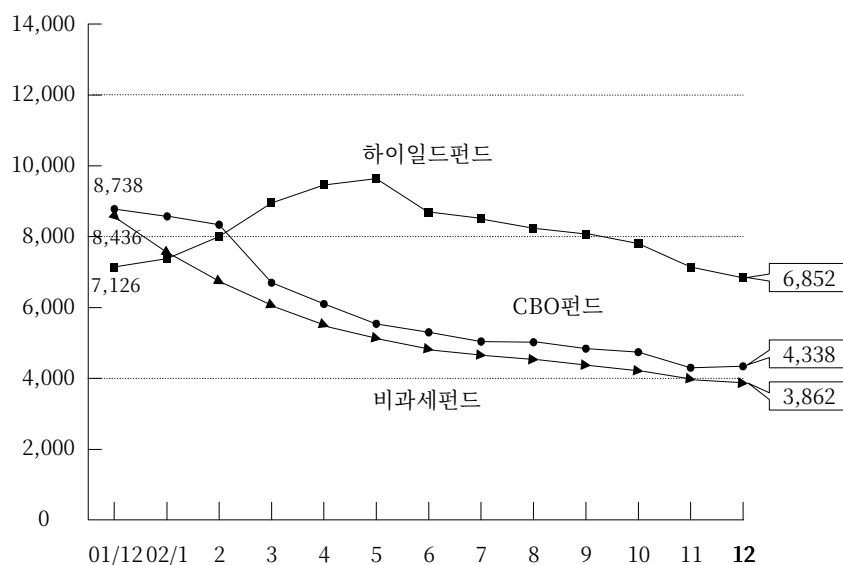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7. 고수익 및 비과세 펀드 추이

고수익 및 비과세 펀드
추이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비과세펀드가 각각 4조4,000억원, 2,740
억원, 4조5,740억원 감소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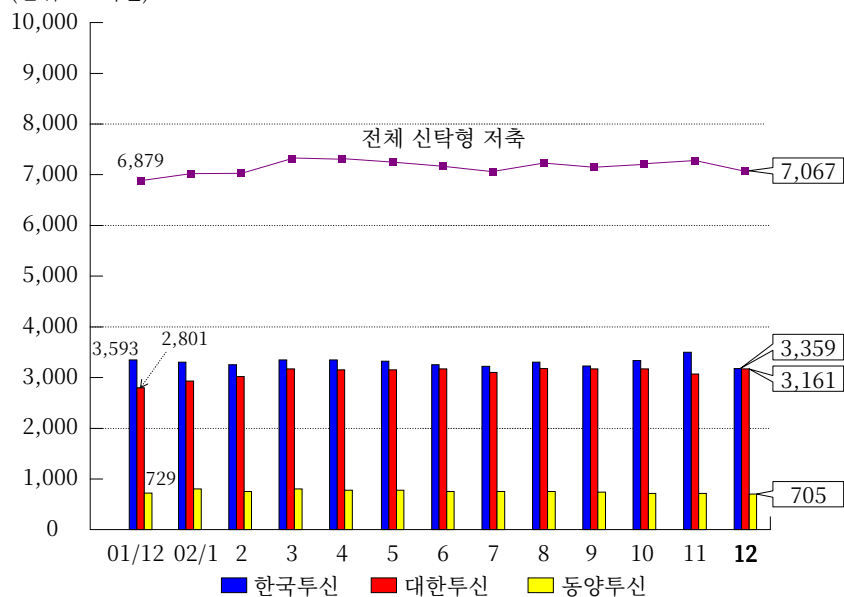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8. 신탁형 저축 추이

신탁형 저축 추이
(월 말 기준)

○ 전체 신탁형 저축은 1,880억원 증가하여 7조670억원 기록
— 한국투신과 동양투신의 신탁형 저축은 각각 1,620억원, 240억
원 감소하였으나, 대한투신의 신탁형 저축은 3,740억원 증가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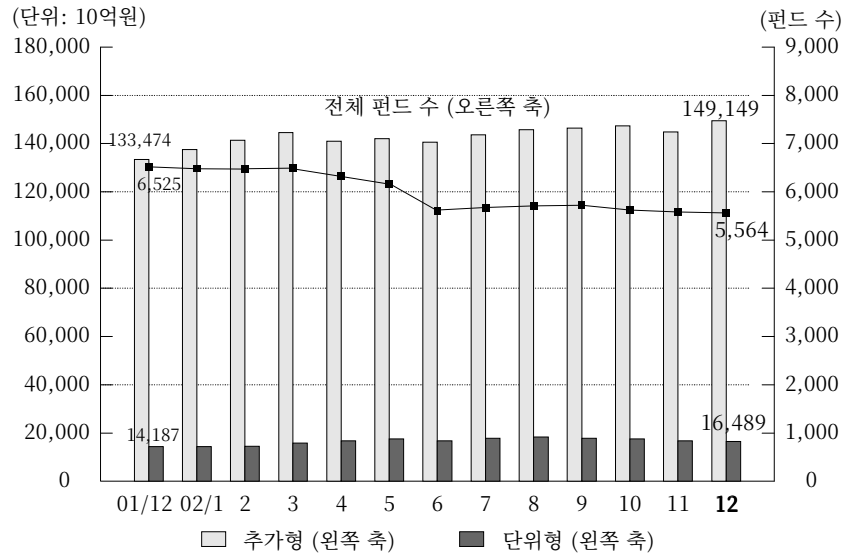


자료: www.kitca.or.kr

9. 추가형 및 단위형 펀드 추이

추가형 및 단위형
설정잔고와 총 펀드 수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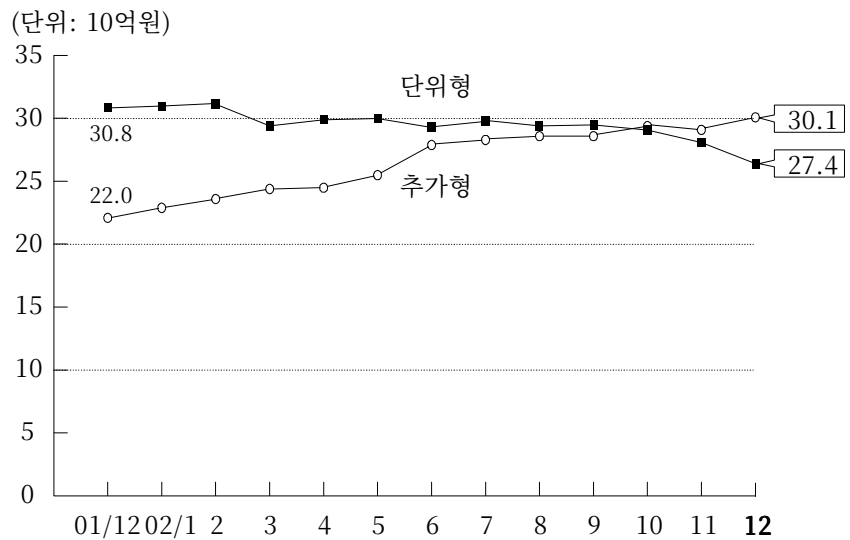
- 추가형 및 단위형 펀드의 전체 펀드 수는 961개가 감소하였지만, 전체 설정잔고는 17조9,770억원 증가
 - － 추가형 펀드 설정잔고는 15조6,750억원 증가하였으며, 단위형 펀드는 2조3,020억원 증가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추가형 및 단위형 평균
펀드 규모 (각 월 마지막
금요일 기준)

- 추가형 펀드의 평균 규모는 80억원 증가하여 30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단위형 펀드의 경우 34억원 감소하여 274억원 기록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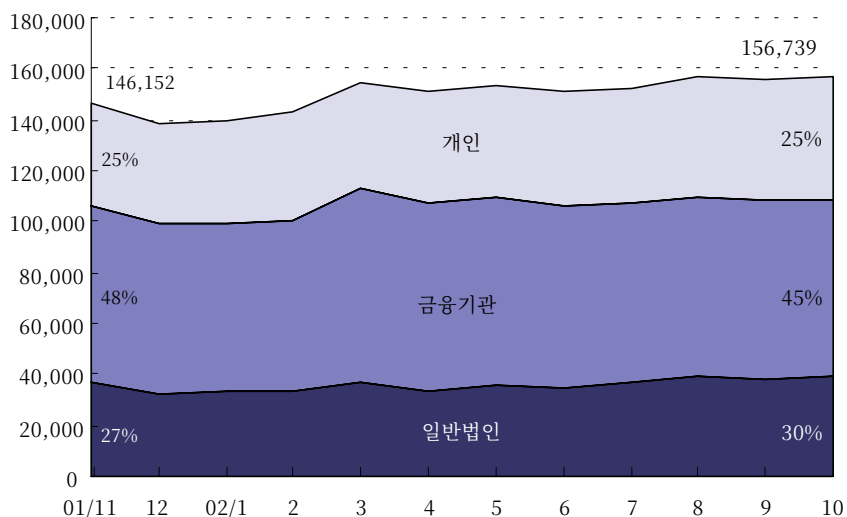
10. 고객 유형별 수탁고 추이

고객 유형별 전체 수탁고
(월 말 기준)

○ 전체 신탁재산은 10조5,870억좌가 증가하여 156조7,390억좌를 기록

－ 금융기관이 3% 감소한 반면 일반법인이 3% 증가하여 개인 25%, 금융기관 45%, 일반법인 30%로 구성

(단위: 10억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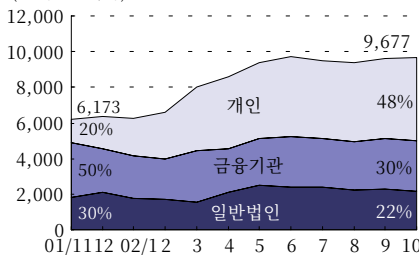


자료: 「투신」 각호

고객 유형별 각 펀드에
따른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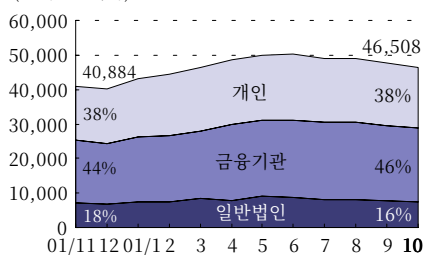
(단위: 10억좌)



자료: 「투신」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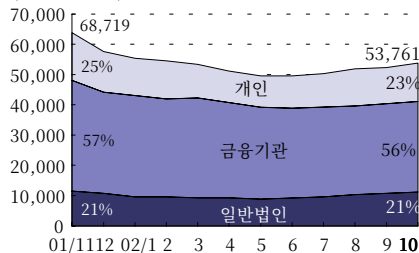
혼합형

(단위: 10억좌)



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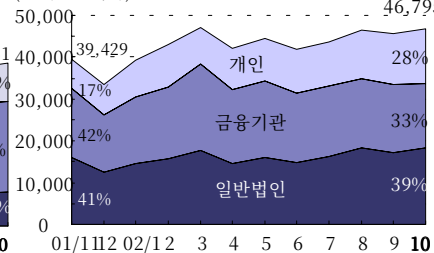
(단위: 10억좌)



자료: 「투신」 각호

MMF

(단위: 10억좌)



11.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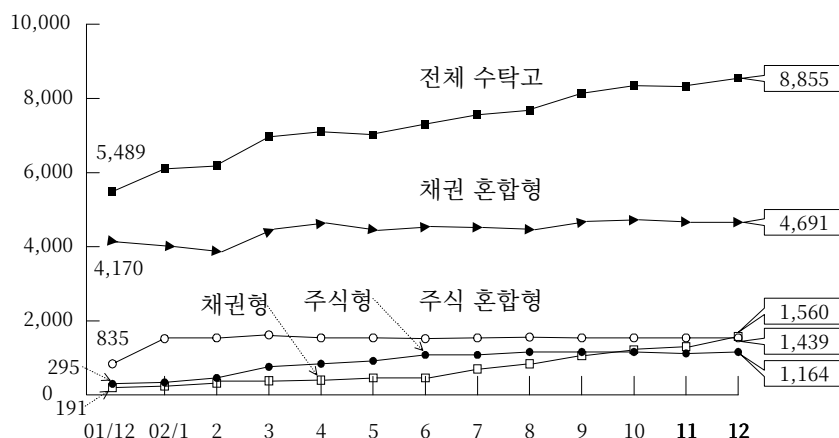
증권투자회사 전체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 증권투자회사 전체 수탁고는 3조3,660억원 증가한 8조8,550억원 기록

－ 2002년 한해 동안 증권투자회사 수탁고는 펀드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증가를 기록하였음

-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수탁고는 각각 8,690억원, 6,050억원, 5,220억원, 1조3,700억원 증가

(단위: 10억원)



※ 위 수탁고 자료는 설정잔고의 개념으로 순자산가치가 반영된 것은 아니며, 4개의 구조조정기금 자료가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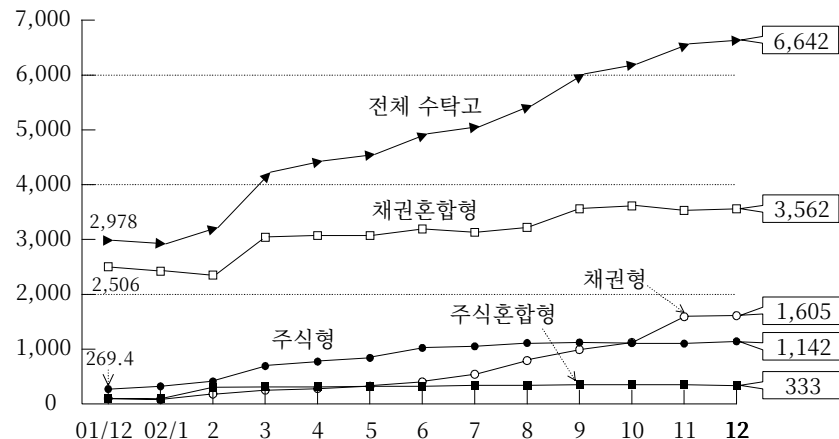
자료: www.kitca.or.kr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수탁고는 3조6,640억원 증가한 6조6,420억원 기록

－ 2002년 한해 동안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수탁고는 펀드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증가를 기록하였음

(단위: 10억원)



자료: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II	제도 동향
----	-------

제도 동향 목차

제도 동향 요약

1.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II-1
2.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II-17
3. 증권거래법령 관련 규정	II-18
4. 보험업법령 관련 규정	II-20
5. 기타 펀드 관련 제도	II-21
가. MMF 매각 한도 존재 여부 관련 금융감독원 의견	II-21
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II-21
다. 투자신탁 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II-22
라. 표준신탁 약관	II-23
마. 자산운용업법 제정 (안) 입법 예고	II-24
바. 상장지수펀드 관련 유권해석	II-26
사. 개인연금저축 관련 업계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 답변내용	II-27
아. 상장지수펀드 관련 업계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 답변내용	II-28

제도 동향 요약

○ 투자신탁업법 및 관련 규정

- 상장지수투자신탁 (ETFs) 및 간접투자신탁 (Fund of Fund) 제도의 도입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 요건, 상장 및 등록 의무기간 설정 등 상장지수투자신탁 설정, 운용, 환매 관련 제도 신설
-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권한을 금감위에서 투신협회로 이전
-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를 하였을 경우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내용을 공시토록 의무화

○ 증권투자회사법 및 관련 규정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ETFs) 및 간접증권투자회사 (Fund of Fund) 제도의 도입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중간 분배 허용
-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등록 시 요구되는 최저자본금을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

○ 증권거래법령 관련 규정

-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중도 상환 요건의 차등 적용
- 증권거래소 및 Kosdaq에서의 상장지수투자신탁 신용거래 허용

○ 보험업법령 관련 규정

- 변액보험, 개인연금 등의 자산구성 내역 및 수익률 등을 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기재사항 구체화

○ 기타

- CB·BW 발행 제도 개선 및 전환(행사)가액 조정 기준 마련
- 투신협회는 표준신탁약관을 제정하였으며, 수익증권의 환매 지급일을 표준약관에 명시

1.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상장지수투자신탁 제도
도입 (4/27 개정, 7/28
시행, 제2조 제2항 신설)

상장지수 투자신탁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제2조 2항, 제42조의5,
제42조의11 신설)

간접투자신탁 제도의
도입 (제2조 제3항 신설,
제33조 제1항 제4호 개정)

- 특정지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환매가 가능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제도를 도입
 -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설정일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에 상장 및 등록되어야 함
 - ※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1호의2의 내용과 동일함
- 상장지수 투자신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동 투자신탁 설정방법,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절차 등을 제정
 - － 특정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을 상장지수 투자신탁으로 규정
 -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증권거래소 및 Kosdaq 시장에 상장 및 등록
 - － 상장지수 투자신탁의 위탁회사는 증권회사를 지정판매회사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판매회사의 요청에 따라 상장지수 투자신탁을 설정
 - － 상장지수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나 지정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 지정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이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함
 - ※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1호의2, 제79조의2, 제79조의9 등의 내용과 동일함
- 신탁재산의 상당부분 (대통령령에서 60% 이상으로 정할 예정)을 국내·외 수익증권 및 국내·외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 (일명 Fund of Funds) 제도를 도입
 - － 본 제도 도입을 위해 신탁재산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5% 투자제한 규정을 간접투자신탁이 배제된 일반투자신탁에만 제한 적용
 - 신탁재산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5% 투자제한 규정은 동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언급되어 있음
 - ※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의3,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25조의2 5항 신설)

-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라 해도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였음
 -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음
 -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라 하여도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계열회사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의 범위안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의 경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

※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4항의 내용과 동일함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행사와 공시
(제25조 3항 신설 및
제25조의3 개정)

-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의결권 행사 여부를 기록·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탁회사는 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 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였을 경우,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공시

※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5항 및 6항의 내용과 동일함

표준신탁약관 제정 권한
이전 (제22조 2항 및 6항
신설)

- 투자신탁업계의 자율성을 재고하여 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신탁약관 제정의 권한을 투자신탁협회로 이전
 - －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졌던 표준신탁약관 제정 권한을 투자신탁협회로 이전하였음
 - 투자신탁협회는 표준신탁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금융감독위원회는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 및 보완을 명할 수 있음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
및 지정판매회사제도
(제42조의5, 제42조의6
신설)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위탁회사는 지정판매회사로부터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신규 및 추가 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음
 - － 위탁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설정시 지정판매회사를 지정하여야 함
 - 판매회사 중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지정판매회사로 지정
 - 지정판매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를 위탁회사에 요청하는 업무와 자산 변경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함
 -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신규 및 추가 설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지정판매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신탁금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함
 - － 자산 변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가증권 등의 매매 및 위탁매매를 하는 지정판매회사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이는 지정판매회사가 각 고객 계좌별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설정단위에 상응하는 자산 구성시 자유로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 지정판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시장가격이 당해 수익증권의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아울러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매되도록 시장조성 의무가 부여됨
- ※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의2, 제79조의3의 내용과 동일함

간접투자신탁의
운용지시 제한
(제42조의12 신설)

- 특정 투신사나 특정 펀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수익률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투자한도를 설정
 - － 간접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특정 투신사에 투자할 수 없음
 - － 간접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특정 펀드에 투자할 수 없음
- ※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의2의 내용과 동일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제42조의7 신설)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나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 －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 수익자는 지정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 － 수익자로부터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해야 함
 - 지정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을 경우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음
 - －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받은 지정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함
 - 위탁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음
 - － 환매에 응해야 하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일부 해지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으로 환매에 응해야 함
 - 환매 청구를 받은 날의 신탁재산 운용이 종료된 후 당해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환매가 이루어 짐
 - － 환매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들은 천재 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탁약관이 정하는 날까지 환매할 수 없게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함
 - 언급된 관계기관이란 판매회사, 지정판매회사, 위탁회사, 수탁회사를 지칭함

※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의4의 내용과 동일함

상장지수투자신탁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제42조의9 신설)

- 위탁회사는 공고일 전일의 상장지수투자신탁 재산의 자산구성 내역 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해야 함
 -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재산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지수와의 변동율 차이 (이하 추적오차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함

※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의7의 내용과 동일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
(제42조의8 신설)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수익증권의 좌수당 순자산가치 변동율과 추적오차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 기준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 수익자 보호 및 신탁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위탁회사는 수익증권의 상장폐지 및 등록취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탁계약을 해지해야 함

－ 위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위에 이를 보고해야 함

※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의5의 내용과 동일함

상장지수투자신탁
운용지시 제한에 관한
특례 (제42조의10 신설)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신탁재산 비중을 현행 규정 (동법 제33조 제1항 제1호) 10%에서 30%로 확대 적용

－ 아울러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한 규정 (동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2)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위 규정은 삼성전자와 같은 지수 비중이 큰 종목을 지수 비중에 맞게 편입하여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한 규정임

※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의8의 내용과 동일함

－ 또한 지정판매회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아래의 동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위탁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제5호)
-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을 그 고유자산으로 취득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매각·대출하는 행위 (제6호)
- 위탁회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행위 및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 등의 과다 취득행위 등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절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호)
- 위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발행한 유가증권 등을 과다하게 취득하여 신탁재산의 적절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호)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상장지수투자신탁에
관한 적용의 배제
(제42조의11 신설)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경우 동법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의 단서 규정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함
 - － 단서 규정은 신탁재산으로 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 포함)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규정
 - 계열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허용
 - － 아울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환매에 관한 규정 신설로, 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한 규정인 동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함
 - － 또한 동법 제27조 제4항, 제5항과 관련한 신탁재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규정도 상장지수투자신탁에 적용되지 아니함
 - － 증권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행위를 증권거래법에 의해 못하게 돼 있으나, 지정판매회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지수투자신탁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내용으로 지정판매회사인 증권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규정

※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의9의 내용과 동일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시행령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
요건 (9/26 개정 및 시행,
제1조의2 신설)

-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수를 선정하여야 함
 - －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 － 당해 지수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적절히 공표될 수 있을 것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 및 등록 의무기간
(제1조의3 신설)

- 상장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및 등록되어야 함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조의3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간접투자신탁의 투자 비율
규정 (제1조의4 신설)

- 간접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자산 총액 중 60% 이상을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임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조의4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내부통제기준에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포함
(제8조의3 제1항 제9호
신설)

- 위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9호의 내용과 동일함

금감위는 보고 받은
표준신탁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제11조의3 신설)

- 표준신탁약관을 보고 받은 금감위는 당해 표준신탁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 받은 표준신탁약관이 공정위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금감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신탁계약 해지의 승인
(제12조 신설)

-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1월간 계속하여 미달하는 경우
 - － 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제12조의5 제3항 신설)

-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때에는 수익자가 당해 의결권 행사 여부에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시해야 함
 - －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위탁회사의 내부지침
 -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재산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 － 위탁회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법인이 특수관계인 혹은 공동보유자 등의 관계인지에 대한 여부
 - 제12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에 공시해야 하는 관계를 열거하고 있음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제12조의3,
제12조의6 제3호 신설)

-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란 위탁회사의 각 신탁재산 중 5%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을 지칭함
 - － 위탁회사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영업보고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금감위 및 투신협회에 제출되는 영업보고서에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에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6월에 1회 이상 당해 주주에게 제공해야 함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0조의3 제1항 제4호, 동조 제5항 제8호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투자신탁설명서 등에
추가 기재 사항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동조 제2항 제1의2호,
동조 제3항 제11호 신설)

- 투자신탁설명서 및 간이투자신탁설명서에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내부지침의 주요 내용을 추가 기재해야 함
 - －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추가 기재해야 함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제1호의2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위탁회사 행위 제한
예외 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단서 조항 신설)

- 위탁회사가 월별로 각 관계증권회사를 통하여 신탁재산 및 고유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거래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함
 - － 다만 자전거래시 신탁재산 상호간의 주식을 동일 종목·수량·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되 매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제한하지 않음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인사 교류 등의 제한
예외 규정 범위
(제16조의4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 신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없다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직원의 겸직 및 파견의 행위를 제한하지 않음
 - － 위탁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 위탁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여기서 계열 위탁회사란 외국에서 위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
 - － 계열 위탁회사로부터 파견을 받아 당해 위탁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보 교류 등의 제한
예외 규정 범위
(제16조의4 제2항 제3호
단서 조항 신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제공의 행위를 제한하지 않음
 - － 신탁재산의 과거 운용 정보 등 신탁재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계열 위탁회사에게 당해 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단순 매매 주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 － 당해 위탁회사가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 제공 계약의 내용
(제16조의4 제3항 신설)

-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탁회사는 정보를 제공받는 계열 위탁회사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공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 ※ 위의 경우 위탁회사는 정보 제공 계약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정보 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인 위탁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인 위탁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 제공 계약상의 정보 제공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 이 경우 위탁회사와 계열회사인 위탁회사간의 정보 제공 내역 및 계열회사인 위탁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인 위탁회사는 금감위의 감사 또는 감독 목적상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
 -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인 위탁회사는 당해 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인 위탁회사가 정보 제공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한
각 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제16조 제3항 단서 조항
신설)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제22조의6 신설)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제22조의7 신설)

-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 각 신탁재산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 일반적인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 신탁재산의 5%까지 투자 가능
-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에 필요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신탁약관에 정한 수량을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단위로 규정
 - － 지정판매회사가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의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위탁회사는 지체없이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함
 -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유가증권을 납입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 － 투자자는 납입한 신탁금 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의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정산하여야 함
 - 이 경우 평가가액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한 날의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의 종료후 평가한 금액을 말함
 - － 지정판매회사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납입받은 신탁금 등으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지정판매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음
 - 지정판매회사 명의의 계좌는 투자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납입한 자산을 통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의미함
-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환매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한 경우 지정판매회사에 대해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 － 환매 요청을 받은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일부 해지를 통하여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에 응하여야 함
-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의5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신탁
계약 해지
(제22조의8 신설)

- 증권업협회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추적오차율이 10%를 초과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수익증권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함
 - － 위탁회사는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상장 폐지일 및 등록 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 계약이 해지됨
-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의6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제22조의9 신설)

- 위탁회사가 공고하여야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재산의 자산 구성 내역에는 신규 설정 또는 추가 설정 등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 구성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자산의 순자산가치 및 추적오차율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
-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의8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간접투자신탁의 운용지시
제한 행위 설정
(제22조의10 신설)

- 간접투자신탁의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게 수익자의 보호 및 신탁재산의 안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하여서는 안됨
 - － 다른 간접투자신탁 및 간접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외국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하는 간접투자신탁, 간접증권투자회사 및 이와 유사한 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를 포함
 - － 모집 및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는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여기서 모집 및 매출이란 외국 법령을 따른 모집 및 매출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함
 - － 간접투자신탁이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당해 유가증권 발행 수량의 20%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행위
-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 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신탁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합은 당해 간접투자신탁의 신탁보수 등을 초과할 수 없음
 -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의 개정 내용과 동일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주요출자자의 요건

(별표 구분란 1. 마목 중
(3) 개정)

금융 관련 법령의 명칭

개정 (12/5 개정 및 시행,
제7조 제2항 제15호 개정)

○ 주요출자자의 요건으로 다음의 내용을 삽입

- － 최근 5년간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인·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주요출자자의 요건에서 제외

○ 위탁회사 임원의 자격을 규제하는 법률 조항에서 열거된 금융 관련 법령 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명칭을 수정

- － 지난 2002년 8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일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합되고 나머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분리되었음
 -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추가했음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시행규칙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
요건 (10/2 개정 및 시행,
제1조의2 신설)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에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 요건 설명
 -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 종목 이상일 것
 -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당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서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당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란 당해 종목의 직전 3월
의 평균 시가총액을 당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월의 평균 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임
 -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 합계가 당해 지수의 시가총액 합계의 60%를 초과하
지 아니할 것
 -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위 25%에 해
당하는 종목의 평균 거래대금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평균 거래대금이란 최초 설정일부터 3월 전의 기간 중 월
평균을 지칭함

※ 위 내용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
용됨

신탁계약 해지의 승인
(제9조 신설)

-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해서 100억원에 미달할 경우 금
감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
(제15조 신설)

- 지정판매회사가 신탁금을 설정단위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유가증권 등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
피한 사유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
 - －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판매회사가 설정단위를 구
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당해 투자자의 계좌에 보유 중
인 자산 상태로 환급할 수 있음
 - 지정판매회사 명의 계좌인 공동계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위 내용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감독규정

증권투자신탁회사의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5/1 개정 및 시행,
제30조의11 개정)

위탁회사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8/1 개정 및 시행,
제41조 제3항 개정)

MMF 운용 제한
(제49조 개정)

- 적기시정조치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투신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을 경영평가 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 투신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 단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
 -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함
- 후순위채권을 편출입(펀드 고유재산과 투신운용사 고유재산간 거래)하는 경우, 시가가 아닌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시가에 의한 후순위채권 편출입은 펀드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수익자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권을 편출입할 경우 펀드는 동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매매하였음
 - 신탁재산에 편입된 후순위채권은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의 시가 매입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초래
 - － 편출입에 따른 펀드 자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후순위채권 편출입의 경우, 투신운용사 내부에 설립된 유가증권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MMF 신탁재산 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MMF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어음의 조건을 강화하였음
 - － MMF에 편입될 수 있는 국채 및 통안증권의 잔존만기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MMF의 잔존만기 산정시 국채 및 통안증권 포함 허용
 - 투신사는 국채 및 통안증권을 포함하여 MMF 신탁재산 전체의 잔존만기가 120일 이하가 되도록 운용
 - 국채 및 통안증권을 포함하지 않은 MMF의 경우 신탁재산 전체의 잔존만기가 90일 이하가 되도록 운용
 - － 잔존만기 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환일까지의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기업어음만을 MMF에 편입할 수 있음
 -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A3- 이상) 제한만이 있었으나, 잔존만기 조건을 추가
 - 잔존만기에 대한 제한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후 MMF에 신규로 편입되는 기업어음부터 적용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신탁약관의
제정·변경·보고 등
(제55조의4 신설)

-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투자신탁협회로 이전됨에 따라, 표준신탁약관 관련 규정을 정비
 - － 투자신탁협회가 표준신탁약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제·개정 이유 및 변경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 투자신탁협회가 제·개정된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가증권옵션의
위험액 산정방법
(제58조의5 신설)

- 주식옵션 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 산정 방법 등을 마련하였음
 - － 한국증권거래소가 주식옵션 시장을 개설함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주식옵션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을 신설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항 1의2는 주식옵션 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과 총위험액 산정 방법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주식옵션 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거래유형별 위험액은 동일한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주식옵션의 미결제약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 거래유형이란 콜옵션매수, 콜옵션매도, 풋옵션매수, 풋옵션매도
 - 미결제약정금액은 기초주권의 가격, 기초주권 수량, 계약수량을 곱한 금액임
 - － 주식옵션 거래에 따르는 총위험액은 거래유형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거래유형별 주식옵션의 손익이 상쇄되는 부분을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위험액은 주식콜옵션매수 및 주식풋옵션매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과 주식콜옵션매도 및 주식풋옵션매수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절대치임
 - － 동일한 내용으로 증권투자회사법 감독규정 제15조의2 신설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평가
(10/1 개정 및 시행,
제67조 단서 조항 신설)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현투운용 신탁재산의
연계대출금 축소 기한
연장 (부칙 제2조 신설)

- 현대투자신탁운용(주) 신탁재산의 연계대출금 축소 기한을 2002년 9월 30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연장함
 - － 현투증권 외자 유치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동사의 자회사인 현투운용의 신탁재산 연계대출금 축소 기한을 연장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부도채권에 대한 상각비율
(8/1 개정, 별지 제14호)

- 부도채권에 대한 최소 의무 상각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초 자산에 부실 요인이 발생한 자산담보부 증권의 상각 기준 마련
 - － 과소 상각에 따라 환매신청을 늦게 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소 의무 상각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음
 - 일반기업의 경우 최소 의무 상각비율을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work-out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동 상각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
 - － 자산담보부 증권의 경우 원리금 회수 가능성 및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위원회에서 상각비율을 결정

2.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증권투자회사법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중간분배 (4/27 개정,
7/28 시행, 제79조의6
신설)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중 1회 이상 주주들에게 유가증권 또는 금전을 중간분배할 수 있음
 - － 중간분배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 중간분배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름

동법 시행령

증권투자회사
최저순자산액 상향 조정
(9/26 개정 및 시행,
제4조 개정)

-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 －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간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게 됨

투자 등록시 증권투자회사
최저자본금 하향 조정
(제6조 개정)

- 투자 등록시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4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
 - － 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 기대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특례 중
기업집단의 정의
(제36조 제2항 신설)

- 대기업 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기업들 중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칭함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의
중간 분배
(제36조의7 신설)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의 중간 분배시 주주에게 유가증권 또는 금전으로 분배가 가능하며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익을 초과하여 금전 분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분배 방법 및 시기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내용임

3. 증권거래법령 관련 규정

〈증권업 감독규정〉

증권업 감독규정

외국인 투자자집단 정의
(1/4 개정 및 시행,
제7-5조 제2항 제9호
신설)

외국인 투자자집단 소속
투자자들의 일괄매매 인정
(제7-8조 제3항 및
제7-10조 제3항 신설)

후순위차입금
중도 상환 요건 완화
(2/22 개정 및 시행,
제2-15조 개정)

-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다수 외국인 (외국 법인 등에 한함)의 투자 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당해 외국인들을 외국인 투자자집단이라고 정의
-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는 자기 명의로 주식을 일괄매매한 경우 매매 익일까지 투자자집단의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음
 - － 이 경우 배분 대상 외국인은 대표투자자가 거래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자에 한함
 - －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은 대표투자자를 지정하여 투자자집단으로 금감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 － 지금까지 외국인이 투자 주체인 해외 펀드들은 국내 기관투자자와 달리 각각 펀드별로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하고 등록된 명의로 계좌를 각각 개설해 계좌별로 매매하도록 돼 있음
 - 이는 같은 날 유가증권을 사더라도 각각의 계좌 명의로 주문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매입과 매각시 가격 차가 발생하여 펀드별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지적돼 왔음
-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금 중도 상환 요건을 당해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상환 후 영업용순자산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상환재원이나 금리요건 등에 관계 없이 중도 상환을 허용
 - － 상환 후 영업용순자산비율이 150% 이상이나 200%에 미달할 경우, 상환재원이나 금리요건 등 현행 중도 상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도 상환 허용
 - 중도 상환하는 후순위차입금의 잔존만기보다 길고 발행조건이 유리한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명문화
 - － 상환 후 영업용순자산비율이 150%에 미달할 경우, 중도 상환을 불허

〈증권업 감독규정〉

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충 예방
(3/20 개정 및 시행,
제4-16조 개정)

- 증권회사 및 애널리스트의 매매권유와 관련된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였음
 - － 증권회사가 특별한 사유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고객에게 추천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특별한 사유란 회사채 지급보증,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M&A 업무 대상,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등임
 - － 애널리스트 등이 자신이 추천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채권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함
 - 애널리스트 등은 조사 분석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범위, 공시방법, 내용 등을 증권업협회가 결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증권회사가 특정 종목을 추천한 대가로 추천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 등 권유 대상 유가증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신용거래 대상에
상장지수펀드 포함
(12/18 개정 및 시행,
제5-8조 제1항, 제5-11조,
제5-14조 개정)

-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수익증권형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 － ETF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가격 산정 등 담보 관리 방법 등을 주식과 동일하게 규정함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투자자집단의 유가증권
매매 후 배분 내역 보고
(1/4 개정 및 시행,
제7-13조 제1항 개정)

- 외국인 투자자집단 내 외국인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배분 내역을 매매 익일까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4. 보험업법령 관련 규정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

보험업법 감독규정

특별계정의 공시대상 설정
및 비교공시 의무화
(4/27 개정, 5/1 시행,
제 52조 개정 및 신설)

특별계정 자산·부채의
평가 (제 129조 제2항
개정)

동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기재사항 구체화
(4/27 개정, 5/1 시행,
제57조 제1항 개정)

- 보험사들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자산구성 내역 및 수익률 등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의무화하였음
 - －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은 변액보험, 퇴직보험, 개인연금 등임
 - － 변액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다음의 사항을 일별로 공시하여야 함
 - 매월말 현재의 변액보험 계정의 자산, 부채 및 자산 구성 내역과 매일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 변액보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 －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자산구성 내역 및 수익률 등의 보험사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시토록 하였음
 - 공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의 설정은 손해보험협회에 일임
- 특별계정 자산 중 유가증권이외의 재산을 기업회계기준,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평가하도록 명시하였음
 - － 특별계정 자산 중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평가함
-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실적 외에도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변액보험의 개요 및 상품구조, 운용보수 및 수수료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5. 기타 펀드 관련 제도

〈기타 펀드 관련 제도〉

가. MMF 매각한도
존재 여부 관련
금융감독원 의견
(2/25)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신업무를 인수한 이후 인가된 신종MMF, 클린MMF 등에 대해서는 매각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 － MMF 매각한도는 재정경제부에서 약관을 인가한 MMF에 대한 설정한도로,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인가한 MMF에만 적용됨
 -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인가한 MMF는 구MMF, 신MMF, 신단기공사채, S-MMF 등이 있음
 - －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신업무를 인수한 1998년 4월 이후 인가된 신종MMF, 클린MMF 등에 대해서는 한도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환(행사)가액 조정 기준
마련 (4/1 개정 및 시행,
제61조의2 신설)

- CB·BW의 과도한 전환(행사)가액 조정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기준을 마련
 - － CB·BW 발행시 이사회에서 전환(행사)가액의 조정 사유, 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조정 가능

CB, BW 발행제도 개선
(제62조 개정)

-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변칙적인 해외 증권 발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CB 및 BW 발행제도를 개선
 - －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공모로 발행된 CB, BW에 대해서는 전환금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공모로 인정되지 않는 CB, BW의 해외 발행에 대해서는 1년의 전환금지 기간을 적용
 - － 변칙적인 해외 증권 발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해외 CB, BW 발행을 공모로 인정
 - 외국 감독기관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1년간 내국인의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외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모로 인정

공시절차 간소화
(제135조 개정)

-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증권투자회사에 한하여 5% rule에 따른 매매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면제
 - －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량보유·변동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할 때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 － 거래소나 Kosdaq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그 보유 상황과 지분변동 상황을 금감위 등에 보고하여야 함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다. 투자신탁 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표준신탁약관 및
시리즈펀드에 대한 정의
(7/27 개정 및 시행,
제1-2조 제1항의 9 및 10
신설)

배타적 우선판매권의 심의
(제3-5조 신설 및 개정)

표준신탁약관 관련
세부사항 (제5-1조,
제5-2조, 제5-3조 신설)

시리즈펀드의 보고
(제5-4조 신설)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신탁약관 및 시리즈펀드에 대해 정의하였음
 -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권한이 투자신탁협회로 이전됨에 따라 협회가 제정하는 신탁약관을 표준신탁약관으로 정의하였음
 - －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이미 보고된 신탁약관의 내용과 동일하여 별도의 보고 없이 제정 가능한 투자신탁을 시리즈펀드로 규정하였음
- 배타적 우선판매권의 심의 기간을 개정하였으며,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음
 - － 상품심의위원회는 배타적 우선판매권의 등록 심의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위탁회사 등에 통지
 - － 우선판매권 등록신청을 한 위탁회사 등은 당해 투자신탁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 1인에 대하여 해당 상품을 대상으로 한 상품심의위원회 참석 배제를 요청할 수 있음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 표준신탁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
 - 표준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투자신탁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금감위에 보고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및 변경은 상품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을 경우 가능
 - 의결된 표준신탁약관은 금감위에 보고된 후 효력이 발생
 - － 신탁약관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
 -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의하여 약관을 제정할 경우 운용사는 최초 설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탁약관, 신탁재산의 운용 계획, 수익증권 발행 계획 등을 투자신탁협회에 보고
 - 개정 표준신탁약관에 위배되는 약관의 경우 비표준 상품으로 투신운용사는 약관 제정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
 -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할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항 등을 투자신탁협회에 보고
 - 변경된 약관이 새로이 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내용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
- 위탁회사가 제정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으로서 시리즈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신탁협회에 보고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라. 표준신탁약관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7/25 제정)

- 투자신탁협회는 2002년 7월 25일 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MMF의 표준신탁과 수익증권 저축약관 등 5개의 표준신탁약관을 새로이 제정하였음

영업일의 정의
(제2조 제10호) 단서 신설

- 주5일 근무제를 반영하여 영업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여 영업일을 새롭게 정의

수익증권 환매금 지급일
명시 (제16조 제2항 개정)

- 수익증권 환매금 지급일을 표준약관에 명확히 표시하였음
 - － 채권투자신탁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그리고 MMF의 경우 환매청구일 당일 환매금 지급

신탁재산의 운용 (제20조 제1항 제6호 개정)

- 신탁재산의 투자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국채선물 옵션 및 개별주식 옵션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의 투자 규모는 채권 투자금액, CD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 매수거래 미결제 약정액, 국채선물 콜옵션 매수 지불프리미엄, 국채선물 풋옵션 매도 거래규모를 합산
 -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주가지수 옵션 및 주식 옵션 매수 지불프리미엄, 주가지수 풋옵션 매도 거래규모, 주식 풋옵션 거래규모 등을 추가로 고려
 - 주가지수[국채선물] 풋옵션 매도 거래규모는 주가지수 옵션[국채선물] 행사가격×거래수량×10만원[1만원]
 - 주식 풋옵션 거래규모는 주식 옵션 행사가격×거래수량× 기초주권수량

MMF 투자제한 철폐
(MMF 표준약관 제20조 1항 및 2항)

-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및 통안증권의 잔존만기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국채 및 통안증권 투자 제한을 철폐하였음
 - － MMF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 국채 및 통안증권 포함 가능
 - 국채 및 통안증권을 포함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산정할 경우 동 잔존만기가 120일 이하가 되도록 운용
 - 국채 및 통안증권을 포함하지 않고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산정할 경우 동 잔존만기가 90일 이하가 되도록 운용
 - － 국채 및 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마. 자산운용업법 제정 (안)
입법 예고 (9/28)

○ 제정이유

-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함으로써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원칙을 구현
 -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대상 확대 등 자산운용산업 관련된 규제를 전면 개선하여 자산운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간접투자로 정의
 -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금융행위는 자산운용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
- － 간접투자 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간접투자 증권의 판매 및 환매 등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은 금감위의 허가·등록을 받은 후에 해당 업무 영위 가능
- －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와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감위에 보고한 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함
- － 증권투자회사는 발기인이 정관 등을 작성한 후 상법상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하여 설립한 후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함
- － 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등을 설정하여 건전하게 재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상황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함
 - 한편,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간접투자기구 운용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함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라. 자산운용업법 제정 (안)
입법 예고 (9/28)

- － 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자산 보관을 담당하는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 지시가 법령,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
 - 그 위반이 있는 경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등에 시정을 요구토록 함
- －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 금전신탁 업무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각각 은행 및 보험업자가 자산운용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하지만 자산운용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자산운용업법이 우선되어 적용되도록 함
- － 자산운용업의 일종으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관련 규정을 자산운용업법으로 이관
 - 자문 및 일임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규제를 강화함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바. 상장지수펀드 관련
유권해석**

상장지수펀드 관련
업계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 답변 내용

- 위탁회사 임직원이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은 속성상 개별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띄지만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따르는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위탁회사 임직원이 매매 가능함
-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에서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지?
 - － 투자는 가능하나, 현행 법에 따르면 주식 의무 편입비율 등에는 합산되지 않음

〈기타 펀드 관련 제도〉

**사. 개인연금저축 관련
업계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 답변 내용**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일 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도 해지로 보지 않고 세제 혜택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제 혜택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음

※ 2001년부터 금융기관간 개인연금저축을 계약 이전하는 경우 중도 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음

〈기타 펀드 관련 제도〉

아. 상장지수펀드 관련
업계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 답변 내용

- 증권투자신탁형 및 증권투자회사형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의 경우 증권회사 임직원 등이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지?
 - － 증권투자신탁형 ETF의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증권회사 임직원 등이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음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수익증권을 매매할 경우 증권거래법 제42조의 유가증권 매매 거래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 증권투자회사형 ETF의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금감위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으면 매매가 가능함
- 증권회사 임직원 등이 모집·청약을 통해 ETF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ETF 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에 따르면 증권회사 임직원 등이 모집·청약을 통해 ETF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ETF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허용함
- 증권투자신탁형 ETF의 설정시 수익자가 납입한 신탁금 등인 주식 바스켓을 ETF에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 － 증권투자신탁형 ETF의 설정 및 환매시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명의 이전 (양도 행위)이 발생하나, 신탁금 등을 주식 바스켓으로 납입해야 하는 ETF 상품의 특성상 이를 신탁관계로 이해해야 함
- 증권투자신탁형 ETF 증권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 －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바, 수익증권 형태의 ETF 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음

III

펀드산업 현황

펀드산업 현황 목차

1.	1월	III-1
2.	2월	III-47
3.	3월	III-85
4.	4월	III-131
5.	5월	III-167
6.	6월	III-207
7.	7월	III-239
8.	8월	III-273
9.	9월	III-317
10.	10월	III-355
11.	11월	III-399
12.	12월	III-439



1월

January

10대 주요 기사

1. MMF 장부가-시가 수익률 차이가 0.5% 이상시 시가 적용 (3일)
2. 법인세제 개정으로 증권투자회사의 회계 및 세법상 이익 불일치 해소 (3일)
3. 금감원-투신권 후순위채 손실 처리 신경전 (5일, 22일)
4. 투신사별 현대상선 CB 대손상각 처리 제각각 (8일, 9일, 21일)
5. 삼성생명 삼성투신운용 자회사 추진 (14일)
6. 투신-벤처 불공정거래 적발 (16일)
7. 투신권 주주 권한 행사 추진 (16일, 18일)
8. AIG와의 현투증권 매각 협상 결렬 선언 (19일, 21일, 22일)
9. 대우채 보상 펀드 주식형에서 채권형 전환으로 투신권 매물 압력 커질 듯 (21일)
10. 투신권 최초로 배타적 우선상품 판매권 인정 (23일)

◆ 1월 목차 (1/1-1/10)

1/1 [화]	신 정
1/2 [수]	○ 펀드 규모 영세 위험분산 한계
1/3 [목]	○ MMF 장부가-시가 수익률 차 0.5% 이상시 시가 적용 ○ 연기금 투자풀 투자 본격화 ○ 증권투자회사 법인세제 개정으로 회계 및 세법상 이익 불일치 해소
1/4 [금]	○ 11개 기금 연내 통폐합 ○ 연기금 주식투자 적극 나설 듯
1/5 [토]	○ 금융감독기능 정리 및 각종 검사 간소화 ○ 금감원-투신권 후순위채 손실 처리 신경전
1/6 [일]	
1/7 [월]	○ 은행 수신 지난 해 41조원 증가 ○ 현투증권 잠재부실 사후 보전
1/8 [화]	○ 투신사별 현대상선 CB 대손상각 처리 제각각 ○ 이달 말 첫 만기 도래 프라이머리CBO 상환 계획 문제 없을 듯
1/9 [수]	○ 보험보증기금 설립 추진 ○ 현대상선 CB 대손상각 처리 투신사 입장 제각각
1/10 [목]	○ 세종투신운용 해외 매각 무산 위기 ○ 미국계 투신사 국내 진출 계획 잇따라 수정

◆ 1월 목차 (1/11-1/20)

1/11 [금]	○ 단기금융 수신 비중 사상 최고 ○ 금감원 금융비리 조사국 설치 ○ 투신 MMF 수탁고 한 달만에 40조원 회복 ○ 한은 저금리 기조 유지
1/12 [토]	○ 외환은행 펀드관리 업무 분사
1/13 [일]	
1/14 [월]	○ 환매수수료 없는 펀드 발매하게 될 한투증권 ○ 삼성생명 삼성투신운용 자회사 추진 ○ 주은투신과 국은투신 합병 무산 ○ 현대투신 매각 협상 막판 진통
1/15 [화]	○ LG투신 경제상황에 따른 자금운용 펀드 출시 예정 ○ 자산운용사 투신사 전환 먹구름
1/16 [수]	○ 투자기업 경영 감시 강화하는 기관투자가 ○ 투신-벤처 불공정거래 적발
1/17 [목]	○ 은행신탁 아웃소싱 활성화 추진 미약 ○ 은행 원본보전신탁 사라진다
1/18 [금]	○ 현투증권 매각 막판 협상 쟁점 ○ 투신권 주주 권한 행사 추진
1/19 [토]	○ AIG와의 현투증권 매각 협상 결렬 선언 ○ 국민은행 자회사인 국은투신 매각 ○ 리젠트증권의 일은증권에 대한 흡수 합병을 인가한 금감위
1/20 [일]	

◆ 1월 목차 (1/21-1/31)

1/21 [월]	○ 투신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 ○ 대우채 보상 펀드 주식형에서 채권형 전환으로 투신권 매물 압력 커질 듯 ○ 국은투신운용 모건스탠리에 매각 ○ 채권형 펀드 내 부실채권 평가 주먹구구 ○ 현대 금융 3사 매각 급물살
1/22 [화]	○ 외국계 기업 3곳과 현투증권 매각 동시 협상 ○ 대형 투신사 후순위채 조기 상환 추진 ○ 은행 단기신탁에 자금 몰린다 ○ 은행권 후순위채 약 16조원 처리 고민 ○ 연기금 투자폴 예탁 한 달만에 1조원 넘어
1/23 [수]	○ 국은투신 모건스탠리에 매각 ○ 장단기 금리차 계속 커져 ○ 삼성·LG투신사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인정
1/24 [목]	○ PCA 투신사 예비 허가 신청 ○ 투신 주식형 신상품 쏟아진다 ○ BBB 등급 채권도 인기 높다 ○ 차이나펀드 판매 외국계 우위 ○ 세종증권 투신사 지분 청산 검토 ○ 국민연금 생활자금 1,800억원 휴면
1/25 [금]	○ 금융회사 분식회계 가중 처벌
1/26 [토]	○ 투신시장 외자 진출 본격화
1/27 [일]	
1/28 [월]	○ 한빛투신 대형 투신사로 도약 기대 ○ 투신운용사도 4월부터 적기시정조치 ○ ING생명 자산 주은투신에 위탁 관리
1/29 [화]	○ 계열투신 자산위탁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금감원 ○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들 중 한국 가장 선호
1/30 [수]	○ 교보생명 자산 10조원 위탁 운용 추진 ○ 펀드매니저들 37% 유럽 투자비중 증대 기대
1/31 [목]	○ 투신사별 향후 시장 전망 차이 뚜렷

♣ 2001년 1월 2일 수요일

○ 펀드 규모 영세 위험분산 한계

- 12월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말 현재 국내 펀드 수는 1만1,677개로 미국 8,027개, 일본 2,884개, 영국 1,799개, 프랑스 7,065개, 타이완 280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펀드당 평균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 (\$1,000만)를 기준으로 미국 (\$9억500만)이 84.6배, 일본 (\$1억7,000만)이 15.9배, 영국 (\$2억1,000만)이 19.6배, 타이완 (\$1억3,900만)이 13배임
- 한은은 펀드 규모가 영세하면 금리 변동과 같은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어려우며,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을 중화하기 위한 현물 보유분의 일정액을 선물로 보유하는 헤지투자도 곤란하다고 밝혔음



♣ 2002년 1월 3일 목요일 (1)

○ 연기금 투자폴 투자 본격화

- 기획예산처는 지난 달 12일 발족한 연기금 투자폴에서 보름 동안 22개 연기금에서 7,691억원이 예탁돼 운용 중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 운용 중인 자금 중 단기자금 3,926억원 (16개 기금)은 MMF에 투자됐으며, 중기 자금 3,265억원 (7개 기금)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됐음
- 장기자금 500억원 (1개 기금)은 채권혼합형 펀드에 투자돼 우량채권과 상장·등록 주식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 증권투자회사 법인세제 개정으로 회계 및 세법상 이익 불일치 해소

- 지난 연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결산 시점에서 회계 및 세무상 이익이 일치하지 않아 배당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내포돼 있었음
 -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결산 익일에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납부 법인세액 확정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즉시 배당금 지급 가능함
 - 그러나, 증권투자회사는 배당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납부세액의 확정까지 시일이 걸림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지연됨
 - 게다가 납부세액 확정시까지 상당기간 환매를 제한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동안 환매를 요구하는 주주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입고객의 환매 청구 및 신규·추가 매입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했음
-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 및 세무상의 이익이 일치되어 기존의 문제가 해소됨
 - 증권투자회사의 취득 주식 및 증권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 산정시 영으로 계산하여 회계상의 계산과 일치하도록 조정했음
 - 증권투자회사의 미실현수익을 세무회계에 반영함으로써 펀드의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일치시켜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투자 분배를 실현하도록 했음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시 시가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켜 증권투자회사의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을 일치시켰음
 -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결산 시점 이후 세무조정이나 납부 법인세액 확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즉시 배당금 지급 가능
- 이에 따라 증권투자회사 시장에 참여한 고객들의 불이익 (환매 지연 등)에 대한 우려도 희석화될 전망
 - 주식시장에 투입된 액수는 투자폴펀드 운용 약관에 의해 장기자금의 40% 이내인 200억원 미만임
- 기금 유형별 예탁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성 기금 (18개)의 경우 만기 도래되는 여유자금과 사업성 대기자금 6,386억원이 투자폴에 예탁됐음
 - 연금과 금융성 기금 (4개)은 여유자금 중 일부인 1,305억원을 투자폴에 예탁했음

♣ 2002년 1월 3일 목요일 [2]

○ MMF 장부가-시가 수익률 차 0.5% 이상시 시가 적용

- 지난 2001년 7월 4일 적용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에 의해 올 1월부터 MMF의 장부가와 시가간 수익률 괴리가 0.5% 이상시 시가로 적용해야 함
 - 지난 2001년 7월 4일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의 개정시 지난 해 7월부터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MMF 장부가와 시가간 수익률 차가 0.75% 이상 발생시 시가로 적용해야 했었음
- 그러나, 기존에 설정된 MMF 중 수익률 차이가 0.5%~0.75%였던 펀드는 향후 3개월 간 시가 적용이 유예되고, 0.5% 미만이었던 펀드가 새롭게 0.5%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와 신규펀드는 즉시 시가를 반영해야 됨
- 이에 따라 향후 MMF는 금리 변동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2002년 1월 4일 금요일

○ 11개 기금 연내 통폐합

- 올해 11개 기금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될 예정이며, 61개에 이르는 모든 기금의 운용이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되는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기획예산처는 1월 3일 지난 해 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예에 따라 올해부터 기금제도가 이와 같이 바뀔 것이라고 밝힘
- 올해 폐지되는 기금은 우체국보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염안정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등 모두 5개로 3월까지 폐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임
 - 또,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될 예정임

○ 연기금 주식투자 적극 나설 듯

- 연기금들이 올해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주식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 연기금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조정장을 멈추고 대형 블루칩 중심의 대세 상승장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연기금마다 대규모 주식투자 채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
-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주식 직접투자 규모를 6,000억원,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 그리고, 투자자문사를 통한 국내 주식 외주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정지었음
 - 아울러, 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2,000억원과 지난 해 시행하지 못한 해외투자과 벤처투자에 각각 5,000억원과 1,000억원씩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사학연금은 올해 기금 총액의 10%인 5,000억원은 간접투자하고 5%인 2,500억원은 직접투자할 방침이며, 공무원연금은 지난 해 1,000억원에 그쳤던 주식투자 규모를 올해 1,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교원공제도 지난 해 4,000억원이던 주식투자분을 올해는 5,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해짐

♣ 2002년 1월 5일 토요일

○ 금융감독기능 정리 및 각종 검사 간소화

- 진념 부총리는 1월 4일 2002년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정부는 감독기능을 정리하고 각종 검사를 서면으로 대체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진 부총리는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은행들이 기업보다 가계 여신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대출 채권은 물론 주식 관련 상품에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금감원-투신권 후순위채 손실 처리 신경전

- 투신사들은 연초 증시 상승의 기쁨 속에서도 후순위채 편입 펀드의 환매자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음
 - 투신사들은 보유한 후순위채 7조6,000억원의 손실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 금감원이 최근 평가기관에 의뢰해 후순위채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전체 후순위채 7조6,000억원의 30% 정도인 2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후순위채 만기가 길게는 10년짜리도 있다는 것만 믿고 투신사들이 책임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언급하고 현 경영진이 지금부터라도 손실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 결국 금감원과 투신사들은 올해부터 후순위채에 대한 예상 손실 규모를 각 투신사 책임 하에 평가하고 매년 일정률씩 펀드 손실을 상각하기로 했다고 밝힘
 - 금감원은 일부 투신사의 경우 손실처리 계획을 각서 형태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전체 투신사들이 약속대로 손실분을 미리 해소해 나갈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짐
 - 한 투신사 관계자는 투신사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금감원의 획일적인 대책 요구에 불만을 토로했음
-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후순위채 손실에 대비해 1조1,000억원을 은행에 담보로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2002년 1월 7일 월요일

○ 은행 수신 지난 해 41조원 증가

-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10개 시중은행 (제일은행은 9월 말 현재) 전체 수신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41조5,687억원 늘어난 459조9,928억원에 이릅니다
 - 이 같은 수신 증가 규모는 같은 기간 투신권으로 유입된 순유입액 14조553억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임
 - 지난 한 해 동안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하반기 들어 시중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투신 채권 상품에서 유출된 자금이 은행권으로 상당부분 유입됐기 때문
-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지난 해 11조6,307억원이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음
 - 은행별 총 수신 규모는 국민은행 136조8,400억원, 한빛은행 54조7,111억원, 조흥은행 45조8,657억원, 신한은행 43조3,419억원, 하나은행 43조331억원, 기업은행 39조9,058억원 순임

○ 현투증권 잠재부실 사후 보전

- 정부는 현투증권의 원매자인 AIG 컨소시엄에 제일은행 매각 당시 포함됐던 'Indemnification' 조항을 적용하여 소송 등으로 인한 잠재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음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1월 6일 현투 매각 협상과 관련하여 잠재부실의 사후보전을 놓고 AIG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물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언급
 - 이위원장은 뉴브리지캐피탈에 제일은행을 매각할 때도 풋백옵션과 'Indemnification' 조항을 넣었다며 Indemnification의 범주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
- 'Indemnification' 이란 계약 전 매각 대상 금융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 있는 부분이 계약 후 손실로 확정될 때 이를 매도자가 보상해 주는 계약 조문의 일종임

♣ 2002년 1월 8일 화요일

○ 투신사별 현대상선 CB 대손상각 처리 제각각

- 투신사 수익증권에 편입된 현대상선 CB에 대한 상각 처리 여부가 투신사별로 엇갈리고 있음
 - 동양투신운용은 펀드수익률의 급락을 무릅쓰고 약 3백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CB 및 회사채를 액면기준 평균 60%까지 상각 처리한 반면, 한국투신 등 다른 투신사들은 상각시기를 연기했음
- 동양투신의 경우 지난 해 12월 31일 만기가 돌아온 현대상선 CB가 상환되지 않자 유가증권 평가위원회를 열고 현대상선 CB와 회사채를 사실상 부도채권으로 간주하고 평균 50% 상각 처리했음
 - 펀드평가기관인 제로인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동양투신의 '비너스알찬주식0607호 펀드'의 수익률이 지난 한 주간 9.54%나 떨어졌음
 - 현대상선 채권 상각의 영향을 받은 동양투신의 펀드는 15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 동양투신 관계자는 만기 때 상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현대상선의 자금운용상 미스매칭에 따른 자금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
- 지난 해 말 만기 도래한 2,470억원 규모의 CB를 갚지 못한 현대상선은 전용터미널 매각과 LNG운반선의 장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ABS 5천억원 발행을 통해 이달 말 부채를 상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임
- 한국투신 등 타투신사들은 현대상선 채권의 상각 여부를 이달 말 이후로 연기하고 채권단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임

○ 이달 말 첫 만기 도래 프라이머리CBO 상환 계획 문제 없을 듯

- 중견기업들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프라이머리CBO가 이달 말 처음으로 4,000억원 가량이 만기 도래하지만 대다수 발행기업들이 자체 상환할 계획이어서 자금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 이는 LG투자증권이 지난 2000년 8월 발행한 1조5,000억원의 프라이머리CBO 가운데 3,775억원이 오는 1월 31일 만기를 맞게 됨
 -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CBO도 같은 날 만기가 돼 프라이머리CBO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채권은 총 4,075억원에 이르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이 달 중 만기 도래하는 4,075억원의 프라이머리CBO 가운데 1,400억원 (29%)만이 차환발행을 위해 보증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기업들이 전액 상환할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
 - 그는 자체 상환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은 당초 예상치보다 매우 높은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 보험보증기금 설립 추진

- 재경부 관계자는 1월 8일 현행 부실보험사 처리방식은 보험수익자 권리를 제한하고 공적자금 과다투입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으며 보험보증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
 - 이 관계자는 기금은 보험업계 출연을 통해 마련하고 출연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우선 부실손해보험사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
 - 이 같은 보험보증기금 설립 방안은 지난 1월 7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보증기금이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부실보험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자, 연금수혜자, 수익자에 대한 연금과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 현대상선 CB 대손상각 처리 투신사 입장 제각각

- 부실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 투신사들이 대손처리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
 - 동양투신은 최근 일부 펀드에서 보유 중인 현대상선 CB가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상황이 되지 않자 해당 채권에 대해 60% 이상 대손상각을 실시했음
 - 그러나, 한국투신, 삼성투신, 교보투신, 조흥투신 등 현대상선 CB를 펀드에 편입하고 있는 다른 투신사들은 전혀 상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임
- 투신업법 감독규정 63조와 관련 시행세칙에 따르면 투신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부실우려단계, 부실발생단계, 부실개선단계, 부실악화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평가기준을 정해 놓고 있음
 - 이 중 현대상선 CB처럼 만기시 원리금 상황이 되지 않은 경우는 부실발생단계에 해당되어 원리금의 최소 50% 이상에서 투신사가 정하는 비율대로 상각 처리하도록 돼 있음
- 동양투신 관계자는 부실이 발생했는데도 상각 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일부 고객이 이탈한 후 실제 원리금 상황이 되지 않으면 펀드에 남아 있는 고객이 손해를 뒤집어 쓰거나 투신사가 떠안게 된다고 언급
 - 고객 형평성 차원과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고,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상각 처리를 하지 않은 투신 관계자들은 현대상선은 자금마련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지급불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언급
 - 원리금의 회수가 곤란한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라면 부실발생단계로 볼 수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연체일 뿐이어서 굳이 상각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

♣ 2002년 1월 10일 목요일

○ 세종투신운용 해외 매각 무산 위기

- 세종증권과 국제적인 투자금융회사인 모건스탠리간 진행돼 왔던 세종투신운용의 해외 매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
 - 세종증권 관계자는 그 동안 모건스탠리와 벌여 왔던 세종투신운용 매각 협상이 지난 해 말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협상 과정에서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이에 따라 해외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세종증권은 자체 보유한 세종투신운용 지분 99% 중 80% 이상을 모건스탠리에 매각하는 협상을 지난 해 10월부터 진행해 오다 지난 해 말 이후 협상이 전면 중단됐음

○ 미국계 투신사 국내 진출 계획 잇따라 수정

- 올해 국내 투신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계 투신운용사들이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등 국내 진출 계획을 잇따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올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이 확실시되던 메릴린치와 피델리티는 당초 예정됐던 국내 진출을 유보하고 시장을 좀 더 관망할 것으로 전해짐
 - 메릴린치의 경우 서울 사무소 폐쇄를 결정했다가 최근 폐쇄 결정을 번복하는 등 관련 외국계 투신사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 이처럼 미국계 투신사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유보 또는 포기한 것은 향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기 보다는 국내 시장 진출의 요건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계 투신사들의 본사에서는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금감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지난 해 국내 시장 진출을 검토했던 스커더캠퍼는 미국 본사의 내부통제기준상 본사에서 직접 운용하여야 한다는 방침 때문에 국내 진출을 포기한 전례가 있음
- 미국계 투신운용사들의 이러한 국내 시장 진출 움직임과는 달리 자딘 플레밍,프루덴셜 등 유럽계 투신운용사들의 국내 시장 진출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지난 해 예비인가를 받은 도이치투신은 스커더캠퍼를 인수하고 조만간 본인가를 받아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임

♣ 2002년 1월 11일 금요일 (1)

○ 단기금융 수신 비중 사상 최고

- 금융권 단기상품 수신 비중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시중자금의 단기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장단기 금리 및 금융상품의 금리 차가 최저 수준인데다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지지 않으면서 장기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임
 - 금융당국은 시중자금의 단기화로 빚어질 수 있는 시장 변동성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시중자금 장기화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해 말 현재 은행, 투신 등 전 금융권의 수신 금액은 756조원이며, 이 중 6개월 미만 단기 수신 규모는 339조원으로 44.8%에 달해 단기 수신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 금융권 장단기 수신 비중 추이 (자료: 금감원)

구 분		99/12	00/12	01/6	01/12
비중 (%)	단기	38.0	40.4	42.6	44.8
	장기	62.0	59.6	57.4	55.2
금액 (단위: 1조원)	단기	265	275	307	339
	장기	433	405	413	417

- * 단기 수신은 은행권에서는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예금, CD, RP, 표지어음, 추가금전신탁이며, 투신권에서는 단기 채권형 펀드와 MMF, 증권사에서는 자발어음, CMA 등이 포함됨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단기상품 기준을 통상 1년 미만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수신 비중은 장기물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금융감독 당국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단기화 바람에 대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 오히려 금융산업이 두 차례의 금융구조조정 이후 한 단계 발전하면서 자금들이 경제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금융상품을 찾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자금의 단기화는 금융자금의 빈번한 이동으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부동산, 주식, 단기 채권 등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양상으로 이어져 자금이 투기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장단기 금리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하고 최근 장기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낮추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02년 1월 11일 금요일 (2)

○ 금감원 금융비리 조사국 설치

-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금융계에서 일어나는 뇌물수수, 청탁 등을 조사하는 특별조사국이 금감원에 설치될 전망이다
 - 정부는 1월 10일 한국기업연구소가 국무조정실 용역을 받아 완성한 '금융분야 부패방지대책'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음
-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관련 부패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를 금융비리 척결 원년으로 삼아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언급
 - 정부는 이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국을 설치하여 금감원은 물론 금융기관 내부의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조사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을 맡길 방침임
- 아울러 금감원 팀장급 이상 간부는 업무와 관련해 접촉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 목적 및 장소 등을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접촉 보고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투신 MMF 수탁고 한 달만에 40조원 회복

-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초 30조원대로 떨어진 MMF 수탁고가 1월 8일 현재 40조310억원으로 한 달여 만에 40조원대를 회복했음
 - 지난 해 11월 초 47조원대까지 늘었던 MMF는 당시 금리가 급등하고 연말 자금 수요까지 겹쳐 감소하기 시작해 12월 6일 (38조9,011억원) 30조원대로 떨어진 뒤 12월 말에 35조원대까지 밀렸었음
- 투신사 관계자들은 기관의 연초 자금사정이 비교적 넉넉한데다 채권형 펀드에서 빠진 자금이 주식형과 채권형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 일시적으로 MMF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
 - 아울러 당분간 MMF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은 저금리 기조 유지

-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1월 10일 '2002년 통화정책 방향'을 통해 지금은 저금리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음
 - 전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기상황을 보면 상승과 하강 양쪽 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저금리 기조를 바꿀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전 총재의 이날 저금리 강조 발언은 최근의 금리 상승 움직임이 자칫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저해하거나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2002년 1월 12일 토요일

○ 외환은행 펀드관리 업무 분사

- 외환은행은 펀드관리 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4월쯤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펀드관리 업무를 분사할 예정임
 - 분사되는 펀드관리 업무는 투신사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등의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회계기록 작성 및 보관, 자산운용사의 투자지침 준수 여부 감시, 증권투자회사의 회사 운영 등을 대행하는 것임
- 외환은행은 이 자회사 설립에 미국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자본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외환은행 관계자는 범세계적으로 증권수탁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미국 은행은 한국에서도 유가증권 거래에 필요한 관리업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에 자금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

♣ 2002년 1월 14일 월요일 [1]

○ 환매수수료 없는 펀드 발매하게 될 한투증권

- 고객이 펀드에 가입한 후 언제 돈을 찾아가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는 펀드가 투신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임
 - 한투증권은 판매 및 운용보수만 받는 '그랜드슬램' 펀드를 개발하여 오는 1월 21일 판매할 예정임
- '그랜드슬램' 펀드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액티브 주식형, 주식에 30% 이내만 투자하는 안정혼합형과 인덱스형 등으로 구분됨
 - 이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판매·운용보수를 기존 펀드의 절반 수준인 1.2~1.5%로 낮췄음
 - 대신 다른 펀드 상품들이 펀드 해지시에 수수료를 떼는 것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펀드 가입시점에서 먼저 떼도록 설계했음

○ 삼성생명 삼성투신운용 자회사 추진

- 삼성생명은 20조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부문의 아웃소싱 방침이 논란을 빚자 아예 운용사를 계열사로 거느리는 방안을 확정짓고 삼성투신운용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운용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용인력의 확보 또한 어려운데다 금감원의 부정적인 시각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운용사를 자회사로 두는 게 수십조원의 자산부문 위탁에 이로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
- 이 관계자는 삼성투신운용의 최대주주인 삼성증권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그는 비상장사 (삼성투신운용)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덧붙임
 - 상반기 안으로 자산부문의 위탁운용과 함께 지분인수 계획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
 - 현재 삼성투신운용의 지분은 삼성증권 65.4%, 삼성생명 3.6%, 삼성중공업 3.9%, 삼성화재 1.2%, 삼양종합금융 3.6%, 중소기업은행 1.8%, 우리사주 2.0%, 기타 18.5%임
-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운용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 이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음

♣ 2002년 1월 14일 월요일 (2)

○ 주은투신과 국은투신 합병 무산

- 1월 14일 투신권에 따르면 합병하기로 예정돼 있던 주은투신과 국은투신간의 합병이 무산됐으며 내부적으로 국은투신의 매각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은행측은 양사를 합병해도 별반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는 합병을 한다해도 수탁고가 주로 MMF 위주로 구성돼 있어 수탁고 증대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임
- 한편, 세종투신과 매각 협상을 벌였던 모건스탠리측이 국은투신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국민은행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업계에서는 세종투신보다 수탁고가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은투신을 인수하는 것이 모건스탠리측으로서는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모건스탠리가 세종증권과 협상 시한을 이달 말로 연기함으로써 시간을 좀 더 갖고 추이를 관망하기 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국은투신의 매각 가격이 세종투신보다는 훨씬 높고 국민은행에 향후 투신 상품 판매권에 관한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면서 모건스탠리와의 협상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현대투신 매각 협상 막판 진통

- 정부와 AIG 컨소시엄간 현대투신 매각 협상이 본계약 체결 후 드러나는 추가 부채에 대한 정부의 보증문제 때문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
 - AIG측은 인수한 뒤에 밝혀질 추가 부채에 대해 정부가 100% 보증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측은 보유지분 만큼인 45%만 보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 특히, 현대투신이 최근까지 물려있는 소송들 중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부채에 대해 정부의 책임 범위가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양측의 견해가 맞서고 있음

♣ 2002년 1월 15일 화요일

○ LG투신 경제상황에 따른 자금운용 펀드 출시 예정

- LG투신운용은 경제지표를 활용한 시스템 펀드인 'LG매크로 시스템 혼합펀드'를 개발하여 투신업계 처음으로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을 투신협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음
 - 이 상품은 국내 주식시장이 경제상황에 따라 방향성과 강도가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식시장 예측력이 높은 거시 경제지표에 따라 경제상황을 7개로 구분한 뒤 여기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특징임
 - 현물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선물투자와 단기 유동성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했음

○ 자산운용사 투신사 전환 먹구름

- 투신업계에 따르면 당초 자산운용사의 투신운용업 허가는 올 초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감원이 아직 뚜렷한 방침조차 세우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 지난 해 이근영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투신운용업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 하지만,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를 취급하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신사 수익증권 시장에 뛰어들 경우 증권투자회사 시장 자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들도 투신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등 투신사 전환을 위한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직 당국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언급

♣ 2002년 1월 16일 수요일

○ 투자기업 경영 감시 강화하는 기관투자가

-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경영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 부실경영으로 주주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회계장부열람이나 임시주총 소집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임
- 한국투신은 보유지분이 1% 이상인 기업 중 영업이익률과 주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는 기업 10여개를 골라 내달 중순까지 경영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투신 관계자는 주주총회 전에 답변서를 받아 검토한 뒤 답변 내용에 따라 공개서한을 보내거나 주총에 참석해 해당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언급
 - 부당 내부거래나 파격적인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 내용에 설득력이 없을 경우 국내외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해 회계장부 열람이나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 시장 관계자는 과거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주총장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상황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한 투신 관계자는 투신업계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할 전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힘

○ 투신-벤처 불공정거래 적발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한 투자신탁회사가 유명 벤처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15배나 비싸게 사들여 93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을 판 벤처기업 임원과 투신사 직원간에 금품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음
 - 서울지검은 투신사 직원에게 위에 언급한 불법거래 성사 대가로 7천만원을 건넨 모벤처기업 전 이사 김모씨 (29)와 돈을 받은 D투신사 직원 이모씨 (3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수재 혐의로 구속했음
 -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안모씨 (38)도 구속했음
- 검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12월 당시 모 벤처기업 이사였던 김씨는 자사 주식 3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주당 2만2천원씩 6억6천만원에 매입했음
 - 이 후 불과 한 달 만인 2000년 1월 초 D투신사에 주당 33만3천원에 팔아 넘겨 93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거래를 담당한 D투신사 대리 이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음

♣ 2002년 1월 17일 목요일

○ 은행신탁 아웃소싱 활성화 추진 미약

-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탁재산 아웃소싱이 실제와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유계정에서만 일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은행의 신탁재산 아웃소싱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선 신탁업법상 신탁재산 5% 이상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는 한도 규정 때문임
 - 더구나 은행권 신탁재산은 대출과 연계돼 있는 등 구조가 복잡한 데다 이로 인한 부실자산이 상당부분 편입돼 있어 아웃소싱을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은행들의 외부위탁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아웃소싱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선언적으로 신탁재산을 아웃소싱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신탁업법의 개정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은행 원본보전신탁 사라진다

- 금감원 관계자는 1월 16일 올해 중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원본보전 신탁상품의 수탁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은행에서 원본보전 신탁상품이 사라질 전망
 - 그 동안 은행 신탁계정에서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보전 신탁상품을 허용했으나, 원본보전 신탁상품은 근본적으로 신탁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에 어긋나는 상품이라고 덧붙임
- 현재 은행들에서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 등 3가지 종류의 원본보전 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해 말 현재 전체 수탁고는 20조236억원에 이릅니다

♣ 2002년 1월 18일 금요일 (1)

○ 투신권 주주 권한 행사 추진

- 기관투자가인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다가올 주주총회 시즌 때 투자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 감시 활동에 나설 예정임
 - 투신운용사들은 기업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회계 장부를 열람하고 주총에 직접 참석하며 다른 기관과 연대해 임원 선임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임
 - 이 같은 기관의 움직임은 펀드에 돈을 맡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정부와 시민단체도 기관투자가에 대해 경영감시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 시가기준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투신운용의 경우 지난 해 말 현재 총 발행주식 수의 1% 이상을 가진 50개 기업 가운데 경영 감시를 할 대상기업을 선별하고 있는 중임
 - 한투운용은 선정된 기업에는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을 믿을 수 없으면 언론을 통해 공개 서한을 보내거나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임
 - 한투운용의 조영제 사장은 의결권 행사시 국내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언급
- 대투운용의 경우도 시가가 약 3조원에 이르는 보유 주식을 바탕으로 지분 1% 이상인 20개 기업 중 일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고, 주가가 업종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 기업의 주총에 참가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대해 주주로서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음
- 현투운용도 지분을 0.5% 이상 가진 기업을 '집중 감시 기업'으로 정해 60여명의 펀드 매니저가 기업을 방문하거나 질의서를 보낸 뒤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감시대상으로는 싼 주식을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 대주주에게 부를 이전하거나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한 기업 등임
 - 아울러 상식에 어긋나게 특혜성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 동종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상승률이 낮은 기업 등임
 - 한편, 일각에서는 감시 대상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기관에 적지 않은 돈을 맡긴 고객이어서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2002년 1월 18일 금요일 [2]

○ 현투증권 매각 막판 협상 쟁점

- 현대증권, 현투증권 등 현대 3개 금융계열사에 대한 정부와 미국 AIG 컨소시엄간 공동투자 협상은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져 막바지 단계에 도달한 상태임
 - 그러나,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남은 핵심 쟁점은 현투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채 (1조6,700억원) 등 추가 부실 보전 범위, 현투증권 주식 완전감자 여부와 소액주주 보상대책, 현투증권·현투운용의 정부 보유지분에 대한 AIG측의 주식매수선택권 (콜옵션) 인정 방식 등임
 - 정부와 AIG는 현투증권 감자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부실 보전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최근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잠재부실에 대한 사후 보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하자가 있는 물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음
 - 이와 함께 시장 관계자들은 투자자 5~6곳으로 구성된 AIG 컨소시엄의 내부 입장 차이도 협상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2002년 1월 19일 토요일 (1)

○ AIG와의 현투증권 매각 협상 결렬 선언

- 1월 18일 금감위는 미국 AIG가 현대증권 및 현투증권을 매입하는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
 - 이에 따라 2000년 4월 이후 약 2년 동안 끌어오던 AIG의 현투증권 인수 협상은 완전 결렬됐음
- 이는 현투증권의 잠재부실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임
 - 한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잠재 부실에 대해 AIG와 공동으로 책임지자는 입장이었지만, AIG가 공동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협상 결렬 이유를 설명
 - AIG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이 중단됐으나 한국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정부의 우유부단한 협상 전략에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
 - 지난 2년 동안 AIG측의 요구에 끌려가다가 별다른 소득도 없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 한 시장 관계자는 경제 각료들이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수시로 흘리는 바람에 AIG가 오히려 더 여유를 부린 느낌이 있다며 정부 관료의 조급증도 협상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음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현재 해외 금융기관 세 곳에서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언급
 - 이 중 AIG 컨소시엄의 파트너였던 월버로스 그룹은 1월 18일 리먼브러더스를 통해 AIG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물색하겠다고 밝혔음
- 정부는 현대 금융 3사의 해외 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임
 -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빠진 현투증권 및 현투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증권 모두 새로운 자본과 경영진이 확보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현대투신증권의 미국 AIG 컨소시엄 협상 일지
 - 2000년 6월 22일: 현대그룹·AIG 인수 협상 시작을 위한 1차 MOU 체결
 - 동년 8월 28일: 1차 MOU 체결 (AIG측이 현대 금융 3사에 1조1,000억원 투자하기로 합의)
 - 동년 12월: 현대그룹·AIG 컨소시엄 협상 결렬
 - 2001년 1월 12일: AIG가 정부측에 공동출자 제안
 - 동년 8월 23일: 한국 정부가 AIG 제의를 수용하여 MOU 체결 (AIG가 1조1,000억원, 정부가 공적자금 9,000억원을 집어넣기로 합의)
 - 동년 12월: AIG는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증 요청,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거부 의사 표시
 - 2002년 1월 18일: AIG 인수 협상 종료 선언

♣ 2002년 1월 19일 토요일 (2)

○ 국민은행 자회사인 국은투신 매각

- 국민은행 관계자는 1월 18일 주택은행과의 합병 이후 국은투신과 주은투신을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최근 국은투신을 매각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현재 외국계 투자기관과 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음
- 국민은행은 국은투신을 매각하는 대신 주은투신을 투신 자회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임
 - 국은투신의 자본금은 300억원이며, 지난 1월 16일 현재 자산 운용규모는 2조 3,424억원임
 - 주은투신은 자본금 383억원에 자산 운용규모는 12조1,370억원에 이름

○ 리젠트증권의 일은증권에 대한 흡수 합병을 인가한 금감위

- 1월 18일 금감위는 리젠트증권의 일은증권 흡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힘
 - 합병 기일인 1월 22일 이후 회사명은 브릿지증권이며, 일은증권 보통주 1주당 리젠트증권 보통주 (액면가 1,000원) 2.8342주가 교부될 예정임
- 브릿지증권의 자산총계는 7,056억원으로 업계 17위이며, 자본 총계는 4,842억원으로 8위, 자본금은 1,164억원으로 21위로 각각 추정됨

♣ 2002년 1월 21일 월요일 (1)

○ 투신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

- 농협이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앵도수에즈은행과 함께 투신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농협중앙회는 프랑스 최대 은행인 크레디아그리콜앵도수에즈은행이 국내에 투신 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감원에 의사를 전달했으며, 농협중앙회에도 자본에 참여할 것을 제의해 농협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힘
- 농협과 크레디아그리콜앵도수에즈은행은 금감원이 승인하는 대로 투신운용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르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임
 - 농협은 새로 설립하는 투신운용 자회사에 20조원에 달하는 유가증권 운용을 맡길 예정임
- 농협 관계자는 크레디아그리콜앵도수에즈은행은 농업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농협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 온 곳이어서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언급
 - 전국에 860여개에 달하는 농협의 영업망을 활용한다면 새로 설립하는 투신운용사의 경쟁력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
- 크레디아그리콜앵도수에즈은행은 2000년 말 현재 총자산 \$4,984억에 달하는 프랑스 최대 은행임
 - 이 은행은 1894년 우리나라 농협과 유사한 크레디아그리콜로 출범한 후 1991년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으며, 1996년 앵도수에즈은행과 합병한 바 있음
 - 국내에서는 1978년 서울지점을 열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했음

○ 대우채 보상 펀드 주식형에서 채권형 전환으로 투신권 매물 압력 커질 듯

- 최근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우채 보상 펀드 (주식형 펀드)가 잇따라 채권형 펀드로 옮겨가고 있어 가뜩이나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이 투신사의 매물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지난 99년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한 대우채 펀드가 최근 연말부터 시작된 주가 강세에 힘입어 당시 대우채를 편입해 입은 손실을 만회함에 따라 다시 채권형으로 전환되고 있음
- 투신 관계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등 일부 법인과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대우채 보상 펀드가 주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자 안정적인 채권형 쪽으로 돌리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고 언급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고 있다고 덧붙임
- 투신권 전체로는 대우채 보상 펀드가 4,000~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투신권 관계자는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잠재물량이 상당한 만큼 당분간 투신권의 매물압력이 이어질 것이므로 주식시장이 조정기를 벗어나는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2002년 1월 21일 월요일 [2]

○ 채권형 펀드 내 부실채권 평가 주먹구구

- － 투신운용사들이 부실채권 평가를 제각각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 똑같은 회사채의 손실률을 펀드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연말 만기 때까지 상황이 안된 현대상선 CB의 경우 대손상각 처리가 투신사마다 달라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음
- － 투신운용사들은 금감원 감독규정인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부실채권을 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상각률을 결정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투신사들이 각 사의 재량으로 이를 구분하게 되어 있어 부실채권의 평가가 지나치게 주관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특히, 투신사 입장에서는 손실률을 제대로 반영하게 될 경우 펀드 수익률이 대폭 하락하게 되어 고객들의 대거 이탈 가능성이 있어 부실채권의 손실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
- －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부실채권 분류 기준 및 상각률

분류 단계	사유	대손 상각률
부실 우려 단계	· 이자 1회 연체 · 1개월 이상 조업 중단 · 최근 3개월 내 1차 부도 발생 · 주의거래처 및 황색거래처	· 신용평가등급 1단계 이상 낮춰 · 시가평가 수익률 적용
부실 발생 단계	· 부도 또는 지급불능 사태 · 회사정리 절차, 화의, 파산 신청 · 워크아웃,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기업 · 유가증권 원리금의 전부 혹은 일부 회수 곤란 예상	· 50% 이상 상각 (단, 워크아웃,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은 80% 이내)
부실 개선 단계	· 부실 우려 단계로 분류된 원인 해소 ·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해소 · 회사정리 절차, 화의 개시 결정 · 기업개선 약정이나 채무조정 등 확정	· 화의 조건, 채무조정 내용 감안해 회수가능성 등 따져 상각률 조정 (회수가능성이 나쁠 경우 상각률 높이기도 함)
부실 악화 단계	· 청산 절차 개시 · 회사정리 절차, 화의 기각 · 파산 선고 등	· 원리금 회수가능성, 회수시기 등을 고려해 평가

- －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조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채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운용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부실채권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2002년 1월 21일 월요일 [3]

○ 현대 금융 3사 매각 급물살

- AIG로의 주인 찾아주기가 무산된 현대 금융 3사의 매각 작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인수 의사를 밝힌 제 3의 원매자가 나타난데다 정부 안팎에서 쏟아지는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절차를 단순화시켜 조기에 매각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1월 초 현대투신 인수의향서 (LOI: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미국의 한 금융그룹이 우리 정부에 현대투신 등 3개사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전달을 요청함에 따라 이르면 1월 21일 중으로 현대 3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LOI를 제출한 미국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감위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프루덴셜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메트라이프, 모건스탠리, UBS워버그,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음
 - 금감위는 이 금융그룹 외에도 AIG 컨소시엄 중의 파트너인 월버로스 그룹에게도 가능한 이번 주 내에 새 컨소시엄 파트너를 찾도록 권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 원매자가 누구든 AIG와 벌였던 협상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출자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AIG 컨소시엄과 논의해 온 기존 공동출자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어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종전 9,000억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현투증권은 지난 해 말 현재 1조765억원의 자본잠식, 2조6,000억원의 연계차입금, 9,838억원의 증권금융채무, 4,623억원의 미매각 수익증권 등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어 AIG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상 때와 별다른 변동이 없음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국내 매각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외 매각을 최우선 방안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
 - 정부는 협상 실패에 대비한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임

♣ 2002년 1월 21일 월요일 (4)

○ 국은투신운용 모건스탠리에 매각

-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국은투신운용이 이르면 1월 22일 세계적 투자은행인 미국 모건스탠리에 매각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국내 투신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이며, 지난 주 해외 매각 협상이 결렬된 현대투신의 매각 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 1월 20일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관계자가 지난 1월 18일 국은투신 매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으며, 국은투신을 매입할 곳은 모건스탠리라고 언급
 -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매각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호전되고 있어 국민은행의 입장에서 불리한 가격에 팔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임
- 국민은행은 옛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으로 투신운용 자회사가 국은투신과 주은투신으로 중복됨에 따라 양사의 합병을 추진해 왔으나, 수탁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 매각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짐
- 모건스탠리의 경우 세종투신운용사 인수를 추진하던 중 규모와 영업력에서 국은투신 인수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인수 대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음
 - 모건스탠리가 국은투신 인수에 나선 것은 국내 투신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보다는 국은투신의 지분을 100% 인수한 후 홍콩계 펀드 등을 동원해 재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2002년 1월 22일 화요일 (1)

○ 외국계 기업 3곳과 현투증권 매각 동시 협상

- 1월 21일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현투증권 매각 인수에 관심을 보인 외국 금융회사 3곳에 매각 조건을 제시한 후 가장 유리한 반응을 보인 곳과 투자약정서 (이하 TOI: Terms of Investment) 수준의 양해각서 (이하 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음
 - 이 위원장은 TOI 수준의 MOU를 맺으면 중요사항이 다 포함되므로 본 계약 때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면 된다고 언급했으며, MOU 체결시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 위원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매듭짓되 AIG와의 협상 때보다 불리한 MOU를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채에 대해 정부가 일부 보증해 주는 등 그 동안 AIG 컨소시엄과 협상했던 내용이 새 인수희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언급

○ 대형 투신사 후순위채 조기 상환 추진

- 일부 대형 투신사들이 CBO펀드에 다량 편입돼 있는 후순위채의 조기 상환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음
 - 대투증권의 경우 최근 금감원에 후순위채 조기 상환과 관련하여 유동화 등록 변경 신청을 접수시킨 바 있음
 - 한투증권, 제투증권 등 후순위채 발행 규모가 큰 일부 투신사들의 경우도 기발행 후순위채 중 발행 이율이 높고 만기가 긴 채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조기 상환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 대형 투신사들이 후순위채의 조기 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후순위채의 발행 이자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CBO펀드나 투신사 고유계정에서 보유 중인 후순위채의 발행 이자율이 11~15%로 시중 금리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데 비해 여유자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연간 6%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조기 상환시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 등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 투신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당시 자산유동화회사 (SPC)와 맺은 자산양도 계약서상 후순위채는 반드시 선순위채를 모두 갚은 뒤에야 상환이 가능하며 만기 도래하는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일시에 모두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조기 상환을 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데다 후순위 채권자들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함
 - 게다가 조기 상환 열쇠를 쥐고 있는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 자산양도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음

♣ 2002년 1월 22일 화요일 (2)

○ 은행 단기신탁에 자금 몰린다

- 만기가 짧고 정기에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음
 - 1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한빛, 조흥은행 등 6개 시중은행 특정금전신탁이 올해 들어 15일만에 6,856억원의 자금이 들어왔음
 - 이는 신탁상품이 일반적으로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특정금전신탁은 확정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정기에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은행 관계자는 금리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시중자금이 고금리 단기 상품 위주로 투자처를 찾고 있다며 특정금전신탁이 이 같은 수요에 적합하므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언급
 - 특정금전신탁은 우량 CP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어음만기와 신탁만기를 일치시켜 사실상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임
 - 아울러, 운용기간이 3~6개월짜리가 주종을 이루는 단기상품이어서 단기성 부동산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실정임

○ 은행권 후순위채 약 16조원 처리 고민

-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발행한 약 16조원어치의 후순위채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음
 - 지난 해 5조원이 넘게 난 이익을 바탕으로 고금리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려 하지만 채권 보유자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
- 1월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작년 3월 말 현재 15조9,826억원에 이릅니다
 - 은행들은 지난 해 3월 말 현재 16조원의 후순위채에 대한 연간이자가 1조2,898억원에 달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해 9월 후순위채를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은행에 한해 조기 상환을 허용했음
 - 하지만, 정작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조기 회수를 거부해 현재 조기 상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상황임

♣ 2002년 1월 22일 화요일 (3)

○ 연기금 투자폴 예탁 한 달만에 1조원 넘어

- 연기금 투자폴의 예탁 규모가 한 달만에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짐
 -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월 19일 현재 투자폴 예탁 규모는 MMF 6,215억원, 채권형 펀드 3,552억원, 혼합형 펀드 500억원 등 모두 1조267억원에 이름
 -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이 22곳에 8,912억원, 연금-금융성 기금은 4곳으로 1,355억원임
-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투자폴에 참여하는 연기금 수가 한 달 전의 10개에서 지금은 26개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예탁 규모가 5조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투자폴이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언급

♣ 2002년 1월 23일 수요일 (1)

○ 국은투신 모건스탠리에 매각

- 국민은행은 1월 22일 미국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가 주도하는 펀드에 국은투신운용을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모건스탠리는 국민은행이 보유 중인 국은투신 주식 522만주 (지분율 87.0%)를 전량 사들이기로 했으며, 매각대금은 총 443억7,000만원 (주당 8,500원)임
- 이는 지난 해 말 현재 국은투신의 주당 순자산가치 6,293원을 2,200원가량 웃도는 수준임
- 매수 주체는 모건스탠리의 글로벌이머징마켓사와 모건스탠리가 주도하는 M&A 사모펀드임
- 모건스탠리는 1월 23일부터 3주일 동안 국은투신에 대한 자산 실사를 실시 한 뒤 2월 말 본 계약을 맺을 예정임
- 국민은행은 국은투신 매각 후 자생적 수익구조를 갖추 때까지 일정기간 수탁고를 유지해 주기로 했음
- 모건스탠리는 국은투신 임직원 27명의 고용을 승계기로 했음

○ 장단기 금리차 계속 커져

- 시중자금의 투자기간이 단기화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1월 들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월초 연 6.15%에서 지난 1월 21일 연 5.96%로 0.19% 떨어졌음
- 반면,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같은 기간 연 5.48%에서 연 5.12%로 0.36% 하락했음
- 이에 따라 3년짜리 채권과 1년 만기 채권간 금리 차는 연초 0.67%에서 0.84%로 0.17% 상승했음
- 시중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단기물에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1월 23일 수요일 [2]

○ 삼성·LG투신사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인정

- 투신협회는 1월 22일 열린 상품 심사위원회에서 삼성투신의 "실버베스트펀드" 3개월, LG투신의 "LG매크로시스템혼합펀드" 1개월의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을 인정했음
 - 이외에 SK투신과 한국투신에서도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에 대해 신청을 했지만 투신협회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음
- 삼성투신이 신청했던 "실버베스트펀드"는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임
 - 이 펀드는 50~55세, 55~60세가 가입할 수 있는 2가지 상품으로 분류되며, 6개월마다 이익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펀드에 환입하도록 되어 있음
 - 투자자가 중도 환매를 요청할 경우 펀드에 환입된 이익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펀드 보유기간을 만기시까지 유도하는 상품임
- LG투신의 "LG매크로시스템혼합펀드"는 시스템형 펀드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경제 상황에 따라 방향성과 강도가 결정된다는 점을 착안해 주식시장 예측력이 높은 경제 지표에 따라 경제상황을 7개로 구분하여 개발됐음
 - 시스템은 주가지수의 변동이 정 (+)의 방향으로 유리한 3개의 경제상황을 long position signal로 분류했으며, 강도에 따라 다시 3개 (strong, semi-strong, weak)로 나뉘었음
 - 반대로 주가지수의 변동이 부(-)의 방향으로 불리한 4개의 경제상황을 short position signal로 분류하여 이를 다시 3개로 나뉘었음

♣ 2002년 1월 24일 목요일 [1]

○ PCA 투신사 예비 허가 신청

- 금감위는 PCA투신운용으로부터 투자신탁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음
 - PCA투신운용은 영국 푸르덴셜그룹의 자산운용회사를 관리하는 푸르덴셜 코퍼레이션 지주회사가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했음
 - 영국 푸르덴셜그룹은 1848년에 설립돼 생명보험과 자산운용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2,500억 (약 330조원)임 (자료: 한국경제)

○ 투신 주식형 신상품 쏟아진다

- 투신사들이 채권형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 관련 신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아직은 신탁재산의 30% 정도까지만 주식에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혼합형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 주식형 상품 출시 및 판매가 활기를 띠 전망임
- 투신사 주식 및 단기 채권 관련 신상품

투신운용사	상품 명	내 용
현대투신	세이프가드 안정혼합	채권 관련 60%, 주식 관련 30% 투자
대한투신	인베스트아트 안정형	채권 관련 60%, 주식 관련 30% 투자
SK투신	OK인덱스헤지주식	주식에 60% 이상 투자, KOSPI200 지수 추적
	OK트렌드팔로잉 혼합	이동평균 이용, 분할 매수·매도 전략
	OK인덱스 자산배분 혼합	거시지표에 따라 주식·채권간 자산 배분 결정
	OK FRN프리미엄 채권	단기 (3,6개월)형, FRN 투자

-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채권보다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 성장형과 인덱스형 등 주식형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채권형은 금리 상승 추세에 대비해 단기 채권형이나 FRN (변동금리부 채권)을 활용한 상품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BBB 등급 채권도 인기 높다

- 신용등급상 투자등급 중 최하위 단계인 BBB 등급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채권 값이 급상승하고 있음
 - 과거 이들 채권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달리 기관을 중심으로 채권 수요가 급속히 늘어 BBB 등급 채권 품귀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하나로통신 (BBB-)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의 경우 지난 해 11월 9.9%에서 올 1월 17일에는 8.2%로 1.7%나 하락했음
- 증권업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과거 한계 기업으로 불렸던 BBB 등급 회사채의 신용위험이 줄어들어 이들 채권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1월 24일 목요일 (2)

○ 차이나펀드 판매 외국계 우위

-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차이나펀드" 판매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투신사가 국내 투신사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슈로더투신, 템플턴투신 등 외국계 투신사들은 지난 해 "차이나펀드" 열풍을 이어나가며 후속펀드 판매에 돌입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투신사들은 판매액이 미미하거나 판매 포기마저 속출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음
- 지난 해 12월 "슈로더차이나밸런스드" 펀드를 시장에 내놓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만에 1,343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씨티은행은 펀드 판매 마감 후에도 투자자들의 추가 가입 요청이 쇄도하자 지난 1월 16일부터 추가 판매에 돌입했음
 - 추가 판매 이후 5일이 지난 1월 21일 현재까지 추가 판매액이 무려 50여억원에 달해 상당한 수확이라는 투신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음
 - 씨티은행은 이 펀드의 판매 성공으로 1/4분기 중 2~3가지의 후속 펀드를 내놓을 예정임
- 반면, 한국투신이 판매한 "탐스차이나혼합골드" 펀드의 경우 5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월 15일 1차 모집기간에 118억원, 1월 22일 현재 135억원을 끌어들이는데 그쳤음
 - 한국투신의 경우 그나마 나은 편으로 당초 차이나펀드 출시를 계획했던 대한투신이나 현대투신 등은 여전히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외국계 투신사들이 이처럼 차이나펀드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지 운용법인을 갖추고 있는 등 해외 네트워크가 잘 정비돼 있고, 국내 투신시장 내 영향력 확보를 위해 주력 펀드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비해 국내 투신사들은 펀드 운용을 위해 외국 현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으며, 펀드 출시 시기도 늦었다는 평가임

○ 세종증권 투신사 지분 청산 검토

- 세종증권이 모건스탠리에 매각할 방침이었던 세종투신을 청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모건스탠리 컨소시엄이 국은투신을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세종증권은 투신사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재 이에 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세종투신은 계속되고 있는 수탁고의 하락으로 활발한 영업이 힘들고 브랜드 인지도의 한계가 공격적 영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회사 청산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가운데 세종투신은 새로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대주주인 증권측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만큼 증권사의 최종 방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 2002년 1월 24일 목요일 (3)

○ 국민연금 생활자금 1,800억원 휴면

- 까다로운 대부 조건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800억원 가량의 국민연금 생활 안정자금이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1997년 이후 대출 용도로 책정된 국민연금 생활안정 자금은 97년 500억원, 98년 500억원, 99년 1,000억원, 2000년 500억원, 2001년 100억원 등 모두 2,600억원에 이릅니다
 -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대출된 자금은 97년 178억원, 98년 428억원, 99년 136억원, 2000년 64억원, 2001년 32억원 등 총 838억원으로 전체 책정자금의 32.2%에 불과한 실정임
 - 책정 자금액에 대한 대출액 비율도 97년 35.6%에서 98년 85.6%까지 높아졌다가 99년에 13.6%로 떨어져 2000년 12.8%, 2001년 (10월 현재) 32%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국민연금 생활안정 자금의 대출 금리 (지난 해 연 5.9%)가 시중금리 (9.2%)보다 낮은데도 이처럼 저조한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출 신청자들에게 시중은행과 똑같이 보증인 설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국민연금 생활안정 자금은 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목별 대출한도액은 전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각 500만원, 경조사비 300만원, 학자금 200만원 (2회 가능) 등에 불과한 상태임
-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연금 가입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2002년 1월 25일 금요일

○ 금융회사 분식회계 가중 처벌

-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기능과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검사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다른 사안에 비해 가중 조치하고 회계감리를 벌여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기로 했음
 -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때 분식회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분식회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회계 감리국에 통보 및 감리에 착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음
 -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해외자산이나 부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내지 않고 금융회사측이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취소 등 부실감사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1월 26일 토요일

○ 투신시장 외자 진출 본격화

- 투신시장의 외국계 자본 진출이 올들어 본격화될 전망이다
 - 현재 국내 30개 투신운용사 중 외국계 자본이 참여한 곳은 지난 해 문을 연 슈로더 투신을 포함하여 모두 9개사임
 - 여기에 지난 1월 23일 금융당국에 예비허가를 신청한 영국계 푸르덴셜그룹의 PCA투신운용을 비롯하여 연내 6~7개사가 신설되거나 외국계 자본의 출자가 예상됨

— 외국계 투신사 현황 (자료: 금감원)

투신사	지분 구조	비고
PCA	영국계 푸르덴셜그룹 100% 출자	예비 허가 신청
국은	모건스탠리, 국민은행 보유지분 인수 예정	
슈로더	슈로더그룹 100%	
템플턴	템플턴그룹 100%	
대신	대신증권 80%, 일본 스미토모생명 20%	
동원BNP	동원증권 70%, BNP 30%	
한화	한화증권 39%, 알리안츠캐피탈 20%	
외환코메르츠	외환은행 46%, 코메르츠은행 45%	
주은	국민은행 80%, ING그룹 20%	
하나알리안츠	하나은행 50%, 알리안츠그룹 50%	
도이치	도이치은행 100%	본 허가 준비 중
굿모닝	굿모닝증권 100%	

- 연초 투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외국계 투신사의 시장 점유율은 21%에 달했으며, 올 연말에는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내년 3월 말이어서 올해는 어떻게든 외국계 투자자를 찾아야 할 형편이며, 현대투신 등의 외국계 자본과의 매각 협상이 임박했기 때문임
-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시장 민감도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지 못한 투신사들은 조만간 퇴출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
 - 따라서, 국내 투신사들은 합병, 외자유치 등을 통한 대형화 및 투명성과 선진 노하우를 겸비해야지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2002년 1월 28일 월요일

○ 한빛투신 대형 투신사로 도약 기대

- 우리금융지주회사가 3월경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인 한빛투신운용을 대형 투신운용사로 육성시킬 방침이어서 투신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음
 -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위해 한빛투신의 브랜드, 전문인력, 운용시스템, 판매사 채널 육성 등 4가지 주요 전략적 과제를 설정하고 조만간 이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22조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고유계정 자산의 위탁운용을 통한 수탁고 증대는 투신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위탁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음
 - 따라서, 한빛투신은 금융그룹 고유자산의 외부 위탁에 따라 내년 수탁고 15조원의 업계 5위권의 대형투신사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금융지주회사는 2월 말 한빛투신에 대한 회사가치를 평가할 예정이고 3월 중 자회사 편입 및 회사명 변경을 실시할 예정
 -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고유계정 위탁, 조직통합 등을 위한 업계 전문가와 계열사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 경영진을 구성한다는 방침임

○ 투신운용사도 4월부터 적기시정조치

- 투신운용사도 부실 위험 증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될 예정임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투신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4월부터 이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들은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 이후 처음 맞는 2002 회계연도 1/4분기 (4~6월) 말 기준으로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됨

○ ING생명 자산 주은투신에 위탁 관리

- 주은투신 관계자는 ING측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ING생명보험의 국내 자산을 주은투신에 위탁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힘
 - 이는 ING생명이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자산은 주은투신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언급
 - 투신운용사가 계열사인 보험회사 자산을 위탁 관리하는 것은 종전 삼성투신이 삼성생명 자산을 위탁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에 이어 두 번째임
- 주은투신이 ING생명의 국내 보험자산을 위탁 관리하면 현재 전체 투신사 중 5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은투신 자산 운용 규모는 대폭 늘어나게 돼 업계 순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됨
- ING금융그룹은 현재 20%인 주은투신운용에 대한 지분을 50%까지 확대해 양사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예정임

♣ 2002년 1월 29일 화요일

○ 계열투신 자산위탁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금감원

-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등이 고유계정이나 신탁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계열 위탁회사에 운용·위탁할 경우에 대해 적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출범과 함께 자산운용 효율성을 위해 계열 투신운용에 위탁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
- 금감원은 우선 투자일임 또는 펀드 설정 등 위탁운용방식을 결정하고 계열 위탁회사에 대한 위탁 한도 설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임
 - 모회사 위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와 다른 일반 공모펀드간 차단벽을 설치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현물로 납입할 때 신탁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문제와 함께 납입 대상 유가증권 범위 제한 필요성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음 (자료: 매일경제)

○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들 중 한국 가장 선호

- 펀드 조사기관인 미국의 GIP와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현재 주요 신흥시장 펀드 91개 (\$369억)에서 한국 투자 비중이 17.85%를 기록하며 투자 대상 국가 중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들 펀드가 투자하는 신흥시장이 모두 63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투자비중은 아주 높은 편임
- 주요 신흥시장 펀드의 각국별 투자 비중 (자료: GIP 및 현대증권, 매월 말일 기준)

	한국 (%)	대만 (%)	멕시코 (%)	남아공 (%)
2001년 5월	12.71	9.87	12.27	9.45
6월	12.61	9.89	12.41	9.23
7월	12.54	10.18	12.07	8.73
8월	13.59	10.38	11.74	9.09
9월	13.74	9.16	11.09	9.57
10월	15.34	9.52	11.20	8.99
11월	17.84	10.35	10.24	8.11
12월	17.85	12.08	10.49	7.25

♣ 2002년 1월 30일 수요일

○ 교보생명 자산 10조원 위탁 운용 추진

-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금년 내 10조원 규모의 유가증권 자산을 교보투신을 포함해 외부의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교보생명 관계자는 운용 중인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운용 대상자산은 대출자산을 제외한 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부문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자산운용기관으로 계열회사인 교보투신운용을 포함해 투신운용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곳에 위탁 운용한다는 계획임
 - 교보생명은 지난 해 11월 말 현재 채권과 주식 부문에서 8조5,905억원 등 전체적으로 20조8,434억원을 운용하고 있음
- 교보생명에 앞서 삼성생명도 대출자산을 제외한 유가증권 자산의 삼성투신운용 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 생보사들의 자산 위탁운용이 잇따르고 있음
 - 이 같은 생보사들의 자산 위탁운용 움직임은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고 자산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대신 보험상품 개발과 영업 부문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생보사의 자산위탁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은 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위탁운용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펀드매니저들 37% 유럽 투자비중 증대 기대

- 메릴린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펀드매니저들 가운데 미국이나 일본 주식시장보다 유럽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메릴린치가 주요 투자기관 펀드매니저들에게 향후 1년 동안 어느 지역에 투자비중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37%가 유럽 증시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겠다고 응답했음
 - 반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5%에 그쳤음
- 펀드매니저들이 이 같이 유럽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미국 증시가 이미 지난 해 말부터 올해 경기회복세를 미리 반영해 충분히 상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어느 시장이 가장 과대 평가돼 있느냐는 질문에 55%가 미국을 꼽은 반면, 유럽을 지목한 사람은 11%에 불과했음
 - 따라서, 경기회복은 미국이 앞설지 몰라도 주가의 상승여지는 유럽쪽이 크다는 것이 펀드매니저들의 분석임

♣ 2002년 1월 31일 목요일

○ 투신사별 향후 시장 전망 차이 뚜렷

- 대한투신운용이 주식 편입비중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금 보유 전략에 돌입했음
 - 올해 초만 해도 성장형 펀드의 주식 편입비를 81.9%로 유지하던 대한투신운용은 최근 주식 편입비를 공격적으로 낮추면서 지난 1월 26일 현재 주식 편입비가 77.45%로 낮아졌음
 - 대한투신운용은 최근 차익거래펀드에서 1,000억원 가량 프로그램 순매수했다는 점과 그 동안 종합주가지수 상승분에 따른 자연스런 편입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의 주식 물량을 시장에 처분한 것으로 추정
- 대한투신운용 관계자는 경기는 바닥을 쳤지만 경기 전·후방 효과가 강한 판재류 등 철강가격은 보험권 또는 약세를 면치 못해 호전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언급
 - 향후 2개월 가량 가격 조정을 거친 후 실적 호전주 위주의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음
- 반면, 현대투신운용은 주식 편입비를 76.24%에서 79.09%로 늘렸으며, 한국투신운용도 77.14%에서 78.94%로 늘리는 등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했음
- 시장 관계자들은 투신사들이 주식 편입비를 줄이면 향후 조정 폭이 깊어질 것을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고 향후 장세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펼치면 주식 편입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



2월

February

10대 주요 기사

1. 바이코리아펀드 불법 운용 손해배상 합의
(4일)
2. 허울뿐인 장기 대형화 펀드
(4일)
3. 금감원 투신권 후순위채 조기 상환 허용 검토
(14일)
4. 자산운용산업 종합 발전 방안 마련 예정
(14일)
5. 푸르덴셜, 현투인수 본격 협상
(19일)
6.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 삭제 방침에 일부 투신사들
반대의사 표명 (22일)
7. 기업지배구조 펀드 한국 기업에 4,000억원 투자
(23일)
8.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급증
(25일)
9. 대형 투신사의 시장지배력 여전
(26일)
10. 투신사에 확정수익률 강요시 해당 기관투자자에 불이익 조치
(27일)

◆ 2월 목차 (2/1-2/10)

2/1 [금]	○ 한기평, 이머니 펀드 평가 전문회사로 추가 지정 ○ 옵션 투자한도 적용과 관련 정부와 투신업계 신경전 ○ 주식 불공정 거래 연루자 실명 공개
2/2 [토]	○ 일부 대형투신 펀드 대형화 작업 부진
2/3 [일]	
2/4 [월]	○ 바이코리아펀드 불법 운용 손해배상 합의 ○ 대투 MOU 체결에 문제가 되는 후순위채 ○ 허울뿐인 장기 대형화 펀드
2/5 [화]	○ 투신권 시장 점유율 경쟁 치열
2/6 [수]	○ 애널리스트 보유주 공개 ○ 은행 신탁사업 분리 추진
2/7 [목]	○ 미국 기업연금제 개혁론 고조
2/8 [금]	○ 투신권 고수익펀드 3월부터 집중 만기 도래 ○ 지방은행 신탁업무 포기
2/9 [토]	○ 미국 애널리스트 공정성 강화
2/10 [일]	

◆ 2월 목차 (2/11-2/20)

2/11 [월]	구정 연휴 (1)
2/12 [화]	구 정
2/13 [수]	구정 연휴 (2)
2/14 [목]	○ 투신권 계열사 의존도 심각 ○ 자산운용산업 종합 발전 방안 마련 예정 ○ 지수상장펀드 지정운용사 2곳 3월 말까지 선정 ○ 금감원 투신권 후순위채 조기 상환 허용 검토 ○ 채권평가사, 기업정보 공유 채널 없다 ○ 회사채 품귀현상으로 인해 채권형 펀드 수익률 관리 비상
2/15 [금]	○ 민간 채권평가사 누적 적자 심각
2/16 [토]	○ 투신권 후순위채 상환 잇따라
2/17 [일]	
2/18 [월]	○ MMF 시가평가 손실 우려 ○ 하이닉스채 편입 투신권 비상 ○ 구조조정기금 본격 수사
2/19 [화]	○ MMF에 자금 유입 급증 ○ 푸르덴셜, 현투인수 본격 협상 ○ 투신권, 하이닉스채 평가 제각각
2/20 [수]	○ BBB등급 회사채 발행 활기 ○ CR리츠 장기증권저축 편입 허용 ○ 대우채 보상펀드 환매자금 유치 경쟁 치열

◆ 2월 목차 (2/21-2/28)

2/21 [목]	○ 채권 거래 감소로 채권형 펀드 운용 비상 ○ 은행권의 하이닉스 CB에 대해 출자 전환을 요구할 계획인 투신권 ○ 국민연금 6,000억원 내달 중순 투입
2/22 [금]	○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 삭제 방침에 일부 투신사들 반대의사 표명 ○ 기업연금제 업체별 자율 시행
2/23 [토]	○ 기업지배구조 펀드 한국 기업에 4,000억원 투자 ○ 공적자금 50% 회수시 국민 1인당 273만원 부담 ○ 금감위 세종금융지주 인가 취소 ○ 미국 최대 연기금 CalPERS 투자 대상국 변경
2/24 [일]	
2/25 [월]	○ 투신협회 신인사제도 시행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급증
2/26 [화]	○ 현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전경련 ○ 대형 투신사의 시장 지배력 여전
2/27 [수]	○ 투신사에 확정수익률 강요시 해당 기관투자자에 불이익 조치 ○ 기업 감시 역할이 커지게 될 투신사 ○ 추천 종목의 해당 기업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
2/28 [목]	○ 펀드 수수료 체계 올 하반기부터 개편될 움직임 ○ 기관전용펀드 공모 방식 설정 제한

♣ 2002년 2월 1일 금요일 [1]

○ 한기평, 이머니 펀드평가 전문회사로 추가 지정

- 투신협회는 1월 31일 한국기업평가와 이머니 2개사를 투자신탁회사 펀드를 평가하는 전문 평가회사로 추가 지정했음
 - 이로써 펀드평가 전문회사는 기존의 제로인, 한국펀드평가, 모닝스타코리아, 리퍼코리아 등을 포함해 모두 6개가 됐음
- 투자신탁 평가 전문회사는 투자신탁협회를 통해 펀드 운용 정보를 제공받아 운용사와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펀드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임
 - 펀드평가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고, 납입 자본금 등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옵션 투자한도 적용과 관련 정부와 투신업계 신경전

- 정부와 투신업계가 펀드에서 투자하는 개별주식 옵션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을 놓고 신경전을 더해가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주식옵션 결제방식이 현물결제여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에 규정된 펀드의 종목별 투자한도에 옵션 물량도 함께 규제돼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각 신탁재산 자산총액 중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 중 2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제33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르면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각 신탁재산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 중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에 따르면 위탁회사가 전체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주식은 제외)에 대해 총 신탁재산 중 전체 계열회사가 투자한 출자지분 만큼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정부는 옵션 물량이 투자 한도 비중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위에 언급한 투자규제 조항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옵션을 펀드의 종목별 투자 한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이 경우 현물 주식을 투자한도에 가깝게 편입한 상태인 각 투신사 펀드들은 개별주식 옵션이 허용된 7개 종목 옵션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져 옵션시장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임
 - 이로 인해 투신권에서는 결제일에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강제로 반대매매하는 선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음

♣ 2002년 2월 1일 금요일 (2)

○ 주식 불공정 거래 연루자 실명 공개

- 금감위는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금감위는 증권업 종사자의 경력조회 시스템에 포함되는 종사자 범위를 지금까지 투자상담사 및 기타 제재받은 임직원에서 모든 증권업 종사자로 확대하고 이를 증권사 고객에게도 공개키로 했음
 -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임직원의 취업 제한 기간을 1~5년에서 5~10년으로 늘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불공정 거래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종전 최고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음

♣ 2002년 2월 2일 토요일

○ 일부 대형투신 펀드 대형화 작업 부진

- 펀드 대형화 작업이 주은, 국은, 슈로더, 하나알리안츠투신 등 후발 투신사들의 경우 순조로운 반면, 한국, 대한, 현대, 제일 등 기존 투신사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 대한, 현대투신 등 대형 3투신사들의 경우 펀드당 평균 설정잔고가 각각 197억원, 155억원, 227억원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 펀드 운용 및 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월 31일 현재 국내 30개 투신사가 설정해 놓고 있는 펀드 수는 6,433개로 각 사당 214개의 펀드에 1개 펀드당 평균 설정금액은 235억원이라고 밝힘
 - 각 사별로는 대한투신이 모두 1,062개의 펀드를 보유해 30개사 중 가장 많았으며, 한국 800개, 현대 691개, 삼성 442개, 제일 419개 순임
- 한 투신권 관계자는 부실채권이 편입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전용펀드나 단독펀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펀드 수가 비효율적으로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펀드 운용 기간의 단기화와 이에 따른 펀드의 비효율적 운용 외에도 1명의 펀드매니저가 수십개에서 많게는 100개의 펀드를 별도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힘

♣ 2002년 2월 4일 월요일 (1)

○ 바이코리아펀드 불법 운용 손해배상 합의

-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4월 현투운용의 바이코리아 펀드 불법 운용 사실을 폭로하고 이 펀드 투자자들을 모아 서울지법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밝혔음
 - 현투운용측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90%인 4,50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투자자 17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를 취하했음
- 이 사건은 발단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연대가 바이코리아 "르네상스1호"펀드와 "나폴레옹1호"펀드에 대한 장부열람권을 행사하여 현투운용의 불법 운용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부터 비롯됨
 - 당시 참여연대는 현투운용이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배드펀드를 조성한 후 여기서 발행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 펀드에 편입하여 상각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했음
 -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8월 이들 펀드의 투자자들 중 일부를 모아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불법 운용에 따라 기준가격이 낮아진 만큼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을 앞 둔 상황에서 원피고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
- 참여연대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투자자들의 장부열람권, 부당 운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조문상에서만 존재하던 각종 권리들이 빛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
 - 하지만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직접 소송에 참여한 17명의 투자자에게만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음

○ 대투 MOU 체결에 문제가 되는 후순위채

- 지난 달 맺기로 했던 예보와 대투간 MOU 체결시 대투의 고유계정에 편입돼 있는 후순위채 6,000억원 평가 손실 부분을 반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음
 - 대투의 신탁자산에 편입된 후순위채 평가손 부분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짐
-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대투 후순위채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MOU 체결시 확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MOU 운영위원들의 입장이라고 설명
 - 후순위채 평가손 6,000억원에 대해 이번 MOU시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되면 MOU 체결 이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이를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후순위채가 대투의 고유계정 외에 신탁자산에도 편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탁자산 평가와 함께 관련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
- 대투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예보와 재협상을 통해 MOU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또한, 후순위채 이자율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2월 4일 월요일 [2]

○ 허울뿐인 장기 대형화 펀드

- 국내 투신 및 자산운용사들이 겉으로는 펀드의 장기 대형화를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단기 소형펀드를 남발해 온 것으로 조사됨
 - 내용이 엇비슷한 상품을 시리즈로 내놓으면서 소형펀드의 난립을 초래했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법인전용펀드 출시마저 일삼아 펀드 단명화를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시중 전체 42개 투신 및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선보인 펀드 수는 무려 2,074개에 이룸
 - 이는 업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펀드 6,600여개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평균 펀드 3개 중 1개는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되는 펀드인 셈임
- 한편, 지난 해 출시됐다가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하거나 환매 등으로 명멸한 펀드 수는 신설 펀드보다 훨씬 더 많은 3,406개로 업계 펀드 단명화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
 - 외형적으로는 생겨난 펀드보다 더 많은 펀드가 사라져 전체 펀드 수는 줄고 펀드 당 규모는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곧 펀드 장기 대형화로 이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사라진 펀드의 40%에 달하는 1,335개 펀드가 2,000년 이후 설정돼 갓 2년의 수명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임
 - 더우기 1,335개 펀드 중 30%를 상회하는 538개 펀드가 지난 해 업계의 신상품 펀드임
 - 나머지는 지난 97~98년 집중적으로 설정됐던 대우채 관련 펀드 (1,102개)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장부가 평가 펀드들이 주류를 이뤘음
 -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돼 오다 해지된 펀드는 겨우 15개에 불과하여 지난 해 사라진 펀드의 0.5%도 채 안되는 저조한 수준임
- 투신권 한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판매하기 쉬운 신상품 위주로 영업을 하는데다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겨냥한 단독펀드를 남발하는 바람에 펀드 대형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2월 5일 화요일

○ 투신권 시장 점유율 경쟁 치열

- 약 150조원 규모의 투신시장을 놓고 상위 5개사와 외국계, 증권계, 은행계, 재벌계열 투신사들이 판로 확보를 통한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기존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투와 한투의 경우 기존의 판매 전략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력은 주은투신, 한빛투신 등 은행계열 투신사들임
 - 이들은 모회사인 은행의 소매채널과 모회사의 자산운용으로 거대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발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음
- 현재 시장점유율 35%로 가장 앞서고 있는 삼성투신, LG투신 등 재벌계열 투신사들도 그룹 브랜드를 무기로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음
 - 증권계 투신사들도 증권사 판매망을 앞세워 일전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신뢰성과 펀드 운용의 투명성, 엄격한 리스크 관리, 자산 운용 노하우 등으로 무장한 외국계 투신사들도 강력한 잠재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투신권 한 관계자는 현 투신시장은 재벌계열 35%, 한투·대투 등이 23%, 증권계열이 23%, 은행계열이 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신뢰성과 투명성, 자산 운용 노하우를 앞세운 외국계 투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업계 구도가 1~2년안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 2002년 2월 6일 수요일

○ 애널리스트 보유주 공개

-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회원 증권사들이 정기총회를 열고 애널리스트들의 재산적 이해 관계를 의무 공시기로 공동 결의했음
 - 회원 증권사들은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을 추천할 때 해당 종목 주식 보유 등을 의무 공시토록 했음
 - 종업원 채용시 감독기관의 과거 제재내용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키로 했으며, 투자상담사의 과도한 성과 보수율 책정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밝힘

○ 은행 신탁사업 분리 추진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은행신탁,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3개 관련법을 통합하고 은행의 신탁부문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음
 - 이에 따라 금감위는 재경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집합증권투자법" (가칭) 초안을 마련하여 투신 및 은행권이 참가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도록 할 방침임

♣ 2002년 2월 7일 목요일

○ 미국 기업연금제 개혁론 고조

- 엔론사태와 맞물려 미국 기업연금제도 개혁론이 확산되고 있음
 -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2월 5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엔론파문을 계기로 미국 연금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
 -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 기업연금제도인 401(k) plan을 통해 연금이 증시에 투자되는데 허점들이 노출됐다면서 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
- 미국에서 기업연금제도 개혁론이 고개를 든 것은 401(k) plan을 통해 자사주에 집중 투자했던 엔론 종업원들의 축적된 계정 금액이 이 회사 파산과정에서 대폭 축소된 것에 따른 것임
 - 엔론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자사주에 투자했다가 파산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연금자산의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가입자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자사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탓임
 - 반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엔론 경영진은 파산 전에 주식을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
-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노동부 등에 관련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지난 1월 29일 연두 국정연설에서도 연금제도 개선을 약속했음
- 그린스펀 의장은 엔론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 급변하는 금융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융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교과목에 금융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

♣ 2002년 2월 8일 금요일 (1)

○ 투신권 고수익펀드 3월부터 집중 만기 도래

- 3월부터 후순위펀드와 하이일드펀드 등 투신권 고수익펀드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와 투신사에 비상이 걸렸음
 - 투신업계에 따르면 3~7월에 투신사의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펀드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5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음
- 투신사 환매 문제의 발생 시기는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 당시 정부는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대우그룹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95%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음
 - 투신사들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 대우채에 대해 95% 보상해 주는 대신, 투신사들이 새로 만든 후순위채펀드와 하이일드펀드 등에 재예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 이 때문에 서민 금융기관은 당시 만기 2년~2년 6개월짜리 펀드에 자금을 대거 예치한 상태임
 - 새마을금고의 경우 2000년 3월에서 동년 7월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예치한 금액은 총 3조5,686억원에 이르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1조~1조5천억원을 재예치한 것으로 알려짐
 - 이로 인해 서민 금융기관들이 재예치한 대우채 전환 펀드만 해도 약 5조원 규모가 만기 도래한다는 계산이 나오며, 아울러 일반 개인이 이들 고수익펀드에 가입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일단 투신사들은 서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펀드에 재예치할 것을 종용하고 있음
 - 투신사 관계자들은 고수익펀드의 경우 일반 다른 채권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1~2% 이상 높기 때문에 서민 금융기관에서 환매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실제 이들 펀드는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과 고수익채권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은 편임
- 하지만, 최근 들어 서민 금융기관이 수익증권을 환매해 자신들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환매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 해 말부터 서민 금융기관들이 회사채를 직매입하는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고 알려짐
 - 고객 예금을 받아 투신사 채권형 펀드 등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던 이들 기관은 투신사에 돈을 맡기느니 차라리 직접 운용하겠다며 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짐
- 시장 관계자들은 만약 이들 서민 금융기관들의 환매가 늘어날 경우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신사들이 보유한 채권 및 주식을 대대적으로 매각함에 따라 자금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

♣ 2002년 2월 8일 금요일 (2)

○ 지방은행 신탁업무 포기

-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6개 지방은행들의 신탁영업이 사실상 고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
 -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6개 지방은행들의 지난 1월 말 현재 금전신탁 수탁고가 총 3조4,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이는 시중은행 전체 수탁고 60조8,000의 1/20 정도의 규모임
 - 실제 시중은행들은 지난 해 금전채권신탁이나 유가증권신탁, 기타 동산·부동산신탁 등의 재산신탁을 새로 판매하면서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반면, 지방은행들은 이 부문의 영업실적이 아예 전무했음
-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운용 능력 등이 크게 처지는데다 전반적인 신탁영업 환경도 좋지 않아 신규营业을 사실상 중단한 채 기존 상품 관리만 하고 있다고 밝힘
 - 향후 일부 투신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인 신탁운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

♣ 2002년 2월 9일 토요일

○ 미국 애널리스트 공정성 강화

- 미국 증권거래인협회 (이하 NASD)는 2월 7일 하원의 자본시장위원회와 뉴욕증권거래소 증권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애널리스트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개월 내 확정·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NASD가 새 규정을 마련한 것은 엔론이 부도나기 직전에도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는 등 공정한 투자 조언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 하원 자본시장 소위원회의 리처드 베이커 의원은 이번 규정은 강제사항으로써 철저한 감시가 따를 것이라고 언급하고 다음 차례는 회계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공정성 제고 방안
 -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공개 후 40여일간 그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 금지
 - 증권회사와 투자은행 등은 매수, 유지, 매각 등 유형별 추천 현황을 공개해야 함
 -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투자보고서를 낸 종목의 경우 그 종목의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함
 -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낸 종목을 그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가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고서에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함
 - 투자은행 분야에서 번 소득으로 애널리스트에게 급여 등 보상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애널리스트와 투자금융 분야를 분리하도록 했음

♣ 2002년 2월 14일 목요일 (1)

○ 투신권 계열사 의존도 심각

- 계열사에 대한 일부 투신사들의 수탁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알려짐
 - 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 의원에 따르면 국내 42개 투신운용 및 자산운용사들이 전체 운용하는 수탁고 중 8.5%는 대주주 등 계열사 자금인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계열사가 없거나 계열사가 있더라도 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21개 운용사를 제외할 경우 전체 수탁고 중 계열사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8%로 크게 늘어나게 됨
-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나 은행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투신운용사들의 경우 전체 수탁고의 20~40% 가량을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어 수탁고 편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주은투신의 경우 국민은행으로부터 4조9,000억원 이상 (전체 수탁고의 43.1%)의 자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으며, 매각을 앞두고 있는 국은투신의 경우도 전체 수탁고 중 39.8%를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음
 - 이 외에 신한투신이 41.9%, 외환코메르쓰투신이 43.9%, 교보투신이 26%, 동부투신이 30.8% 등으로 계열사 의존도가 높았음
- 시장 관계자들은 자산운용이 본업인 투신사가 계열사 자금을 많이 운용할 경우 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모회사의 자금운용 부서쯤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

○ 자산운용산업 종합 발전 방안 마련 예정

-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간접투자관련법 (가칭 집합자산운용업법)에 맞춰 "자산운용산업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업계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유도하기로 했음
 -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자산운용사를 투신사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등록제인 자산운용·투자자문사도 투신사와 같이 허가제로 일원화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음
 - 아울러 투신사와 유사한 자산위탁 운용구조를 갖고 있는 은행의 불특정 금전신탁은 은행 자회사인 투신사에 자산을 넘기거나 새로운 집합자산 운용사를 신설하여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이러한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개편으로 인해 간접투자업체의 대형화가 이뤄질 경우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한층 커져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증시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2002년 2월 14일 목요일 [2]

○ 지수상장펀드 지정운용사 2곳 3월 말까지 선정

- 증권거래소는 임시국회에서 지수상장펀드 (ETF: Exchange-Traded Fund)를 운용할 2개의 투신운용사가 3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음
 - 증권거래소는 3월 초순까지 투신운용사들을 대상으로 ETF 운용제안서를 받은 뒤 이를 심사해 적격회사를 선정하기로 했음
 - ETF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정판매사 (증권회사) 최소 2곳 이상, 일반사무수탁회사 1곳을 각각 확보해야 함
 - ETF 운용사는 자본력이 있고 인덱스펀드 운용 경험이 풍부한 대형 투신운용사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음
- 증권거래소는 ETF 운용사 2곳에 대해 각각 1개씩의 상품만 상장토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금감원 투신권 후순위채 조기 상환 허용 검토

- 금감원은 투신사 후순위채 조기 상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SPC 계약 조건 변경 등 투신사의 현금흐름 파락과 선순위 상환 재원을 제외한 후순위채 상환이 가능할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음
 -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채권자들의 손실이 없는 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
 - 그러나, SPC 운용권이 수탁은행에 있기 때문에 SPC 계약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수탁은행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간단한 작업은 아니라고 설명
 - 하지만, SPC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선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몰려있는 선순위채 상환 재원을 우선 검토하고 후순위채 상환 자원 규모를 파악해 실행한다는 입장임

○ 채권평가사, 기업정보 공유 채널 없다

- 채권시가평가사들이 개별 기업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 개별회사채 평가작업과 기업 분석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시장 관계자는 아직 채권시가평가사들의 위상이 낮고 관련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이 정보 공개 자체를 꺼리고 있어 정보 조달이 용이하지 않다고 언급
 - 시가평가사들에게 발행시장 위주의 정보 공개뿐 아니라 개별기업들의 IR 실시 등을 통해 정보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임
 - 이에 따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정보 조달에 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임
- 아울러 향후 시가평가 시장의 확대에 대비해 기업분석 능력 제고를 위한 채권시가 평가사들의 리서치 인원의 대폭적인 보강과 업계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2002년 2월 14일 목요일 (3)

○ 회사채 품귀현상으로 인해 채권형 펀드 수익률 관리 비상

- － 회사채의 유통물량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발행물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수요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회사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업계에 따르면 금융채 및 ABS를 제외한 일반 회사채 발행액이 지난 해 12월 7조8,007억원에서 올 1월 1조9,918억원으로 급감했음
 - 2월에도 13일 현재 발행규모가 1조2,241억원에 그치고 있어 지난 해 월 평균인 4조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됨
 - 여기에 2월들어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겠다는 기업이 지난 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단 한 업체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회사채 공급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들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 관리에 애를 먹고 있음
 - 한 투신 관계자는 보유 채권은 만기가 돼 꾸준히 상환되고 있는데 대체할 만한 채권이 없어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
 - 이렇듯 회사채를 구하기 어려워 금리가 낮은 국채로만 운용하다 보면 고객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임

♣ 2002년 2월 15일 금요일

○ 민간 채권평가사 누적 적자 심각

- 채권시가평가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채권의 공정가격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 채권평가사들은 여전히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해 투신사 펀드에 편입된 채권에 이어 올해부터는 은행의 신탁상품 내 채권도 강제적으로 민간 평가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가수수료가 턱없이 낮아 영업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전체 90조원의 대상채권에 대해 투신사와 은행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모두 합해도 각 사당 연간 12억원 정도 [$90\text{조원} \times 0.002\%$ (수수료) $\times 2/3$ (각 사의 지분 비중) = 12억원] 에 불과한 실정임
 - 실제로 지난 해의 경우 한국채권평가의 경우 약 7억원, KIS채권평가, NICE채권평가가 약 1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짐
 - 한 업계 관계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 사당 최소 25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있어야 한다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2~3년이면 자본금이 바닥날 지경이라고 언급
-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민간 채권평가사들의 경영개선과 채권시가 평가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채권가격 정보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시가평가 대상 채권의 규모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02년 2월 16일 토요일

○ 투신권 후순위채 상환 잇따라

- 투신권이 지난 2000년 발행되어 펀드에 편입한 후순위채를 잇따라 상환하고 있음
- 현투운용의 경우 지난 2월 7일 만기가 돌아 온 1,500억원의 후순위채 원리금을 상환했다고 밝혔음
 - 이번에 현투운용이 상환한 후순위채는 지난 2000년 2월 1차 자산유동화 발행 당시 발행된 3,750억원 중 일부로 발행이자율은 11.5%임
 - 현투운용은 지난 해에도 1,700억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바 있어 1차 발행분 중 내년 2월 만기 도래하는 550억원만을 남겨두고 있음
- 이에 앞서 제투증권도 지난 달 말 업계 처음으로 1,150억원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한 바 있어 투신권 후순위채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특히, 4월 이후 집중 만기 도래하는 CBO펀드와 뉴하이일드펀드의 만기 연장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2월 18일 월요일 (1)

○ MMF 시가평가 손실 우려

- 투신업계에 따르면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투신사들이 MMF의 시가평가 손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몰리고 있음
 - 연말 대비 투신사들의 수탁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MMF 위주로 수탁고가 증가하여 지난 해 4월의 MMF 대규모 환매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더구나 MMF 시가평가 괴리율이 지난 해 7월 0.75%에서 올해부터 0.5%로 낮아져 금리 리스크 관리가 투신사들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MMF 비중이 높은 투신사는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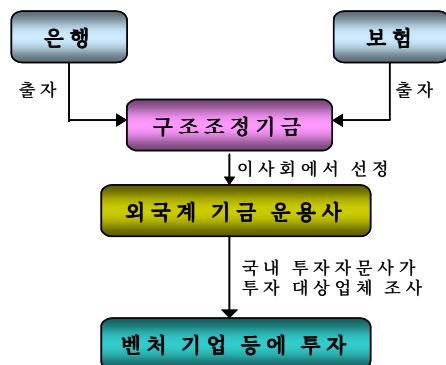
○ 하이닉스채 편입 투신권 비상

- 하이닉스반도체의 매각 협상이 타결되면 1조2,000억원 규모의 하이닉스 발행 회사채를 편입한 투신사 투기채 펀드 수익률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돼 투신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임
 - 투신사들은 지난 해 9월 하이닉스반도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으로 선정되자 일단 하이닉스 채권가격을 장부가 대비 20% 상각하고 향후 하이닉스 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음
 - 그러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40억에 하이닉스의 메모리 설비를 인수하게 되면 매각대금은 담보채권-신규 지원분-무담보 채권 순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순서에서 불리한 투신사들은 하이닉스채를 추가 상각해야될 실정임
 - 한 투신사 관계자는 현재 제시된 매각대금으로는 사실상 후순위인 투신권에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음
 - 이로 인해 매각 협상이 타결되면 나머지 미상각 손실분이 펀드수익률에 반영돼 하이닉스채 보유 투신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2월 18일 월요일 [2]

○ 구조조정기금 본격 수사

- 검찰이 구조조정기금과 이 기금이 투자된 기업체들의 자금 운영 및 유치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음
 - 이는 넓은 의미에서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금의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1998년 설립된 구조조정기금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22개 금융기관이 출자했으며, 한강 6,667억원 (초기 자본금 3,333억원), 서울 6,000억원, 아리랑 3,334억원, 무궁화 3,333억원 등 4개 기금에 약 2조원에 이름
- 검찰은 우선 구조조정기금을 배정 받은 기업체들을 상대로 투자자금 유용 여부와 기금 유치 과정에서 금품 로비의 유무에 수사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임
 - 수사 과정에서 구조조정기금의 감독기관인 금감원, 대주주인 산업은행, 기금 운용사인 외국계 투자자문회사 3곳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구조조정기금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음
 - 기금은 설립 목적에 따라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만 쓰이도록 돼 있으며, 기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 자금을 운전자금 등으로 쓸 수 없고 악성 채무를 갚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음
 - 대상 투자기업도 제조업 가동률이 50% 이상이면서 기술 또는 경영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기업이거나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벤처기업, 수출 비중이 큰 기업, 거래기업이나 금융기관 퇴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돼 있음
- 기금 출자자는 국내 금융회사지만, 금융회사와 기업간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는 당시 자금의 운용을 외국계 투신사들에게 위임했음
 - 한강은 스커더캠퍼, 서울은 로스차일드, 아리랑은 스테이트스트리트, 무궁화 구조조정기금은 템플턴이 각각 기금의 운용을 맡았음
- 기금의 감시는 출자 금융회사로 이뤄진 이사회가 총괄하고 있지만, 특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점검하는 수준임
- 구조조정기금 자금 흐름도



♣ 2002년 2월 19일 화요일 (1)

○ MMF에 자금 유입 급증

-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과 비교해서 2월 16일 현재 MMF로 4조4,25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밝힘
 - 전체 수익증권 수탁고 유입 규모가 동 기간 4조2,88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MMF로의 자금 유입이 수탁고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기조로 접어들었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올 들어 급등한 금리 상승 추세가 주춤하는 틈을 타 다른 투자대안을 찾고 있는 시중 부동산금이 일시적으로 초단기 상품인 MMF로 몰리고 있기 때문임
- 주가상승 기대 속에 주식형과 혼합형도 동 기간 각각 1,480억원과 1조2,870억원이 증가했음
- 반면,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시중 금리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채권가격 하락을 염려한 고객들의 환매가 잇따르면서 채권형의 경우 동 기간 1조5,710억원 감소했음

○ 투신권, 하이닉스채 평가 제각각

- 해외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발행한 채권을 펀드 내에 보유한 투신사들이 이 채권에 대한 평가를 제각각으로 해 투신 고객들간에 혼선이 일고 있음
 - 지난 해 10월 말 채권 신고액 기준으로 전체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채권 보유액은 총 1조1,87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음
- 이들 채권은 대부분 고객에게 판매하는 펀드에 편입돼 있어 하이닉스 채권의 평가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돌아가는 펀드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음
 - 하지만, 투신사별로 하이닉스 채권 평가방식이 달라 각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한 고객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대한, 한국, 현대 등 대형투신사들은 일단 하이닉스 채권의 80%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음
 - 반면, 삼성투신은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50% 대손상각을 실시해 채권가치의 50%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원BNP투신은 25% 상각을 실시해 펀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음
- 투신사 하이닉스반도체 채권 보유액

(단위: 억원)

회 사	보유액	회 사	보유액
한국	4,077	조흥	2,569
서울	1,183	주은	1,125
대한	1,117	교보	717
한일	322	한빛	203
동원BNP	200	한화	108
SK	104	현대	100
삼성	25	대투증권	18
신한	10	합계	11,878

* 2001년 10월 채권신고액 기준임

♣ 2002년 2월 19일 화요일 (2)

○ 푸르덴셜, 현투인수 본격 협상

- 현대투신 등 현대 금융3사 매각을 둘러싼 정부와 푸르덴셜간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 한 관계자는 푸르덴셜이 최근 우리 정부가 보낸 자료 검토를 마치고 협의에 응해왔다고 밝히며, 단순 투자목적이 아닌 아시아 부문 사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푸르덴셜은 이미 제일투신에 \$9,000만을 투자한데다 2004년까지 \$4억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음
- 한편, 이미 인수의사를 밝힌 월버로스 컨소시엄은 기존 AIG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자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으며, 또 다른 협상 대상인 미국 모 금융그룹의 경우 인수 의향서 (LOI)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2월 20일 수요일

○ BBB등급 회사채 발행 활기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발행 회사채도 채권시장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일반회사채 발행 실적 (1조1,564억원) 중 투자적격 마지막 등급인 BBB등급 회사채의 비중은 절반이 넘는 53.0% (6,264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BBB등급 회사채 발행 비중은 지난 해 12월 21.2%, 올해 1월 48.9%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은 관계자는 A등급 회사채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언급

○ CR리츠 장기증권저축 편입 허용

- 기업구조조정 리츠 (이하 CR 리츠: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상품을 장기증권저축에 편입할 수 있게 됨
 - 재경부는 2월 19일 거래소에 상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CR 리츠를 장기증권저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
 - CR 리츠는 주권 발행을 통해 모집된 자금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해 책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상품임

○ 대우채 보상펀드 환매자금 유치 경쟁 치열

- 투신권이 오는 3월부터 집중 만기 도래하는 대우채 보상 펀드의 자금 유치 경쟁에 돌입했음
 - 지난 2000년 초에 집중적으로 설정된 대우채 보상펀드는 약 7조원 정도며,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이 중 올 3~6월에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들 펀드들이 최근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서 투신권에 새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서민 금융기관들이 기존 펀드의 만기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 지난 해 말부터 이들 펀드들의 수익률이 초기 설정 당시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실망한 기관들이 투자처를 바꿀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만기 도래하는 대우채 보상펀드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대형 투신사들의 경우 만기 연장이나 대체펀드 설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임
 - 나머지 투신사들도 펀드의 만기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펀드 설정을 서두르는가 하면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자금 유치전에 돌입한 상태임

♣ 2002년 2월 21일 목요일 (1)

○ 채권 거래 감소로 채권형 펀드 운용 비상

- 채권 거래가 2월 들어 크게 위축되면서 투신권 채권형 펀드매니저들의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음
 - 이는 그 동안 채권 거래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어 수익률을 높였던 채권형 펀드가 채권 거래 감소로 인해 수익 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펀드 수익률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
-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채권 거래량은 지난 1월 201조8,460억원에 달했으나, 2월 들어 20일까지 거래량이 84조8,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하루 평균 거래량도 지난 1월 7조7,600억원에서 2월에는 6조500억원 수준으로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했음
- 채권 거래량 감소 이유는 올 들어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기관들이 채권 거래를 통해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대부분의 채권 펀드매니저들이 보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

○ 국민연금 6,000억원 내달 중순 투입

- 국민연금이 내달 중순부터 6,000억원 규모의 위탁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힘
- 국민연금은 주식 편입비율이 90% 이상인 순수 주식형 펀드에 2,5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위탁 운용사 선정에 들어갔음
 - 2월 25일까지 운용제안서를 접수하고 2월 15일 5개 투신 및 자산운용사와 3개 투자자문사를 최종 선정해 평가 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등 분배한다는 계획임
 - 나머지 3,500억원의 위탁 투자분은 6개월 이상 국민연금 위탁 펀드를 운용해 온 기존 운용사 중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고, 컴플라이언스 규정과 관리서비스 등이 우수한 운용사에 재배정 한다는 계획임
 - 국민연금 주식운용팀에서 자체 운용하는 직접 투자분 6,000억원은 거래소에 5,000억원, 코스닥 종목에 1,000억원씩 배분해 연초부터 꾸준히 주식 매입에 들어간 상태임
- 한편, 지난 해 4,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주식 투자규모를 늘린 교원공제도 2월 초 7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이번주 중 7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임

♣ 2002년 2월 21일 목요일 (2)

○ 은행권의 하이닉스 CB에 대해 출자 전환을 요구할 계획인 투신권

- 하이닉스 관련 15개 투신사 실무자들은 2월 19일 실무자 회의를 갖고 은행권이 인수한 2조9천억원의 하이닉스 CB에 대해 출자 전환을 요구했음
 - 은행권이 인수한 하이닉스 CB를 출자 전환할 경우 채권 우선 변제 원칙에 따라 은행권의 회수 비중은 그만큼 감소하는 반면, 투신권으로 돌아올 몫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됨
- 아울러, 투신권은 미국 현지 공장의 부채 \$10억을 우선 변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음
 - 투신권 한 관계자는 국내 부채와 해외 부채에 차별성을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체 채무 중에서 미국 현지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국내 부채에 배정돼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



♣ 2002년 2월 22일 금요일

○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 삭제 방침에 일부 투신사들 반대의사 표명

- 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규정을 삭제하려는 삼성전자의 방침에 대해 외국계 투자 펀드 (엘리어트)에 이어 국내 투신사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 97년 2월 삼성전자는 정관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신형 우선주의 경우 존속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해 왔음
 - 일부 투신사들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조정이 우선주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규정 삭제 방침이 우선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
- 현투운용의 경우 정기 주총에서 우선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삼성전자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임
 - 현투운용은 삼성전자 우선주 72만주 (3.05%)를 보유하고 있음

○ 기업연금제 업체별 자율 시행

- 현행 퇴직금 제도의 대안으로 기업연금제 도입을 검토해 온 노동부가 기업연금법 제정을 노사합의로 추진할 방침임
 -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퇴직금 개선 방안" 최종 보고서가 최근 마무리 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쟁점별 입장을 정리한 뒤 3월 초까지 노사정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도입 형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각출형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채택키로 했으며, 선택은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음
 -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은 55~56세로 하되 주택 구입과 장기간 실직 등의 특수상황에 한해 중간 정산을 허용하도록 했음
- 노동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급부형의 최종 연금 급여는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확정각출형의 기업주 부담 부분은 법정퇴직금과 비슷한 각출률이어야 한다고 함
 - 노동연구원은 이 밖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감안해 전직시 적립기금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 퇴직저축 계정 제도를 별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2002년 2월 23일 토요일 (1)

○ 기업지배구조 펀드 한국 기업에 4,000억원 투자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가시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펀드가 미국 뉴욕에서 설립되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전망이다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와 스커더 자산운용사는 3,000~4,000억원을 조성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한국 내 중소 기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기업지배구조 펀드는 일반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우수 중견 기업체를 발굴하여 회사가 투명 경영을 하는 조건으로 최고 경영자와 계약을 맺고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자금 회수 등 벌칙을 부과함
- IFC는 한국 경제가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아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IFC가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펀드는 재벌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IFC는 1년 전부터 기업지배구조 펀드 구성을 위한 시장 조사 작업을 벌였음
 - IFC도 펀드에 일부 투자를 하지만,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 공적자금 50% 회수시 국민 1인당 273만원 부담

- 삼성경제연구소는 "금융 구조조정 이후 3대 현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회수율이 50%일 경우 우리 나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는 273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보고서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40%일 때 국민 1인당 부담은 306만원, 회수율이 60%면 237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음
 - 지난 해 말 현재 총 40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회수율은 26.3%에 그쳤음
 - 보고서에서는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종합평가가 회수 가능한 부분의 회수율을 최대한 높였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볼 때 공적자금 회수율이 50%를 웃돌기 힘들다고 설명
 - 퇴출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지급한 예금대지급 (25조8,000억원)의 경우 회수율은 극히 저조한 20~30% 정도이며, 부실 채권 및 자산 매입에 들어간 공적자금 (53조원)은 80% 이상 회수할 것으로 전망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출연에 쓰인 공적자금 (76조5,000억원)은 주가에 따라 회수 실적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음
 -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거친 은행의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하지만,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분을 대거 매각하면 가격 폭락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

♣ 2002년 2월 23일 토요일 (2)

○ 금감위 세종금융지주 인가 취소

- 금감위는 2월 22일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를 취소했음
 - 금감위는 지주회사 출자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출자자 요건을 충족토록 세종측에 요구했으나, 세종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음
- 이로 인해 세종금융지주사는 보유 중인 세종증권, 세종기술투자, 세종투자신탁운용 등 자회사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 세종금융지주회사는 현재 자회사로 세종증권 (보유지분 49.3%), 세종기술투자 (100%)를 갖고 있으며, 세종투자신탁운용은 세종증권이 99.8%를 보유한 손자회사임

○ 미국 최대 연기금 CalPERS 투자 대상국 변경

-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CalPERS는 지난 2월 20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 증권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한국, 대만, 이스라엘 등 신흥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음
- 이번에 4개국이 투자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CalPERS가 요구하는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임
 - CalPERS는 지난 2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새 투자 기준을 도입했으며, 이 기준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나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기업이 속한 나라의 정치적 안정, 노동 기준,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한 것임
 - 세계연기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CalPERS가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다른 주요 연기금들도 비슷한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CalPERS의 투자 대상 신흥증권시장 (자료: CalPERS)

제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신규	폴란드, 헝가리
기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페루, 남아공, 대만, 터키, 칠레

- CalPERS의 투자자산 구성 내역 (2001년 12월 말 현재, 자료: CalPERS)

종류	금액 (단위: \$억)	비중 (%)
채권	424	27.9
미국 주식	612	40.3
해외 주식	279	18.4
지분 투자	72	4.8
부동산	131	8.6
총계	1,518	100

♣ 2002년 2월 25일 월요일

○ 투신협회 신인사제도 시행

- － 투신협회는 금년 2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4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 직군을 신설하는 등 신인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임
 - 투신협회 양만기 회장은 최근 업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자율규제업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협회의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 활성화, 예산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이번 투신협회의 조직 개편은 IMF 관리체제 이후 대다수의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업이 아닌 협회가 형식적인 성과급제보다는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음
- － 협회는 연봉 상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보수뿐 아니라 승진 등의 인사기준에도 반영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비집행의 효율화 등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급증

-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6개월 동안 30% 가까이 늘어나 국민연금 운영에 비상이 걸렸음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월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보험료 체납액이 2조4,4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해 7월의 체납액 1조8,989억원보다 29% 늘어난 것임
 - 체납액 중 사업장의 체납액이 4,703억원으로 지난 해 7월에 비해 7% 증가에 그쳤으나 지역 체납액은 1조9,761억원으로 36%나 급증했음
- － 체납액이 급증한 주 원인은 지난 해 연금 보험료가 평균 25% 올랐으나 체납자 수는 줄어들이지 않아 그만큼 체납액이 커졌기 때문임
 - 아울러 보험료를 내던 일부 가입자가 요율 인상을 계기로 납입을 포기한 것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정됨
- － 체납자 수는 3,832,000명으로 지난 해 7월 3,726,000명에 비해 3% 증가한데 그쳐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음
 - 체납자의 39%인 151만명은 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 반면, 지역 보험료를 성실하게 낸 가입자는 전체 지역 가입자 10,180,000명 가운데 19%인 1,963,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음

♣ 2002년 2월 26일 화요일 (1)

○ 현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전경련

-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인력 운용에 장애가 되고 과도한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연금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음
 - 보고서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주기능인 실업기간 중 생계보장과 퇴직 후의 소득보장 기능이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 반면, 기업연금제도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의 자율성으로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의 범위, 보험료 각출 형태 등을 조정해 기업의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다고 설명
 -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고,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가교연금 (bridgepension)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전경련은 국민연금제도를 기초 부문과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비례 부문으로 이원화한 뒤 소득비례 부문을 기업연금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음
 -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을 기업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임
- 전경련은 법정퇴직금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국민연금을 합쳐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월 평균 임금의 12.83% 이상을 부담해 과도한 법정 복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법정퇴직금제도는 전직 때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대신 퇴직 당시의 생계비 또는 목돈 수요에 소비해 노후 보장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음
- 전경련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이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수혜자가 전체 취업자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적정화해 수혜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2002년 2월 26일 화요일 [2]

○ 대형 투신사의 시장 지배력 여전

- 최근 2년 동안 투신사 수는 증가했지만, 소수 대형 투신사들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됨
 - 이로 인해 남겨진 틈새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중소형 투신사들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음
- 투신협회에 따르면 2002년 1월 말 현재 투신권 전체 수탁고는 약 151조원으로 2000년 1월 말 약 180조원에 비해 30조원 정도 감소했음
 - 반면, 투신운용사 수는 국내 신설투신사와 외국계 투신사의 진출로 인해 2000년 1월 24개에서 지난 해 1월 27개, 올해 1월 30개로 갈수록 증가했음
- 이러한 시장 환경과 더불어 대형사는 대형사끼리, 중소형사는 중소형사끼리 펼쳐지는 투신시장 경쟁 구도로 인해 영업기반이 허약한 중소형 투신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즉, 대형 투신사들은 신설투신사 증가에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형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상황임
- 삼성투신이 13%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며 사실상 업계 선두자리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대한, 현대, 한국 등 기존 3대 투신도 각각 10% 이상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제일투신과 주은투신도 수탁고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며 7%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상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0.6%를 차지함
- 그러나, 2000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2%에 미치지 못하는 투신사는 7개사였으나, 지난해 12개사, 올해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개사로 영세 투신운용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임
 - 이 중 굿모닝, 태광, 아이, 동부, 슈로더, 세종투신 등 6개 투신운용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태임

♣ 2002년 2월 27일 수요일 (1)

○ 기업 감시 역할이 커지게 될 투신사

- 향후 투신사 펀드의 의결권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투신사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월 말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에 펀드에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투신의 권리 행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임
 - 즉,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투신사 및 그 계열사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중 투자된 계열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안에서 합병, 영업양도, 임원 선임, 정관 변경에 한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투신사들은 계열사간 자금 대차가 많은 기업, 정부 지분 매각 문제를 지연시키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별다른 도움이 안됐던 공기업, 주가 관리 부실 기업 등을 주요 대상 기업으로 지목하고 있음
 - 한편, 현재 투신사 중 상당수가 재벌계열 투신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과연 모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추천 종목의 해당 기업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

- 오는 4월부터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특정기업 주식을 매수 추천할 때엔 해당 기업과의 재산적 이해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함
 - 아울러, 애널리스트들은 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게 됨
-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무 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증권사들은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매수 추천할 때 주식 보유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주식을 추천하면 이후 24시간 동안 매매할 수 없도록 했음
 - 애널리스트들도 추천 종목과 자신의 재산적 이해 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금감원은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 범위와 공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증권업협회가 정하도록 했음
 -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은 특정 종목 추천의 대가로 추천 기업이나 해당기업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는 행위도 금지됨
 -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이 맡은 업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없게 되고 감사 의견이 부적정 및 의견 거절이거나 관리 종목인 업체는 조사분석 보고서를 만들 수 없도록 했음

♣ 2002년 2월 27일 수요일 (2)

○ 투신사에 확정수익률 강요시 해당 기관투자자에 불이익 조치

- － 앞으로 투신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하면서 확정수익률을 요구하는 기관투자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보장행위가 투신사의 펀드간 자전 거래나 편법적인 운용을 조장해 온 측면이 크다고 언급
 - 따라서, 향후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확정수익률을 강요한 기관투자자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감독기관이나 부처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힘
- － 이 같은 당국의 조치는 투신사 상품이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확정수익률 보장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에 쐼기를 박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2002년 2월 28일 목요일

○ 펀드 수수료 체계 올 하반기부터 개편될 움직임

- 그 동안 투신 업계에서 정부 당국에 꾸준히 건의된 바 있는 펀드 수수료 체계가 빠르면 올 하반기에 개편될 전망이다
 - 현재 펀드 수수료 부과 방식은 평잔 방식이 보편적이며, 선취 및 후취 수수료 방식의 활용은 아직까지 미흡한 편임
 - 선취수수료의 경우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미리 내는 것에 아직 강한 반감이 있는데다 국내 투자문화도 선취수수료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실정임
- 투신 관계자는 펀드 수수료가 다양화되면 펀드 규모도 커질 뿐 아니라 수수료 인하 효과도 볼 수 있어 투신권의 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한 상품에 다양한 수수료 방식을 적용하는 멀티 클래스 상품의 도입 여부도 업계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기관전용펀드 공모 방식 설정 제한

- 향후 특정기관이 단독 설정하는 기관전용펀드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 최근 금감원은 그 동안 모집 행위는 공모로 하면서 운용은 사모형으로 운용되던 기관전용펀드에 대해 사모로 모집하도록 업계에 지시했음
- 기관전용펀드들이 주로 공모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모 펀드가 단위형 펀드여서 추가 자금 투입시마다 펀드를 설립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임
 - 아울러, 표준약관으로 사후 보고를 하는 공모 펀드에 비해 비표준약관을 제출하게 되는 사모 펀드의 경우 투신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등 사전 보고를 위한 절차가 필요함
- 한편, 금감원은 투신사들이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3월

March

10대 주요 기사

1. 국민연금 2008년 이후 가입자 원금 손해 (4일)
2. 투신사 지난 해 수익 큰 폭 증가 (7일)
3. 투신사 펀드 운용권 재위탁 허용 추진 (7일)
4. 대우채 보상 펀드 내 부실채 환매 거부 방침을 세운 한투증권 (13일)
5. 펀드매니저 위법 행위시 자격 박탈 (13일)
6. 내년 이후 취업 근로자 기업연금제 도입 검토 (14일)
7. 펀드 운용정보 4월 일반 공개 (18일)
8. 현투증권 2000년 실권주 공모 사기 혐의 (22일)
9. 역외펀드의 주가 조작 조사 필요성 대두 (26일)
10. 대투·한투·제투 3개 투신운용사 유상증자 추진 (27일)

◆ 3월 목차 (3/1-3/10)

3/1 [금]	삼 일 절
3/2 [토]	○ 투신권 판매시장 운용사가 주도 ○ 현투 매각 협상 이 달 중순 본격화
3/3 [일]	
3/4 [월]	○ 국민연금 2008년 이후 가입자 원금 손해
3/5 [화]	○ 개별주식 옵션 시장에 대한 시장 조성 역할이 미진한 투신사 ○ 금융사 감사기능 대폭 강화
3/6 [수]	○ 채권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기등급 회사채 ○ 은행 신탁 수탁고 100조원 돌파
3/7 [목]	○ 재경부 분기 배당제 도입 재추진 ○ 투신사 지난 해 수익 큰 폭 증가 ○ 투신사 펀드 운용권 재위탁 허용 추진
3/8 [금]	○ 생보 증안기금 물량 내주부터 매각 ○ 외국기업도 부실책임져야 새분야 진출 ○ 수익률 100% 펀드 2년 9개월만에 재등장
3/9 [토]	○ 우리금융지주회사 \$10억 유치 계획
3/10 [일]	

◆ 3월 목차(3/11-3/20)

3/11 [월]	○ 수익증권 판매력을 강화하고 있는 은행권
3/12 [화]	○ 한투운용 UBS와 협상 연기 ○ 대우채 보상펀드 재유치 비상 ○ \$1억5천만 규모의 나스닥펀드 조성
3/13 [수]	○ 삼성투신에 삼성생명 자산 위탁 허용 ○ 펀드매니저 위법 행위시 자격 박탈 ○ 투신권 배타적 우선 판매권 상품 첫 판매 ○ 대우채 보상 펀드 내 부실채 환매 거부 방침을 세운 한투증권 ○ 경기 회복에 맞춰 투신권 상품 출시 활발 ○ 국민연금 조기 수령 급증
3/14 [목]	○ 애널리스트 불공정 행위 감사 ○ 일부 투신사 투기채 펀드 만기 자금 재유치 ○ 내년 이후 취업 근로자 기업연금제 도입 검토 ○ 한강기금 현금 배당으로 메릴린치 176억원 챙겨
3/15 [금]	○ 국민연금 6천억원 증시 투입 ○ 노동부 기금 6천억원 증시 유입 ○ 한빛은행, 한빛투신 및 한빛증권 지분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매각 결정 ○ 벤처펀드 유용기업도 조사 ○ 벌처펀드 수익률 내기 비상
3/16 [토]	○ 3월부터 국민연금 4.1% 인상 지급
3/17 [일]	
3/18 [월]	○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형 펀드 비상 ○ 펀드 운용정보 4월 일반 공개 ○ 증시 불공정 조사기구 본격 활동 시작
3/19 [화]	○ 100% 수익률을 달성한 주식형 펀드 등장
3/20 [수]	○ 최근 자금이 몰리고 있는 투자자문사 ○ 금융기관 자산운용 위탁 검토 ○ 국민연금 5천억원 해외 주식 투자

◆ 3월 목차 (3/21-3/31)

3/21 [목]	○ MMF 환매사태 우려 ○ '김동성 펀드' 설립 관련 잡음 ○ 모건스탠리, 국은투신 조만간 인수 예정 ○ 한국·싱가폴 \$3천만 규모의 펀드 조성 ○ 삼성생명 펀드매니저 삼성투신으로 대거 이동
3/22 [금]	○ 현투증권 2000년 실권주 공모 사기 혐의 ○ CBO펀드 3월 들어 1조원 감소
3/23 [토]	○ MMF 수탁고 급감 ○ 장기증권저축 3조원 돌파 ○ 삼성생명 채권운용 아웃소싱 ○ 7월부터 상장지수펀드 (ETFs) 도입
3/24 [일]	
3/25 [월]	○ 역외펀드 불법 운용 9개사 적발 ○ 종금협회 진로 사실상 결정
3/26 [화]	○ 증권사, 고객별 특화상품 개발 분주 ○ 금감원 역외펀드 주가 조작 뒷집 ○ 해외펀드 국내 판매 급증
3/27 [수]	○ 대투·한투·제투 3투신운용사 유상증자 추진 ○ 부실채 손실 삼성증권서 일부 부담
3/28 [목]	○ 주식형 펀드 물갈이 활발
3/29 [금]	○ 투신평가 전문사 나이스 선정 ○ 월드컵 16강 진출 염원을 담은 투신 펀드 발매 예정
3/30 [토]	○ 기관 대상 사모펀드 설정 급증
3/31 [일]	

♣ 2002년 3월 2일 토요일

○ 투신권 판매시장 운용사가 주도

- 투신권의 판매시장 주도권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 및 은행 등 판매사에서 운용사로 넘어오고 있음
 - 증권사들의 경우 신탁재산의 일부 해지를 통해 환매를 하게 됨에 따라 환매에 따른 미매각 수익증권이 발생하지 않게 됨
 - 이로 인해 환매 위험 부담이 감소되어 증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판매시장에 참여 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아울러, 펀드평가회사들의 운용 성과 공개 이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운용사의 펀드는 판매사들이 앞다퉈 유치 경쟁을 벌여 운용사들이 판매사를 선택하는 역선택의 상황이 발생했음
 -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은행들의 펀드 판매시장 진입이 활발해 짐에 따라 판매사 수요의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운용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를 중심으로 운용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투명한 펀드 운용과 성과 공개가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시장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
 - 높은 성과를 올리는 운용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덧붙임
- 과거 한국, 대만, 현대 등 판매와 운용을 겸하는 일체형 투신사 시대가 사라지고 운용전문 투신사가 난립 (최근 40여개)하면서 판매사들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했었음
 - 이로 인해 최근까지 판매사들은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고, 펀드 전체수수료에서 받을 수 있는 판매수수료 비중도 상한선인 70%를 넘어 80% 이상 받는 경우도 많았음

○ 현투 매각 협상 이 달 중순 본격화

- 현대계열 금융 3사 매각을 위한 정부와 미국 푸르덴셜간의 협상이 이 달 중순쯤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해 말부터 현투증권 인수에 관심을 보인 푸르덴셜이 관련 자료를 자체 검토 중이며, 아직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힘
 - 그러나, 푸르덴셜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 달 중에는 양측이 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감위 한 관계자는 푸르덴셜이 현투증권 등 투자대상 3개 기업에 대한 분석자료와 정부와의 공동투자 구도에 대한 검토작업이 끝나면 양측간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 2002년 3월 4일 월요일

○ 국민연금 2008년 이후 가입자 원금 손해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미래 세대로부터의 소득 이전을 통해 현세대가 '후생 이득'을 보는 구조로 돼 있어 연금 고갈을 피하려면 2008년 이후 가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음
 -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보고서 내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9%를 전제로 분석한 내용임
- 본 보고서에서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당시 만 26세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수익비가 각각 저소득층 2.6, 중소득층 2.0, 고소득층 1.6으로 산정돼 있다고 밝힘
 -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0 이상이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연금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국민연금 모든 가입자의 수익비가 1.0 이상으로 설계돼 있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의 어느 시점 (2040년 중반 추정)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에서 중소득층은 제조업 평균 임금이며, 저소득층은 평균 임금의 50%, 고소득층은 평균 임금의 200% 수준 계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2002년 3월 5일 화요일

○ 개별주식 옵션 시장에 대한 시장 조성 역할이 미진한 투신사

- 1월 28일 개장한 개별주식 옵션 시장이 2월 28일까지 1개월 동안 전체 거래량은 17,904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 중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의 거래량이 87%인 15,585계약을 기록해 삼성전자를 빼면 개별주식 옵션 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보임
- 거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투신권이 동일종목 투자 한도에 묶여 있어 개별주식 옵션 시장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고 있음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에 따르면 펀드 당 동일종목의 투자 한도가 10%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개별주식 옵션을 주식으로 간주해 동일종목 편입 한도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신사들이 개별주식 옵션 거래를 못하게 되자 시장조성 역할을 누구도 떠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적으로 신규 시장을 개설하면 투신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을 조성해 거래량을 늘려야 외국인들이 뛰어드는 등의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게 돼 있음
 - 그러나, 시장조성자들이 없어 거래량 부진이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거래량 부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사 감사기능 대폭 강화

- 앞으로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은 감사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게 되며, 경영진의 지휘 아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자문하는 준법감시인의 직무도 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감사기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올 3·4분기 중 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사 직무 규정의 반영 실태 파악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 금감원은 이에 앞서 금융권별 각 협회의 임원 및 감사기능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협회의 주관 아래 감사위원회 규정과 감사 직무 규정의 모범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 내규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임
 - 모범 규정에는 감사 직무 범위의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감사 대상에 포함, 경영 활동의 중요 정보에 대한 감사 보고 의무화, 감사 조직 내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 감사자격 요건 및 집행임원 겸직 금지의 규정화 등이 포함됨
-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사가 직무를 게을리해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나 경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

♣ 2002년 3월 6일 수요일

○ 채권시장 현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기등급 회사채

- 경기 회복 바람을 타고 투자적격 중 최하위 등급인 BBB- 등급 기업들까지는 회사채 발행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는 BB 등급 이하 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자력으로 채권 발행이 힘든 상황임
- 지난 3월 5일 인터넷 증권 사이트인 FnGuide에 따르면 올들어 무보증 일반 회사채 (자산담보부채권 제외) 발행 총액은 4조6,8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 중 지난 해까지만 해도 발행에 어려움을 겪던 BBB 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2조3,117억원에 달해 전체 발행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산업 생산활동 등 경기지표의 호전 및 기업 체감경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회사채 발행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풀이됨
- 그러나, 일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BB 등급 이하 투기등급 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의 활기와 경기 회복의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음
 - 올해 들어 투기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총 8,215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규모의 17%에 이름
 -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저리로 차환 발행을 해 준 쌍용양회 (1,226억원), 하이닉스반도체 (4,756억원)를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투기등급 기업들이 자력으로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233억원 (전체의 4.7%)에 불과한 실정임
- 시장 관계자들은 이렇듯 투기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이들 채권을 편입할 수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은행 신탁 수탁고 100조원 돌파

- 지난 해 말 은행 신탁상품 가입액이 다시 100조원을 넘어서고 신탁부문 영업 실적 또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됨
 - 금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19개 신탁경영 은행의 전체 수탁고는 105조4,534억원으로 2000년 말 (79조5,483억원)에 비해 32.5% 증가했다고 밝힘
 - 신탁부문 실적도 99년 이후 연속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1조2,945억원의 흑자로 반전했음
- 주요 상품별 수탁고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금전채권신탁 21조4,578억원 (1,575.3%),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 8조347억원 (566.8%), 퇴직일시금신탁 1조1,483억원 (111.6%)이 증가했음
 - 이에 반해, 장부가 실적배당신탁은 5조7,284억원 감소했음

♣ 2002년 3월 7일 목요일 (1)

○ 재경부 분기 배당제 도입 재추진

- 최근 재경부는 기업의 수익가치에 근거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배당제 도입 및 액면가 배당을 공시 삭제 등 기업의 배당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관계자는 관련기관의 준비를 통해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때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 재경부는 우선 중간배당제 실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해 도입이 보류됐던 분기 배당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재경부는 분기보고서에도 외부 감사법인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배당 안건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재경부는 그 동안 복수화 돼 있던 배당을 공시제도를 시가배당률로만 한정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을 공시는 없어지고 시가배당률만 공시될 것으로 예상됨

○ 투신사 펀드 운용권 재위탁 허용 추진

- 최근 금감원은 투신사간 또는 자산운용사간 운용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운용 재위탁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감원은 현재 특정 운용사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운용사에게 운용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금감원이 이처럼 운용사간 재위탁 허용을 검토하는 배경은 해외 투자펀드 등 특정 목적의 펀드에서 자문 계약을 통해 운용권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제도화 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
 - 최근 투신사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회사들까지도 공공연히 운용 재위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투신 관계자는 운용사간 재위탁이 활성화 될 경우 다른 운용사의 전문화된 펀드매니저의 운용 능력과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분야의 유가증권에 강점을 가진 다른 투신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
 - 아울러 펀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지역별·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전문적 리서치를 통해 리서치 분야를 강화할 수 있어 효과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함
 - 그러나 이 같은 운용사간 전면적인 재위탁 추진은 자칫 운용사 업무를 포기할 우려도 있는 만큼 개별 펀드에서 재위탁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관련업계는 정부 당국에 운용 재위탁을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관련 근거 명시와 개별 펀드만을 통한 운용 재위탁 허용 등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3월 7일 목요일 (2)

○ 투신사 지난 해 수익 큰 폭 증가

- 3월 결산법인인 국내 투신운용사들의 2001 회계연도 기간 중 3/4분기까지의 누적 세전이익이 2000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음
 - 2001 회계연도 중 3/4분기까지의 세전 당기순이익은 1,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6억원 (36.9%) 증가하였음
 - 이는 투신사 수탁고 증가에 따른 위탁자 보수 증가 (2,378억원→2,568억원) 등에 기인함
- 지난 2000년 7월 이후 신설된 투신운용사인 슈로더 (2001.7), 굿모닝 (2001.2), 아이 (2000.7) 3사를 제외한 27개 투신사 모두 흑자를 기록했음
 -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투신사는 주은 216억원, 조흥 151억원, 삼성 150억원 순임
- 2001년 12월 말 현재 투신운용사 (30개사)의 총자산 규모는 2000년 12월 말 1조 1,312억원에 비해 1,299억원이 증가한 1조2,611억원을 시현했음
 - 이는 수탁고 확대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와 신설 투신 3사 (하나, 굿모닝, 슈로더)의 자본금 550억원 예치에 따른 것임

♣ 2002년 3월 8일 금요일

○ 생보 증안기금 물량 내주부터 매각

- 생명보험사들이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하여 주가 안정용으로 사들였던 주식 1,800억원 어치를 다음 주 초부터 장내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됨
 - 증시안정기금 청산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96년 증시안정기금이 청산될 당시 취했던 생보사 보유물량의 처분 제한을 이번 주말쯤에 풀어줄 방침이라고 언급
 - 그는 지난 98년부터 매년 보유물량의 20%를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생보사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부담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임
-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로 잡혀 있던 생보사들의 증안기금 물량이 조기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음
 - 증권업 한 관계자는 이들 생보사가 갖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지수관련 대형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지수 상승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1990년 5월 8일에 설립된 증안기금은 증시부양을 위해 매입한 주식 물량을 금융권역별 기금 출자 비율만큼 분할하여 관리해 왔으며, 내년 5월에 청산될 예정임
 - 증안기금 청산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상장사 등 나머지 법인의 보유 물량 9,000억원의 경우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당분간 매각 제한을 풀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 외국기업도 부실 책임져야 새분야 진출

- 이 달부터 외국기업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실에 책임이 있으면 경제적 손실 분담금을 부담해야 새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됨
 - 금감위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쯤부터 시행기로 했다고 밝혔음
- 금감위는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증권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출자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음
 - 금감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기업은 부실 책임에 대한 경제적 분담금을 물어야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고 언급
 - 그는 향후 외국 기업도 분담금을 내야만 증권사 등의 주요 출자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음

○ 수익률 100% 펀드 2년 9개월만에 재등장

- 지난 99년 6월 이후 최초로 투신업계에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한 펀드가 나왔음
 - 한화투신운용은 최근 일반투자자들을 주요 가입 고객으로 하는 "하이프로2000 주식혼합형 펀드"가 상품 운용 결과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음
- 평잔 50억원 규모인 "하이프로2000 주식혼합형 펀드"는 2000년 3월 말 종합주가지수 891포인트에서 설정된 추가형 펀드로 현재 각 판매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함

♣ 2002년 3월 9일 토요일

○ 우리금융지주회사 \$10억 유치 계획

- 올 6월 상장 예정인 우리금융지주회사가 미국 리먼브러더스에서 \$10억 (1조3,000억원)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우리금융지주회사는 3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해 외자유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리먼브러더스를 지정하고 \$10억 규모의 외자 유치건을 의결했음
 -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그 동안 GE캐피탈 등 4~5개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자 유치 협상을 벌였지만, 앞으로 업무제휴 확대를 위해 리먼브러더스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임
- 리먼브러더스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지분 5~10%와 자회사인 우리금융자산회사 지분 50%를 취득하는 댓가로 모두 5,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리먼브러더스는 우리금융자산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부실채권 매입에 7,000~8,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
- 우리금융지주회사 자본금은 총 3조6,373억원 (7억274만주)이며, 이번 리먼브러더스 출자에 따라 3,000~5,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
 -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의 우리금융자산회사 출자와 부실채권 매입자금은 협상 결과에 따라 1~2개월 안에 유입되고 우리금융지주회사 출자자금 납입도 늦어도 6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2002년 3월 11일 월요일

○ 수익증권 판매력을 강화하고 있는 은행권

- 은행권은 지난 해 수익증권 판매를 시발점으로 수익증권 판매에 대한 수익이 예상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지점 영업에 대한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수익증권 판매 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해가고 있음
 - 은행권은 전국적인 지점 네트워크와 기존 개인 고객들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으며, 은행이라는 안정적인 브랜드네임을 부각시키면서 시중 부동산자를 끌어 들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지난 해 은행권이 판매한 수익증권 규모는 14조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부터 본격적인 수익증권 판매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그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2002년 3월 12일 화요일 (1)

○ 한투운용 UBS와 협상 연기

-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추진된 한국투신운용의 해외 지분 매각 협상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지난 3월 5일 UBS 자산운용측에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 지난 9.11 테러 사태 이후 UBS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계획이 동결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투신운용의 지분 협상 노력도 잠정 중단됐다고 밝힌데 따른 것임
 - 아울러 UBS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해엔 신규로 아시아지역에서 지분 인수 협상 등은 하지 않는다는 게 본사의 방침이라고 언급
 - 하지만, 그는 지난 해 4월 한투증권측과 체결한 MOU 상으로 볼 때 아직 1년의 기간이 더 남아 있으므로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임
- UBS 자산운용측의 신규 투자 협상 잠정 중단 방침에 따라 한국투신운용과 한투증권 지분 일부를 UBS 자산운용측에 넘겨 공적자금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 \$1억5천만 규모의 나스닥펀드 조성

- 국내 유망 IT 벤처기업의 나스닥 상장을 지원할 나스닥펀드가 \$1억5천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이 같은 초대형 펀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 펀드를 통해 15개 기업의 나스닥 상장이 추진될 예정임
- 나스닥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스틱아이티 벤처투자 관계자는 당초 \$5천만 가량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다 해외 기관들도 동참 의향을 밝혀와 펀드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음
 - 이 펀드에는 정부가 \$3천만, 펀드 운용 국내 주간사인 스틱아이티 벤처투자와 산은캐피탈이 \$2천만을 부담할 예정인데다 5개 국내 기관들도 약 \$1억을 출자키로 확정된 상태로 알려짐
 - 여기에다 해외 기관들의 출자분까지 포함할 경우 펀드 규모는 \$1억5천만+a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은캐피탈과 스틱아이티는 3월 말까지 나스닥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펀드운용회사, 역외펀드 설립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한다는 방침임
 - 아울러, 3년에 걸쳐 매년 \$5천만씩 투자하되 1개 기업당 최소 \$1천만을 투입하여 20% 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투자 원칙을 정했음
 - 투자 대상 기업은 코스닥 등록 기업을 포함해 IT 기업이면서 수출 비중이 높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기업 중에서 고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3월 12일 화요일 [2]

○ 대우채 보상펀드 재유치 비상

- 대우채 보상펀드가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함에 따라 만기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해 투신권에 비상이 걸렸음
 - 투신업계에 따르면 3월 13일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대우채 보상펀드 만기 규모가 1조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대한투신 6,600억원, 삼성투신 6,200억원, 한국투신 5,500억원 등임
- 대우채 보상펀드는 지난 99년 대우 사태 발행 후 환매 제한 조치에 반발했던 신한,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투자자금을 재유치할 목적으로 2년~2년 6개월씩 만기 연장 형태로 투신권이 재설정된 펀드임
 - 대우채 보상펀드는 4월 500억원, 5월 5,400억원, 6월 7,000억원 등 상반기에만 3조1,000억원이 만기 도래할 예정임
- 투신권은 이 자금들의 재유치를 위해 신상품 발매나 기존 펀드 판촉 강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1)

○ 삼성투신에 삼성생명 자산 위탁 허용

- 금감원이 삼성생명 자산을 계열사인 삼성투신운용에서 일괄 위탁 운용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해 자산운용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됨
 - 삼성생명은 총 자산 61조원 중 약 10조원 규모를 삼성투신운용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로 인해 삼성투신운용은 기존 수탁액 20조원을 포함해 총 수탁액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신운용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은행과 다른 보험회사들도 삼성생명과 같이 계열 투신사에 자산을 일괄 위탁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자산운용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됨
-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유가증권 투자자산의 삼성투신운용 일괄 위탁 운용을 허용한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금감원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선발 투신운용사를 초대형 회사로 육성해 투신운용시장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펀드매니저 위법 행위시 자격 박탈

- 금감원은 '펀드매니저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여기에는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위법 및 위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펀드매니저 자격이 박탈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아울러 현행 투신운용사 7명, 자산운용사 5명 등 펀드매니저 최소 의무 확보 규정이 확대돼 파생상품 등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반드시 펀드매니저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임
- 금감원 관계자는 스타급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상품을 판매한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시키거나 수익률 조작 행위 등 부당 행위도 많아 펀드매니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 가운데 금리스왑이나 개별주식 옵션 등 파생상품 분야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투신협회에 따르면 3월 12일 현재 국내 30개 투신사, 12개 자산운용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는 모두 745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2]

○ 투신권 배타적 우선 판매권 상품 첫 판매

- 미래에셋증권은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미래에셋 시스템-캡" 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음
 - 이 상품은 지난 3월 5일 미래에셋투신이 투신협회로부터 3개월 동안 배타적 우선 판매권을 획득한 상품으로 배타적 우선 판매권을 획득한 상품이 실제 판매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 미래에셋증권은 이 상품이 펀드의 이익과 위험을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 및 원금 손실을 우려하는 안정적 성향의 개인 고객이 가입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음
 - 이 펀드는 일정한 주가지수 상승률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전환형 펀드 이면서 원금이 시스템상 보전되는 원금 보전형 펀드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대우채 보상 펀드 내 부실채 환매 거부 방침을 세운 한투증권

- 한국투신증권이 만기 도래하는 대우채 보상 펀드 (CBO 및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을 환매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가입자인 새마을금고측에 최종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음
 - 새마을금고는 수천억원 규모의 대우채 보상 펀드 만기 자금과 다른 펀드에 위탁했던 2조여원의 자금까지 모두 인출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 한투증권 지점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됨
 - 한투증권은 이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총 5,500억원의 대우채 보상 펀드에서 220억원 규모가 하이닉스반도체 (167억원) 및 현대건설 (53억원) 채권으로 당장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임
- 한투증권 관계자는 3월 12일 이 달부터 만기 도래하는 대우채 보상 펀드 중 일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실자산은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새마을금고에 전달했다고 언급
 - 그는 당장 영업에 지장을 받더라도 미래를 위해 수익자 손실 부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음
-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측은 한투증권의 입장이 처음 펀드 가입시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한투증권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전국 시도지부에서 한투증권에 맡긴 자금을 일제히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힘
- 한편,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6,600억원의 대우채 보상 펀드 중 1,200억원이 부실자산인 대투증권은 회사에서 일단 손실을 안고 부실자산까지 환매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3)

○ 경기 회복에 맞춰 투신권 상품 출시 활발

-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신권의 신상품 발매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임
 - 올해 초까지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더 높았던 안정 위주의 상품에서 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성장형 상품의 발매가 두드러지고 있음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 2의 '바이코리아' 붐을 일으키기 위해 각 투신운용사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5조원 규모를 목표로 하는 펀드까지 등장했음
- 최근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판매 수수료를 미리 받는 대신 환매가 자유롭다는 점임
 - 운용사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상품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 등락에 따라 언제든지 투자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운용사 주력 신상품 펀드 소개

운용사	주력 신상품	특징
국은투신	프랭클린더블히트펀드	안정형·전환형 상품 (목표수익률 10%)
굿모닝투신	굿모닝세이프원	안정형 (주식 30%), 전환형 상품 (목표수익률 10%)
대한투신	갤럽코리아펀드	5조원 모집펀드, 인덱스·인덱스 전환형·성장형·안전 성장형 등 5종
동양오리온투신	온국민뜻모아펀드	성장형, 환매수수료 없음, 주식 편입비 60%
마이에셋자산	애국성장형펀드	성장형 (주식 60% 이상),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우량주에 투자
미래에셋투신	시스템-캡펀드	원금보존형 펀드, 전환형 (일정 주가 상승시 채권형으로 전환)
삼성투신	삼성팀 파워90주식형펀드	환매수수료 없음, 적극적 성장형 펀드
세종투신	SJ다이너스티70 주식투자신탁	주식 편입비율 70% 이상, 고속 성장형 상품
신한투신	신한채인지업혼합	전환형, 목표수익률 (6개월 6%, 1년 12%)
제일투신	CJ포트폴리오엠브렐라 주식	금융주 펀드 등 11개 섹터 펀드와 MMF간에 12회 전환 가능
현대투신	현대인덱스펀드	KOSPI200 지수 추종
한국투신	그랜드슬램	성장형 등 3종, 환매수수료 없음
LG투신	시그마20플러스	성장형 (80% 이상), 전환형
SK투신	OK베스트성장형	주식 편입비 60% 이상
KTB투신	포트폴리오스타펀드	주식 혼합형 (주식 60%, 채권 40%), 수익률 -10%시 차익거래 전환

♣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4)

○ 국민연금 조기 수령 급증

- 국민연금을 60세가 되기 전인 55~59세에 받으려는 직장 퇴직자들이 늘고 있음
 - 연금의 월 지급액은 60세가 돼 연금을 받는 것보다 5~25% 줄어들지만, 연금을 탈 수 있는 예상 수명을 계산하면 일찍부터 받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 때문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3월 12일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퇴직한 직장인들이나 지역 가입자 중 55~59세에 연금을 타려는 조기 노령 연금 수급자들이 99년 26,142명에서 작년엔 44,245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음
 - 지난 해 말 현재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총 수급자는 602,197명이며, 현재 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하여 60세가 되면 받게 돼 있음
 - 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한 후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이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55세부터 조기 노령 연금 (현재 최고액 53만8,000원)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 연금액은 60세를 기준으로 1년에 5%씩 최대 25%까지 적게 지급됨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조기 노령 연금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
 - 가령, 조기 노령 연금을 받다가 다시 취업 등으로 소득 (연간 500만원 이상)이 생기거나 재취업을 위해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65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돼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

♣ 2002년 3월 14일 목요일 (1)

○ 애널리스트 불공정 행위 감사

-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의 종목 추천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개입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증권업 감독규정과 관련 공시사항이 정비되는 5~6월쯤 애널리스트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는 그 동안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검사와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거래 추적 등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금감원은 개정될 증권업 감독규정을 통해 종목 추천과 보고서 작성 등을 대가로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기업이나 대주주에게서의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했으며, 5월부터 종목 추천과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도 공시하도록 했음
- 한국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윤리 규정을 만들고 세부적인 내용을 협회 규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따라서, 이를 토대로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

○ 일부 투신사 대우채 보상 펀드 만기 자금 재유치

- 한투증권이 3월 13일 만기 도래한 대우채 보상 펀드 (CBO 및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환매에 응했으나, 일부 투신사들은 이 펀드의 자금을 재유치해 당분간 부실채 관련 문제를 지연시키는데 성공했음
- 한투증권의 경우 만기 도래한 CBO펀드 및 하이일드펀드 중에서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220억원을 제외한 3,200억원에 대해서 가입자인 새마을금고에 환매해 주었음
 -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채권의 환매에 대해선 새마을금고측과 손실 부담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음
 - 한투증권 관계자는 일부 부실채권에 대해 투자자 손실 부담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으나, 시장 영향을 감안해 손실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 아울러, 회사가 손실을 떠안거나 고유계정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실채를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상반기 중 대우채 보상 펀드의 만기 도래 규모가 8,000억원대에 달하는 삼성투신도 투기채 펀드의 재유치를 포기하고 환매에 응한다는 방침 아래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대투증권의 경우 CBO펀드의 경우 6개월짜리는 연 7.3%, 1년짜리는 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며 자금을 재유치하고 있음
 - 현투증권도 1년짜리의 경우 연 6.7%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유치에 들어간 일부 투신사들의 경우 현재의 유동성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6개월이나 1년 뒤 다시 대우채 보상 펀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2002년 3월 14일 목요일 (2)

○ 내년 이후 취업 근로자 기업연금제 도입 검토

- 정부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키되 일정 시점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부터 기업연금제도를 적용하는 '세대 교체형 전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정부는 이르면 2003년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부터 기업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노사정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음
- 노동부는 3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퇴직금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 결과를 넘겨 받아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사회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에 제출했음
 - 노동부의 연구 결과는 '세대 교체형 전환 방안'이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 제도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음
 - 기업연금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최종 지급 규모를 보장하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확정급부형 (Defined Benefit Plan)을 선택하도록 했음
- 재경부의 경우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을, 본건복지부는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기업연금 조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됨

○ 한강기금 현금 배당으로 메릴린치 176억원 챙겨

- 구조조정기금인 한강기금이 주당 1,94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확정돼 한강기금 지분의 7.19% (9,101,510주)를 보유 중인 메릴린치는 약 176억원의 현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한강기금은 지난 3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주당 1,940원씩 모두 2,457억원을 배당기로 결의했으며, 이는 전체 자본금 7,000억원의 35.1%에 해당됨

♣ 2002년 3월 15일 금요일 (1)

○ 노동부 기금 6천억원 증시 유입

- 증시 활황으로 기관 자금이 증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자금을 이달 중 증시에 신규 투입키로 했음
 - 3월 14일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1조2,000억원을 삼성·한국·현대투신운용 등 10여개 투신사의 안정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입했음
 - 노동부는 펀드 유입 자금 중 20%를 주식에 편입키로 하여 약 2,400억원의 주식매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투신사의 기존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1조5천억원의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도 이 달 중으로 주식 편입비율이 20% (약 3천억원)인 안정 혼합형 펀드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음
 - 지난 해 철저히 채권에만 투자했던 산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이 달 내로 1,500억원을 투신권 등에 신규 투입하면서 이중 30% (450억원)까지는 주식에 투자키로 했음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대규모 기관성 자금의 유입은 투신권 등의 매수 여력을 강화해 증시 수급구조를 크게 개선시킬 전망이라고 설명

○ 벌처펀드 수익률 내기 비상

- 증시 활황기인 99년 8월 일반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공모한 벌처펀드가 만기일(올 7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운용사들이 수익률 내기에 비상이 걸렸음
 - 공모 당시 목표 수익률을 연 100%까지 제시했으나, 최근 투자기업의 코스닥 등록이 어려워져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까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7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벌처펀드는 한국기술투자 (KTIC)의 구조조정펀드1호와 코미트 창업투자가 조성한 구조조정펀드임
 - 한국기술투자의 구조조정펀드1호는 개인투자자 4,092명에게서 2,080억원을 조성했고, 코미트창업투도 1,000여명의 투자자에게서 230억원 가량을 모집했음
- 한국기술투자의 구조조정펀드1호의 경우 2000년 5.61%밖에 배당하지 못하는데다 지난해에는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상황이 악화돼 아예 배당을 하지 못했음
 - 한국기술투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상황은 호전돼 만기 때까지 원금보장은 물론이며, 추가 배당까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코스닥 등록에 실패한 업체들이 많아지면 수익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기술투자는 장외 매각과 M&A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임

♣ 2002년 3월 15일 금요일 (2)

○ 한빛은행, 한빛투신 및 한빛증권 지분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매각 결정

- 한빛은행은 3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한빛투신과 한빛증권 지분을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음
 -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사는 6월 상장을 앞두고 4월 중순까지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음
-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빛투신 지분 100% (600만주)를 주당 9,474원에 총 568억원을 받고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넘기기로 했으며, 장부가격 (391억원) 대비 매각차익은 177억원임
- 아울러 그 동안 매각손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한빛증권 지분도 다음 달에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넘기기로 했으며, 매각가격은 3월 13일 종가인 8,480원으로 결정했음
 - 한빛은행이 보유한 한빛증권 지분은 전체의 40.22%인 1,325만주로 총 매각대금은 1,123억원이며, 장부가격 (주당 11,942원)에 따른 매각대금 총 1,582억원에 비해 458억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할 셈임
 - 이로 인해 한빛은행은 매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매각 시점을 3월 결산법인인 한빛증권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15일로 잡았음
 - 아직 한빛증권의 배당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당 액면가의 15%인 750원씩 총 100억원 정도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매각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우리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구도



♣ 2002년 3월 15일 금요일 (3)

○ 벤처펀드 유용기업도 조사

- 벤처펀드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벤처펀드의 비리뿐 아니라 벤처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벤처기업의 횡령 등 자금 유용 여부도 함께 수사키로 했음
 -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벤처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이 투입된 58개 벤처캐피탈회사의 151개 펀드이며, 거래 내역 자료가 부실한 곳을 중심으로 비리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
 - 검찰은 이와 함께 180억원의 횡령 혐의가 불거진 옵셔널 벤처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해 올 경우 바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 벤처펀드 2001년 결성 실적 및 2002년 계획

(단위: 억원, 개)

구분		2001년 실적		2002년 계획	
		금액	펀드 수	금액	펀드 수
민간 단독		939	22	3,623	51
정부 공동 출자	재정자금	2,373	68	6,227	149
	민간자금	4,598		9,527	
	소계	6,971		15,754	
총계		7,910	90	19,377	200

○ 국민연금 6천억원 증시 투입

- 국민연금 6천억원을 증시에 조만간 투입할 예정임
 - 국민연금은 3월 14일 동원투신, 제일투신, LG투신, 맥쿼리IMM 자산운용, SEI에셋코리아 자산운용, 에셋플러스 투자자문, 튜브 투자자문, B&F 투자자문 등 8개사를 기금 위탁운용사로 확정했다고 밝혔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 회사에 대한 평가 순위에 따라 회사당 200~400억원씩 모두 2,500억원을 위탁해 향후 2년간 운용토록 할 예정임
- 이에 따라 국민연금 외부 위탁운용사는 지난 해 선정된 26개사를 포함해 모두 34개사로 위탁운용액은 1조4,500억원에 이름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해 외부기관 위탁운용 자산으로 계획했던 6천억원 중 나머지 3,500억원도 자산 운용실적 우수 기관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조속히 배분할 방침임

♣ 2002년 3월 16일 토요일

○ 3월부터 국민연금 4.1% 인상 지급

-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기본연금과 가급연금 급여를 4.1% 인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현재 월 131,000원인 특례 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월 136,370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가급연금은 연 166,270원에서 연 173,080원으로, 자녀·부모 가급연금은 1인당 연 110,850원에서 115,39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임
- 복지부는 이와 함께 4월 이후 신규 수급권자에 대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이 같은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연도별 재평가율도 확정했다고 밝힘
 - 연도별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별로 가입기간 표준 소득월액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해 매년 표준 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지수임
- 지난 1월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특례 노령연금 557,516명, 조기 노령연금 41,589명, 장애연금 26,072명, 유족연금 139,017명 등 모두 764,194명임



♣ 2002년 3월 18일 월요일 (1)

○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형 펀드 비상

- 올해 들어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자 채권형 펀드에 비상이 걸렸음
 - 3월 17일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금리 급등으로 지난 3월 16일 설정금액 50억원 이상인 시가 채권형 펀드 585개 중 64.7%인 379개가 3월 들어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시가 채권형 펀드의 최근 보름간 평균 수익률은 -0.12%를 기록했음
 - 아울러, 금리 급등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MMF마저 지난 3월 15일 하루만에 1조540억원이나 이탈하며 채권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으로 금리 상승 추세를 점치는 시각이 대세라며 기관투자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자금을 환매하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투신권은 이러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 금리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

○ 펀드 운용정보 4월 일반 공개

- 지난 해 7월부터 추진된 투신사 펀드의 운용 내역 공개와 정보매매가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펀드평가사 등을 통해 여러 펀드의 운용 내용을 점검 및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고 투자 이외의 목적으로도 펀드 운용 정보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됐음
 - 지금까지는 펀드 가입자만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 운용내역을 알 수 있었음
- 투신협회는 지난 해 10월부터 매월 20일 한차례씩 42개 회원사로부터 2001년 7월 1일 이후 펀드 운용 자료를 받아 표준양식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이르면 4월 초부터 한국펀드평가 등 6개 펀드평가사에 펀드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펀드별 편입자산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
 - 투신협회는 3가지 정보 제공비용은 한 달에 130만원이고, 펀드평가사 등이 이를 제 3자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130만원을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덧붙임
-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펀드 투자수익률만 공개돼 펀드 내 부실채권 편입 비율 등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
 - 이번 조치로 기존 가입자는 가입 펀드 운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 가입자도 펀드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 그러나, 이번 펀드 정보 제공을 기존의 공모펀드만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을 알 수 없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
 - 실제 전체 펀드의 5~10% 정도로 추산되는 사모펀드의 경우 가입자가 운용에 관여하여 자사주를 번칙적으로 매입하는 등 편법 운용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 2002년 3월 18일 월요일 [2]

○ 증시 불공정 조사기구 본격 활동 시작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동 참여하는 조사·심리 기관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음
 - 금감위에 따르면, 산하 증선위에 조사기획과 설치를 완료하고 증권 유관기관간 공조를 위한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정비를 모두 끝냈다고 밝힘
 - 아울러,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 금감위 산하 증선위에 부여된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 발동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짐
- 조사·심리 기관협의회에는 증선위, 금감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의 간부들이 참여하며 이를 통해 조사에 필요한 정보가 공유될 것이며, 3월 2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2002년 3월 19일 화요일

○ 100% 수익률을 달성한 주식형 펀드 등장

- 지난 9·11 미 테러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하자 최근 주식형 펀드에서도 수익률 100% 펀드가 등장했음
 - 펀드평가기관인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기준 템플턴 투신운용의 "템플턴 Growth 주식1" 펀드 수익률이 지난 1999년 2월 설정된 이후 111.5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템플턴 Growth 주식1" 펀드의 현재 설정잔고는 637억원이며, 지난 해 펀드 결산 이후 현재 기준가는 1,249원을 기록하고 있음
- 최근 증시 상황이 호전되자 이에 힘입어 고수익을 발생시키는 펀드들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신권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3월 16일 현재 투신권에서 수익률이 80%를 상회하는 펀드가 무려 19개가 등장했음

♣ 2002년 3월 20일 수요일 [1]

○ 최근 자금이 몰리고 있는 투자자문사

- 지난 해 한 때 명맥조차 잇기 힘들었던 투자자문사에 최근 뭉치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셋투자자문의 경우 지난 해 1월 초 수탁고 (자문 및 일임 모두) 7,749억원이었으나, 지난 달 말에는 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음
 - 한가람투자자문의 경우도 이 기간 중 260억원에서 5,41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메리츠투자자문 역시 지난 해 9월 말 수탁고가 812억원이었으나, 지난 달 말 2,000억원으로 증가했음
- 투자자문사에 이처럼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데 이는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투신사의 펀드에 비해 작음에도 투신사에 비해 각종 규제가 적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임
 - 가령, 펀드 내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한도 설정 등의 제약이 투자자문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투신사 펀드는 주가 하락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투자자문사는 주식을 모두 처분할 수 있어 운용의 탄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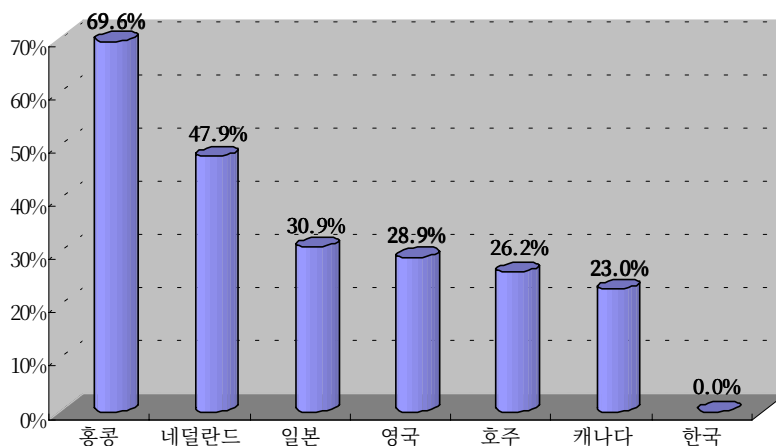
○ 금융기관 자산운용 위탁 검토

-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외부 위탁 문제를 본격 재검토하고 있어 은행, 보험사 등은 물론이며, 투신 등 자산운용업계까지 허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음
 -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19일 보험 등 금융기관이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계열사 등에 위탁 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각 금융권역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
 -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측면과 위탁운용사의 일반 고객과 이해 상충 문제 등 짚어야 할 복잡한 사항들이 매우 많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계열 금융기관이 없는 독립 투신사들은 대형 금융기관들의 운용자산 외부 위탁이 특정사에 집중된다면 여타 운용사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고, 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는데 따른 부작용도 엄청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측면과 자산운용의 투명성 등은 물론,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라고 언급

♣ 2002년 3월 20일 수요일 (2)

○ 국민연금 5천억원 해외 주식 투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투자운용을 다변화하기 위해 올해 약 5천억원의 국민연금을 미국 등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금융자산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
-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외 투자 컨설팅을 받기 위해 영국계 투자자문사인 Watson Wyatt와 최근 계약을 맺었는데 이어 자산운용 및 관리회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수탁회사 선정을 놓고 국민은행과 Bank of New York, 외환은행과 National State Street 두 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수탁회사 선정을 마치고 3~4개월 가량 투자계획 등 세부 준비작업을 한 다음 하반기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
- 시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해외로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은 연금의 규모에 비해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이 너무 작아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 78조원 정도이며, 이 중 49조5천억원 가량을 각종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 연금 규모가 매월 1조원씩 불어나고 있어 오는 2030년경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600조원이 넘어설 전망
 -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 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해외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언급
 - 주요 국가별 연기금 해외투자 비중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2002년 3월 21일 목요일 (1)

○ MMF 환매사태 우려

- 최근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신사의 초단기 상품인 MMF 자금이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
 - 3월 20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투신사의 MMF 수탁고는 지난 3월 14일 47조6,453억원에서 동월 18일에는 46조656억원을 기록해 4일간 1조5,797억원 감소했음
- 올 들어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급속히 늘어났던 MMF 수탁고가 최근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수익률 하락을 염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신사가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채권을 매각한다면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짐

○ '김동성 펀드' 설립 관련 잡음

- 한투증권이 판매할 예정인 일명 '김동성 펀드'와 관련하여 후원금 등을 둘러싸고 빙상연맹과 잡음이 일고 있음
 - 한투증권은 지난 2월 25일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부문에서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김동성 선수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후원하기 위해 'TAMS 스포츠스타 안정훈합펀드'를 발매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투증권측은 당초 펀드 판매수수료 (총 판매액의 1%)의 10%를 김 선수에게 후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음
 - '김동성 펀드'의 판매 규모가 100억원이었을 경우 김 선수가 받게 되는 후원금은 1,000만원이 되는 셈임
 - 그러나, 한국빙상경기연맹은 이 같은 후원금 규모가 김 선수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다고 5,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일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한투증권과 시각차를 노출했음
- '김동성 펀드'의 발매를 추진 중인 한투증권은 이 펀드가 우수 스포츠 선수들의 국위선양을 지원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펀드 발매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 더 이상 펀드 발매 시기를 미룰 경우 수익률 제고도 쉽지 않은 상태임
- 한편, 한투증권은 펀드 발매가 호조를 보일 경우 후원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빙상연맹 쪽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 2002년 3월 21일 목요일 (2)

○ 모건스탠리, 국은투신 조만간 인수 예정

- 그 동안 국은투신 인수를 위해 실사 작업을 벌여 온 모건스탠리가 빠르면 3월 말이나 4월 중 국은투신 인수를 위해 국민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모건스탠리는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87%의 지분을 영업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주당 8,500원에 전액 인수할 것이며, 국은투신 인수 자금은 4월 중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 국은투신 관계자는 현 자본금 300억원 외에 유보금 80억원까지 합쳐 총 380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이 중 80억원은 이번 3월 결산시 배당 처리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그는 4월 모건스탠리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은 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모건스탠리는 국은투신의 인원에 대한 고용 승계도 현 인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국은투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사명 변경 및 고용 승계 등 아직 변수로 등장할 요인이 많이 남아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언급

○ 한국·싱가폴 \$3천만 규모의 펀드 조성

-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3천만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만들 예정이며, 이 펀드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짐
 - 이석영 중기청장과 고경화 싱가포르 경제개발원 차관은 3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양국 간 벤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싱가폴 공동 벤처투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임
 - 양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펀드 규모 및 펀드 운용사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음
- 싱가포르 정부는 산하 투자회사인 TIF벤처스와 EDBI를 통해 \$1천만을 투입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천만, 한국의 벤처캐피털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1천만을 투자할 계획임
 - 중기청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결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 양국 정부는 정부 관계자 및 투자사절단을 교환기로 했으며, 4월 초엔 싱가포르 경제개발원이 싱가포르 투자자들과 함께 방한해 한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기로 했음
 - 이와 함께 양국 정부는 3월 21일 한국의 16개 벤처기업과 10개 벤처캐피털이 참가한 가운데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업 설명 행사인 '코리아 벤처 데이 2002'를 개최할 예정임

♣ 2002년 3월 21일 목요일 (3)

○ 삼성생명 펀드매니저 삼성투신으로 대거 이동

- 삼성생명이 운용자산을 삼성투신운용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펀드매니저들이 삼성투신운용으로 대거 이동할 전망이다
 - 고유자산을 운용하는 운용 인력들은 30~4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위탁자산 규모는 부동산, 대출 등을 제외한 35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삼성생명의 펀드매니저들이 삼성투신운용으로 옮겨갈 경우 삼성투신운용은 50여명에 달하는 운용역을 포함하여 총 운용인력이 100여명에 이르게 돼 투신사로서는 최대 운용조직을 갖추게 됨
 - 삼성투신운용 관계자는 이들이 삼성투신으로 이동할 경우 신탁재산과 고유자산을 구분해 운용하고 차츰 양 부문의 경쟁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아울러 이렇게 되면 현 운용조직은 이원화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 현투증권 2000년 실권주 공모 사기 혐의

-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은 3월 21일 지난 2000년 현대투신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권주 공모는 사기였다고 당시 주식가치 평가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음
 - 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자 대책 위원회 (이하 현투공피대위)는 이 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투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음
 - 아울러 공모 당시 현대투신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산정하게 한 요인이 된 2조원 규모의 '릴리프단위형공사채펀드'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 요청서를 접수시켰음
-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실권주 공모 당시 현투증권은 마이너스 4,594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었다고 언급
 - 게다가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액면가보다 높은 주당 6천원을 공모가로 정해 증자를 실시한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공모에 해당한다고 밝혔음
 - 김 변호사는 공모 당시 현투증권의 주당 본질가치는 마이너스 5만원 가량으로 공모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삼일회계법인이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 현투증권의 미래 수익가치를 부풀려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문제가 된 현투증권의 실권주 공모에 참여한 소액주주는 23,2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들 소액주주가 투자한 자금은 총 2,682억원으로 현투증권의 현재 주식가치를 감안할 때 투자자금 전액을 날리게 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음

○ CBO펀드 3월 들어 1조원 감소

- 투신협회에 따르면 CBO펀드 수탁고는 지난 2월 말 8조2,484억원에서 3월 20일에는 7조425억원으로 20여일 간 무려 1조59억원이나 감소했음
 - 이 같은 수탁고 감소는 한투운용과 대투운용에 예치했던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이 환매에 나선 것이 주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됨
- 투신업계 관계자는 CBO펀드 환매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해당 투신사가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금리 인상 등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언급

♣ 2002년 3월 23일 토요일

○ MMF 수탁고 급감

- 투신권의 대표적인 단기상품인 MMF 수탁고가 급감하고 있음
 - 지난 3월 15일 1조540억원이 환매된 것을 비록하여 18일 5,979억원, 19일 3,559억원, 20일에는 9,656억원이 환매되어 최근 닷새 동안 2조9,734억원의 자금이 이탈했음
 - 이에 따라 지난 3월 14일 47조6,453억원이었던 MMF 수탁고가 20일 현재 44조7,440억원으로 감소했음
- 시장 전문가들은 대기성 자금인 MMF 자금이 일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MMF의 절대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급속한 환매는 채권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삼성생명 채권운용 아웃소싱

- 삼성생명이 4월 중순부터 10조원 정도의 자산운용을 삼성투신에 일임 자문형식으로 맡기기로 했다고 밝힘
 - 아울러, 투자운용부 소속 펀드매니저와 지원 인력 20여명도 삼성투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알려짐
- 삼성생명이 삼성투신운용에 자산을 일임방식으로 맡긴 것은 삼성투신운용의 신탁재산과 별도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삼성은 당초 투신사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위탁하려 했으나, 투신사의 신탁재산과의 방화벽 설치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감독당국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
 - 삼성생명이 삼성투신과 일임 계약을 통해 자산운용을 맡기면 해당 자산은 삼성투신 신탁재산에 잡히지 않게 되며, 해당 자산의 감독권도 예전처럼 금감원의 보험감독국이 갖게 됨
- 삼성생명측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약 22조원의 운용을 삼성투신에 맡길 예정이지만,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 해외 채권, 특별계정, 융자 등의 자산은 삼성생명에 그대로 남게 된다고 설명
- 삼성생명은 자산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되 본사에서 부채 구조와 회사의 리스크를 감안한 전략적 자산배분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생보사 자산운용의 핵심 기능인 자산배분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한다는 전략임

♣ 2002년 3월 23일 토요일 (2)

○ 장기증권저축 3조원 돌파

- 3월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해 10월부터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장기 증권저축 판매액이 지난 3월 20일 현재 3조1,662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힘
 - 3월 20일 현재 장기증권저축에서 직접상품은 1조5,814억원, 간접상품 수탁고는 1조5,848억원을 기록해 간접 장기증권펀드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음
 - 증권사별로는 직·간접 상품 모두 삼성증권이 총 9,619만원어치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30.4%를 차지했음
- 장기증권저축이 5개월 동안 3조원 넘게 판매된 이유는 종합주가지수가 900포인트를 넘나드는 대세 상승세가 이어지는데다 1년 이상 가입하면 불입액의 5.5%, 2년째엔 7.7%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7월부터 상장지수펀드 (ETFs) 도입

- 오는 7월부터 상장지수펀드 (ETFs: Exchange-Traded Funds)가 도입될 예정임
 - 재경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3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고 언급
 -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3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음

♣ 2002년 3월 25일 월요일

○ 역외펀드 불법 운용 9개사 적발

- 변칙 외자 유치를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 운용해 왔거나 역외펀드를 통해 자사주를 집중 매입해 온 상장·등록 등 9개 대기업이 무더기 적발됐음
 - 금감위는 3월 24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현대기업금융,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 동아창업투자, 동아제약 등 9개사를 역외펀드 운용과 관련한 외국인 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음
-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96년 \$8천만 규모의 자사 지분을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일정 기간 후 다시 되사준다는 계약 (환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당국의 허가 없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비상장 외화증권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펀드에 자금을 지원하여 자사주를 되사도록 했음
 - 아시아나항공은 1년간 해외 발행 외화증권의 취득 금지 및 해외 채무보증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음
 -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현대기업금융 등은 아시아나항공 역외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불법 지원했다가 각각 6개월씩 외환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음
-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 등 3개사는 지난 96년 말부터 지난 해 말까지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3천만 규모의 역외펀드를 설립해 놓고 집중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종금협회 진로 사실상 결정

- 종합금융협회의 진로가 사실상 확정됐음
 - 명예회장을 포함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규모는 대폭 축소되지만,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임
- 업계에 따르면 우리, 한불, 금호종금 등 3개 종금사 사장은 지난 주 모임을 갖고 종금협회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졌음
 - 그 동안 종금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정상 영업 중인 종금사가 3개사밖에 없고,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회를 해산하고 협의회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음
 - 그러나 3개 종금사 사장단은 종금협회를 완전 해체할 경우에 정산 문제가 복잡하고 종금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창구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일정부분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 종금협회는 IMF 이전 종금사들이 대거 퇴출되기 전 30여개 종금사가 규모별로 50억원을 출자해 설립됐음
- 한 종금사 관계자는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정회원, 준회원의 회비 규모 및 협회의 경비도 2/3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 2002년 3월 26일 화요일 (1)

○ 증권사, 고객별 특화상품 개발 분주

- 최근 증권사 상품개발팀들은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을 예상하고 주식관련 신금융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아직까지 순수주식형 신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스팟펀드를 비롯하여 증권사별로 특화된 상품을 내놓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실정임
- 증권사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투자 상품 개발 방향은 개인투자자를 위한 전환형 펀드와 법인을 주목표로 삼는 채권혼합형 상품임
 - 전환형 펀드는 최초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으로 운용되며 대체로 10% 정도의 일정 수익률을 달성한 후 채권형으로 전환됨
-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순수주식형 펀드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지난 해만 해도 선물·옵션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했지만, 최근에는 대세 상승장을 예상하고 주식 투자에만 전념하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가 자리를 잡았으며 이는 주식 수요를 확대하여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종합주가지수가 1000 고지에 다가갈수록 증권사별로 특화된 순수주식형 펀드 상품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역외펀드 주가 조작 조사 필요성 대두

- 금감원이 역외펀드의 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정작 부작용이 심각한 국내 증시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역외펀드는 국내 증시로 유입돼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일컬어지며, 증시에 부작용을 미쳐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진 상태임
 - 역외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전면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역외펀드의 외국인 거래법 위반 여부만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난 3월 23일 금감위가 역외펀드를 이용한 편법 혐의로 징계 처분한 아시아나항공 등 9개사의 경우도 국내 증시 개입 혐의를 금감원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음
 - 정작 국내 증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여 경미한 조치에 그쳐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조치는 역외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것이었으며,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는 별도의 혐의 사항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

♣ 2002년 3월 26일 화요일 (2)

○ 해외펀드 국내 판매 급증

- 최근 국내에서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음
 -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들 펀드에 투자할 경우 기대 이상의 수익도 예상되기 때문임
 - 국내에서 발매 중인 메릴린치,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슈로더, UBS, 푸르메리카 등 세계 유수의 투신사들이 운용하는 해외펀드에 대해 은행이나 증권사 판매 창구를 통해 가입을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까지 이들 투신사에서 국내에 선보인 해외펀드는 100여개로 그 종류도 다양함
 - 주요 개별 국가의 주요 종목에 투자하는 Country Fund, 신흥시장이나 유럽 등 지역별로 투자하는 Regional Fund, 전 세계 시장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Global Fund 등이 있음
 - 세계 경제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자 분산투자의 다른 방법인 첨단 기술주 펀드, 통신주 펀드, 바이오테크놀로지 펀드, 금융 펀드와 같이 산업 분야별로 투자하는 Sector Fund가 있음
- 이처럼 해외 각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종류가 많아 지금까지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수수료도 높아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었음
 -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운용사를 선택한 뒤 해외펀드 판매 경험이 많은 판매회사를 선택한다면 기대 수익도 노릴 수 있다고 언급
-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99년 2월 국내에서 은행권 최초로 간접 투자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해외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 판매고가 높음
 - 지난 해 5월 국내에 판매된 해외펀드 총 판매잔고가 1,387억원에서 2002년 2월 현재 약 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업계의 해외펀드 총 판매잔고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임

♣ 2002년 3월 27일 수요일

○ 대투·한투·제투 3투신운용사 유상증자 추진

- 금감원이 오는 4월부터 투신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앞두고 대투·한투·제투 등 3개 투신운용사가 자본금 증자를 추진 중임
 - 언급된 3개 투신운용사의 경우 3월 말로 끝나는 2001 회계연도 결산에서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증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수탁고 17조원 대비 자본금이 300억원대인 대투운용은 3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한투운용도 같은 날 자본금 증자액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를 거친 이후 출자가 확정되는 대로 결의를 할 방침임
 - 두 회사의 모회사인 대투증권과 한투증권은 3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출자를 결의할 예정임
- 제투운용도 투신권 수시입출금 펀드인 MMF 자금 증가를 포함해 수탁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적기시정조치상의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증자를 추진 중임
- 투신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위험 증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음
 - 순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백분율인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이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요구조치,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게 됨

○ 부실채 손실 삼성증권서 일부 부담

- 대우채 보상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의 환매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3월 27일 만기 완료되는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해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음
 - 3월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삼성증권의 CBO 및 하이일드펀드 규모는 8,380억원임
 - 이들 펀드는 삼성투신, 조흥투신, 한일투신 등이 각각 6,280억원, 1,500억원, 600억원씩을 운용해 왔는데, 이 중 조흥투신 600억원, 한일투신 50억원 등 모두 650억원 정도가 부실채권들임
 - 이들 부실채권들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하이닉스, 현대유화, 쌍용양회 등임
- 삼성증권은 이에 따라 주고객인 새마을금고에 신탁수수료 100억원을 받지 않는 대신 부실채권에 이 수수료를 더한 자산 (장부상 750억원)을 3년간 만기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이처럼 판매사와 고객의 입장을 조율하여 부실채권 처리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다른 판매사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3월 28일 목요일

○ 주식형 펀드 물갈이 활발

- － 주식형 펀드 물갈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펀드 물갈이란 99년 급등장에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을 봤던 투자자들이 최근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신규 주식형 펀드로 물리는 현상을 말함
- －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주가 상승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난 해 9월 이전 설정된 성장형 펀드에서 총 1조201억원, 주식 일반형 펀드에서는 1조8,041억원이 이탈했음
 - 여기 성장형 펀드는 투신협회가 아닌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의 분류 방식으로 구분된 펀드로 주식 편입비율이 최고 70%가 넘는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를 지칭함
 - 주식 일반형 펀드 역시 제로인이 분류한 구분 방식으로 주식이 한 주라도 포함될 수 있는 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 중 성장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를 지칭함
- － 반면, 판매분을 포함한 투신협회 분류 기준의 주식형 펀드 전체 수탁고는 연초 이후 3월 28일 현재 1조5,790억원이 증가한 8조620억원까지 증가했음
 - 동시에 혼합형의 경우 연초 대비 3월 28일 현재까지 3조2,640억원이 증가했음

♣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 투신평가 전문사 나이스 선정

- 투신협회는 나이스 채권평가사를 투자신탁평가 전문회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힘
- 이로써, 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리퍼코리아, 모닝스타코리아, 이머니, 한기평 등 6개사 및 나이스 채권평가사를 합해 총 7개사가 투자신탁평가 전문회사로 지정되었음

○ 월드컵 16강 진출 여원을 담은 투신 펀드 발매 예정

- 투신권이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파이팅코리아펀드'가 4월 초 선보일 예정임
 - 금감원과 대한, 한국, 삼성, 현대, LG 등 5개 투신사는 '2002 한·일 월드컵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열기 조성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파이팅코리아펀드'를 개발하여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힘
 - 대투 '갤럽 파이팅코리아펀드', 한투 'TAMS파이팅코리아펀드', 현투 '파이팅코리아 나폴레옹', 삼성투신 '삼성 파이팅코리아', LG투신 'LG 드림 파이팅코리아' 등 펀드 당 1,000억원 규모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 수익은 기본적으로 펀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의 일부는 어린이 축구교실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언급
 -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월드컵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없애고 한국 축구팀의 16강에 진출할 경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파이팅코리아펀드'의 판매보수 가운데 40%를 축구 기금 또는 관련 이벤트에 지급하기로 한 펀드 약관에 대해 판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시했음
 - 투신사 관계자는 가령 100억원 상당의 펀드를 모집하면 판매수수료가 1%인 1억원이 떨어지는데 이 중 32%를 관련 이벤트에 지급해야 하고 또 8%를 공공기금에 내야 한다고 하니 의욕이 나지 않는게 사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음
 - 따라서 일손만 많아 지고 돈이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음

♣ 2002년 3월 30일 토요일

○ 기관 대상 사모펀드 설정 급증

- 투신운용사들이 증시 활황에 맞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설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주식형보다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 성향의 혼합형 펀드가 주류여서 주가가 추가 상승해야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3월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 펀드 설정 수는 지난 1월 81개, 2월 113개에서 3월 들어서는 지난 23일까지 모두 141개로 급증했음
 - 이 중 비표준형 약관 펀드가 지난 1월 65개, 2월 67개, 3월에는 131개로 1월과 2월에 비해 3월이 2배 가량 증가했음
 -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비표준형 약관 펀드 중 80% 가량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로 조사됨
- 펀드 형태별로는 혼합형이 대부분으로 3월에 설정된 펀드 141개 가운데 혼합형은 88개, 주식형은 16개, 나머지 37개는 채권형임
-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가 활성화되자 신규 펀드 설정이 줄을 잇고 있지만, 채권형 펀드에서 혼합형으로 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특히 3월에는 결산을 마감하는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한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설명



4월

April

10대 주요 기사

1. 은행 및 투신운용도 일시납 개인연금 판매 (3일)
2. 펀드 위탁판매 8조원 넘는 은행권 (8일)
3. 일반사무수탁 의무화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12일)
4. 전환증권사 고금리 혼순위채 조기 상환 (13일)
5. Fund of Funds 상품 7월 시판 (13일)
6. 펀드 내 부실채에 대해 충분히 상각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침을 밝힌 금감원 (16일)
7. 2012년 까지 주식투자 규모를 30%까지 확대할 예정인 국민연금 (18일)
8. 인덱스펀드 투자 제한 규정으로 제 구실 못해 (19일)
9. 지난 해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9개 자산운용사 자본 잠식 (24일)
10. 하이닉스 매각 협상 이사회에서 부결 (24일, 25일, 26일, 30일)

◆ 4월 목차 (4/1-4/10)

4/1 [월]	○ 2001 회계연도 대체로 좋은 실적을 거둔 자산운용사
4/2 [화]	○ 국내투자 외국펀드 대박
4/3 [수]	○ 주식형 펀드 후발 중소투신사 약진 ○ 은행 및 투신운용도 일시납 개인연금 판매
4/4 [목]	○ 상장지수펀드 (일명 ETF) 시장 8월 초 개장 ○ 농협-크레디아그리콜 투신운용사 합작 설립 ○ 배타적 우선판매권 1개월 부여된 한투운용의 '자녀미래설계장기채권 투자신탁'
4/5 [금]	식 목 일
4/6 [토]	○ 투신운용사 MMF 운용 안정세 ○ 은행권, 인위적 신탁 분리 반대 표명
4/7 [일]	
4/8 [월]	○ 2/4분기 CBO펀드 만기 물량 대폭 줄어 ○ 대체로 높은 성과를 달성한 한국투자 외국계 펀드 ○ 영국 푸르덴셜 PCA투신 설립신고 ○ 펀드 위탁판매 8조원 넘은 은행권
4/9 [화]	○ 투신권 상품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 현황 ○ 투신권 채권형 펀드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골머리
4/10 [수]	○ 투신 외수펀드 설정 다시 활발

◆ 4월 목차 (4/11-4/20)

4/11 [목]	○ 투신권 펀드 자금 유치 경쟁 치열
4/12 [금]	○ 일반사무수탁 의무화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 연기금투자폴 2조원 돌파
4/13 [토]	○ PCA 투자신탁운용 예비허가 ○ 전환증권사 고금리 후순위채 조기 상환 ○ Fund of Funds 상품 7월 시판
4/14 [일]	
4/15 [월]	○ CB 및 BW 발행제도 개선으로 국내 CB 및 BW 발행시장 활기 기대 ○ 새로운 채권 지수인 KOB120를 개발한 KIS채권평가 ○ 최근 주가 조정기 동안 주식 매수나서는 일부 연기금
4/16 [화]	○ 펀드 내 부실채에 대해 충분히 상각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침을 밝힌 금감원 ○ 금감원 경영평가위 명문화
4/17 [수]	○ 투신사, 개인, 연기금 투자여력 15조원 육박 ○ 투신 편입 부실채권 유동화 추진
4/18 [목]	○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 변액보험 수익률 1개월마다 공시
4/19 [금]	○ 국은투신 다음 주 매각 본계약 체결 예상 ○ 인덱스펀드 투자 제한 규정으로 제 구실 못해
4/20 [토]	○ 주식형 펀드 이탈 조짐

◆ 4월 목차 (4/1-4/10)

4/21 [일]	
4/22 [월]	○ 프라이머리 CBO 폐지 검토 ○ 투신사 하이닉스 추가 상각 우려
4/23 [화]	○ 인덱스 펀드 설정잔고 1조원 첫 돌파 ○ 사모펀드에 인기 집중
4/24 [수]	○ 하이닉스 매각 관련 MOU에 반발하는 투신권 ○ 9개 자산운용사 자본 잠식 ○ 현대 금융 3사에 대한 실사 준비 예정인 푸르덴셜
4/25 [목]	○ 나스닥 및 런던증권거래소의 합병 추진 ○ 하이닉스 반도체 매각 MOU 난항 예상
4/26 [금]	○ 제2금융권에 하이닉스 MOU 체결을 설득하려는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
4/27 [토]	○ 하이닉스 채권단의 순조로운 합의를 전망한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
4/28 [일]	
4/29 [월]	○ 전체 증권사 불공정거래 조사
4/30 [화]	○ 하이닉스 매각안 채권단 회의 통과 ○ 삼성생명 16조원 규모의 채권 운용 5개 투신사와 투자자문 계약

♣ 2002년 4월 1일 월요일

○ 2001 회계연도 대체로 좋은 실적을 거둔 자산운용사

- 자산운용사들의 지난 해 영업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3월 결산법인인 자산운용사들의 2001 회계연도 영업 실적 추정치를 보면 미래, 마이다스, KTB, 세이, 유리에셋 등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평균 20~30억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음
- 2000 사업연도에는 미래와 마이다스 2개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적자를 보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자본 잠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임
 - 물론 선발 자산운용사와 후발 자산운용사간의 흑자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자본잠식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증시 활황으로 수탁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익이 늘고 있다고 언급
 - 특히 각 사별로 일임 및 자문 계약도 크게 늘고 있어 실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
 - 아울러 국민연금에서 집행된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수익률 상승으로 성과 보수를 받는 등 이익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2002년 4월 2일 화요일

○ 국내투자 외국펀드 대박

-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뮤추얼펀드가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투자 해외펀드의 이 같은 선전은 최근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맞물려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모닝스타의 집계 결과 지난 달 말 현재 세계시장에서 활동 중인 뮤추얼펀드 중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펀드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매튜즈코리아 펀드 (103.5%)임
 - 이 펀드의 수익률은 지난 해 71.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3월 말까지 30.0%나 급등했으며, 이러한 수익률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펀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임
 - 이 펀드는 국내 주식 중 삼성전자에 9.8%를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농심, 롯데칠성, 삼성화재, 하나은행, 하이트맥주, 한국전력, 현대차, KTF 등 10대 투자종목군을 편입하고 있음
- 피델리티 어드바이저 코리아 펀드 역시 올해 1/4분기 수익률이 27.7%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펀드의 평균 수익률인 9.6%를 훨씬 능가했음
 - 이 펀드는 지난 해 결성된 펀드로 주식투자 비중이 무려 99.51%에 달하며, 전체 투자자금 중 21.4%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음

♣ 2002년 4월 3일 수요일 [1]

○ 주식형 펀드 후발 중소투신사 약진

- 국내 투신업계 양대산맥인 한투운용과 대투운용의 올해 주식형 펀드 운용 성적이 업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양 투신은 최근 시종자금이 몰리고 있는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의 수익률이 모두 후발 중소형 투신사에 밀려 선발 투신사로서의 입지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예상됨
- 펀드평가회사인 모닝스타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투신사 주식형 펀드는 증시 활황에 힘입어 평균 32.65%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음
 - 아울러 혼합형 펀드의 경우도 14.59%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해 주가 상승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반면, 채권형 펀드는 연초 이후 1.71%의 수익을 내는데 그쳐 주식형 펀드와의 수익률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펀드 수익률과 투자 위험 (수익률 변동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주식형 펀드 운용을 가장 잘 한 운용사는 마이다스, 미래에셋 등 2개 자산운용사와 프랭클린 템플턴, SK 투신 등 2개 투신운용사임
 - 이들 운용사들은 비록 평가대상 (설정기간 1년 이상, 펀드 규모 50억원 이상)에 들어간 펀드가 각 1개씩에 불과했지만, 모두 최근 6개월 동안 80% 이상의 높은 수익률과 안정된 펀드 운용으로 최고 점수인 5 스타 (★★★★★)를 기록했음
 - 수탁고 기준 6대 투신운용 중에서 제일, 삼성, 현대투신운용이 평가대상 펀드 중 60% 이상이 4 스타 이상을 받아 주식형 펀드 운용 성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조사됨
- 반면 한투운용과 대투운용은 주식형 펀드 운용에서 업계 최하위로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음
 - 한투운용의 경우 88개 주식형 펀드 중 5 스타를 받은 펀드는 단 1개에 불과했으며, 4 스타를 받은 펀드도 5개에 그쳐 17개 평가대상 운용사 중 16위를 기록했음
 - 대투운용의 경우도 평가받은 펀드는 117개로 가장 많았으나, 이 중 4 스타 이상을 받은 펀드는 단 14개에 불과했음

○ 은행 및 투신운용도 일시납 개인연금 판매

- 금감원은 '중산·서민층 금융 이용 활성화 대책'을 통해 현재 생보사로만 한정된 일시납 개인연금 제도를 은행과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금감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억원 내에서 가입한 뒤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가입자는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비과세 또는 5%의 연금 소득세율만 적용하는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짐
- 금감원은 현재 5년 이상 정기적금 취급기관이 아닌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은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임
- 금감원은 이를 위해 2/4분기 중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음

♣ 2002년 4월 4일 목요일

○ 상장지수펀드 (일명 ETF) 시장 8월 초 개장

- 상장지수펀드 시장 개설 작업이 오는 8월 초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정부가 시장 개설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4월 3일 KOSPI 지수 사용기관 및 관련 기관들을 선정했음
-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첫 상품은 KOSPI 200과 KOSPI 50 두 종목이 될 전망이다
 - KOSPI 200 지수 이용권은 LG투신운용과 삼성투신운용 컨소시엄, KOSPI 50은 제일투신운용과 한국투신운용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음
 - 시장조성과 매매중개를 맡게될 증권회사로는 LG, 대신, 대우, 현대, 동양, 동원, 메리츠, 제일, 삼성, 굿모닝, 한국, 도이치 증권사 등 12개사가 선정됐음

○ 농협-크레디아그리콜 투신운용사 합작 설립

- 농협은 4월 3일 투신운용사 합작 설립을 위해 프랑스계 은행인 크레디아그리콜 (Credit Agricole)의 투자신탁 자회사 (CA-AM)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음
 - 합작 투신사는 농협이 대주주가 되면서 동시에 크레디아그리콜측도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갖게 될 예정임
 - 농협은 조만간 금감위에 투신운용사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올해 안에 영업할 계획임
- 농협의 한 관계자는 크레디아그리콜 투자신탁과의 제휴를 통해 자금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글로벌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

○ 배타적 우선판매권 1개월 부여된 한투운용의 '자녀미래설계장기채권투자신탁'

- 투신협회는 4월 3일 한투운용의 '자녀미래설계장기채권투자신탁' 펀드에 대해 1개월간의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음
 - 이 상품은 투자자가 미리 정한 자금 소요시기에 원리금을 인출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특징임
 - 환매수수료는 투자 기간별로 5년 미만은 이익금의 20%, 10년 미만은 10%지만, 고객별 맞춤 설계에 따라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등을 인출할 때는 투자 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
- 투신협회에 따르면 이 상품이 투자자의 장기 자금 소요계획에 적합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투신상품의 구조개선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해 장기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
- 이로 인해 투신협회가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부여한 투신상품은 삼성 '실버베스트혼합투자신탁' (3개월), LG투신운용의 'LG매크로시스템혼합투자신탁' (1개월),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시스템-캡투자신탁' (3개월) 등 총 4개로 늘었음

♣ 2002년 4월 6일 토요일

○ 투신운용사 MMF 운용 안정세

- 투신사의 단기금융 상품인 MMF의 운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리 상승기의 대규모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 금감원은 올들어 수탁고가 급증한 MMF의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펀드의 실질적인 상환 만기를 나타내는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1월 말 76.3일로 지난 해 5월 79.3일보다 3일 단축됐다고 밝혔음
 -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유동성이 좋아짐을 의미하므로 투신사가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보다 탄력적으로 응할 수 있음
 - 현재 MMF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채 및 통안증권을 제외한 MMF 신탁재산 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90일 이하가 되도록 운용하여야 함
- 아울러 장부가 대비 시가 괴리율이 -0.5%를 밑도는 펀드는 단 1개 (설정잔고 12억원)로 지난 해 5월 9개 (설정잔고 3,263억원)에서 대폭 감소했음
 - 괴리율이 0~-0.5%인 MMF 규모는 전체의 9.9%에 불과한 반면, 81.5%의 펀드가 0~+0.5%의 괴리율을 나타냈음
 - 이는 MMF 전체를 시가 평가할 경우 49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 금감원 관계자는 MMF의 자산운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탁고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만기가 짧아지는 만큼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우려한 자금의 갑작스런 이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

○ 은행권, 인위적 신탁 분리 반대 표명

- 정부가 자산운용산업의 통합 및 대형화를 위해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을 은행 자회사인 투신사의 신탁계정과 통합하거나 자회사 방식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은행권이 인위적인 신탁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음
 - 은행권은 최근 정부의 집합증권투자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전달했음
- 은행권은 집합증권투자업법을 중심으로 자산운용관련 법률을 단일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각 금융회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

♣ 2002년 4월 8일 월요일 (1)

○ 2/4분기 CBO펀드 만기 물량 대폭 줄어

- 금감원에 따르면 2/4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단위형 CBO펀드의 규모가 9,883억원에 불과해 1/4분기 2조3,411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쳐 투신업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망
 -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단위형 CBO펀드는 4조1,500억원 규모이며, 3/4분기 6,753억원, 4/4분기 1,425억원으로 상반기 고비만 넘기면 하반기에는 물량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 금감원 관계자는 CBO펀드 만기 물량이 1/4분기보다 줄어든데다 일부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시가펀드보다 좋아 대규모 환매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 대체로 높은 성과를 달성한 한국 투자 외국계 펀드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기관에 투자했던 외국계 투자펀드가 현재 대체로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됨
 - 당시 미국계 중심의 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음
 -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은 3년여가 지난 현재 한국에서 최소 100%, 최대 400%라는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음
- 외국계 사모투자펀드의 투자 실적 (자료: 금감원)

투자자	투자 금융기관	보유 주식수	주당 취득원가	3/4 증가
골드만삭스	국민은행	20,449,650	20,260	58,200
조지소로스펀드	서울증권	22,353,608	3,335	6,960
H&Q	굿모닝증권	63,768,403	1,250	6,830
워버그핑커스	LG카드	14,000,000	31,250	상장 예정
칼라일그룹	한미은행	총 지분의 40.1%	6,800	11,900
뉴브리지	제일은행	99,999,956	5,000	매매 정지

* 보유 주식수는 2001년 12월 말 현재 자료임

* 한미은행의 칼라일 지분은 DR 발행 분을 감안한 것임

- 외국계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가 정상화된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게 됨
 - 경영권을 인수한 뒤 외국계 사모투자펀드측은 전문경영인을 외부에서 영입해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외부 전문 경영인이 주주 중시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 모델을 보여줬지만 첨단 금융기법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음

♣ 2002년 4월 8일 월요일 [2]

○ 영국 푸르덴셜 PCA투신 설립신고

- 금감원에 따르면 영국 푸르덴셜사가 국내 투신운용업에 진출을 목적으로 PCA투신운용 (가칭)을 설립하기 위해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승인받는 즉시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반적으로 예비허가 후 6개월이 지나면 본허가를 받게 돼 있으므로 10월경 본격적인营业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한편 영국 푸르덴셜은 미국 푸르덴셜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회사로 영국 생명보험과 개인 뮤추얼펀드의 선두업체로 전세계적으로 \$2,500억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음
- 금감원 관계자는 잇따른 외국계의 투신운용업 진출에 대해 아직 당장의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간접투자 상품시장의 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

○ 펀드 위탁판매 8조원 넘는 은행권

- 시중 9개 은행이 지난 1/4분기 중 위탁 판매한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8조2,772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판매액 2조5,661억원에 비해 222.5% 증가한 것임
 - 은행별 판매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4조4,90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조흥 1조6,237억원, 한빛 1조2,190억원, 하나 3,011억원, 한미 2,479억원 순임
 - 은행들의 펀드 판매액에는 환매액이 감안되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증권사와 함께 최대 펀드 판매사로 부상할 것으로 추정됨
- 은행들의 펀드 위탁판매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정 수탁고는 1/4분기 중 3조7,113억원 감소했음
 - 은행들이 펀드 위탁판매에 주력하는 것은 최근 증시 활황 분위기를 타고 고객들이 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적지 않은 판매수수료를 남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반면 신탁계정은 운용까지 책임져야 해 은행권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4월 9일 화요일 (1)

○ 투신권 상품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 현황

- 투신협회는 지난 해 12월부터 투신업계 관계자 5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신권에서 독창적으로 개발된 상품에 대해 독자적 상품 판매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투신협회의 상품심의위원회는 독창성, 투자비용, 투신 및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배타적 우선판매권의 결정을 부여하고 있음
 -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 현황 (자료: 투신협회 및 각 투신사)

회사 명	펀드 명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일	상품 특징
삼성투신	Silver Best 혼합투자신탁	1월 22일 (3개월)	50세 이상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고배당 장기투자상품
LG투신	LG Macro System 혼합투자신탁	1월 22일 (1개월)	GDP 등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투자하는 펀드
미래에셋 투신	미래에셋시스템-캡 펀드	3월 5일 (3개월)	파생상품으로 손실의 일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전환형 펀드
한국투신	자녀미래설계 장기채권투자신탁	4월 3일 (1개월)	채권에 투자해 자녀 교육비 및 결혼자금 등을 주는 장기투자상품

- 미래에셋투신운용의 '미래에셋시스템-캡 펀드'는 지난 3월 14일부터 판매돼 916억원 정도가 판매됐다고 회사측이 밝혔음
- 그러나 LG투신의 'LG Macro System 혼합투자신탁'의 경우 1개월 기간의 우선판매권을 얻었지만 상품이 투자자에게 다소 생소해 투자자에게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하고 부여된 배타적 우선 판매 기간인 1개월을 소모했음
 - LG투신측은 이 펀드에 투자할 기관투자자를 물색했지만 전례가 없는 모험적인 펀드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언급
- 삼성투신의 'Silver Best 혼합투자신탁'도 판매시점이 다소 맞지 않는 경우임
 - 삼성투신측은 이 펀드의 판매를 준비했으나,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주식형 펀드가 인기를 끌자 판매회사들은 주식형 펀드부터 집중적으로 팔자며 이 펀드의 출시를 연기했음

♣ 2002년 4월 9일 화요일 [2]

○ 투신권 채권형 펀드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골머리

-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대규모 자금을 앞세운 법인 고객들이 최근 신탁수수료를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투신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한 투신권 관계자는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자 연기금 및 대형 법인들이 거꾸로 수수료 인하를 통보해 오고 있다고 언급
 - 평균 수탁재산의 1%인 수수료를 0.5%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이며, 심지어 일부 법인들은 수수료를 0.3%까지 인하해 달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
- 한편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100억원 이상의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 450개 가운데 10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로 떨어졌다고 밝힘
 - 이는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펀드 전체의 한 달간 평균 수익률도 0.07%에 불과한 실정임



♣ 2002년 4월 10일 수요일

○ 투신 외수펀드 설정 다시 활발

- 지난 해 말 이후 주춤했던 투신권 외수펀드 (외국인 전용펀드) 설정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 한 투신권 관계자는 최근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등 동북아 증시에 직접 및 간접 투자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한국 내 외국인 투자전용 펀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지난 해에는 기존 펀드의 추가 설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올들어서는 추가 설정은 물론이며 신규 펀드 설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
 - 이는 외국인들이 향후 한국 경제가 호전되고 증시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추정했음
- 한투증권의 경우 지난 4월 4일 \$5억 규모의 '한국 탑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신규 설정하면서 1차로 \$1,000만 (13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유치했음
 - 대투증권도 4월 9일 총 \$5억 규모의 '대한 프로젝트티브 투자신탁'의 설정 조인식을 갖고 4월 10일 1차로 \$2,000만 (260억원) 규모를 납입했다고 밝혔음

♣ 2002년 4월 11일 목요일

○ 투신권 펀드 자금 유치 경쟁 치열

- 최근 증시 활황에 맞춰 투자자들의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많은 자금을 유치하려는 투신사들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음
- 우선 올 들어 투신사들은 목표 자산이 수조원 단위인 대형 펀드를 경쟁적으로 출시했음
 - 지난 1월 한국투신 3조원 규모의 '그랜드슬램' 펀드, 2월에는 삼성투신 1조원 규모의 '삼성탐파워90' 펀드, 3월에는 대한투신 5조원 규모의 '갤럭시코리아' 펀드 및 마이에셋자산운용 1조원 규모의 '애국성장형' 펀드가 각각 출시됐음
- 기존의 성과가 좋은 펀드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해 출시하는 경우도 있음
 - LG투신의 경우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인덱스형, 성장주식형, 주식혼합형 등 3가지 상품을 선별해 고객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한 'LG 드림펀드 시리즈'를 내놓았음
- 은행의 공격적인 펀드 판매전략도 투신권 펀드 자금 유치에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짐
 - 투신권은 은행이 증권사보다 전국에 지점이 많으며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파악하고 기존의 증권회사 일변도의 판매전략을 수정하여 은행에 판매사의 역할을 대폭 부여한 것이 주효했음
 - 아울러 은행 역시 수익원 다변화를 시도하는 방침의 일환으로 수익증권 판매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짐
- 각 투신사들 역시 투신권 자금 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객들의 투자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삼성 투신 및 대한투신의 경우 3월 한 달 동안 펀드매니저를 전국 지점에 보내 주요 고객을 상대로 현장 투자설명회를 벌여 왔음
-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홍보 전략을 통한 자금 유치 경쟁도 치열함
 - 한국투신은 월드컵기념 이벤트를 열고 주식형 펀드를 2,000만 계좌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붉은 악마 티셔츠와 축구용품 세트를 줄 예정이며, 월드컵 입장권 39장도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투신사들은 신상품 개발에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자금 유치 작전에 이르기까지 개별사의 수탁고 증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4월 12일 금요일

○ 일반사무수탁 의무화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21명의 의원들은 지난 4월 8일자로 투신사의 일반사무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위탁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 이 개정안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향후 의무적으로 특정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지정해 일반사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투신운용사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일반사무수탁을 금지하도록 했음
 - 아울러 투신사의 운용지시가 법령이나 약관에 위배될 경우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투신에 운용지시의 철회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사무수탁회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투신사들은 이 같은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투신사 자체 인력으로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을 의무화하는 것은 펀드 수수료만 높일 것이라고 반발했음
-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일반사무수탁회사는 13개사이며, 국내 29개 투신사 중 절반 정도가 이들 회사에 일반사무수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삼성, 제일, LG 등 대기업 계열 투신사와 주은, 한빛, 조흥, 신한 투신사등 은행 계열 투신사들은 자체적으로 사무수탁회사 업무를 해결해왔음

○ 연기금투자폴 2조원 돌파

- 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폴의 예탁 규모가 발족한 지 4개월만에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짐
 - 4월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예탁대상 기금 55개 중 37개 기금이 모두 2조15억원을 투자폴에 맡긴 것으로 집계됐음
- 투자폴의 운용 실정을 보면 MMF가 3월 말까지 연 4.46%의 운용수익률을 올려 투신업계 평균보다 0.37% 정도 높았음
 - 채권형 펀드는 연 6.09%, 혼합형 펀드는 14.82% (실현 수익률 기준)로 업계 평균보다 각각 0.76%, 7.93% 정도 높았음

♣ 2002년 4월 13일 토요일 (1)

○ PCA 투자신탁운용 예비허가

- 금감위는 4월 12일 가칭 PCA (Prudential Corporation Asia) 투자신탁운용의 투신업 예비허가를 의결했음
 - PCA는 영국의 프루덴셜 코퍼레이션 홀딩스 (이하 PCH: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가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했음
- PCH는 1948년 설립된 영국의 프루덴셜 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난 2001년 10월 영풍생명 (현 PCA생명)을 인수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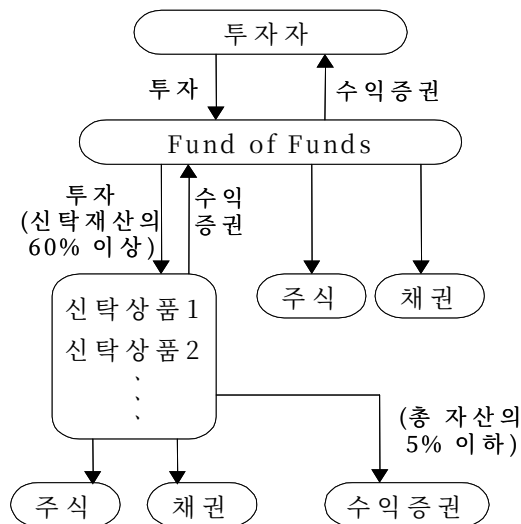
○ 전환증권사 고금리 후순위채 조기 상환

- SPC를 설립한 전환증권사들이 SPC에 의해 10%대 고금리로 발행돼 역마진 문제를 빚고 있는 후순위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C의 조기 상환과 재유동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임
 - 아울러 금감원도 대우사태에서 비롯된 후순위채의 역마진 문제가 전환증권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SPC의 조기 상환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투증권이 최근 요청해 온 후순위채 조기 상환은 현재 관련 규정이 없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선순위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남는 잉여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이 관계자는 전환증권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당시 SPC와 맺은 자산양도 계약서에 선순위채 우선 상환 조건을 포함시켰더라도 선순위채와 후순위채 인수자인 투신사나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
 - 후순위채 상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후순위채 인수자에게 금액비율대로 균등하게 상환하면 된다고 덧붙임
- 이에 따라 대투증권은 현재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SPC의 후순위채 중 우선 2,000억원 정도를 3월 말 결산 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 자금으로 조기 상환할 방침임
- 한투증권은 1조5,000억원 규모인 후순위채의 역마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PC가 보유 중인 기초자산을 재유동화해 기존에 발행한 후순위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연 11% 수준인 기발행 후순위채를 현재의 금리 수준을 반영한 후순위채로 교체하면 2% 정도의 조달 금리 인하효과가 있어 연간 150억원 정도의 수익개선 효과가 예상됨
- 현대, 삼성 등 후순위채 발행 규모가 많은 투신사들도 대투증권과 한투증권의 처리 방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조기 상환을 위한 자금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 2002년 4월 13일 토요일 (2)

○ Fund of Funds 상품 7월 시판

- 오는 7월부터 주식이나 채권 대신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 등 신탁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인 Fund of Funds (이하 FOF) 상품이 판매될 예정임
 - 재경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 상품이 오는 7월 말부터 시판될 것이라고 밝혔음
- FOF는 운용 자산의 일정 규모 (60%로 예상)를 반드시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야 하는 신탁상품 투자전문 펀드로 설계될 것임
 - 다만 특정 투신사나 특정 펀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투신사에 대한 투자금을 운용자산 총액의 50% 이하로 제한했음
 - 아울러 1개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도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했음
 - FOF 상품 개요도



- 재경부 한 관계자는 FOF는 수익률이 높은 국내외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대형펀드의 출현 유도 및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2002년 4월 15일 월요일 (1)

○ CB 및 BW 발행제도 개선으로 국내 CB 및 BW 발행시장 활기 기대

- 금감위는 3월 29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칙적인 해외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 (이하 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BW) 발행제도를 개선했음
 - 개정된 규정은 4월부터 내국인의 해외 CB 및 BW 공모 발행 인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변칙적인 해외증권 발행을 제한했으며, 공모 CB의 전환금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음
 -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해외증권의 발행이 제한되자 국내 CB 및 BW 발행을 추진하는 상장 및 등록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아울러 CB의 전환 가능시기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면서 환금성이 개선된데다 주가 상승으로 고수익도 올릴 수 있어 CB 투자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주요 증권사 IB영업팀과 구체적인 CB 발행 일정을 검토 중인 기업은 모두 20개사로 올들어 국내 CB를 발행한 기업이 3개사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셈임
 - 현재 국내 CB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용등급 BB+나 BB0의 투기 등급 기업들이며, 규모는 각 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개사당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원의 CB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증권사 관계자는 4월 들어 기업들의 국내 CB 발행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CB를 찾는 일반 투자자들도 크게 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국내 CB 발행은 물론이며 투자도 급증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음

○ 새로운 채권 지수인 KOB120를 개발한 KIS채권평가

- KIS채권평가는 채권형 펀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지수인 KOB120 (Korea Bond Index 120)을 개발했다고 4월 14일 밝혔음
 - KIS채권평가는 삼성, 대한, 한국, 현대, 제일, 주은 등 국내 6대 투신운용사와 공동으로 실제 채권형 펀드 내 편입되어 주로 운용되는 120개 채권 종목을 대상으로 KOB120을 만들었음
 - KIS채권평가는 이에 반해 기존의 채권 지수는 6,000여개 이상의 투자 적격 채권들을 모두 포괄해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채권형 펀드 내 편입되어 운용되는 패턴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설명
 - 아울러 국내 채권형 펀드들이 평균 듀레이션을 1년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수 평균 듀레이션을 1년으로 하였음
 - 지수 산출 주기는 일별이며, 지수 산출 시점은 2001년 1월 1일 100을 기준으로 함

♣ 2002년 4월 15일 월요일 (2)

○ 최근 주가 조정기 동안 주식 매수나서는 일부 연기금

- 정보통신부와 군인공제회 등 일부 연기금 기관들은 이미 지난 주 주가가 60 포인트 가깝게 하락하자 발빠르게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30조 규모의 우체국 예금·보험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11일 삼성투신과 제일투신의 주식혼합형 펀드에 1,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조만간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임
 - 군인공제회는 지난 4월 9일 800억원의 자금을 삼성 등 4개 투신운용사에 투입했으며, 당초 1,000억원이던 주식 투자 예산을 3,000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짐
 - 농협중앙회도 지난 4월 9일 1,000억원 규모의 신탁계정 자금을 투신사에 위탁한 상태임
 - 국민연금은 올해 투식 투자 예산 6,000억원 중 1,800억원만을 집행했으며, 사학연금 역시 주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자금 집행액을 증가하고 있음

♣ 2002년 4월 16일 화요일

○ 펀드 내 부실채에 대해 충분히 상각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침을 밝힌 금감원

- 금감원은 향후 투신사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나 기업개선작업으로 발행 기업 채권가격이 급락할 경우 즉시 해당 투신사가 상각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최근 일부 투신사들이 워크아웃에 준하는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을 미리 상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상각하여 펀드에 투자했던 새마을금고와 마찰을 빚은 바 있음
 - 금감원은 이번엔 제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음
-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부실채권의 상각 문제로 고객들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규정을 넘어 타협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 상각은 규정상 최소 한도만 적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업계의 관행이라며 부실채권은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시장에서 인정되는 정도로 충분히 상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투신사들이 원칙없이 상각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탁자의 압력을 받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가 결국 불건전한 펀드 운용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
 -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도 부실채권의 상각은 감독 규정과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부실 발생 상황이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 자사의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
- 금감원은 실제 펀드의 가격을 정하는 문제는 시장 기능에 달린 것으로 직접적인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구속력있는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상각률을 정하는 방법과 전문기관에 관련 용역을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금감원 경영평가위 명문화

- 금융회사들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운영해 온 경영평가위원회가 감독규정상 명문화될 예정임
 - 금감원은 4월 15일 적기시정조치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경영개선 계획을 심사·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감독규정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경영평가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금융회사들의 경영개선 계획 심의 및 감독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구임

♣ 2002년 4월 17일 수요일

○ 투신사, 개인, 연기금 투자여력 15조원 육박

- 투신사, 개인, 연기금 등 3개 투자 주체들이 이론적으로 주식을 최대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 투자 규모는 최대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음
 - 현대증권은 4월 16일 투신권이 9조1,000억원, 개인 4조2,000억원, 국민연금 등 5대 연기금이 2조7,000억원 등 3개 투자 주체들이 이론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4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음
- 투신사의 경우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의 주식 편입비율을 각 펀드 운용성향에 따라 각각 95%, 60%, 30%로 설정한다면 이론적인 최대 편입규모는 26조3,000억원에 이룸
 - 이 중 지금까지의 편입액 17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9조1,000억원의 매수 여력이 있다고 추정됨
- 전체 금융자산 규모 중 개인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지난 99년의 7.3%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개인들의 주식투자 가능 규모가 6조4,919억원에 이르렀음
 - 이 중 지난 해 10월 이후 증가한 고객예탁금 2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4조2,000억원 정도의 개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전체 금융자산에서 개인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6.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연금 등 5대 연기금이 올해 주식투자 책정 금액 2조7,000억원 중 50%의 주식 편입비율을 감안하면 1조3,500억원의 주식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투신 편입 부실채권 유동화 추진

- 금감원은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비율을 높여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힘
 - 이렇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부실채를 편입한 펀드 투자자의 반발이 예상됨
 - 반면, 장기적으로는 투자 손익에 대한 투자자 책임 귀속 원칙의 투신시장 대원칙이 시장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투신시장에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금감원이 상각률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반도체, 쌍용양회,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등 워크아웃 중이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 중에 있는 기업 등임

♣ 2002년 4월 18일 목요일

○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전체 자산의 6.5%에서 2012년까지 20~30%로 높일 계획이어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기금운용 중장기투자 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중장기 투자정책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음
- 이에 따르면 주식투자 비율을 20%로 할 경우 연도별로 2005년 10%, 2008년 15%, 2010년 17%, 2012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45~68조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위원회는 이 밖에 해외 주식, 벤처 기업, 부동산에 전체 자산의 각각 4~6%, 0.76~1.14%, 5%씩을 투자하는 방침을 제시했음
 - 아울러 전체 연금기금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 투자비율을 2012년까지 9.58%로 낮추고 복지부문 지원 비율은 1%선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음
-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공청회를 열어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변액보험 수익률 1개월마다 공시

- 금감원은 지난 해 7월 처음 나온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의 수익률 및 자산 구성 내용 등을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했음
 - 금감원은 지난 3월 25일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4월 17일 밝혔음
- 새 규정에 따르면 변액보험, 퇴직보험, 개인연금 등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자산구성 내역, 보수 지급액, 운용수수료 등을 각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도 비교 공시토록 했음
 - 특히,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은 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1개월마다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했음
 - 이와 함께 보험사가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 실행 등에 따라 재산운용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은 5년 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3개월 내, 대출 등 기타재산은 1년 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했음

♣ 2002년 4월 19일 금요일

○ 국은투신 다음 주 매각 본계약 체결 예상

- 국은투신 관계자는 모회사인 국민은행과 인수 협상자인 모건스탠리와의 매각 협상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주쯤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
 - 이 관계자는 매각 조건이나 매각대금 역시 지난 1월 맺은 MOU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 국민은행은 지난 1월 22일 국은투신 보유지분 87% (522만주)를 주당 8,500원씩 총 443억7,000만원에 매각키로 모건스탠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국은투신 매각은 모건스탠리가 인수대금 규모의 M&A사모 펀드를 설정하고 국민은행이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국은투신의 나머지 지분은 교보생명 7%, LG투자증권 3.5%, 신한증권 2.5% 등이 보유하고 있음
-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두 모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한 은행에 두 투신 자회사인 주은투신과 국은투신 구조로 편성됐음
 - 그러나, 수탁구조의 차이나 전문인력의 중복성 등으로 두 자회사 합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어 규모가 작은 국은투신을 매각하게 된 것임
 - 아울러 당초 세종투신운용을 합병할 계획이던 모건스탠리가 국은투신 인수로 급선회하면서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탔음
- 국은투신은 전체 수탁고가 지난 4월 16일 현재 2조4,600억원 규모로 30개 투신사 중 18위에 해당하는 반면, 주은투신은 전체 수탁고 11조원대로 업계 6위의 대형 투신사에 속함

○ 인덱스펀드 투자 제한 규정으로 제 구실 못해

- 인덱스펀드란 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되도록 투자 종목을 선정해 운용하는 펀드이지만, 투자제한 규정상 기준지수의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할 수 없어 펀드와 지수간 수익률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특히 지난 해부터 시가비중이 큰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비롯된 것임
-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동일 종목에 10% 투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정부는 지난 해 시가총액 10%를 넘는 기업에 대해 전반기의 평균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 하지만 시가총액이 10%를 넘는 기업에 대해 시가총액 비중 조정 시점이 6개월이란 시차가 발생하여 기준지수의 시가총액 비중 상황이 시기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 가령, 전반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약 14% 정도였으나, 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약 18%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 시가총액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최근 업계에서는 이렇듯 시가총액이 1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가 조정시점이 전반기에서 전월 시가총액 비중시점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2년 4월 20일 토요일

○ 주식형 펀드 이탈 조짐

- 주가가 900선을 넘어서면서부터 투신권의 주식형 펀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소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 지난 99년 지수 900~1,000포인트 대에 가입했던 개인들이 최근 주가 상승으로 원금을 회복하자 환매를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임
 -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4월 16일 현재 8조5,695억원을 기록했으나, 4월 19일 현재 8조3,899억원으로 3일간 1,796억원이 감소했음
 - 이는 그 동안 주식시장의 활황세와 맞물려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임
-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들이 아직까지 주가지수 900에 안착할 것이라는데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
 - 따라서 과거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들은 원금이 회복되는 즉시 환매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설명
- 이처럼 과거 주가 상승기에 펀드에 가입했다가 지금까지 묶여있는 자금은 투신권 전체 주식형 펀드 수탁고의 30% 안팎인 3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하지만 투신업계에서는 향후 주식시장 전망이 좋은 만큼 개인들의 환매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주식 간접투자상품 수탁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2년 4월 22일 월요일

○ 프라이머리 CBO 폐지 검토

-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기업 신용도 상승에 따라 자금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기업들의 응급 자금 수혈 기능을 했던 프라이머리 CBO 및 CLO가 사라지고 있음
 - 이는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사실상 정부 보증이 있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기업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 및 자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회복됐음을 의미함
- 4월 21일 재경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이래 증가해 온 만기 도래 프라이머리 CBO 및 CLO 상환율이 최근 90%에 육박하고 있음
 - 지난 해 12월의 경우 만기 도래 프라이머리 CBO 및 CLO 총액은 3,44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128억원 (약 62%)이 상환됐음
 - 그러나, 1월에는 총 4,075억원 가운데 약 83%에 해당하는 3,375억원이 상환됐으며, 만기 도래분이 없었던 2월과 3월을 지나 4월에는 총 6,970억원 가운데 5,923억원이 상환돼 약 85%의 상환율을 기록했음
- 한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최근 5월 만기 도래분 7,050억원에 대한 기업들의 상환 의사를 사전 조사해 본 결과 거의 100%가 만기 연장보다는 상환을 택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
 - 아직 남은 잔액 약 13조원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대부분 상환될 것이라고 추정했음
- 한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1월부터 프라이머리 CBO 신규 발행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음

○ 투신사 하이닉스 추가 상각 우려

- 하이닉스 메모리부문 매각이 임박해짐에 따라 지난 해 20% 정도 상각을 했던 투신사들의 하이닉스 채권 원리금 상환 비율이 30% 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추가 상각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
 - 투신업계는 하이닉스 회사채 추가 상각 비율이 30~40%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펀드 투자자들과의 마찰도 우려하고 있음
 - 투신사 전체적으로 하이닉스 회사채 보유 규모는 약 1조2,500억원이고, 별도로 SPC에는 1,360억원이 편입돼 있음
- 특히 다량의 미매각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사인 증권사들도 하이닉스 회사채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하이닉스 회사채 상각에 따른 총당금을 설정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2002년 4월 23일 화요일

○ 인덱스 펀드 설정잔고 1조원 첫 돌파

- 지난 4월 20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과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인덱스 펀드가 펀드 수 38개에 설정잔고가 1조108억원에 이르렀음
 - 올해 초 31개 펀드에 설정잔고 4,19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4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에 펀드 수 7개, 설정잔고 5,911억원 (증가율 141%)이 증가한 셈임
 - 인덱스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1월 초 4,827억원에서 지난 4월 20일 1조3,360억원으로 8,533억원 (증가율 177%)이 증가했음
- 인덱스 펀드는 주가지수 상승률과 비슷한 수익률이 나도록 설계돼 있어 시장 전망에 따른 펀드 수익률 예측이 용이함으로 최근의 상승장에 편승하여 큰 인기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모펀드에 인기 집중

- 펀드평가기관인 제로인에 따르면 주식혼합형 사모펀드 수탁고가 연초 1조4,128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4월 20일 기준으로 2조6,292억원까지 증가해 수탁고가 두 배 이상 증가했음
 - 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도 같은 기간 3조4,935억원에서 7조2,35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종목당 투자제한이 없고 환매가 자유로운 사모펀드 방식을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임
 -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운용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투신사와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 덤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와 일반 고객간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투신사에서 기관투자자용 사모펀드와 일반 고객용 공모 펀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매기는 관행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며, 자산운용 상에서도 '기관 우대'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우려

♣ 2002년 4월 24일 수요일 (1)

○ 하이닉스 매각 관련 MOU에 반발하는 투신권

- MOU의 주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채권단의 반발 기류가 급속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투신사들은 4월 27일 예정된 채권단 전체 회의에서 MOU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 이들 투신사는 리스나 할부금융 등 다른 제2금융권 채권기관들과도 연대 및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 중임
 - 현재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채권 규모는 전체의 15% 수준인 1조 2,500억원 규모임
 - 조건부 MOU가 채권단 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전체 채권 금융기관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투신권이 은행 (전체의 70%)을 제외한 제2금융기관들과 연대할 경우 약 30%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MOU를 부결시킬 수 있음
 - 아울러 하이닉스 반도체 소액주주 모임도 하이닉스 혈값 매각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상태여서 MOU 체결에 난항이 예상됨
- 아울러 일부 채권단 관계자는 하이닉스 반도체 매각관련 조건부 양해각서인 MOU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체결한 MOU상에는 이 회사 메모리 부문 직원 85% 이상이 고용에 동의해야만 5월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이크론은 이번 MOU에서 향후 7년간 잔존법인이 어떤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법에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잔존법인의 재무제표 등 중요 정보를 받을 권리도 보장 받았음
 - 이와 함께 미국 본사의 지급보증없이 채권단으로부터 \$15억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추가 운영자금 \$3억은 금리 상한선을 5%로, 추가 시설자금 \$8억은 6%로 하는 등 금리 우대도 받을 예정임

○ 현대 금융 3사에 대한 실사 준비 예정인 푸르덴셜

- 현대투신운용, 현대증권, 현대투신증권 등 현대 관련 금융 3사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인 푸르덴셜이 5월 중 이들 금융회사에 대해 예비실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푸르덴셜은 현대 금융 3사 가운데 자산운용 분야의 인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각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푸르덴셜은 제일투신에게 이미 \$9,000만을 투자했으며, 오는 2004년까지 \$4억을 추가 투자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음
 - 푸르덴셜은 현대투신을 새로 인수할 경우 제일투신과 합병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4월 24일 수요일 (2)

— 푸르덴셜은 보험업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으로써 보험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현대투신 운용의 인수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대증권 등에 대해선 매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한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증권을 빼놓고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며, 현대 3사를 묶어 매각하되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 9개 자산운용사 자본 잠식

— 금감원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시중 12개 자산운용사 중 9개 운용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으며, 상위사와 하위사간 자산운용 및 당기순이익 규모가 갈수록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구조가 취약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02년 3월 말 현재 자산운용사 현황 (자료: 금감원 및 자산운용업계)

회사 명	전체 운용자산 규모* (단위: 10억원)	자본총계 (단위: 백만원)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미래에셋	1,536.1	31,081	1,007
마이다스	1,534.4	2,891	1,627
KTB	1,371.2	1	2,468
세이에셋	1,293.0	-1,171	448
맥쿼리IMM	1,188.5	-6,535	-2,757
유리	1,025.3	-1,230	1,676
마이에셋	619.7	-6,240	1,127
다임	521.2	-3,085	-622
와이즈	240.5	-281	-240
글로벌	213.2	-2,263	-209
그린에셋	169.5	-1,322	257
뉴스테이트	24	-3,686	-676

*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증권투자회사 및 투자자문으로 들어 온 자산 규모를 모두 합한 것임

— 자산운용업계는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올 3월 말 현재 증권투자회사의 수탁고만 지난 해 같은 시점 약 2조원에 비해 대폭 성장한 6조6,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당기순이익도 증가해 전체 자산운용사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17억9,000만원으로 지난 해 -171억3,000만원에 비해 비교적 큰 성과를 보였음

— 하지만 상위 6개사가 전체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규모의 약 82%인 7조9,485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 운용사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간 자산운용 능력 및 브랜드 파워 등에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정 규모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자본구조가 취약한 자산운용사의 영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단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2002년 4월 25일 목요일

○ 나스닥 및 런던증권거래소의 합병 추진

- 미국의 나스닥과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가 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4월 24일 밝혔음
 - 블룸버그통신은 수개월간 합병 논의가 진행돼 왔으며 수주 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합병이 성사되면 미 뉴욕증권거래소를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증시가 탄생하게 된다고 언급
 - 양 증시의 올 1/4분기 주식 거래 규모는 모두 \$3조2,000억으로 뉴욕증권거래소 \$2조6,000억을 훨씬 웃도는 실정임
 - 나스닥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첨단기술 기업 위주로 3,900여개사가 상장돼 있으며, 런던증권거래소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2,800여개사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은 기술주 거품 붕괴 이후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해 온 나스닥과 오래 전부터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해 온 런던증권거래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추정
 - 나스닥은 지난 2000년에도 런던증권거래소 및 프랑크푸르트증시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렬된 적이 있음
 - 아울러, 나스닥은 런던증권거래소와의 합병과는 별도로 독일의 도이체증권거래소와도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이닉스 반도체 매각 MOU 난항 예상

-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 MOU가 오는 4월 29일 열리는 전체 채권단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은행들의 의결권은 65%로 법상 필요한 의결권은 75%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반대하면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임
 - 하이닉스 MOU에 대한 금융권별 의결권 상황 (단위: 억원, %)

구분	채권 규모	의결권 비중
은행	53,574	65.4
씨티은행 및 CB 보유 은행	5,124	6.3
투신사	12,513	15.3
보험사	461	0.6
증권사	1,214	1.5
리스사	4,048	4.9
상호저축은행	619	0.8
유동화 전문회사	9,300	11.3
채권안정기금	231	0.3
계	81,959	100.0

- 아울러 은행권 내부에서도 지난 해 채무재조정 때 반대의견을 냈던 은행들이 이번 MOU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 2002년 4월 26일 금요일

○ 제2금융권에 하이닉스 MOU 체결을 설득하려는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4월 26일 투신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 사장들을 소집하여 하이닉스반도체 매각과 관련한 MOU 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설득할 예정임
 - 이 날 회의에서는 하이닉스 주 채권 은행인 이강원 외환은행장,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와 협상을 주도했던 이덕훈 한빛은행장도 참석하여 협상내용에 반발하고 있는 제2금융권 사장들에게 MOU를 수용하도록 촉구할 방침임
 -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사 등 제2금융권 채권단에 하이닉스 매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위원장이 직접 MOU 체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언급
- 투신운용사별 하이닉스 회사채 편입액 (단위: 억원, 자료: 채권단)

투신사	채권 규모	투신사	채권 규모	투신사	채권 규모
한국	4,077	교보	717	SK	104
조흥	2,569	한일	322	현대	100
서울	1,183	한빛	203	삼성	25
주은	1,125	동원 BNP	200	대투증권	18
대한	1,117	한화	108	신한	10

- 투신권이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회사채는 지난 해 10월 초 1조1,878억원에서 이자가 붙어 현재 약 1조2,500억원 정도임
- 일반적으로 무보증 회사채를 인수한 투신사는 전체 투자 채권 규모에 5% 이상 되돌려 받기 힘들지만 주 채권은행단은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고려해 15%까지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2002년 4월 27일 토요일

○ 하이닉스 채권단의 순조로운 합의를 전망한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4월 26일 하이닉스 제2금융권 채권단 회의를 마친 뒤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하여 채권단 합의가 잘 될 것이라며 투신권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
 - 이 금감위 위원장은 투신사들이 매각에 반대한다는 뉴스는 신문에서만 보았다고 언급했으며 이날 회의는 하이닉스의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한 자리였다고 덧붙임
- 이덕훈 한빛은행장은 투신권의 하이닉스 부실채권 회수율을 2005년까지 50%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행장은 은행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투신권이 유리하게 할 방침이며 투신권이 승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행권이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투신권의 공동 합의는 없었으며 정부의 강한 매각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 2002년 4월 29일 월요일

○ 전체 증권사 불공정거래 조사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지점 폐쇄 및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은 증권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대상을 국내 모든 증권사 지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오는 5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 아래 우선적으로 10개 지점을 선정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음
 - 최근 금감원은 10개 증권사 지점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애널리스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02년 4월 30일 화요일

○ 하이닉스 매각 협상 이사회에서 부결

-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양해각서인 MOU 동의안이 4월 29일 전체 채권단 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으나,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매각 협상이 결렬됐음
- 4월 29일 채권단 회의에서는 하이닉스 매각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채권단 77.73% 찬성으로 승인됐으나, 4월 30일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전원 합의로 매각 협상이 부결됐음
 - 이사회는 마이크론과 합의한 MOU 및 메모리 사업 매각 후 잔존법인의 재건 방안을 논의한 결과 매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리게 됐다고 발표
- 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가 독자 생존을 자신하고 있지만 9조원에 달하는 채무상환 방안과 채무 재조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당장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
 - 정부 관계자는 채권단의 지원 없이는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며 채권단 역시 하이닉스 회생을 위해 신규자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마이크론이 협상 의사를 표명한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음

○ 16조원 규모의 채권 운용과 관련하여 5개 투신사와 투자자문 계약을 한 삼성생명

- 삼성생명이 50조원 규모의 운용자산 중 약 16조원의 채권 운용에 대해 삼성, 대한, 한국, SK, 외환 등 5개 투신사와 채권 부문에 대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음
 - 이로 인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동안 5개 투신사로부터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채권 및 금융 시황에 관한 사항, 유망 종목 매매 추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게 됨
 - 아울러 삼성생명은 5월 초쯤 삼성투신 등 우량 투신운용사들과 주식 부문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맺어 단기 운용이 가능한 6,000억원 규모의 주식 운용과 관련한 시황 판단 및 매매 의사결정을 이들에게 일임할 계획임



5월

May

10대 주요 기사

1. 투신권 하이닉스채 대규모 상각 실시
(3일, 9일)
2. MMF 편입 채권 만기 축소 및 환매 제도 변경
(6일, 23일, 27일, 28일, 29일)
3. 금감위, 외환은행 신탁 손실보전 금지
(9일, 11일, 14일)
4. 투신권 부실채 상각률 대폭 상향 조정 예정
(13일)
5. 기금 운영 구조개편 방안 확정
(21일)
6. 코스닥 종목 투자 한도 완화 호소
(23일)
7. 금감원 선취수수료형 펀드 불허
(25일)
8. 삼성증권 투신안정기금 탈퇴 소송 '각하' 판정
(28일)
9. KDI 국민연금 지급 연령 더 늦춰야 한다고 지적
(29일)
10.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 세전 순이익이 각각 1,836억원, 21억원 기록 (30일)

◆ 5월 목차 (5/1-5/10)

5/1 [수]	근로자의 날
5/2 [목]	○ 선물회사 수익증권 적극적 판매 검토 ○ 투자자문사 이례적 호황 ○ ING생명 주은투신운용 경영권 확보
5/3 [금]	○ 투신권 하이닉스채 대규모 상각 실시
5/4 [토]	○ 하이닉스 분할 매각 처리로 방침을 정한 채권단
5/5 [일]	어린이 날
5/6 [월]	○ 6월부터 MMF 편입 채권 만기 축소 ○ 투자신탁연구회 출범
5/7 [화]	○ 회사채 발행 급증
5/8 [수]	○ 역외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 사실상 현투 인수 실사에 돌입한 푸르덴셜
5/9 [목]	○ 외환은행의 일부 신탁상품 해지 고객에 대한 우대 금리 적용 문제 확산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 하이닉스 사업 분할안 거부시 법정관리 방침 천명 ○ 전 투신권 이번 주 중 하이닉스 채권 50% 이상 상각 예정 ○ 지난 해 3개 연기금 주식 투자로 1조2,000억원 수익
5/10 [금]	○ 국민연금 증시 추가 투입 기대 ○ 국민은행 국은투신 매각 ○ 한투증권 선박투자펀드 운용사 설립 추진

◆ 5월 목차 (5/11-5/20)

5/11 [토]	○ 금감위, 외환은행 신탁 손실보전 금지 ○ 워버그증권사의 삼성전자 보고서로 인해 증시 급락 ○ 근로자주식저축 부당 세금 환급
5/12 [일]	
5/13 [월]	○ 투신권 부실채 상각률 대폭 상향 조정 예정
5/14 [화]	○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국제금융센터 ○ 국민연금 1천억원 투입 ○ 사전에 금감원으로부터 허락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외환은행의 신탁 손실 보전 사건
5/15 [수]	○ 미국 론스타 한국에 투자 ○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증가하는 반면 채권형 펀드 수탁고는 감소
5/16 [목]	○ 현투증권의 '한마음119채권1' 펀드 대한소방공제회에 7,000만원 전달 ○ 리서치자료 공표 전 관련종목 매매 금지
5/17 [금]	○ 미국 뱅가드펀드의 무서운 성장 ○ 아시아타이거펀드 삼성전자 최대 비중
5/18 [토]	○ 한빛투자신탁운용 회사명 우리투자신탁운용으로 개명 ○ 순수주식형 펀드 설정액 10조원 돌파
5/19 [일]	
5/20 [월]	○ 증권사 임직원 거래내역 공개

◆ 5월 목차 (5/21-5/31)

5/21 [화]	○ 삼성화재도 자산운용 아웃소싱 ○ 기금 운영 구조개편 방안 확정
5/22 [수]	○ 한국증시 MSCI의 선진국 지수로 편입 전망
5/23 [목]	○ MMF 환매 청구 당일 증가 기준 적용 ○ 코스닥 종목 투자한도 완화 호소
5/24 [금]	○ 투신권 공모제 개편에 고수익펀드 수익률 하락 우려
5/25 [토]	○ 금감원 선취수수료형 펀드 불허 ○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헤지펀드 ○ 중국의 IPO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
5/26 [일]	
5/27 [월]	○ 헤지펀드 규제를 선언한 미국 SEC ○ MMF 환매 제도 변경으로 은행권 MMDA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투신권
5/28 [화]	○ 조세피난처에 정통부 펀드 설립 ○ 투신권 MMF 익일 환매 반발 ○ 삼성증권 투신안정기금 탈퇴소 각하 판정
5/29 [수]	○ MMF 익일 환매제 수용될 듯 ○ KDI 국민연금 지급 연령 더 늦춰야 한다고 지적 ○ 펀드매니저 불법 행위도 조사 ○ 금광업종 펀드 투자 가치 유망
5/30 [목]	○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 세전 순이익이 각각 1,836억원, 21억원 기록 ○ 국은투신운용 '랜드마크투신운용'으로 개명
5/31 [금]	○ 5조원 규모의 스왑펀드 대거 이탈 조짐

♣ 2002년 5월 2일 목요일

○ 선물회사 수익증권 적극적 판매 검토

- 삼성, 농협, 동양, 제일 등 선두권 선물회사들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수익증권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이처럼 선물회사들의 수익증권 판매 전략은 최근 선물시장의 확대 및 고객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로 수익원이 단일화돼 있어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특히 국채 옵션 상장과 관련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선물 전용펀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 채널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선물회사들은 이를 위해 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이며, 판매채널 확보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투자자문사 이례적 호황

- 증시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들이 사상 유례없이 호황을 맞고 있음
 -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기금, 교원공제회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예년과 달리 투자자문사에 자산운용 위탁을 늘리면서 투자자문사들과의 계약액이 증가하고 있음
 - 증권업계는 이 같은 호황에 힘입어 현재 67개사인 전업 투자자문사들의 수가 급증하여 상반기 안에 1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처럼 투자자문사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투신사보다 투자자문사를 더 선호하기 때문임
 - 투자자문사의 경우 투신사와 달리 현행 법에 따른 까다로운 투자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데다 환매도 자유로워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장이 하락할 경우 자산운용의 대부분을 주식에 집중하고 있는 투자자의 위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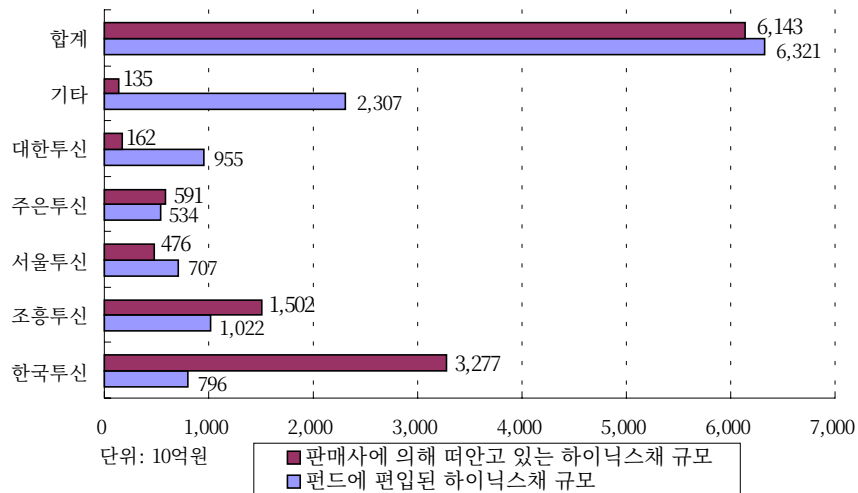
○ ING생명 주은투신운용 경영권 확보 예정

- 투신권에 따르면 주은투신운용에 지분 20%를 출자한 ING생명은 조만간 국민은행이 주은투신운용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30% 이상을 추가 확보하여 경영권을 넘겨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한 시장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ING측에 경영권을 넘겨줄 방침이며, 이로 인해 주은투신운용 내의 ING 지분은 적어도 51%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ING측은 주은투신운용의 지분 확대 이후 설립될 투신운용사의 명칭을 ING투신운용으로 정할 예정이며, 현재 기업 이미지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5월 3일 금요일

○ 투신권 하이닉스채 대규모 상각 실시

- 하이닉스 반도체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하이닉스 회사채를 떠안고 있는 투신사들이 자사의 펀드에 대한 대규모 상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짐
 - 4월 말에 현대투신운용은 하이닉스채에 대한 상각률을 20%에서 60%로 올린데 이어, 한국투신운용도 20%에서 50%로 높였음
 - 아울러 5월 들어 2일에 대한투신운용과 조흥투신운용 등도 50~55%까지 상각률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음
-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회사채 규모는 총 1조2,464억원이라고 밝힘
 - 이 중 매각되지 않아 판매사가 떠안고 있는 금액은 6,143억원이며, 나머지 6,321억원 정도가 펀드에 편입돼 있음
 - 가령, 투신사들이 30% 추가 상각할 경우 가입 고객의 펀드 손실은 약 1,900억원 정도가 될 것임
 - 투신사별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채 보유 내역 (자료: 금감원)



♣ 2002년 5월 4일 토요일

○ 하이닉스 분할 매각 처리로 방침을 정한 채권단

-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단은 5월 3일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사를 3~4개로 분할해 경쟁력있는 사업부문만 살리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청산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채권단은 이 같은 처리 계획과 별도로 회사측에 인원 감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키로 했으며, 하이닉스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 전체를 법정관리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음
 - 채권단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실사를 위한 외부 자문사를 선정해 정밀 실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론측이 완전 결렬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론 경영진에서 공식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힌 만큼 매각은 무산된 것으로 본다고 언급
 - 따라서, 각 사업부문을 면밀히 검토해 경쟁력있는 부문만 살려야 한다고 덧붙임
- 한편, 채권단은 현재 보유 중인 3조원의 CB를 6월 초쯤에 시가에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하이닉스 주가는 5월 3일 종가로 805원이며, 채권단이 이 가격으로 주식을 전환할 경우 최소 75%의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 2002년 5월 6일 월요일

○ 6월부터 MMF 편입 채권 만기 축소

- 금감위는 240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금리 상승기에 자금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기 부동자금 절대 규모를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는 우선 약 44조원에 달하는 초단기 투신 상품인 MMF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음
- 현재 MMF에 편입하는 채권의 평균 만기를 국고채와 통안채를 포함해 6월부터 120일 이내, 12월부터는 90일 이내로 제한할 예정임
 - 현행 규정상 MMF 평균 만기는 장기채권인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하고 90일로 되어있음
 - 투신사들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을 이용해 이들 채권을 과도하게 편입시켜 수익률을 제고시킴으로써 MMF가 투자자들에게 장기수익률이 보장되는 단기 상품으로 인식시키고 있음
- 금감위가 국고채, 통안채를 포함시켜 평균 만기를 제한함으로써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를 편입할 여지를 줄여 궁극적으로 MMF의 수익률은 현재보다 감소될 것으로 추정
 - 현재 MMF 수익률은 연 3.9~4.5%로 콜금리보다 0.5% 정도 높으나, 금감위는 제도 개선 이후 MMF 수익률이 연말까지 콜금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투자신탁연구회 출범

- 투자신탁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인 투자신탁연구회가 5월 13일 공식 발족할 예정임
 - 이 모임은 한림대 이종기 교수의 주도로 투신협회 직원을 비롯해 업계, 학계 및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 등도 참여하여 총 17명으로 출범할 예정임
 - 이 단체는 투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생기는 비공식 연구 단체로 투자신탁 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점차 개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02년 5월 7일 화요일

○ 회사채 발행 급증

- 3월에 이어 4월에도 기업들이 회사채를 갚는 금액보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축적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업들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발행액은 4조2,080억원이지만, 상환액은 4조1,162억원으로 순발행 규모가 918억원에 이름
 - 3월 6,577억원 순발행에 이어 두 달 연속 발행금액이 상환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은행은 경기회복과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음
 -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설비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자금 수요를 은행 대출로 충당할 수 있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설비 투자가 증가하여 회사채 발행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 2002년 5월 8일 수요일

○ 역외금융회사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역외금융회사 (역외펀드)에 총 \$15억6,100만을 투자해 15.1%인 \$2억3,700만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됨
 - 지난 해 말 투자한 금액은 2000년 말 \$13억1,700만에 비해 2억4,400만 (18.5%)이 증가했으나, 평가 손실 규모는 2000년 말에 비해 \$1,300만 (5.8%)만큼 더 커졌음
 - 그러나 이 통계 자료는 커다란 손해를 보고 이미 청산한 펀드들이 빠져 있어 실제 금융기관 등이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실제 손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가령, 대한투신의 경우 역외펀드를 통해 외환 위기가 발생한 아르헨티나 채권 등에 투자했다가 \$5,000만~\$6,000만을 손해볼 처지에 놓여 있으나, 이 부분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음
- 한편, 지난 해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설립했거나, 이들이 역외금융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한 역외금융회사는 모두 78개로 2000년 말보다 43개 늘어났다고 밝혔음
 - 역외펀드 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 해 11월부터 국내 금융기관 등이 펀드 자산 대비 10% 이상을 투자한 역외펀드 등도 한국은행에 모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규 신고 대상이 49개나 늘어났기 때문

○ 사실상 현투 인수 실사에 돌입한 푸르덴셜

- 5월 7일 현대 금융 3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푸르덴셜이 현대투신증권으로부터 실사를 위한 사전 설명회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음
 - 금감위 관계자는 푸르덴셜이 사실상 실사 단계에 돌입했다며 인수를 위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셈이라고 언급
 - 그는 푸르덴셜은 보험자산 운용을 염두에 두고 현대투신운용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투신증권 및 현대증권 인수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음
- 시장 관계자들은 푸르덴셜이 인수 대상에서 현대투신증권 및 현대증권을 제외하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AIG컨소시엄 때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2002년 5월 9일 목요일 (1)

○ 외환은행의 일부 신탁상품 해지 고객에 대한 우대 금리 적용 문제 확산

- 외환은행이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이 편입된 신탁상품 가입 고객에 대해 편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금감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3월 25일부터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자사 신탁상품을 해약하고 정기에금으로 전환할 경우 다른 고객보다 4% 높은 연리인 9.2%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왔음
- 이에 대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우대 금리 적용이 실적배당 상품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각 부서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채 5월 10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음
 - 금감위 증권감독과와 금감원 자산운용 감독국은 일부 신탁 가입자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신탁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언급
 - 아울러 투신사의 경우 대우 부도 이후 대우채 고객들에게 장부가의 95%에 한해 주면서 부실이 심화된 것을 지적하며, 고객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금감위 은행감독과와 금감원 은행감독국에서는 신탁을 해지하고 정기에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판 정기에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은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음
 - 특판 정기에금이란 백화점이 정기 세일시 가격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특정 기간 동안 금리에 변화를 주는 예금을 지칭함
 - 금감위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환은행에게 우대 금리 적용을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했음
- 외환은행측은 금감원에 문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받고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신탁상품 가입자 3만명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줬다고 언급
 - 그러나 이제와서 감독당국이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 하이닉스 사업 분할안 거부시 법정관리 방침 천명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5월 8일 하이닉스 이사회가 채권단의 사업 분할안을 거부한다면 법정관리 방침을 확정하고 사전 조정제도를 통한 법정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위원장은 하이닉스 이사회가 분할안을 승인한다면 우량 잔존법인의 경우 매각 절차를 밟거나 때에 따라서는 자체 운용도 가능하다고 언급
 - 그러나, 만일 이사회가 분할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사전 조정제도에 의한 법정관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

♣ 2002년 5월 9일 목요일 (2)

○ 전 투신권 이번 주 중 하이닉스 채권 50% 이상 상각 예정

- 투신사들이 펀드에 편입돼 있는 하이닉스 채권과 관련하여 이번 주 내로 50% 이상 상각 처리할 것으로 보임
 -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다수의 투신사들이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50% 이상 상각했으며, 나머지 투신사들도 이번 주 내에 자체적으로 유가증권평가위원회를 열고 50% 이상 상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회사별로는 현투가 60%를 상각해 상각률이 가장 높았으며, 조흥투신 54%, 대투 53%, 삼성투신 52% 등임
- 5월 3일 현재 투신권의 하이닉스 채권 평균 상각률은 46.2%이며, 하이닉스 채권 장부가는 1조2,464억원으로 상각 후 평가금액은 6,728억원임
 - 이 중 증권사들이 미매각 형태로 안고 있는 하이닉스 채권의 장부가는 6,143억원이며,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모두 2,596명인 것으로 조사됐음

○ 지난 해 3개 연기금 주식 투자로 1조2,000억원 수익

- 기획예산처가 최근 작성한 '2001년 연기금별 운영수익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연기금이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투자로 모두 1조2,500억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음
 - 이들 3개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21~37%에 이름
 - 주식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 (2001년 말 현재 4조8,576억원)은 1조1,271억원의 운용 수익을 남겨 평균 수익률이 37.3%를 기록했음
 - 주요 연기금 연도별 주식 투자 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국민연금	직접투자	60.8	137.3	-52.1	36.8
	간접투자	7.9	17.4	-48.2	37.9
공무원연금	직접투자	-39.1	125.6	-51.5	29.2
	간접투자	0.0	2.0	5.1	9.5
사학연금	직접투자	-50.7	97.7	-47.8	42.2
	간접투자	-10.9	46.1	-33.0	20.8

♣ 2002년 5월 10일 금요일

○ 국민연금 증시 추가 투입 기대

-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르면 이달 중 올해 주식 투자분 6,000억원 가운데 2차분 (3,500억원) 일부를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국민연금은 자금 투입을 위해 각 투신 및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수료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임
 - 업계에선 국민연금 2차 투자분이 1,500~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국민은행 국은투신 매각

-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은투신운용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음
 - 국민은행은 5월 9일 모건스탠리가 운용하는 펀드인 싱가포르 정부 관리 펀드와 국은투신운용 매각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국은투신운용 주식 522만주 (지분율 87%)를 442억원에 매각하게 됨

○ 한투증권 선박투자펀드 운용사 설립 추진

- 한투증권은 선박투자회사의 운용을 전담할 선박운용회사로 한국선박운용 (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 지난 4월 19일 선박투자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중 정식으로 출범하게 될 한국선박운용은 기관투자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투자 전문회사임
 - 선박투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와 유사하게 선박 펀드를 만들어 일반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확보하여 이를 해운회사에 빌려준 후 용선료를 받아 수익을 배당하는 페이퍼컴퍼니임
 - 독일과 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에선 컨테이너 선박의 70%를 건조할 정도의 초대형 펀드로 성장했지만,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됐음
- 한투증권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 의향서를 5월 말까지 제출받은 후 6월 말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임
 - 8월 중에 해양수산부의 정식 인가를 거쳐 사업 시행 초기 연도에 총 7,500억원 규모의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임
 - 국내 선박 금융시장 규모는 연간 3조3,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음

♣ 2002년 5월 11일 토요일 (1)

○ 금감위, 외환은행 신탁 손실보전 금지

- 금감위는 하이닉스 채권 편입으로 손실을 본 신탁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줘 손실을 보전해 준 외환은행의 행위를 신탁업 감독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더 이상 우대금리로 신탁 고객의 손실을 메워줄 수 없게 됐음
 -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신탁 고객 8만5천명 중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8,981명 (2,767억원)에게 연 9.2%의 금리를 약속하고 정기에금으로 바꿔줬음
-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이미 예금으로 바꾼 고객에게 연 9.2%의 우대금리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금감원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
 - 그러나 일반 고객에게 적용하는 통상적인 우대금리 수준으로 예금을 바꿔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언급

○ 워버그증권사의 삼성전자 보고서로 인해 증시 급락

-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인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과 관련하여 정보의 사전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음
 -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언급
- UBS워버그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을 2단계 떨어뜨리고 목표 주가도 크게 낮춘 '삼성전자 리포터'를 지난 5월 9일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에 앞서 같은 날 한국 증시에서 이 증권사를 통해 외국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대량의 '팔자' 주문이 쏟아졌고 5월 10일에도 대규모 매도 주문이 나왔음
 - 이 보고서의 내용이 5월 10일 시장에 알려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삼성전자 약세로 이어짐에 따라 기술주 동반 하락을 이끌어 결국 지수 810대까지 추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했음
- 시장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5월 10일 7.73% 떨어진 33만4천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종합주가지수를 약 12포인트만큼 하락시키게 되었다고 언급
 - 5월 10일 종합주가지수는 20.74포인트 (2.47%) 하락한 817.93으로 지난 2월 28일 이후 820선 아래로 처음 내려섰음
 - 시장 전문가들은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반도체 협상 결렬 이후 D램 현물가격이 급락세를 타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나와 시장에 충격이 더 컸다고 분석했음

♣ 2002년 5월 11일 토요일 (2)

○ 근로자주식저축 부당 세금 환급

-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다가 부당하게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했던 투자자들이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됨
 -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근로자주식저축 배당금에 대한 징수시점을 배당금 확정일이 아닌 배당 지급일로 지정해 둔 상태임
 - 따라서 투자자들은 배당 지급일에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자주식저축 계좌가 비과세이므로 세제혜택을 누려왔음
 -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 적격 세제 수혜자인 투자자가 배당금 확정일과 배당 지급일 사이에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를 해지할 경우 배당 지급일에 개인 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되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최근 재경부는 근로자주식저축의 배당금 징수 시점을 권리 발생일인 배당금 확정일로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증권업협회를 통해 각 증권사에 지침을 내렸음
 -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5월 13일 월요일

○ 투신권 부실채 상각률 대폭 상향 조정 예정

-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에 대한 의무 상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르면 6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상각비율을 워크아웃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은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부도 발생 기업은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임
 - 다만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부도를 냈거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 채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음
-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도 발생 즉시 손실 처리하면 먼저 해약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간 형평성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실적배당 원칙도 좀 더 명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투신사는 그 동안 해당 펀드의 급격한 수익률 하락과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동요를 우려해 부실채권에 대하여 보수적인 상각률을 적용해 왔음
 - 이로 인해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도록 돼 있는 투신사는 만기가 돌아온 투기채 펀드의 손실을 판매사인 은행 혹은 증권사와 함께 떠안고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가 빈발했음

♣ 2002년 5월 14일 화요일 (1)

○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국제금융센터

- 국제금융센터는 5월 13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0.4%로 다른 선진 금융 국가보다 작다고 언급
 - 가령, 미국 40.0%, 영국 35.8%, 홍콩 2.9% 등으로 조사됨
 - 국제금융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단기수익률보다 중·장기 수익률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증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연기금은 시가 기준에 따라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가 하락기에 주식 매수 세력으로 주가 상승기에는 주식 매도 세력으로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보고서는 한국 증시의 최근 1년간 가격 변동성이 32.6~44.7%로 미국 18.9~23.5%, 영국 17.7~22.6%, 홍콩 26.6~29.6%보다 훨씬 높은 것은 연기금의 낮은 주식시장 비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국제금융센터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는 기관투자자를 다각화하고 외국투자자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
 - 다만 연기금은 미래 일정시점에서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전에 금감원으로부터 허락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외환은행의 신탁손실 보전 사건

-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하이닉스채 손실보전 차원에서 9.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금감원에 사전 질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측의 질의에 대해 금감원측은 정기예금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은행의 고유권한인 만큼 괜찮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언급
 - 그러나 금감원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돌연 태도를 바꿔 외환은행의 손실보전은 신탁규정과 은행계정의 빈틈을 이용한 사실상 우회 탈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질의에 대해 금리 자유화를 규정한 은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금감위와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에서 신탁업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이를 중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음
- 외환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계약한 고객에게 약정 금리를 지급하게 될 경우 금감원의 제재와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될 것임
 - 그렇다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계약한 고객에게 약정 금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하기로 계약된 고객과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진퇴양난의 형국을 맞게 됐음

♣ 2002년 5월 14일 화요일 (2)

○ 국민연금 1천억원 투입

- 투신업계에 따르면 5월 13일 국민연금은 1천억원의 주식투자 자금을 자문사와 자산운용사를 통해 증시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국민연금은 코스모투자자문과 유리에셋자산운용에 각각 일임자문계약과 인덱스펀드 형태로 운용하도록 위탁했음
 - 이날 투입된 국민연금 자금은 올해 예정 규모인 6천억원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2차분 3,500억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

♣ 2002년 5월 15일 수요일

○ 미국 론스타 한국에 투자

- 세계적인 부동산·부실채권 전문투자펀드회사인 미국의 론스타가 \$42억5천만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일본과 한국 등에 투자한다고 니혼게이지아 신문이 5월 14일 보도했음
 - 론스타 4호로 명명된 이 펀드는 아시아 지역의 부실채권과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인데 전체 조성금액의 60~70%를 일본에, 20%를 한국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 론스타 4호 펀드는 2000년에 조성된 3호 펀드 (\$22억)에 이은 것으로 특정 목적을 가진 펀드로는 세계 최대 규모임
 - 론스타는 1992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설립된 투자전문회사로 전세계에 6천여건의 부동산 등에 \$180억을 투자해 놓고 있음

○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증가하는 반면 채권형 펀드 수탁고는 감소

- 증시가 지수 820~830선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수탁고는 지난 5월 11일 현재 23조2,865억원으로 지난 5월 4일 23조331억원에 비해 2,534억원이 증가했음
 - 이 중 주식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2,056억원이 증가하여 최근 투신권의 공격형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반면 채권형 펀드는 금리의 상승 기조가 대두되면서 수탁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5월 4일 35조9,091억원에서 5월 11일 현재 35조7,376억원으로 1,715억원이 감소했음

♣ 2002년 5월 16일 목요일

○ 현투증권의 '한마음119채권1' 펀드 대한소방공제회에 7,000만원 전달

- 현투증권이 지난 해 4월 6일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설정했던 '한마음119채권1' 펀드가 공익펀드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판매사인 현투증권은 그 동안 약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모집하면서 판매보수를 수익금으로 조성한 공익기금 7,000만원을 대한소방공제회에 전달했음
 - 현투증권은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 18일에도 공익기금 3,300만원과 우리쌀 200포대를 소방관련 단체에 기부한 바 있음
- 투신업계에서는 이 상품을 비롯해서 6종류의 공익성 펀드를 조성해 운용해 오고 있으나 현투증권처럼 공익기금을 사회단체에 구체적으로 환원했던 사례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짐
 - 공익펀드로는 대투증권 '인베스트우먼파워 채권형 펀드', '인베스트키즈메디컬 채권형 펀드', 현투증권 '한마음2% 채권형 펀드', 아이투신운용의 '아이러브핸디캡펀드', 삼성투신운용의 '에코펀드' 등이 설정돼 운용되고 있음

○ 리서치 자료 공표 전 관련 종목 매매 금지

-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기 전인 리서치 작업에 들어간 시점부터 소속 증권사가 관련 종목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증권사가 기업 공개를 맡은 종목이나 인수·합병을 주선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분석자료 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인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과 관련하여 정보의 사전 유출에 따른 문제가 지적된 것에서 비롯된 것임
 - 현행 규정은 리서치 자료를 확정·공표한 후 24시간 내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있음
- 증권업협회측은 다만 리서치자료 배포 전 사전 매매가 금지되면 증권사 영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 특히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 등 일부 특수 고객에게 분석자료를 먼저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2002년 5월 17일 금요일

○ 미국 뱅가드펀드의 무서운 성장

- 월스트리트저널 (이하 WSJ)에 따르면 미국 2위의 뮤추얼펀드인 뱅가드가 1위인 피델리티를 제치고 이르면 올해 안에 1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음
 - 두 펀드간 운용자산 규모의 격차는 1999년 말 \$2,370억에서 올 3월 말 기준 \$890억으로 크게 감소했음
 - 미국 뮤추얼펀드협회인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뱅가드의 운용자산은 \$5,040억이고, 피델리티는 \$5,930억임
- WSJ에 따르면 뱅가드가 피델리티를 따라잡을 정도로 성장한 것은 낮은 펀드 수수료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펀드 운용 때문이라고 분석
 - WSJ는 특히 최근 들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높아 이 분야에서 탁월했던 뱅가드의 실적이 성장에 보탬이 됐다고 설명

○ 아시아타이거펀드 삼성전자 최대 비중

- 삼성전자가 미국계 투자펀드인 아시아타이거펀드의 10대 비중 상위 종목 가운데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음
 - 지난 5월 15일 아시아타이거펀드가 발표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말까지 6개월간 투자자산 비중에서 전체의 7.6%를 차지해 대만 TSMC (4.4%)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음
- 한국업체들 가운데서는 국민은행이 3.3%로 4위를 기록했으며, SK텔레콤은 2.0%의 비중으로 8위를 차지했음
 - 이 밖에 홍콩 기업인 허치슨왓포아 3위, 차이나모바일 5위, 선홍카이부동산 6위, 항성은행 10위, 대만 기업인 UMC 7위, 혼하이정밀 9위를 기록했음
 - 국가별 비중으로는 한국이 전체의 26.8%로 1위였으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 순임

♣ 2002년 5월 18일 토요일

○ 한빛투자신탁운용 회사명 우리투자신탁운용으로 개명

- 한빛투자신탁운용은 5월 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우리투자신탁운용'으로 바꾸고 현 대표이사인 백인기 사장을 유임시킨 것으로 알려짐

○ 순수주식형 펀드 설정액 10조원 돌파

- 주식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순수 주식형 펀드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 합계)의 설정액이 10조원을 돌파했음
 - 투신협회에 따르면 5월 15일 현재 수익증권의 경우 9조3,232억원이며,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8,807억원으로 모두 10조2,039억원을 기록했음
 - 주식혼합형 (주식 최고 편입비율 60% 이하)의 경우도 수익증권 15조2,271억원, 증권투자회사 1조5,253억원 등 16조7,524억원에 이름
 - 따라서 투신권 주식투자 규모는 순수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을 합쳐 모두 26조9,563억원으로 종합주가지수가 900선 아래로 하락한 지난 4월 25일 (24조9,676억원) 이후 1조9,887억원 증가했음
- 시장 관계자는 간접투자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현 장세가 대세 상승 기조라는 공감대가 아직 살아있는데다 그 동안 폭등했던 지수에 부담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최근 장이 조정 국면을 보이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포착한 때문이라고 설명
 - 아울러 최근 국민연금의 증시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법인들의 신규 자금 유입이 눈에 띄고 있으며, 900대에서 환매했던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임

♣ 2002년 5월 20일 월요일

○ 증권사 임직원 거래내역 공개

- 오는 7월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뿐만이 아니라 리서치센터의 임원 등도 자신은 물론 배우자가 주식을 매매한 경우 곧바로 모든 내역을 회사에 통보해야 함
 - 금감원 및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조사분석 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회 규정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협회 관계자는 조사분석 자료 작성·수집·심사 승인 등에 관련된 증권사 임직원 모두가 주식 거래 내역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매매 종목이 자신이 맡은 업종과 무관해도 통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 협회는 지난 5월 1일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한 매매 권유때 자신이나 배우자의 해당주식 보유 수량 등을 공표하도록 시행해 왔음



♣ 2002년 5월 21일 화요일

○ 삼성화재도 자산운용 아웃소싱

- 삼성생명에 이어 삼성화재도 보유 자산의 운용을 삼성투신운용에 위탁하는 등 삼성 금융 계열사의 자산운용 아웃소싱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 삼성투신운용 관계자는 삼성화재 고유계정에 있는 7천억원 규모의 유가증권 자산을 5월말까지 위탁받아 투자자문 형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삼성화재는 자사의 자산운용을 삼성투신운용에 아웃소싱하는 것과 함께 10명 안팎의 운용인력도 삼성투신운용에 보낼 예정임
 - 삼성화재는 이어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채권 및 금융 시황에 관한 사항, 유망 종목 및 매매 추천에 관한 사항별로 삼성투신 외에 4~5개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간에 자문 계약을 맺을 방침으로 알려짐

○ 기금 운영 구조개편 방안 확정

-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과목 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때부터 새로운 과목 구조를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음
 - 이로 인해 향후 정부 부처들이 각종 기금을 당초 계획과 달리 운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방만한 사업 집행도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 이는 지난 연말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각종 기금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되는데 따른 후속조치임
- 지금까지 일부 기금의 과목 구조는 단일 사업비 항목 안에 용자·출연금, 의무 경비 등 성격이 다른 경비가 뒤섞여 있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음
 - 아울러 일부 기금의 주요 항목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돼 방만한 사업 집행의 소지가 있었던 반면, 다른 일부 기금은 과도하게 세분화돼 기금 운용의 신속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 축산발전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비가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된 경우는 그 기금의 사업 항을 세분화했음
 - 그러나 기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됐던 여성발전기금은 5개항에서 3개항으로 줄였음
 - 정보화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은 기금에서 출연·보조하는 기관별로 구분하여 방만한 집행의 소지를 줄였음
 - 아울러 연금성 기금의 연금 급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비축 사업 및 출하 조절사업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 항으로 설정하여 협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음
-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과목 구조가 적용되면 230조원에 이르는 기금이 핵심 사업 위주로 관리되고 기금 사업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음
 - 특히 지금까지 각 부처의 '딴 주머니' 역할을 해왔던 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02년 5월 22일 수요일

○ 한국 증시 MSCI의 선진국 지수로 편입 전망

- JP모건 증권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이 올 7월 발표하는 2001년 1인당 GNI 발표가 MSCI의 선진국 지수로 한국 시장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고소득 국가의 경계는 2000년의 경우 1인당 GNI \$9,266이며, 지난 해 한국의 1인당 GNI는 \$9,487로 추정돼 이 요건을 충족시키게 됨
 - 게다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이미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 싱가포르보다 많으며, 공공부문 재정 상황도 홍콩보다 우위에 있음
 - 금융·기업 안정성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식시장 규모는 이미 MSCI 선진국 시장 내에서도 12번째로 큰 국가로 성장했음
 - JP모건측은 MSCI가 세계은행 GNI 발표를 계기로 한국시장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하고 4/4분기 중에 공개적인 검토 발표와 국제 투자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MSCI 지수는 크게 선진국 지수, 신흥시장 지수, 글로벌 지수로 구분됨
 - 신흥시장 지수는 한국이 편입된 MSCI EMF 지수이며, 선진국 지수에는 유럽과 호주, 극동아시아의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49개국이 편입된 MSCI EAFE 지수와 23개국이 편입된 MSCI ACWI 지수가 있음
 - JP모건 관계자는 한국시장이 MSCI EAFE 지수에 편입될 경우 펀드내 국가별 투자비중이 2%, W지수의 경우 비중이 0.9%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 한 시장 관계자는 MSCI EAFE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은 약 \$1조2,000억, MSCI ACWI 지수 추종 자금은 약 \$5,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한국 증시가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최소 \$290억 규모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나, MSCI EMF 지수 비중이 현재 21.1%에서 0%로 조정됨에 따른 자금 유출을 감안하면, 약 \$75억의 순유입 효과가 기대됨

♣ 2002년 5월 23일 목요일

○ MMF 환매 청구 당일 종가 기준 적용

- 금감원은 내년부터 MMF 환매 방식을 환매 청구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거 가격 방식에서 환매 청구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미래가격 방식 (forward pricing)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힘
 - 이는 현행 법 하에 MMF가 환매 청구 당일 종가로 환매될 경우 전일과 당일의 금리 차로 인해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내년부터 투신사 고객이 투신권 초단기 상품인 MMF를 해지하겠다고 신청하면 신청 다음 영업일에 돈을 찾을 수 있음

○ 코스닥 종목 투자 한도 완화 호소

-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 50 종목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구성하는 인덱스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재경부에 동일종목 투자 한도 10%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가령, 코스닥 50 종목 중 KTF는 시가총액이 20%를 넘는데다, 국민카드도 10%를 넘고 있어 인덱스펀드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자산운용사들은 거래소 종목의 경우 지난 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투자한도 제한을 완화 준 것과 달리, 코스닥은 아직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 현행 법상 거래소 상장 종목에 한해서는 시가총액 10%를 넘는 기업에 대해 펀드가 전반기의 평균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 투신권 공모제 개편에 고수익펀드 수익률 하락 우려

- 오는 8월부터 현행 공모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모제도 변경에 따른 공모주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투신권이 긴장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공모주 청약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 등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지난 5월 22일 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 인수공모 제도 개선 방안 설명회'를 통해 공모주에 대한 공모가격을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음
 - 폐지될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간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평균 공모가액의 + 또는 - 30% 이내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
 -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인수업무 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시키고자 인수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규제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주간사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주간사의 시장조성 가격이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어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를 강화하였음
 - 하지만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 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 또는 업종별 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초과 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은 현행대로 기업 공개 (거래소 상장)시 45%, 코스닥 공모시 55%가 유지될 전망이다
- 투신권은 이에 대해 공모가를 주간사 자율로 맡길 경우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공모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공모가가 높아지면 공모 주식의 상장 및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줄어들어 고수익펀드의 투자 혜택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주간사와 발행사의 영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시장조성 의무가 무거워졌고 공모가가 공정한 지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감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모가가 높아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 2002년 5월 25일 토요일 (1)

○ 금감원 선취수수료형 펀드 불허

- 금감원은 최근 투신사들에게 향후 환매수수료없이 가입 시점에 수수료를 미리 떼는 선취수수료형 펀드에 대해 상품 약관을 승인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음
 - 아울러 기존의 선취수수료형 펀드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를 받도록 요구했음
 - 금감원은 특히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가입 후 최소 3개월까지로 하고 환매수수료도 최소 이익금의 30%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음
 - 금감원은 선취수수료형 상품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펀드의 가입 및 환매가 수시로 일어나면서 증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음
- 투신사들은 이에 대해 선취수수료형 상품에 환매수수료까지 부과하도록 한다면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미리 떼는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언급
 - 금감원이 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투신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현재 판매 중인 선취수수료형 상품의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음
- 선취수수료형 펀드는 고객이 펀드에 가입할 시점에 판매수수료를 먼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환매수수료 없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상품임
 - 5월 23일 현재 선취수수료형 펀드의 수탁고는 대투운용 6,341억원 (6개 펀드), 한투운용 4,286억원 (7개 펀드), 삼성투신운용 2,530억원 (10개 펀드) 등임

○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헤지펀드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기술주 붕괴로 벤처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private equity 펀드들이 헤지펀드로 전업하는 등 지난 해 주식 가격의 폭락세 속에서도 헤지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헤지펀드 조사기관 TASS에 따르면 전체 시장 규모가 \$5,000억인 헤지펀드 산업은 지난 해 \$310억의 신규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2000년 헤지펀드 순유입액인 \$79억의 4배가 넘으며, 지난 해 미국 주식형 펀드 시장의 총 순유입액 \$155억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임
- 특히 90년대 후반 비상장 기술벤처에 투자한 후 상장이 되면 고가의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팔아 큰 이익을 본 private equity 펀드들은 최근 헤지펀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기술주 주가가 붕괴되었으며 투자 가치가 높은 비상장 첨단 기술기업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때문임

♣ 2002년 5월 25일 토요일 (2)

○ 중국의 IPO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

- LG투자증권은 5월 24일 최고 90%까지 홍콩을 포함한 중국 IPO에 투자하는 200억원 규모의 'LG 차이나 디벨로프먼트 펀드'를 정식으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 이 펀드는 중국내 IPO에만 투자하는 세계 최초의 중국 IPO 전용 펀드임
 - 그 동안 국내에 판매됐던 중국 관련 펀드들의 경우 중국 주식 편입비율이 대부분 15~40% 정도에 불과했음
- 이 펀드의 운용은 LG투신운용이 맡았으며, LG투자증권은 중국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IPO 물색 및 확보에 나설 예정임

♣ 2002년 5월 27일 월요일 (1)

○ 헤지펀드 규제를 선언한 미국 SEC

- 그 동안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헤지펀드에 대해 미국 SEC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미국 SEC의 하비 피트 의장은 지난 5월 24일 헤지펀드 운용에 대한 SEC의 불간섭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헤지펀드 사기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음
 - SEC의 헤지펀드 규제 움직임은 상장 기업 및 회계 법인의 부실 회계처리와 증권사들의 일반투자자 오도 혐의로 월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최근 헤지펀드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헤지펀드는 일반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펀드 재무 상태와 운용 내용을 보고하거나 공시할 필요가 없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사기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대규모 자금을 외환, 채권, 주식 시장에 투자했다가 차익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자금을 빼는 초단기 투자 행태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겨 그 동안 해외에서도 규제의 목소리가 커져왔음
- 헤지펀드 연구기관인 헤네시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헤지펀드에 유입된 투자자금은 2000년 \$830억에서 지난 해에는 \$1,440억으로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음
 - 현재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자산 규모는 총 \$5,63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SEC는 헤지펀드들이 과거에는 \$100만 이상 자금을 한꺼번에 맡길 수 있는 큰 손 고객만 상대했지만 최근에는 투자이론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고객을 상대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음
 - SEC는 헤지펀드들의 사기 행위는 물론이며,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며 일반고객을 유인하는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임
- 시장 일각에서는 헤지펀드 규제 움직임을 이제 막 싹이 돋기 시작한 헤지펀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난하고 있지만 고객 보호 차원의 헤지펀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2년 5월 27일 월요일 [2]

○ MMF 환매 제도 변경으로 은행권 MMDA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투신권

- 최근 금감원이 투신권의 대표적 상품인 MMF에 대해 국채, 통안채를 포함한 듀레이션 을 단축하고 현재의 당일 환매제를 익일 환매제로 변경하면서 금융권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투신권은 MMF와 비교 대상인 은행권 상품 MMDA는 전혀 손도 대지 않으면서 유 독 MMF에 대해서만 듀레이션 및 환매 제도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형 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 MMDA는 MMF에 비해 금리가 0.5% 정도 낮은 반면 예금 저축 상품에 포함돼 고 정 금리가 지급되며 당일 인출이 가능한 상품임
- 금감원은 현재 MMF에 편입되는 채권의 평균 만기가 국고채와 통안채를 포함해 6월부 터 120일 이내, 12월부터는 90일 이내로 제한할 방침임
 - 현행 규정상 MMF 평균 만기는 장기채권인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하고 90일로 되어있음
 - 투신사들은 듀레이션 계산에서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을 이용해 이들 채권을 과도하게 편입시켜 수익률을 제고시킴으로써 MMF가 투자자들에게 장기수익률을 보장하는 단기 상품으로 인식시키고 있음
- 금감원은 내년부터 MMF 환매 방식을 환매 청구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거 가격 방식에서 환매 청구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미래가격 방식 (forward pricing)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힘
 - 이는 현행 법 하에 MMF가 환매 청구 당일 종가로 환매될 경우 전일과 당일의 금 리 차로 인해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2002년 5월 28일 화요일 (1)

○ 투신권 MMF 익일 환매 반발

- 투신권의 MMF가 익일 환매제로 전환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투신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 투신협회와 투신사들은 5월 28일 MMF 익일 환매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전달하기로 했음
- 협회 관계자는 MMF를 익일 환매로 바꿔 청구일 종가 기준으로 익일 돈을 지급하더라도 오후 늦게 환매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결국 보유 채권 매각은 그 다음 날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 따라서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한 금감원의 의도가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결국 MMF의 상품 경쟁력만 떨어뜨려 CP 및 단기 채권의 수요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언급

○ 삼성증권 투신안정기금 탈퇴소 '각하' 판정

- 삼성증권이 투신안정기금에서 탈퇴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투신안정기금이 당분간 존속할 수 있게 됐음
 - 서울지법 법원 민사 제2부는 지난 5월 24일 삼성증권이 지난 해 7월에 낸 투신안정기금 탈퇴 소송에서 피고인인 투신안정기금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음
 - 삼성증권이 삼성투신증권을 합병하자 투신안정기금은 삼성증권에 조합원 자격 승계 사실을 통보했지만, 삼성증권은 조합원 자동 탈퇴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었음
 - 삼성증권의 조합 탈퇴가 가능할 경우 삼성증권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타조합원들의 기금 탈퇴를 촉발할 가능성이 예상됐으나, 이번 판정으로 인해 투신안정기금은 해산 위기를 일단 피하게 됐음
- 투신안정기금은 영업 정지된 신세기투신의 신탁자산을 한국투신으로 넘길 때 한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8년 대한, 한국, 현대, 삼성, 동양, 제일투신 등이 총 3,586억원을 출자해 설립됐음
 - 이후 출자금은 대부분 반환돼 현재 5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증권금융으로부터 2조7,201억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총 규모는 약 2조7천여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짐
- 삼성증권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를 새로운 소송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삼성증권은 이번 소송에서 과거 삼성투신증권이 삼성증권과의 합병으로 해산했으며, 해산은 기금 규약상 조합원의 자동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 투신협회는 이번 재판에 있어서 별도의 변호사 선임없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해 승소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음

♣ 2002년 5월 28일 화요일 [2]

○ 조세피난처에 정통부 역외금융회사 설립

- 정통부는 5월 27일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역외금융회사인 '코리아 글로벌 IT 펀드'를 카리브해 연안의 케이만 군도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통부는 우리나라 유망 IT 기업을 선정하여 이 기업들이 미국 거래소 내지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도록 역외금융회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임
 - 우리나라 유망 IT 기업들이 미국 거래소 내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해외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정통부가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한 궁극적인 취지임
 - 본 역외금융회사는 정통부가 \$3,000만을 출자하고 국내 스톡 IT 벤처투자자 와 산은 캐피탈, 미국 업체가 공동 운용하게 되며, 8월 말까지 최소 \$1억에서 \$1억5천만 규모를 조성할 예정임
- 정통부 관계자는 이 역외금융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기로 했다고 언급



♣ 2002년 5월 29일 수요일 (1)

○ MMF 익일 환매제 수용될 듯

- MMF 익일 환매 방식의 도입에 강력 반발해온 투신사들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금감원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음
 - 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익일 환매 방식에 대해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투신사들도 있다고 언급
 - 금감원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 없으며, 대부분의 투신사들이 금감원의 제도 변경에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MMF는 예금이 아니라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미래가격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언급
 - 하지만 현행 환매 방식은 가입자가 환매 가격을 미리 알고 환매를 청구함으로써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남아있는 가입자에게 떠넘겨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음

○ KDI 국민연금 지급 연령 더 늦춰야 한다고 지적

- KDI (한국개발연구원)는 향후 다가올 고령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제역할을 하려면 연금 수령 시기를 현재의 60세보다 높이고 연금 급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
 - KDI는 5월 28일 재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제 4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음
- 이 보고서는 연금받는 연령을 늦추는 한편, 퇴직 전 소득에 대한 연금 비율인 소득 대체율을 낮춤으로써 노령자가 조기 퇴직하려는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힘
 - 우리나라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받는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도록 돼 있지만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조기 퇴직 요인이 가장 강한 나라임
 - 아울러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 내릴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이 밖에 국민연금 혜택을 줄이는 대신 근로 정년을 연장하고 미국처럼 연금 기준의 강제 퇴직을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다만 연공 위주인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정년 연장이 생산성과 임금간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년 연장을 추진할 때는 임금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임
- 아울러 KDI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미국의 중장기 국채같은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2002년 5월 29일 수요일 (2)

○ 펀드매니저 불법 행위도 조사

- 금감위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이어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음
 -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상담사는 물론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곧 펀드매니저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음
- 금감위는 이에 따라 금감원을 통해 각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관리 실태 파악에 들어갔으며 이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토대로 펀드매니저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기로 했음
 - 아울러 펀드매니저의 영업 준칙이 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 펀드매니저가 불법 부당 행위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는 원천적인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음
- 최근 펀드매니저들도 증권시장의 주가 조작 세력과 연계하거나 증권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조건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받는 등 적지않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국내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는 총 740명에 이룸

○ 금광업종 펀드 투자 가치 유망

- 주식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 금값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광업종에 투자하는 펀드가 눈길을 끌고 있음
 - 국내 투신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해외 뮤추얼펀드지만 최근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임
- 국제 금값은 지난 주 말 온스당 \$320 선에서 마감됐는데, 이 가격대는 지난 79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임
 - 미국에 대한 테러 재발 우려와 인도·파키스탄 긴장 고조 등으로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으로 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미국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의 예금보장 제도 도입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투자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음
- 현재 한투증권은 메릴린치의 월드골드앤드마이닝펀드와 월드마이닝펀드 2종류를 판매하고 있음
 -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서 판매 실적은 거의 전무하지만 해외의 유수한 투자은행 및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금관련 투자처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자원주 주가는 일반 기업 주가와는 상관관계가 낮아 주식시장 혼조세, 금값 상승이라는 현상 상황에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02년 5월 30일 목요일

○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 세전 순이익이 각각 1,836억원, 21억원 기록

- 지난 2001 회계연도 (2001/4~2002/3) 동안 투신운용사들은 전년 회계연도보다 53.9% 늘어난 1,836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음
 -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수탁고는 전년 회계연도보다 7.4% (11조2,000억원) 증가한 162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주식형 85.7% (3조9,000억원), 혼합형 15.6% (6조3,000억원), MMF 11.4% (4조9,000억원)씩 증가했음
 - 반면 채권형은 전년 회계연도보다 6.2%인 3조9,000억원이 감소했음
 - 회사별 세전 순이익은 주은투신이 2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투신 177억원, 조흥투신 168억원, 한일투신 134억원, 현대 131억원, LG 131억원 순임
- 12개 자산운용사의 2001 회계연도 세전 순이익은 총 21억원으로 전년 회계연도 176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음
 - 지난 회계연도 동안 흑자를 낸 자산운용사는 KTB (25억원), 마이다스에셋 (22억원), 유리 (16억원), 미래에셋 (9억원), 세이에셋코리아 (4억원), 그린에셋 (3억원) 등 6개사임

○ 국은투신운용 '랜드마크투신운용'으로 개명

- 모건스탠리가 운용하는 싱가포르정부관리펀드 (GIC)에 매각된 국은투신운용은 5월 28일 사명을 '랜드마크투신운용'으로 변경했음
 - 국은투신운용은 이 날 정기주총을 열고 박도원 현 사장을 이사회 회장으로 추대하고 7명의 이사회 멤버를 구성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음
 - 이사회 멤버로는 모건스탠리측 인사가 3명, 싱가포르측 관계자 1명, 외국인 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은투신은 5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신임 대표이사로 현재 최흥 전 미래에셋 이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짐

♣ 2002년 5월 31일 금요일

○ 스왑펀드 수익률 저조

- 금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금리 스왑 기법을 활용한 스왑펀드의 수익률 (3개월 기준)이 1% 안팎에 머물러 단기 상품인 MMF (4.2~4.3%)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난 해 스왑펀드는 이자율 하락을 예상하고 채권을 매입하였음
 - 스왑펀드는 매입한 채권의 고정금리를 헤지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 계약 (pay)을 체결하게 됨
 - 예상과 달리 금리 하락이 지속되자 채권의 고정금리 헤지를 위해 고정금리인 스왑금리를 지급하는 스왑 계약 (pay)을 풀고 스왑금리를 받는 스왑 계약 (receive)을 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됨
 - 아울러 최근 FRN (변동금리 채권) 등과 같은 신종 금융상품의 등장도 스왑금리를 받는 스왑 계약의 수요 증가에 한 요인이 되면서 스왑 금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 투신권은 높은 고정금리를 지급하던 스왑 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낮은 고정금리를 지급받는 스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만큼 손실이 펀드에 귀속됨
- 투신사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평가손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스왑을 이용한 펀드를 개발하여 대대적인 판매 활동을 벌여왔음



6월

June

10대 주요 기사

1. 내년 연기금 4조원 주식 투자
(1일)
2. 국민연금기금 운용위 상설화 추진
(10일)
3. 삼성투신운용, 삼성전자 납품 확정 자화전자 공시전 매입
(11일)
4. 간접투자펀드 세제상 문제점 제기
(14일)
5. 빗바랜 금융상품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14일)
6. 한국투신, 파산 직전 대한중금 채무·수익증권 상계 처리
무효 판결 (17일)
7. 우리사주 세제 혜택 확대
(20일)
8. 해외 소재 투신사, 국내 진출 계열 투신사에게 매매주문
등 허용 (21일)
9. 투신권, 7월부터 토요일 영업일에서 제외
(22일, 24일, 26일)
10. 정부, 금융시장 안정 대책 마련
(27일, 28일)

◆ 6월 목차 (6/1-6/10)

6/1 [토]	○ 내년 연기금 4조원 주식 투자 ○ 기획예산처 장관 회수 불능 공적자금 금융부문서 부담 주장
6/2 [일]	
6/3 [월]	○ 선박투자회사에 세제 혜택 검토
6/4 [화]	○ 펀드별로 처리되는 '신결제 시스템' 도입 예정
6/5 [수]	○ 한·일 공동 펀드 판매
6/6 [목]	현 총 일
6/7 [금]	○ 펀드 수 줄이는 투신운용사 ○ 굿모닝증권 굿모닝투신운용 매각 추진
6/8 [토]	○ 종금사 업종 전환 유도
6/9 [일]	
6/10 [월]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 상설화 추진 ○ 굿모닝투신운용 인수 경쟁 치열

◆ 6월 목차 (6/11-6/20)

6/11 [화]	○ 삼성투신운용, 삼성전자 납품 확정 자화전자 공시전 매입 ○ 주은투신운용 '국민투자신탁운용'으로 사명 변경
6/12 [수]	○ 빗바랜 금융상품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 주식 매수에 나선 국민연금
6/13 [목]	선 거 일
6/14 [금]	○ 국민연금 5천억원 해외 투자 ○ 간접투자펀드 세제상 문제점 제기
6/15 [토]	○ 도이치투신운용 6월 17일부터 본격 영업 ○ 투신권 자리 이동 바람
6/16 [일]	
6/17 [월]	○ 한국투신, 파산 직전 대한증금 채무·수익증권 상계 처리 무효 판결 ○ 외국계 헤지펀드 코스닥시장 단타 극성
6/18 [화]	○ 차익거래 펀드 맹활약
6/19 [수]	○ 회사채 발행시장 갈수록 썰렁
6/20 [목]	○ 우리사주 세제 혜택 확대 ○ 장외파생상품 관련 투신권 경쟁 치열

◆ 6월 목차 (6/21-6/30)

6/21 [금]	○ 해외 소재 투신사, 국내 진출 계열 투신사에게 매매주문 등 허용
6/22 [토]	○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증권사 및 투신사
6/23 [일]	
6/24 [월]	○ \$2억 규모의 Infrastructure 펀드 9월 출시 예정 ○ 7월부터 투신권, 토요일 펀드 가입 및 환매 못한다
6/25 [화]	○ 은행권 금전채권신탁 크게 증가
6/26 [수]	○ 투신권, 환매수수료 면제일 직전일에 환매해도 환매수수료 면제
6/27 [목]	○ 차익거래 프로그램 미신고 모투신증권사 적발 ○ 진행 중인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 최근 현황 ○ 정부, 금융시장 안정 대책 마련
6/28 [금]	○ 최근 추락 증시 상황에서 기관별 상반된 행태 주목 ○ 국민연금 6천억원 조기 투입
6/29 [토]	○ 투신권 순매수 유지 합의
6/30 [일]	

♣ 2002년 6월 1일 토요일

○ 내년 연기금 4조원 주식 투자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노동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주식 투자 자금으로 4조원을 책정했음
 - 이는 올해보다 두 배나 늘어난 규모로 이 가운데 1조원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 3조원은 투신운용사 등의 간접투자 상품에 투입할 방침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도 일부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연금 수입은 신규 조성 22조1,508억원과 투자원금 회수 20조6,766억원을 포함해 총 42조8,274억원임
 - 이 가운데 주식 투자를 위한 4조원을 제외하고, 연금 급여를 위해 2조6,737억원, 채권 및 금융상품에 35조2,589억원, 벤처·사모펀드·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체투자에 7,000억원을 책정했음
 - 전체 연기금 규모는 2003년 말 기준으로 109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

○ 기획예산처 장관 회수 불능 공적자금 금융부문서 부담 주장

-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 손실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가 아닌 금융부문에서 우선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음
 - 장 장관은 5월 31일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언급했음
- 최근 예금보험기금 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된 채권을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로 전환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금융기관 우선 부담의 방법을 먼저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장 장관의 이 날 언급은 6월 말 정부가 확정하기로 한 공적자금 손실분 산정이나 상환 계획과 관련해 예산 당국의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재경부 등 다른 부처의 반응이 주목됨

♣ 2002년 6월 3일 월요일

○ 선박투자회사에 세제 혜택 검토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을 앞두고 초기 선박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회사 기준을 준용함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펀드 수익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
 -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은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선박투자회사에도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해운업계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투자자에 대해 근로자가 3,000만원 이내로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6월 4일 화요일

○ 펀드별로 처리되는 '신결제 시스템' 도입 예정

- 신탁재산의 예탁·결제가 펀드별로 처리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고객의 신탁재산이 다른 신탁재산과 명확히 구분·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금감원은 증권예탁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관 결제 제도'의 도입과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신탁재산 결제 시스템이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음
 - 금감원은 우선 운용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금감원, 수탁회사,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업무 처리를 예탁원의 단일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중앙전산장치인 Straight Through Processing 중심의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자산운용통합법령이 마련될 경우 신탁재산을 수탁회사의 고유자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명확히 구분·관리한다는 규정을 첨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임
 - 펀드별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탁원의 신탁재산 예탁 관리 방식을 통합 관리에서 펀드별 구분 관리로 전환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6월 5일 수요일

○ 한·일 공동 펀드 판매

- 삼성투신은 6월 5일 한국과 일본의 핵심 우량 기업에 투자하며 펀드 자산이 엔화로 표시되는 해외 뮤추얼펀드인 '삼성시그나 한·일 아시아 타임스퀘어펀드'를 선보일 예정임
 - 페이퍼컴퍼니인 타임스퀘어캐피탈메니지먼트가 주 운용사이며, 국내에서는 삼성투신이, 일본에서는 시그나투자고문이 각각 자국의 투자자문 및 운용을 맡게 됨
 - 한·일 월드컵 대회를 기념해 만든 이 펀드는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을 통해 판매되며, 일본에서는 도카이도쿄증권이 판매할 예정임
 -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50%까지를 일본 기업의 주식으로 편입하고 한국 기업의 주식까지 합쳐 주식 편입 비율을 80% 정도로 유지할 계획임

♣ 2002년 6월 7일 금요일

○ 펀드 수 줄이는 투신운용사

- 투신운용사들이 펀드 대형화 및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펀드 수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한투운용은 6월 6일 기준 펀드 잔고가 20억원 미만인 펀드 102개를 오는 6월 10일 일괄 해지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한투운용의 펀드 수는 기존 809개에서 705개로 줄어들게 될 예정임
 - 한투운용의 한 관계자는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300개 정도가 적정하다며 앞으로도 설정일 기준 잔고 50억원 미만의 펀드는 지속적으로 해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현대투신운용의 경우 지난 2000년 2,000개를 웃돌았던 펀드 수를 지난 해 말 700개 수준으로 줄인데 이어 연내 200개를 추가 해지할 계획임
- 삼성투신운용도 주식형 10억원, 채권형 50억원을 기준으로 이에 못미치는 펀드는 지속적으로 통폐합 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난 해 초 626개였던 펀드 수는 5월 말 현재 415개로 감소했음
- 대한투신운용도 조만간 300개의 펀드를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굿모닝증권 굿모닝투신운용 매각 추진

- 굿모닝증권이 자회사인 굿모닝투신운용을 매각할 예정임
 - 도기권 굿모닝증권 사장은 6월 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한지주회사가 굿모닝증권을 인수키로 함에 따라 합병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굿모닝투신과 신한투신을 합병시키는 대신 굿모닝투신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굿모닝투신은 6월 4일 현재 자본금 150억원에 수탁고가 1조9,000여억원에 이름

♣ 2002년 6월 8일 토요일

○ 종금사 업종 전환 유도

- 금융당국이 금호, 우리, 한불종금 등 3개 종금사에 대해 증권사나 여신전문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지난 72년 도입돼 97년 외환 위기 발생 직전 30개에 달했던 종금사가 30년만에 우리 금융사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 금감위 한 관계자는 자기어음, 기업어음 할인 등 종금사의 고유기능이던 단기 자금 공급이 은행, 증권사 등에 모두 허용됨에 따라 종금사의 자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힘
 - 아울러 현재의 종금사가 업종 전환을 신청해 올 경우 7년간 종금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언급
- 국내 종금사는 IMF 직전까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로 외화를 차입하여 장기 대출하거나 유동성이 낮고 위험이 높은 개도국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 이후 종금사는 수신액이 급격히 줄어 청산이나 합병 절차를 밟아 퇴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금호, 한불, 우리종금 등 3개사만 영업하고 있음
- 금감위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종금사의 2001년 회계연도 (2001/4~2002/3) 결산 결과 이들 3개 종금사의 총 자산은 3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음
 - 순이익 규모는 우리종금 500여억원, 금호종금이 30억원 규모의 흑자를 냈으나 한불종금은 4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2002년 6월 10일 월요일 (1)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 상설화 추진

-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위주의 독립 상설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용 및 자산 배분을 맡고 있으며,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비상설)가 담당하고 있음
 - 6월 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08년 본격 지급 개시를 앞두고 매년 적립 규모가 늘어 지난 해 말 78조원에서 올 연말 90조원, 내년 말 10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 관계당국은 현재의 기금운용 체계로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자금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연 간 4~5차례 회의 개최가 고작이어서 기금 적립 규모의 기하 급수적인 증가 및 업무량 폭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언급
 - 특히, 기금운용위의 위원 21명 중 절반이 사회기금 운용과 관련이 없는 사용자 단체 대표들로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연금 재정과 소속 공무원 5 명이 100조원대의 연금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관 자문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평가 기능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위를 전문가 위주의 상설기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음
 - 아울러 기금운용위의 상설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써 현재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역할을 강화한 '기금운용기획평가단' (가칭)을 먼저 상설화해 기금 운용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02년 6월 10일 월요일 (2)

○ 굿모닝투신운용 인수 경쟁 치열

- 굿모닝투신운용의 대주주인 굿모닝증권이 최근 투신사 매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인수 경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굿모닝투신 인수 희망 기관이 정해졌고 남은 것은 굿모닝투신 영업권에 대한 실사 작업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음
 - 굿모닝투신 현 수탁고 2조1,000억원을 감안하면 영업권에 따른 예상 매각 대금은 약 200억원으로 추산됨
- 굿모닝증권은 신한그룹내 신한투신운용이 있는데다 투신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영업권을 2개로 갖고 가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임
 - 굿모닝증권은 굿모닝투신운용사 매각과 무관하게 이미 판매한 2조1,000억원의 수익증권에 대해서 현 펀드매니저가 향후 몇 년간 계속 유지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매각 대상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임
 - 굿모닝투신 매각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굿모닝증권 M&A팀은 지금까지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굿모닝투신에 대한 평가가 양호해 매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2002년 6월 11일 화요일

○ 삼성투신운용, 삼성전자 납품 확정 자화전자 공시전 매입

- 삼성투신운용이 삼성전자에 납품이 확정된 자화전자 주식 110만주 (지분율 6.22%)를 납품 확정 하루 전에 매입했다고 공시하면서 납품 심사 정보를 미리 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자화전자는 지난 6월 8일자로 삼성전자에 진동 모터를 납품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음
 - 자화전자의 주가는 납품 확정 공시의 영향으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주 말보다 12.10%나 상승했음
- 이에 대해 삼성투신 관계자는 이미 지난 해부터 계속 자화전자 주식을 사들여왔고 한 펀드가 아닌 여러 개의 펀드에서 나눠 산 것이라며 주식 매입은 이번 납품 확정 공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음
-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자화전자와 같은 소형주를 투신사가 6% 넘게 사들인 것 자체가 의문인데다 한 펀드가 아니라 여러 펀드에서 나눠 산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임
 -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자화전자의 삼성전자 납품 계획은 이미 지난 해부터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6월 8일 확정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으며, 삼성투신의 자화전자 매집이 이 시점과 묘하게 연결됐다고 언급

○ 주은투자신탁운용 '국민투자신탁운용'으로 사명 변경

- 주은투자신탁운용은 6월 1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명을 국민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했음

♣ 2002년 6월 12일 수요일

○ 빛바랜 금융상품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 금융권에 만연해 있던 상품 모방 관행을 없애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해 12월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제도를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우선 상품 보호 기간이 턱없이 짧은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의 부여로 인해 개발한 회사의 시스템 개발 기간이나 투자 비용 등을 보상할 정도의 보호 기간을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임
 - 현재까지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이 인정된 것 중 절반은 1개월짜리이며 가장 긴 것은 3개월짜리임
- 두 번째는 각 금융권이 따로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의 사용권을 심의하다보니 권역별로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임
 - 현재 은행들이 투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다 7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어느 권역의 상품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복합 파생상품을 시판할 수 있어 어느 한 협회에서 결정한 배타적 사용권이라는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됨
- 한 업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은행, 증권, 투신, 보험권을 하나로 묶어 총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금융 권역간 혼란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
-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탓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고 보호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주식 매수에 나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동시 만기일인 트리플위칭데이 (6월 12일)를 앞두고 주식 매입에 나섰다
 - 이는 지난 5월 13일 주식 투자에 나선 이후 1개월만으로, 6월 10일 마이다스에 셋자산운용에 500억원의 투자자금을 맡기는 등 총 1,300억원의 자금을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위탁했음
 - 트리플위칭데이인 6월 12일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 주가가 압박받을 경우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투신권과 함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기 매수세가 지수 하락을 일정 부분 저지해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계획된 6,000억원의 국민연금 주식 투자 자금 중 4,800억원이 집행됐다고 설명
 - 국민연금은 올해 초 2,500억원의 운용 자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운용사를 선정하여 자금을 집행했으며, 지난 달부터는 자금 운용 성적이 좋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만 자금을 집행해 오고 있음
 - 종합주가지수가 800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남아 있는 1,200억원의 자금 집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2002년 6월 14일 금요일

○ 국민연금 5천억원 해외 투자

- 국민연금이 6월 말까지 해외 투자를 위한 해외 위탁운용사 접수를 완료하고 9월 초경에 5천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에 나설 예정임
 -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기금 전문 컨설팅사인 왓슨 와이어트를 통해 전세계 운용사 현황과 해외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해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8월 말까지 해외 운용사 본사와 운용 계약 체결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힘
 - 투자될 자금 5천억원 중 20%는 주가지수 흐름을 따르는 인덱스 방식으로 운용되며, 나머지 80%는 주식 편입 비율 조절을 통한 공격형 주식형 펀드로 운용됨
 - 국민연금 관계자는 5천억원의 자금이 3년 만기 일임자문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며, 왓슨 와이어트가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고 덧붙임

○ 간접투자펀드 세제상 문제점 제기

- 7월에 도입될 예정인 간접투자펀드 (Fund Of Funds: 이하 FOF)가 이중 과세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OF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는 펀드의 매매 평가손익에 대해서 비과세 관련 조항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FOF의 신탁재산이 채권형 펀드인 경우 채권형 펀드내 채권의 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과세가 되며, FOF의 신탁재산인 채권형 펀드의 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또 과세가 되어 이중 과세가 됨
- 그러나 FOF의 신탁재산인 채권형 펀드의 매매 평가손익이 비과세된다면 신탁재산인 채권형 펀드의 결산일 전에 채권형 펀드를 매매할 경우 FOF 상품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매 평가손익이 과세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함
 - 현재 신탁재산인 채권에 대한 매매 평가손익은 펀드의 결산일과 환매일에 원천징수됨
 - 이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와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상 합리적으로 적절한 조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투신협회 및 금융당국에서도 FOF 상품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특별한 세제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모자펀드의 경우도 모펀드에서는 동일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임
 -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1항에 의해 각각 상장 및 등록 유가증권 (채권 제외)의 매매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표에서 제외하고 있음

♣ 2002년 6월 15일 토요일

○ 도이치투신운용 6월 17일부터 본격 영업

- 도이치투신운용은 금감위로부터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를 받고 6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짐
 - 도이치투신운용은 도이치에셋매니지먼트 그룹이 100% 출자한 회사로 도이치에셋매니지먼트는 독일 도이치뱅크그룹의 자산운용 부문 지주회사이며 운용 자산 규모가 euro1조 (1,170조원)에 이릅니다
- 도이치에셋매니지먼트는 지난 4월 취리히 스커더투자자문을 인수하여 취리히 스커더투자자문 한국 지점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도이치투신운용을 출범시켰음
 - 도이치투신운용이 영업을 시작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신운용사는 11개로 늘어나게 되며, 이 중 프랭클린 템플턴, 슈로더, PCA투신운용은 외국 자본이 100% 출자했음
 - PCA투신운용의 경우 현재 예비 허가를 거쳐 본허가를 추진 중임

○ 투신권 자리 이동 바람

- 최근 사명을 변경한 우리투신운용 (옛 한빛투신운용)과 랜드마크투신운용 (옛 국은투신운용)이 전문 운용인력과 마케팅 및 상품개발 인력을 대거 영입함에 따라 투신권의 자리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음
- 우리투신운용의 경우 지주사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그룹차원에서 공동 보조를 맞춰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여 공동 마케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운용 인력과 상품개발 전문 인력을 대거 보강하고 나섰음
- 최근 모건스탠리가 인수한 랜드마크투신운용도 올해 안에 마케팅과 운용인력을 10명 정도 확충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음
 - 랜드마크투신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마케팅 본부를 기관 전담 세일즈팀, 상품개발팀, 마케팅팀 3팀제로 확대 개편했음
- 다음 달 본허가를 받고 투신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도이치투신과 영국계 푸르덴셜이 설립한 PCA투신, 농협과 프랑스 아그리콜은행이 합작 설립한 크레디아그리콜투신도 조만간 본허가를 앞두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투신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파생상품 시장 및 상장지수펀드 시장 개설 등을 앞두고 각 투신사가 새로운 상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자산운용, 상품개발, 마케팅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

♣ 2002년 6월 17일 월요일 (1)

○ 한국투신, 파산 직전 대한중금 채무·수익증권 상계 처리 무효 판결

- 99년 당시 한국투신 (현재 한투증권)이 파산 직전이던 대한중금의 채무와 수익증권을 상계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한투증권 (당시 한국투신)이 대한중금에게 300억원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한중금은 지난 99년 4월 계열사인 성원창투와 함께 한국투신으로부터 콜론 (600억원)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다시 한국투신 MMF (300억원)에 가입했음
 - 같은 달 자금 수요가 발생한 대한중금은 한국투신에 가입한 MMF를 환매해 콜론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하여 한국투신이 이를 상계 처리했음
 - 그러나 대한중금은 며칠 뒤 자금 경색으로 영업 정지 명령을 받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음
 - 현재 대한중금은 파산 상태로 전 경영자가 물러나고 파산 관재인이 경영 중에 있으며 3조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음
- 서울고법 민사 9부는 6월 16일 대한중금이 한투를 상대로 낸 예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투증권의 행위는 파산법상 무효화할 수 있는 '부인권' 대상이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
 - '부인권'이란 파산법 제64조에 규정된 것으로 파산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급 정지나 파산 신청 전후 60일간 예정에 없는 채무 변제나 담보 제공 등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투증권은 대한중금 영업 정지 2일 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수익증권을 상계시켰다고 언급
 - 이는 부인권 대상으로 당시 대한중금이 한투증권과 상계를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음
 - 파산 직전 대한중금은 모기업인 성원건설의 부도설이 퍼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 있었음
 - 재판부는 이 시점에서 상계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한투증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 2002년 6월 17일 월요일 (2)

○ 외국계 헤지펀드 코스닥시장 단타 극성

-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계 헤지펀드의 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음
 - 특히 일부 펀드는 중소형 주를 대상으로 하루에도 수 차례씩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단기 차익을 챙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음
 - JF에셋, CSFB, CDIB벤처, 코리베스트LP, 스탠더드퍼시픽캐피탈, ING, 인덴스펀드 등 홍콩과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음
-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거래 규모가 많지 않아 외국인이 사면 올랐다가 매도하면 바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
 - 따라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언제든지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며 그만큼 매물 부담도 높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음
-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시를 뒤늦게 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
 - 일반인들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신중하게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촉구했음

♣ 2002년 6월 18일 화요일

○ 차익거래 펀드 맹활약

- 선물, 옵션 만기일인 지난 6월 12일을 전후해 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차익거래 펀드들이 짝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차익거래 펀드란 현·선물간 가격 차를 이용한 베이스스 투자를 통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틈새 펀드임
 - 현·선물간 가격 차인 베이스스가 급등락을 거듭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내지만 반대로 장이 계속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땐 수익률이 저조해 짐
 - 제로인에 따르면 제일투신 '빅앤세이프 듀얼매칭혼합펀드'의 경우 6개월 수익률이 8.97%를 기록했음
- 업계 관계자는 현·선물간 가격 차 뿐만 아니라 옵션간 가격 차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새로 채용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졌으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차익거래 기회는 많아진다고 밝혔음
 - 차익거래 펀드 수익률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차익거래 펀드의 신규 설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6월 19일 수요일

○ 회사채 발행시장 갈수록 썰렁

- 금감원이 올 들어 5월까지 기업들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일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10.8% 감소한 10조7,177억원에 그쳤음
 - 특히, 5월에 KT가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발행한 1조3,973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제외할 경우 회사채 발행실적은 9조3,000억원 선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22.4% 감소했음
 - 금감원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기업과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부진해지고 있다고 언급
-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인기를 모았던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시장도 마찬가지로 위축된 분위기임
 - 올 1~5월 중 ABS 발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4% 감소한 8조3,101억원에 그쳤음
 -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정리대상 부실 채권이 급감했고 CBO 발행도 크게 줄었기 때문임

♣ 2002년 6월 20일 목요일

○ **우리사주 세제 혜택 확대**

- 우리사주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방안이 대폭 강화됨
 - 정부는 6월 19일 중앙 근로자 복지 정책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 계획'을 확정하여 200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 이 계획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사주조합에서 인출할 경우 현재 9%인 소득세율을 대폭 낮춰 줄 계획임
 -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주가 조작 방지 차원에서 취득 후 6개월간 (처분 후 3개월간) 처분 (재취득)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없이 출연 및 재취득이 가능해질 예정임
-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한 주택 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성 경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 **장외파생상품 관련 투신권 경쟁 치열**

- 오는 7월부터 허용될 장외파생상품의 도입과 관련해 최근 증권·투신업계의 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함
 - 투신권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향후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 이자율 파생상품을 활용한 고정금리 상품 및 주식연계채권의 개발 등 활발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업계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원을 다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감독당국도 올해 초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6월 말경 인허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증권 및 투신사들은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며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2년 6월 21일 금요일

○ 해외 소재 투신사, 국내 진출 계열 투신사에게 매매주문 등 허용

- 8월경부터 해외 소재 투신사가 국내에 진출한 계열 투신사에게 국내 펀드의 위탁매매를 지시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국내 소재 계열 투신사는 해외 소재 투신사가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해외 소재 투신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는 최근 입법 예고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중 제16조의4 제1항 제3호 나 항목에 언급돼 있음
- 이는 해외 소재 투신사가 국내 소재 계열 투신사에게 직접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국내 소재 계열 투신사가 별도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도록 한 것임
 - 이에 따라 다국적 자산운용사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돼 국내 증시에 외국자금의 유입이 늘어나고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6월 22일 토요일

○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증권사 및 투신사

- 7월부터 은행의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증권사 및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이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금감원은 은행들의 토요일 휴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주식 신용 거래와 채권 원리금, 주식 배당금 지급과 관련해 고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빼는 방안을 증권사 및 투신사들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증권사 및 투신사들 중에서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회사도 있어 당분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6월 24일 월요일

○ \$2억 규모의 Infrastructure 펀드 9월 출시 예정

- 오는 9월경 \$2억 규모의 국내외 투자자금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Infrastructure 펀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임
 - Infrastructure 펀드란 고속도로, 터널,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SOC) 시설에 전문적으로 투자해 10년 이상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펀드임
 - 호주 맥쿼리은행의 투자은행 그룹 대표인 니컬러스 무어 사장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앞으로 두세 달 안에 \$2억 규모의 Infrastructure 펀드를 한국에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음
 - 무어 사장은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는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투자자와 접촉하고 있으며, 펀드 규모를 \$5억 정도로 키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Infrastructure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해 한국의 일반 투자자들도 Infrastructure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언급
- 맥쿼리은행은 자사가 직접 신규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거나 운영 중인 펀드 자금을 들여올 계획이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투자 펀드와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국내에서도 보험사, 연기금 등 10여개사와 투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맥쿼리측은 인플레이션율과 통행료 증가 등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계산한 이 펀드의 예상 투자수익률은 연간 13~15%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7월부터 투신권, 토요일 펀드 가입 및 환매 못한다

- 금감위에 따르면 은행들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투신사와 증권사도 7월부터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됐음
 - 이 경우 투신권의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에 가입은 물론이며, 가입한 고객은 투자 자금의 입·출금 및 환매 신청도 불가능해짐
 - 투신업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품 약관을 바꿔 조만간 금감원에 신고할 예정임
- 증권사의 경우 주식 신용거래시 주가 변동으로 담보 가치가 담보 유지비율을 밑돌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입금토록 하는 기간 (4영업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키로 했음
 - 아울러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익일날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익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는 주식 거래에 따른 입·출금은 통상 토요일엔 규모가 작은데다 증권사 보유자금으로도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2년 6월 25일 화요일

○ 은행권 금전채권신탁 크게 증가

-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현재 은행권의 금전채권신탁 수탁 규모는 총 30조 1,863억원으로 지난 해 말에 비해 16조8,243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금전채권신탁은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미래에 발생할 금전채권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그 대가로 수익권 증서를 해당 기업에 지급하는 금융상품임
 - 수익권 증서를 받은 기업들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처럼 금전채권신탁의 수탁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소액 다수의 단기 채권을 은행에 위탁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은행 입장에서 자금 부담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금전채권의 범위도 과거에는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 주종을 이뤘으나 지난 해 하반기 이후부터 기업의 통신요금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 분양대금 채권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수탁 규모가 1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은행 7조3,600억원, 우리은행 4조4,000억원, 신한은행 3조9,000억원, 하나은행 2조4,000억원, 농협 2조1,000억원 등의 순임

♣ 2002년 6월 26일 수요일

○ 투신권, 환매수수료 면제일 직전일에 환매해도 환매수수료 면제

- 7월부터 환매수수료 면제일이 토요일인 경우 투신사 고객이 직전 영업일에 환매해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 이는 은행권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투신권에서도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기로 함에 따라 기존 가입 고객의 불편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상품 약관을 변경기로 했음
- 예를 들어 A 고객의 환매수수료 면제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 종전에는 목요일에 환매를 신청해 토요일에 환매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었음
 - 하지만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A 고객은 수요일에 환매를 신청하고 금요일에 환매수수료 없이 자금을 찾을 수 있게 됐음

♣ 2002년 6월 27일 목요일 (1)

○ 차익거래 프로그램 미신고 모두신증권사 적발

- 현물거래와 선물거래 계좌를 분리해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비차익거래처럼 보이도록 은폐해 온 모두신증권사가 적발됐음
 - 증권거래소는 6월 26일 모두신증권사가 신탁재산을 차익거래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의 매매주문을 다른 계좌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프로그램 차익거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힘
 - 적발된 투신증권사는 주식매매는 신탁재산 계좌 3개로, 선물매매는 자기매매 계좌 4개로 주문을 뉘으로써 차익거래 사실을 숨겨왔음
- 기관투자자가 차익거래시 차익거래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로 제재를 받게 됨
 -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차익거래 신고시 발생하는 업무상 까다로운 절차를 회피하거나, 투자 전략상 차익거래 사실을 시장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차익거래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알려짐

○ 진행 중인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 최근 현황

- 재경부, 투신권, 은행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산운용법률 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은 증권투자회사법을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통합하고 은행신탁 상품 중 불특정금전신탁도 증권투자신탁업법 내에 포함한다는 것임
 -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은행권의 반발이 심해 통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짐
-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과 관련하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동일한 상품이면서 각각 다른 법률에 포함돼 상품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
 - 은행권은 불특정금전신탁이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통합되는 만큼 수익증권의 운용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금감원의 경우 금감원내 은행감독국과 자산운용감독국 등 관련 감독 부서 또한 기능별로 통합되거나 재편될 것으로 보여 향후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한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투자신탁업법 안에 증권투자회사와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 사항을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법조문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 2002년 6월 27일 목요일 (2)

○ 정부, 금융시장 안정 대책 마련

- 정부는 최근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야기된 시장의 불안 심리와 주식시장 급락을 막기 위해 6월 2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장기 주식 수요 확충 방안 및 공급 물량 조절 대책을 마련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주식 수요 확충 방안으로 기업연금 조기 도입, 중·소연 기금 투자 제한 완화 및 연기금 주식시장 참여 확대, 자산운용법률 통합을 통한 투신운용업 활성화 등을 집중 논의했음
 - 아울러 하반기 공기업 민영화 물량 축소 등을 통한 주식 공급 물량 조절 대책도 함께 논의했음
- 특히 정부는 중장기 주식 수요 확충 방안의 하나로 현재 노사정위원회 실무 소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기업연금 제도 도입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내의 법정퇴직금 제도와 관련해 '기업연금을 도입할 경우 법정퇴직금 제도에 갈음한다'는 조항을 삽입시켜 기업연금을 조기 도입할 방침임
- 정부는 주식시장 급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땀질식 단기 처방보다는 중장기 주식 수요 확충에 초점을 맞췄음
 - 가령, 증권업계에서 요구한 장기증권저축의 한시적 허용, 주식 거래세 인하 등의 단기적 대책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음
- 아울러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외평채의 신축적 발행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음
 - 시중 금리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불안에 따른 일시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결과인 만큼 대책 마련은 유보했음
- 정부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 6월 2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을 빨리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음
 - 주가 급락 및 달러화 가치 하락 등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것으로 풀이됨
 - 미국은 특히 경상수지 적자 확대, 기업 회계 부정,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고 달러화 하락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증폭돼 왔음
 - 이에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 과정에 있는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 인식 아래 환율 안정책과 주식시장 대책을 중점 논의했음

♣ 2002년 6월 28일 금요일

○ 최근 추락 증시 상황에서 기관별 상반된 행태 주목

- 최근 폭락장세와 관련해 은행권이 주범으로 몰리면서 눈총을 받고 있는 반면, 투신권은 꾸준한 매수세를 기록하며 그나마 추락하는 증시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은행권의 경우 최근 1개월간 6,000억원 가량의 순매도를 기록했음
 - 은행권은 1개월 전인 지난 5월 24일 362억원을 매도한 이후 꾸준히 주식을 내다 팔았고 증시가 폭락하기 2일 전인 지난 6월 24일에는 3,859억원이나 매도했음
 - 은행권은 6월 27일에도 54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음
- 이 같은 금융권의 매도세는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BIS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와 함께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 장세가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손절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됨
 - 특히 은행권은 주식 운용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일정한 규정에 따라 매매에 나서고 있어 저가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더라도 매도에 나서지는 융통성이 없는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반면, 투신권은 대세 상승기에 있다는 판단 아래 꾸준한 순매수를 기록하며 추락하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투신권은 증시가 폭락한 6월 26일 각각 1,068억원과 369억원의 주식을 사들인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919억원 어치를 사들여 자칫 더 큰 폭의 증시 추락 가능성을 막아냈음
 -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현재의 장세를 수급 불균형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여유자금으로 주식 추가 매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국민연금 6천억원 조기 투입

- 정부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 계획분인 총 1조9천억원 중 미집행분 6천억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음
 - 정부는 최근 폭락한 주식시장 사태와 관련해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시장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국민연금 자금의 증시 조기 투입을 결정했음
- 아울러 주식 투자 (4.7%, 800억원)에 비해 채권 투자 비중 (76.5%, 1조3천억원)이 높은 연기금 투자패에 대해서도 주식형 투자 상품에 적극 투자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6월 29일 토요일

○ 투신권 순매수 유지 합의

- 투신사 사장단은 6월 28일 주식 급락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식 폭락은 미국발 악재 등 외부변수와 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결론짓고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음
 - 투신사 사장단은 이날 투신협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했음
 - 이와 함께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펀드 운용 측면에서 고수익 달성을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음
- 특히 향후 기업연금 도입과 자산운용법률 통합법 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 주식 수요기반 확충 및 간접투자 확대에 의해 장기적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
 - 이로 인해 안정적 경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조정기에는 매수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7월

July

10대 주요 기사

1. 법원, '미래에셋박현주2호성장형 펀드' 투자자 손배소 기각
(5일)
2. 연기금 투자풀, 단기 운용에 치중
(8일)
3. 개인연금 수익률 비교 공시
(11일)
4. 대우차 손실 부담 투신사는 제외될 듯
(15일, 16일)
5. 국민연금 손절매 규정 폐지 추진
(18일, 23일)
6. 표준신탁약관 투신협회서 제정
(27일)
7. 변액연금보험 9월 첫 판매
(29일)
8. 정부,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수탁회사 역할 강화
방안 제시 (30일)
9. 상장지수펀드 9월 초 첫 선
(30일)
10. 동부통신, 동양화재에 20억원 배상 판결
(31일)

◆ 7월 목차 (7/1-7/10)

7/1 [월]	월드컵 4강 진출 기념 임시 공휴일
7/2 [화]	○ CBO펀드 수익률 급락
7/3 [수]	○ 삼성전자 펀드 비중 확대 ○ 국민연금 채권 투자 아웃소싱
7/4 [목]	○ 기업연금 연내 도입 힘들 듯
7/5 [금]	○ 법원, '미래에셋박현주2호성장형펀드' 투자자 손배소 기각 ○ 은행 신탁대출 고사 위기
7/6 [토]	○ 선물·옵션 거래 폭발
7/7 [일]	
7/8 [월]	○ 중고 교과서에 주식 및 투자신탁 등 투자자 교육 실기로 ○ 올림푸스캐피탈 굿모닝투신 인수 유력 ○ 연기금 투자폴 단기 운용에 치중
7/9 [화]	○ 투신권 자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7/10 [수]	○ 은행 부동산신탁에 자금 몰린다

◆ 7월 목차 (7/11-7/20)

7/11 [목]	○ 개인연금 수익률 비교 공시 ○ 개인연금 보험 지급 시기 40대로 낮춰
7/12 [금]	○ 코리아펀드 투자 비중 확대
7/13 [토]	○ 국민연금 400억원 증시 투입
7/14 [일]	
7/15 [월]	○ 정부 증시 지원책 마련 ○ 대우차 지원자금 손실 분담 요구 파문 ○ 국제자금 채권으로 대이동
7/16 [화]	○ 대우차 손실 분담 투신사는 제외될 듯 ○ 펀드 실적에 따라 연기금 차등 배분 ○ 굿모닝투신 올림푸스캐피탈에 매각
7/17 [수]	제 헌 절
7/18 [목]	○ 해외투자펀드 이중고 ○ 국민연금 손절매 규정 폐지
7/19 [금]	○ 채권혼합형 펀드로 자금 유입 ○ 미국 주식형 펀드 순유출 올들어 최대
7/20 [토]	

◆ 7월 목차 (7/21-7/31)

7/21 [일]	
7/22 [월]	○ 기관투자자 주식투자 자금 없다 ○ 부실회사 채권단 손배소 본격화
7/23 [화]	○ 국민연금 1,240억원 손절매 규정 무시 등으로 투자 손실
7/24 [수]	○ 국민연금 주식 투자 갈림길
7/25 [목]	○ 정통부, 채권혼합형 펀드에 1천억원 투입
7/26 [금]	○ 투신협회, 투자자 교육 강사단 발족 ○ 동원증권, 동원BNP투신운용의 BNP파리바 지분 30% 인수
7/27 [토]	○ 표준신탁약관 투신협회서 제정
7/28 [일]	
7/29 [월]	○ 변액연금보험 9월 첫 판매
7/30 [화]	○ 미국 뮤추얼펀드 환매 당분간 지속 전망 ○ 최근 자금이 몰리는 인덱스펀드 ○ 상장지수펀드 9월 초 첫 선 ○ 동원투신운용 BNP파리바 금융그룹과 결별 ○ 정부,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수탁회사 역할 강화 방안 제시
7/31 [수]	○ 동부투신, 동양화재에 20억원 배상 판결

♣ 2002년 7월 2일 화요일

○ CBO펀드 수익률 급락

- 펀드평가기관인 제로인에 따르면 투신권에서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운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CBO펀드 (72개) 중 절반 가량이 6월 20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
 - 지난 2000년 초 발매 이후 기록했던 연 15~20%대의 높은 수익률과 비교해 큰 차이를 기록한 것임
- 이는 CBO펀드가 채권형이면서도 일정 부분 공모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운용사들이 주가 전망을 좋게 보고 주식 편입비를 늘렸다가 최근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됨
 - 투신협회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부실채권의 상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고수익 대비 위험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펀드의 자금 이탈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음



♣ 2002년 7월 3일 수요일

○ 삼성전자 펀드 비중 확대

-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의 펀드 편입 한도가 확대되자 투신권이 일제히 삼성전자 매입에 나섰음
 - 투신협회는 7월 2일 삼성전자에 대한 하반기 펀드 편입 한도가 상반기보다 3.8% 높은 18.30% (보통주 17.03%, 우선주 1.27%)라고 공고했음
- 이에 따라 그 동안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도 한도 규정에 걸려 매수하지 못했던 운용사들이 이날 일제히 삼성전자 매수의 포문을 열었음
 -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6만주 이상 매입한 것을 비롯해서 한국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현대투신운용 등 대형 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3~5만주 가량 매수했음
 - 이에 힘입어 7월 2일 삼성전자 주가는 6월 28일보다 8,500원이 오른 33만7,500원 (2.58% 상승)을 기록했음
- 운용사들은 하반기 증시 및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펀드 편입 비중을 한도인 18.3%까지 채울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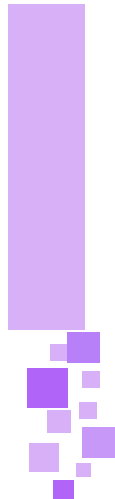
○ 국민연금 채권 투자 아웃소싱

-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주식 투자에 이어 채권 투자도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음
 - 투신업계에 따르면 7월 2일 국민연금은 최근 채권 투자 위탁 운용과 관련한 펀드 평가 방법 및 리스크 관리 방법, 해외 연기금의 아웃소싱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업계에 요구했음
 -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내부 채권 운용 성과의 평가를 위해 KIS채권평가와 함께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 국민연금은 초기엔 내부 운용조직과 외부 아웃소싱 업체간의 경쟁 체제로 채권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투자 성과를 지켜보면서 아웃소싱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보임
 - 현재 42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채권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채권 투자 아웃소싱이 이뤄지면 투신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 2002년 7월 4일 목요일

○ 기업연금 연내 도입 힘들 듯

- 정부가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던 기업연금 제도가 내년 이후에나 도입될 전망
 - 7월 3일 재경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해부터 기업연금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달 재개하기로 했음
 - 따라서 다음 달 실무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안을 마련해 각 부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도입은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기업연금 조기 도입으로 법정퇴직금제를 대체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식 투자 기반을 확충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차질이 예상됨



♣ 2002년 7월 5일 금요일 (1)

○ 법원, '미래에셋박현주2호성장형펀드' 투자자 손해소 기각

- '미래에셋박현주2호성장형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주식형 펀드 등 간접 상품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 서울지법은 지난 5월 중순 '미래에셋박현주2호성장형펀드' 가입자 강모씨 외 91명이 미래에셋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지난 99년 12월 설정된 '미래에셋박현주2호성장형펀드'가 운용 1년 뒤 청산하면서 발생한 44.78%의 손실률을 회사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해 2월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음
- 법원에서는 원고측이 주장한 모집 단계에서 과장 광고 및 부당 권유 행위에 의한 고객 보호 의무 위반, 운용 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 등이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음
 - 재판부는 우선 모집 팸플릿 내용 중 박현주펀드가 기존 수익률이 109%나 됐으며 고수익을 강조한 부분은 일반 상거래 관념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어서 과장 광고나 장래의 수익을 장담하는 단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원고측이 주식시장 침체 속에서도 주식 편입비를 60~80%로 유지해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성장형 펀드임을 감안하면 주식 편입비 조절 실패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
 - 펀드내 삼성전자와 한국통신프리텔 등 보유 주식의 손실률이 30%를 초과했는데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것은 운용자의 포괄적 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손절매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음
 - 이 밖에 펀드의 주요 가입자인 한통하이텔에 142억원을 투자한 뒤 43억원에 매도해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 역시 회사측이 이익을 위해 고객인 원고들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이 판결의 결과가 지난 해 8월 44명의 '밸류스팟펀드2호' 투자자들이 동원증권과 동원투신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7월 5일 금요일 (2)

○ 은행 신탁대출 고사 위기

- 최근 재경부가 자산운용법률 통합과 관련하여 기존 은행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던 불특정금전신탁을 투신업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은행 신탁대출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 그 동안 은행들은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신사 수익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한 방법으로 유가증권, 채권 투자 외에 대출을 취급해 왔음
 -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신업법으로 통합되는 것이 확정될 경우 자산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신탁 대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탁 대출을 줄여왔으며 고유계정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많이 줄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현재 은행 신탁 대출은 지난 2000년 말 13조6,933억원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4조5,278억원으로 67% 가까이 줄어든 상태임
 - 아울러 19개 시중 은행 중 하나은행 (9,564억원), 국민은행 (8,034억원), 한미은행 (7,062억원) 등이 신탁 대출 규모가 클 뿐 기타은행은 미미한 수준임

♣ 2002년 7월 6일 토요일

○ 선물·옵션 거래 폭발

- 지난 7월 5일 종합주가지수가 19 포인트 오르면서 지수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상 3번째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옵션시장에선 거래량이 개장 이래 가장 많았음
 - 증권거래소 KOSPI200 지수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수선물 시장에선 7월 5일 외국인들이 8,285계약을 순매수했음
 - 지난 해 9월 미국 테러사태 직후 외국인들이 12,804계약을 순매수한 적은 있지만, 당시는 테러라는 대외 변수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거래가 폭증했음을 감안하면 7월 5일 선물 매수 규모는 사실상 최대 수준임
 - KOSPI200 지수옵션 시장도 매매가 크게 늘면서 7월 5일 하루 동안 1,379만 계약 이상 거래됐으며, 지난 4월 10일 기록한 약 1,156만계약을 웃도는 것으로 개장 이래 최대 거래량 기록임
- 전문가들은 7월 5일 지수 급등이 나타나자 손실 규모를 줄이는 손절매성 선물·옵션 매매와 함께 그 동안 차익실현 기회를 잡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 청산에 나서면서 선물·옵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음
 - 아울러 새로운 외국계 세력이 선물·옵션 시장에 진입한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임

♣ 2002년 7월 8일 월요일 (1)

○ 중고 교과서에 주식 및 투자신탁 등 투자자 교육 신기로

- 이르면 내년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등에 주식과 투자신탁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 투신협회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주식과 투자신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금감원도 교과서에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의 특성과 주의할 점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증권연구원에서는 교과서 개편을 포함한 투자자 교육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주식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교과서는 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필수 과목인 '사회',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과목인 '경제' 등임
-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서는 지난 97년 고시된 교육 과정에 의거해 내년도 교과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언급
 - 다만 금감원 등이 의견서를 오는 10월까지 보내준다면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에 이를 일부 반영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에 걸쳐 증권시장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며, 고등학교에서는 '투자방법의 선택' 등 각론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경우도 일본 증권협회 등의 건의에 의해 올해 나온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처음으로 주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음

○ 올림푸스캐피탈 굿모닝투신 인수 유력

-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굿모닝투신운용의 유력한 인수자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올림푸스캐피탈이 떠오르고 있음
 -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올림푸스캐피탈은 미국계 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모펀드로 지난 97년 설립됐음
 - 현재 아시아 지역의 20개 회사에 \$4~5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99년 외환카드의 지분 37.7%를 매입해 2대 주주에 등재돼 있음
- 굿모닝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몇 군데 기업에서 인수의사를 밝혔지만 외국계로 넘긴다는 방침 아래 올림푸스캐피탈과 심도있는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매각 금액은 250~3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굿모닝투신의 매각시 경영 및 운용, 인력구조에 큰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굿모닝증권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올림푸스캐피탈이 5년 이상 장기투자하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음

♣ 2002년 7월 8일 월요일 (2)

○ 연기금 투자폴 단기 운용에 치중

- 연기금 투자폴이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소규모 연기금의 공동투자제도인 투자폴의 예탁규모는 6월 말 현재 2조원이며, 이 중 절반인 1조원 정도가 단기 상품인 MMF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8,000억원 가량이 채권형 상품에, 2,000억원 가량이 주식 투자비중이 40% 미만인 혼합형에 투자되고 있어 실제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규모는 800억원 (혼합형 펀드 2,000억원*40%)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됨
-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투자폴을 구성하는 개별 연기금의 요구에 따라 운용 방식을 정하는데 아직은 기업어음 (CP) 등 단기 상품이나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폴의 주식형 상품 투자 허용과 관련하여 재경부로부터 아직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
 - 협의 요청이 오더라도 연기금들의 투자의사를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임

♣ 2002년 7월 9일 화요일

○ 투신권 자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 7월 들어 투신권의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투신협회에 따르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6월 말 5조978억원에서 지난 7월 4일에는 5조1,476억원으로 49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 같은 기간 주식에 20~60%를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도 523억원 늘어난 33조 3,705억원을 기록했다
 - 반면 장기 채권형 펀드는 이 기간 동안에 4,436억원 감소한 16조1,176억원을 기록했다으며, 단기 채권형 펀드 역시 475억원 감소한 10조8,960억원으로 집계됨
- 투신업계 관계자는 6월 말 이래 채권 가격은 급속히 떨어진 반면, 주가는 상승 기세를 보임에 따라 채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주식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



♣ 2002년 7월 10일 수요일

○ 은행 부동산신탁에 자금 몰린다

-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수탁고가 1년 동안 2.8배로 급증하면서 1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 등 9개 시중은행에서 운용 중인 80개 부동산투자신탁 수탁고는 지난 6월 말 현재 9,831억원으로 집계됐음
 - 이는 지난 해 6월 말 (3,506억원)의 2.8배에 달하며, 지난 해 말 (6,611억원)에 비해서도 48.7%가 증가 한 것임
 - 은행의 금전신탁 수탁고가 지난 해 81조2,000억원에서 올 6월 말 75조3,000억원으로 7.3% 감소한 것과 대조적임

♣ 2002년 7월 11일 목요일

○ 개인연금 수익률 비교 공시

- 앞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는 연금상품별 수익률을 비교하여 고수익 상품으로 손쉽게 계약을 옮길 수 있게 됨
 - 7월 10일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올해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연금 수익률을 비교 공시토록해 소비자가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이전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고 밝혔음
 - 비교 공시란에는 최근 3년 동안 개인연금의 연도별 수익률과 직전 분기 수익률, 자산 운용 내역 등이 공개됨
- 지난 해 4월부터 연금상품간 계약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소비자들이 상품별 수익률을 비교하기 어려워 계약 이전 건수는 1,066건 (약 134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지난 해 말 현재 전체 개인연금 보유계약 건수는 373만건으로 총 취업자 수의 17.7% 수준이며, 적립액은 22조3,583억원임
-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세법상 최소 유지기간이 15년이 넘어 수익률에 따라 만기때 적립액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언급
 - 따라서 개인연금 계약의 이전이 세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회사별 수익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음
 - 아울러 소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외면해 온 계약 이전 제도가 활성화되면 상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금융사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기대

○ 개인연금 보험 지급 시기 40대로 낮춰

- 업계에 따르면 55세 이상이 대부분이던 개인연금 보험 지급 시기를 45~48세로 크게 낮춘 연금보험 상품을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음
 - 연금 수령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연공서열 대신 성과, 능력 위주의 인사가 확산되면서 퇴직 연령이 젊어지는 등 50대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됨
- 금호생명은 최근 4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았으며, SK생명도 48세 이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음
 - 삼성생명, 대한생명 역시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아예 45세로 낮췄으며, 특히 삼성은 60세 이상 지급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중간에 45세 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음
- 관계자들은 명예퇴직 등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40대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객 요구가 많아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연금의 조기 지급으로 경제적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2002년 7월 12일 금요일

○ 코리아펀드 투자 비중 확대

- 모건스탠리증권은 최근 코리아펀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한 단계 상승시킴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음
 -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 관계자는 한국시장의 향후 전망이 밝은데다 코리아펀드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 비해 10% 이상 할인돼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증권업계는 코리아펀드가 벤치마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음
- 코리아펀드는 한국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미국의 폐쇄형 증권투자회사로 현재 미 증시에 상장돼 있음
 - 코리아펀드는 84년 미국 스커더자산운용이 설립했으며, 지난 2월 말 현재 펀드 규모는 \$9억4,100만 (약 1조2천억원)에 이름
 -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34.3%에 달하는 등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가운데 수익률이 최고 수준임
 - 코리아펀드 투자 종목

종목	투자비율 (%)	종목	투자비율 (%)
삼성전자	14	현대백화점	4
국민은행	11	포스코	3
SKT	8	KTF	3
삼성화재	8	KT	3
LG홈쇼핑	5	기타	37
삼성전기	4		

♣ 2002년 7월 13일 토요일

○ 국민연금 400억원 증시 투입

- 국민연금은 7월 12일 400억원의 주식 투자자금을 한일투신운용을 통해 증시에 투입했음
 - 올들어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를 위해 투신권에 배정될 자금이 당초보다 늘어난 5,200억원으로 한일투신운용에 위탁한 400억원을 제외하고도 800억원이 남게됐음
 - 향후 국민연금은 남은 800억원의 간접 투자자금을 순수주식형과 중소형주식형으로 400억원씩 나눠 투신운용사에 분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투신사 관계자는 국내 주가의 급등락이 주로 미국 증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만큼 연기금의 본격적인 자금 투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의 바닥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2002년 7월 15일 월요일 (1)

○ 정부 증시 지원책 마련

- 7월 14일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부총리 주재 간부회의에서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산운용법을 통합, 자본시장 개편 등의 제도 정비와 함께 주식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 60% 이상이 은행 예금에 몰려 있지만 확정 금리 상품이 대부분인 은행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내 증시 기반의 체질을 허약하게 해 왔다고 언급
 - 은행으로만 물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라고 덧붙임
 - 재경부는 은행이 현재처럼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 대출이나 안정적 채권 운용에만 주력하게 되면, 가계 대출 확장이 한계점에 도달할 경우 금융산업에 치명타를 주고 전반적인 국민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경부는 투신협회, 증권업협회 등과 함께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고 올 정기 국회에서 자산운용통합법 제정과 함께 부문별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임
- 재경부는 세제지원 방안으로 다음의 4개 부문별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 중임
 - 지난 3월 시한이 끝난 장기증권저축과 같이 세금 혜택이 있는 주식 상품 개발
 -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주식 투자자에 대한 지원
 - 투신사, 증권투자회사, 은행 신탁 등 주식 관련 중개 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 주식 발행 촉진을 위해 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재경부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세제 운영을 위해 세금 감면을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각종 은행 예금에 붙는 조세 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주식 관련 조세 감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 국제자금 채권으로 대이동

- 올 들어 전세계적으로 주가 불안이 극심해지자 안정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채권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폭이 둔화되면서 채권이나 MMF 등으로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실물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돼 위험자산을 기피하면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내 뮤추얼펀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AMG에 따르면 미국내 주식형 뮤추얼펀드는 지난 5월 말 \$704억8,100만에서 7월 10일에는 \$529억3,600만으로 두 달 동안 \$175억4,500만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채권형 뮤추얼펀드는 같은 기간 \$834억3,600만에서 \$918억8,400만으로 \$84억4,800만으로 증가했음
 - 한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부실 회계 파문으로 주식 투자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7월 5일 월요일 (2)

○ 대우차 지원자금 손실 분담 요구 파문

- 대우자동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협약'을 근거로 제2금융권 등에 대우차 지원 자금 손실 분담을 요구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들의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됨
- 지난 99년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을 앞두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은 신규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음
 - 당시 은행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기업회생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우 계열사에 대한 추가 여신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음
 - 반면 종금, 투신사 등은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대우 계열사에 더 이상의 신규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맞섰음
 - 대우 계열사의 급속한 붕괴를 우려한 은행들은 궁여지책으로 '선지원 후정산' 안을 내놓았으며, 이 안의 내용은 은행들이 일단 추가 대출 소요 금액을 전액 지원하되 다른 회사들은 추후에 채권 비율대로 정산해 손실을 분담한다는 것임
 - 제2금융권 등은 이마저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손실분담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됨
- 제2금융권과 관계사들이 협약대로 손실을 분담하면 좋겠지만 현재 종금사들은 대부분 파산했으며, 투신사들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
- 아울러 손실 분담 주체에 대한 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당시 종금사와 투신사 등이 갖고 있던 대우차 채권의 상당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에 매각한 상황임
 - 현재 KAMCO는 담보 채권 50%, 정리 채권 35% 등 모두 6조원이 넘는 채권을 갖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음
 - 협약대로라면 종금, 투신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 채권을 KAMCO에 매각했으며, 넘겨받은 KAMCO가 당시 손실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음
 - KAMCO측은 손실 분담액이 확정된 이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손실 분담액이 예상외로 클 경우 분담 협약서의 법적 효력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다음 달인 8월경에 이루어질 대우자동차와 GM간의 매각 협상을 위해 99년 당시 맺은 손실 분담 협약서 내용에 대한 이행을 확정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임
 - 더구나 대우전자, 경남기업 등 옛 대우 계열사들의 워크아웃 당시 대부분 채권단이 비슷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이와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02년 7월 16일 화요일

○ 대우차 손실 분담 투신사는 제외될 듯

-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 당시 은행권이 신규 지원한 자금의 손실 분담에서 투신사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 대우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손실 분담 확약서를 투신사와 기타 금융사 등으로 나눠 각 금융사의 확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 기타 금융사 확약서에는 손실 분담액을 채권 비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지정한 날짜에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음
- 그러나 투신사용 확약서에는 손실 분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 그 대신 투신권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대우차의 사업 스케줄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 권리를 포기하고 신규 지원한 은행에 우선 배당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펀드 실적에 따라 연기금 차등 배분

- 기획예산처는 7월 15일 제4차 투자폴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용 성과에 따라 펀드별로 연기금 투자폴 운용 규모를 다르게 배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음
 - 이는 자금 운용 실적이 좋은 펀드 (투신 및 자산운용사)에는 연기금을 더 많이 배정하려는 의도로 펀드별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임
 -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F는 2,000억원, 채권형 펀드는 1,500억원, 혼합형은 1,000억원만 기준금액으로 배정한 뒤, 신규 유입자금 등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로 했음

○ 굿모닝투신 올림푸스캐피탈에 매각

- 굿모닝투신운용이 영국계 투자펀드이며 역외금융회사인 올림푸스캐피탈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짐
 - 굿모닝증권 관계자는 현재 올림푸스캐피탈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금감위가 대주주 지분 변동 등을 승인해 주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금감위 규정에 따르면 투신사 인수 자격은 같은 업종 (자산운용)으로 제한돼 있으며, 설립 후 3년 이내 대주주의 지분 변동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는 굿모닝투신의 대주주 지분 변동과 함께 투자펀드에 인수 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2002년 7월 18일 목요일

○ 해외투자 펀드 이종고

-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들이 미국 증시 불안과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미국 시장의 계속된 침체와 이에 따른 세계 증시 동반 침체로 펀드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다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큰 폭의 환차손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지난 해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던 차이나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투자펀드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종 펀드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펀드 평가업체인 모닝스타코리아가 7월 17일 해외투자 펀드 31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이 국내의 동일 유형 펀드를 앞지르는 해외투자 펀드는 전체의 3분의 1인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개는 수익률이 한국보다 저조했음
 - 투자 대상 지역별로는 홍콩, 중국, 일본 등에 투자하는 아시아 지역 펀드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임
 - 모닝스타코리아 관계자는 서울 증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교적 미국 시장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국내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평가

○ 국민연금 손절매 규정 폐지

-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손실을 입으면 무조건 주식을 내다팔도록 한 손절매 규정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국민연금은 현재 직접투자시 투자 종목당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주식을 팔도록 하는 손절매 규정을 두고 있음
 - 아울러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장부가치보다 30% 이상 하락하고 종합주가지수보다 10% 이상 추가 하락하면 펀드를 해산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손절매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일시적인 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규정을 없앤다는 방침임
- 국민연금 관계자는 9·11 테러 사태처럼 시장 전체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 손절매 때문에 주식을 무분별하게 내다팔 경우 손실을 키우게 된다고 언급
 -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투자 종목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전체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손절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2002년 7월 19일 금요일

○ 채권혼합형 펀드로 자금 유입

- 주식시장이 지루한 혼조세를 연출하면서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혼합형 펀드 상품으로 자금이 속속 유입되고 있음
 - MMF를 제외한 투신 펀드 상품 중에서 7월 들어 16일 현재 유일하게 채권혼합형 수탁고만이 1조1,240억원의 증가가 이루어졌을 뿐,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등의 수탁고는 각각 1,900억원, 4,620억원, 3,10억원 감소했음
-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이 달 들어 채권이나 주식의 시장이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안정형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
 - 채권혼합형 펀드 상품은 채권이나 유동성 자산 등에 투로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취득하고 주식에 일부 (약 30%)를 투자하여 초과 수익 추구를 기본 전략으로 하는 상품임

○ 미국 주식형 펀드 순유출 올들어 최대

- 7월 19일 AMG 데이터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동월 17일까지 한 주간 미국 주식형 펀드에는 모두 \$114억이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순유출 규모는 주간 단위로는 최대임
 - 이는 지난 해 9·11 테러사태 직후 한 주간 기록한 \$59억 유출에 비해서도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며, 이전 3주간 \$130억 유출에 이어 4주째 순유출 추세를 이어가는 것임
 - 올 들어 \$424억까지 확대됐던 누적자금 순유입 규모도 \$129억9,700만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음
 - 항목별로는 공격적인 성장형 펀드에서 무려 \$15억6,900만이나 유출됐으며, 글로벌 주식형 펀드와 기술주 펀드에서도 각각 \$4억6,900만, \$2억9,800만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7월 일 월요일

○ 기관투자자 주식투자 자금 없다

- 투신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이 고갈돼 증시 수급 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7월 21일 현재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한, 현대투신운용 등 대형 3투신을 비롯해 대부분의 투신운용사 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이 85%를 넘어서고 있어 기존의 펀드 자금에서는 추가적인 주식 매수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임
 - 게다가 향후 증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식형 펀드로의 신규 자금 유입마저 주춤해지고 있어 투신사의 주식 매수 여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계획된 아웃소싱 자금 6,000억원 가운데 5,600억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임
 - 내년 투자자금의 일부를 올 하반기로 앞당길 예정이지만 시장 전망이 워낙 불투명해 아직 시기와 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음
- 연기금, 보험사 등의 아웃소싱을 전담하는 투자자문사들은 7월 초 대규모 손절매에 나선 결과 주식 편입 비율이 50~70%로 다소 낮아졌지만 손절매 후유증으로 인해 쉽게 편입 비율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기관들의 시황 전망이나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 앞서 기관들이 앞장서서 주식을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부실회사 채권단 손배소 본격화

- 시중은행, 투신사 등 채권단이 분식회계와 횡령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기업을 망친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음
 -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 우리은행, 대한투신, 한국투신 등 채권 금융회사들은 고합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지난 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음
 - 채권단들은 고합에 이어 예보의 현장 조사와 내부 심사가 끝난 보성인터내셔널과 SKM 등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 말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진도, 대우 등에 대한 내부 심사 작업도 최대한 빨리 마쳐 이 자료를 채권단에 넘길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채권단이 부실 책임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힘

♣ 2002년 7월 23일 화요일

○ 국민연금 1,240억원 손절매 규정 무시 등으로 투자 손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하는 바람에 1,24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음
 -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가가 장부가가격의 25% 아래로 떨어질 경우 손절매를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55개의 손절매 대상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락한 뒤 내다 팔아 640억원의 손실을 입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심지어 장부가가격의 8% 수준까지 떨어진 뒤에 주식을 매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음
 - 아울러 2000년 1월 코스닥 전용펀드에 1,2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사장 결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기금운용 본부장 독단으로 투자 위험이 큰 장외시장 종목 10개를 무리하게 편입하여 600억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증권사 중개를 통해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증권사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최대 8배나 많이 주는 등 470건에 걸쳐 22억여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이 지적되기도 했음
-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언급
 - 앞으로 연기금에 대해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혹이 불거지면 특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한편,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도 99년에 투자한 대우 관련 채권에서 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9개 증권사가 판매하는 고수익채권펀드에 전체 투자자산의 60%를 집중 투자해 14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음

♣ 2002년 7월 24일 수요일

○ 국민연금 주식 투자 갈림길

- 주식시장의 중대한 기관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하반기 주식 투자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 있는 실정임
 - 당초 주가 전망을 밝게 보고 내년 투자분을 올해 앞당겨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증시 침체로 국내 증시마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주식 투자로 최근 2년 동안 1,2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어 주식 투자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사내 및 외부 분석을 통해 시장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오면 증시 추가 자금 투입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투자 원금마저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러한 거시지표 분석 등의 재검토 작업이 1~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8월 초에는 최종 방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국민연금 관계자는 만약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면 올 투자 목표수익률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비중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임
 - 이 경우 국민연금이 올 하반기 미리 당겨 쓸 예정이었던 내년 투자분 1조2,000억원 (추정치)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며, 이 달까지 투입됐던 주식 투자분의 상당부분 역시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직·간접 투자분으로 각각 6,00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7월 현재 직접 투자 4,500억원, 간접 투자 5,600억원을 집행했음

♣ 2002년 7월 25일 목요일

○ 정통부, 채권혼합형 펀드에 1천억원 투입

- 7월 24일 정통부는 LG투신운용과 굿모닝투신운용에 각각 500억원씩 채권 편입비율이 최고 50% 미만인 채권혼합형 펀드에 신규로 가입했음
 -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 상황에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며 미국 시장이 향후 하락세를 보이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시장 관계자들은 정통부의 펀드 가입으로 기관들의 주식 매입 여력은 다소 확충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2002년 7월 26일 금요일

○ 투신협회, 투자자 교육 강사단 발족

- 투신협회는 7월 25일 투자자 교육 강사단을 발족하고 투자자 보호와 올바른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투자자 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음
 - 강사단은 대학 교수와 투신운용사 대표이사, 투신운용 및 자산운용사의 전문가 등 투신협회가 인터넷 공모 및 업계의 추천을 거쳐 선정한 52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 기업을 포함한 투자자 단체가 투신협회에 강의를 요청하면 이들 전문 강사가 방문해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 재산 관리 방법, 투자의 의미와 필요성, 장기 투자의 장점, 투자 대안으로 투자신탁 이용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임
 - 아울러 교육 대상자에 맞춰 교육 내용과 난이도를 조절하고 강사 배정 및 강의 기법 등을 달리하되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상황 사례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할 계획임
- 투신협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으며 98년 금융위기 이후 퇴직 연령이 낮아져 근로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진데다 각종 연금 수혜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
 -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합리적 재산 관리 계획 등 투자자 교육에 힘 쓸 것이라고 밝힘

○ 동원증권, 동원BNP투신운용의 BNP파리바 지분 30% 인수

- 동원BNP투신운용의 대주주인 동원증권은 BNP파리바 금융그룹과의 합작 관계를 청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7월 25일 동원증권은 현재 BNP파리바 금융그룹이 보유 중인 동원BNP투신운용 지분 30%인 180만주를 전량 인수하는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힘
 - 인수대금은 주당 16,000원씩 주식대금 288억원과 경과이자 등을 포함해 결정될 것임
 - 동원증권 관계자는 이번 BNP파리바 금융그룹과 합작관계 청산은 계약 당시 계획됐던 3년 경과 후 해지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
- BNP파리바 금융그룹은 국내에서 신한지주회사 출자를 통한 소비자 금융과 방카슈랑스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짐
 - 방카슈랑스 사업부문이란 은행이 보험사 상품의 판매 창구 기능을 담당함을 의미
 - 동원증권은 지난 99년 7월 말 BNP파리바 금융그룹과 합작 관계를 맺고 펀드 운용, 위험관리 등 기술 이전과 펀드 운용 평가 기법 등을 도입했음

♣ 2002년 7월 27일 토요일

○ 표준신탁약관 투신협회사 제정

- 개정될 증권투자신탁업법령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 및 보고 업무가 금감위에서 투신협회로 이관될 예정임
 - 투신협회는 증권투자신탁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포함돼 있던 표준신탁약관을 투신협회 규정인 '투자신탁 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으로 이전해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투신협회는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종전의 표준신탁약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정하되 주 5일 근무제를 반영해 영업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MMF 투자 제한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음

♣ 2002년 7월 29일 월요일

○ 변액연금보험 9월 첫 판매

- 오는 9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될 예정임
 - 변액연금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실적배당형 간접투자 상품임
 - 현재 국내 생보사들은 변액종신보험만 판매하고 있음
- 7월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변액연금보험인 '삼성변액연금보험'의 개발을 끝내고 이번 주 중 금감원에 상품 인가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삼성변액연금보험'은 국공채, 회사채 등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CP, CD 등 단기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단기 채권형',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등 세 종류로 개발됐음



♣ 2002년 7월 30일 화요일 (1)

○ 미국 뮤추얼펀드 환매 당분간 지속 전망

-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에서 지난 5월 이후 총 자산의 1.68%에 이르는 \$417억이 환매된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지난 6월 한 달 동안 \$111억, 7월 중 \$308억이 순유출됐으며, 이는 9·11 테러가 있었던 지난 해 9월 \$293억의 순유출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임
- 이 같이 환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거듭하면서 마진콜 (주가 하락에 따른 증거금 보충)에 걸린 투자자들이 대규모 환매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달러화 강세 역시 미국계 투자펀드가 뮤추얼펀드의 환매에 응하기 위해 해외 주식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한 다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시장 관계자들은 특히 환매 규모가 커지고 있어 외국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국내 증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음

○ 최근 자금이 몰리는 인덱스펀드

- 최근 주가 급락 과정에서도 투신사의 인덱스펀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대투증권, 한투증권, 현투증권 등 3개 투신사 인덱스펀드로만 160억원 이상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대투증권의 갤럽인덱스펀드는 종합주가지수 700선이 무너지며 연중 최저치로 급락한 지난 7월 26일에만 29억원 이상 자금이 유입됐음
- 시장 전문가들은 700선대로 내려앉은 종합주가지수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투자자들이 저가에 인덱스펀드를 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음
 - 아울러 대부분 인덱스펀드가 선취수수료 구조를 갖고 있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별도의 위험 관리 비용이 없고 거래비용 부담이 작아 최근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상장지수펀드 9월 초 첫 선

-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가 오는 9월 초 첫 선을 보일 예정임
 - 증권거래소는 금감위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7월 29일 밝혔음
 -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ETF를 시험 운영할 예정임
 - 삼성투신 컨소시엄과 LG투신 컨소시엄은 KOSPI200을, 한국투신 컨소시엄과 제일투신 컨소시엄은 KOSPI50을 대상으로 한 ETF 상품을 상장시킬 예정임

♣ 2002년 7월 30일 화요일 (2)

○ 동원투신운용 BNP파리바 금융그룹과 결별

- 동원투신운용은 7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BNP파리바 금융그룹과의 합작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음
 - 이에 따라 동원투신운용은 BNP파리바 금융그룹측 임원을 해임하고 각종 상품 이름을 바꾸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 이번 합작 관계 청산에 따라 현재 70% 지분을 갖고 있는 동원증권은 BNP파리바 금융그룹측의 30% 지분을 다시 사들일 예정임

○ 정부,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수탁회사 역할 강화 방안 제시

- 재경부는 7월 29일 금융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체제 등 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
 - 특히 부채 중심에서 주식 중심으로 금융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촉매적인 역할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펀드 운용에 대하여 투자자의 불신이 있어 자산운용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함
 - 따라서 정부는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펀드 운용을 감시하는 수탁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시
- 정부는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법령 이행 여부 및 약관·투자설명서 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수탁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제안했음
 -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운용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금감위에 보고토록 했음
 - 수탁회사는 수탁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 및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에 대해 수탁회사 확인을 받고 펀드 가치 계산 정확성 등을 검토토록 했음
 - 수탁회사가 법령에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음
- 정부는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보관회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수탁회사와 동일한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이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감시 기능을 흡수토록 제안했음
 - 자산운용회사의 불법적인 자산운용에 대해서 투자자는 수탁회사에 책임을 묻거나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했음
- 모든 펀드에 대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음
 - 공인회계사는 수탁회사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펀드 자산 회계 처리의 적절성만을 검토하도록 했음
 -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가 선임하던 것을 수탁회사가 선임하도록 했음
 - 현행 제도에서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증권투자신탁 펀드에 대해서만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 2002년 7월 31일 수요일

○ 동부투신, 동양화재에 20억원 배상 판결

- 약속을 위반하고 부실기업의 CP를 펀드에 편입했다가 손실을 낸 운용기관에게 고객 돈을 전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
- 동양화재는 상품운용계획서를 어기고 지난 2000년 동부투신의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 D형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음
 - 동양화재가 가입한 펀드의 상품운용계획서에는 A3 등급의 안정적인 CP를 주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었음
 - 1개월 이상의 CP를 편입할 경우 동양화재측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운용하기로 양측이 구두로 합의했음
 - 하지만 동부투신은 지난 해 6월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어기고 6개월짜리 CP인 인천정유를 편입하였으며, 동년 8월 인천정유가 부도나자 펀드에서 약 20억7,300만원의 손실이 발생
- 이에 대해 동양화재는 동부투신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서울지법에 청구하여 지난 7월 25일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음
 - 법원은 특히 문서상의 계약이 아닌 구두 합의의 경우에도 전액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임
- 동부투신 관계자는 본 펀드 상품이 투자자 스스로 투자 손실을 책임지는 실적배당 상품이며, 법원의 판결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



8월

August

10대 주요 기사

1. 펀드 분류 체계변경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투신권
(5일, 14일, 22일)
2. 정부, 자산운용업법 제정 요강 발표
(6일, 7일, 13일, 31일)
3. 트레이더로 변화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8일)
4. 펀드 직판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상충 증가
(16일, 29일)
5. 1개 금융기관에 집중 예치되고 있는 정부 기금
(20)
6. 하이닉스 편입 펀드의 환매를 요구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21일)
7. ETF시장 9월 26일 경 개설
(21일)
8. 9월 중순부터 변액연금보험 판매 개시
(22일, 30일)
9. 금리스왑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계약서 마련
(27일)
10. 펀드를 통한 불법적인 우회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 (31일)

◆ 8월 목차 (8/1-8/10)

8/1 [목]	○ 투자 대안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혼합형 펀드 ○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조기 퇴진
8/2 [금]	○ 한국형 SRF를 판매할 예정인 교보투신운용 ○ 투신권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 증가
8/3 [토]	○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국제 채권 시장
8/4 [일]	
8/5 [월]	○ 상이한 펀드 분류 기준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란 가중 ○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의무화 ○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비 제휴 증대와 현행 문제점
8/6 [화]	○ 투신사 CEO의 잦은 교체 ○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재경부
8/7 [수]	○ 해외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일부 투자전문가 ○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
8/8 [목]	○ 비중이 낮은 장기 펀드 ○ 수탁고가 감소하고 있는 장기저축 펀드 ○ 트레이더로 변화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8/9 [금]	○ 주식시장 도약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필요 ○ 투자신탁 약관변경 공고
8/10 [토]	○ 펀드의 투자 현황 및 주총 활동 현황 공개를 요구한 노동계

◆ 8월 목차 (8/11-8/20)

8/11 [일]	
8/12 [월]	○ 합작 투신운용사 설립에 합의한 신한투신운용과 PAM
8/13 [화]	○ 채권형 펀드 수익률 주식형 펀드 추월 ○ 정부, 자산운용업법 제정 요강 발표 ○ 2년만에 신규 설립되는 자산운용사
8/14 [수]	○ 채권형 펀드의 분류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한 한국펀드 평가 ○ 주식형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투신사들
8/15 [목]	광 복 절
8/16 [금]	○ 펀드 직판을 요구하고 있는 투신 및 자산 운용사 ○ 1/4분기 동안 건전한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투신운용사들 ○ 시중 은행을 통한 펀드 판매 증가 ○ 일부 운용사들, 기업에 자사주 매입 권유
8/17 [토]	○ 거액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은행 PB
8/18 [일]	
8/19 [월]	○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채권단
8/20 [화]	○ 1개 금융기관에 집중 예치되고 있는 정부 기금

◆ 8월 목차 (8/21-8/31)

8/21 [수]	○ ETF 시장 9월 26일 경 개설 ○ 하이닉스 편입 펀드의 환매를 요구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 월드컵 펀드 적립금을 축구 관련 공익 사업에 사용할 투신권 ○ 중소형주 전용 펀드에 4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 채권시장 지표수익률 토요 공시 폐지
8/22 [목]	○ 펀드 분류 체계 변경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투신권 ○ 9월 중순부터 변액연금보험 판매 개시 ○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 투신운용사의 시장 점유율
8/23 [금]	○ 굿모닝투신 매각 협상 사실상 결렬 ○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 증가세로 반전 ○ 수익률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투기채 투자 펀드 ○ Vice Fund가 등장한 미국 펀드 시장
8/24 [토]	○ 외국계 투신운용사 국내 진출 증가 ○ 설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외수펀드
8/25 [일]	
8/26 [월]	○ 구조조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한 하이닉스 채권단 ○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M&A 펀드
8/27 [화]	○ 온라인 법인 계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투신사들 ○ 금리스왑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계약서 마련 ○ 주식시장 침체로 영업 실적이 악화된 투자자문사
8/28 [수]	○ 활발해지고 있는 투신권 인재 교육
8/29 [목]	○ 펀드 직판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 상충 증가
8/30 [금]	○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 ○ 굿모닝 투신운용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PCA
8/31 [토]	○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정부와 증권사, 투신사 ○ 자산운용업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일본계 대금업체의 CP를 중개한 증권사 적발

♣ 2002년 8월 1일 목요일

○ 투자 대안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혼합형 펀드

-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고채 수익률도 하락함에 따라,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발 호재와 악재에 따라 주식시장이 혼조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고채 3년 물의 수익률이 지난 4월 6.58%에서 7월 30일 현재 5.57%로 하락하였음
 -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채권 수익률의 하락으로 주식형 펀드보다는 위험이 적고 채권형 펀드보다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혼합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7월 한달 동안 주식형 펀드는 1,050억원의 수탁고 감소를 경험하였지만, 동 기간 동안 혼합형 펀드로는 6,380억원의 자산이 순유입되었음
- 투자전문가들은 혼조 장세에서는 혼합형 펀드가 적절한 투자 상품이지만, 향후 주식시장이 급등세로 반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중한 투자를 권유하고 있음
 - 혼합형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 환매 기간이 길거나 6개월 이내 환매에 대해 이익금의 30~70%에 달하는 높은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주식시장의 반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투자전문가들은 향후 주식시장이 회복될 경우에 대비하여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대신 환매가 자유로운 펀드나 중도 환매시 부담이 적은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조기 퇴진

- 보건복지부는 김선영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을 해임하였으며, 신인 본부장을 공개 채용할 계획임
 - 감사원의 연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 국민연금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자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투자해 1,200억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였음
 - 특히 코스닥 전용펀드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 본부장 독단으로 10개의 장외시장 종목을 무리하게 편입하여 기금 손실을 초래했음
 - 규정 위반 및 무리한 자산운용에 대한 문책으로 기금운용 본부장을 조기 퇴진시켰으며, 공개 채용을 통해 새로운 본부장을 선임할 예정임

♣ 2002년 8월 2일 금요일

○ 한국형 SRF를 판매할 예정인 교보투신운용

- 교보투신운용은 한국형 Socially Responsible Fund (이하 SRF)를 설정할 계획임
 - SRF는 술, 담배, 무기, 반 환경 기업 등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대신 사회적·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 교보투신운용은 여성 고용 비율이 높고, 성차별 정도가 낮은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수익증권을 설정하여 판매할 예정임
 - 교보투신운용은 1차로 300여개의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투자 리스트를 확정할 계획이며, 펀드는 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만을 편입함
 - 삼성투신, 대한투신 등 일부 운용사들이 운용사나 판매사의 수익 중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는 공익성이 가미된 펀드를 설정하였지만, 엄밀한 의미의 SRF는 아니었음
- 한국형 SRF의 장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교보투신 등은 회계 스캔들의 여파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SR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
 - 미국에서는 회계 스캔들 이후 기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주식형 펀드는 대규모 환매를 경험하였지만, SRF 펀드의 자산은 소폭 증가하였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수가 적고 기업의 스펙트럼도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SRF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음

○ 투신권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 증가

- 개인투자자들의 자산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순수주식형 및 장기채권형 펀드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음
 - 투신 협회에 따르면 순수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7월 22일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주일 동안 1,048억원 증가하였으며, 장기채권형 펀드의 수탁고도 29일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기 시작하였음
 - 인덱스펀드의 경우 주식시장의 혼조에도 불구하고 7월22일~30일 기간 동안 수탁고가 172억원 증가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자산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가지수 급락에 따른 반등 심리와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식형 및 장기성 펀드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임
 - 현재의 주가지수가 충분히 낮다는 인식과 주가지수 반등에 대한 기대로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자산이 증가하고 있음
- 투신권은 자산 유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장기성 자금이 순증가세로 반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2002년 8월 3일 토요일

○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국제 채권 시장

-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까지 확대되는 등 국제 회사채 시장이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리먼브라더스에 따르면, 연이은 회계 스캔들에 따른 신뢰 하락으로 미국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7월말 초 150bp에서 7월말 현재 210bp로 확대되었음
 - 또한 7월 한달 동안 미국 회사채가 2.59%의 손실을 경험하는 등 국제 회사채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채권 투자자들이 회사채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그 결과 회사채 발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채권 투자 전문가들은 스프레드의 변동성, 스캔들 리스크 등을 이유로 회사채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기업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등의 방안으로도 회사채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회사채 시장의 단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회사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투자자들은 최우량 회사채 및 국채에만 투자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채 발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리먼브라더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7월 회사채 발행은 \$201억 규모로 2001년 7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

♣ 2002년 8월 5일 월요일 (1)

○ 상이한 펀드 분류 기준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란 가중

- 펀드평가사마다 상이한 펀드 분류 방법 및 용어 채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임
 - 펀드평가사마다 펀드 분류 기준이 상이하며 분류된 펀드 유형의 용어도 상이하
여, 동일한 펀드가 서로 다른 유형의 펀드인 것처럼 분류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주식 편입 비율이 65%인 주식형 펀드에 대해 투신협회는 고성장추구
형, 한국펀드평가는 안정성장형, 그리고 제로인은 일반안정성장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기관별 주식형 펀드 유형 분류

투신협회	한국펀드평가	제로인
△고성장추구형: 60% 이상	△성장형 : 70% 이상	△일반성장형 : 70% 초과
△성장추구형 : 31~60%	△안정성장형: 31~70%	△일반안정성장형: 41~70%
△안정주식형 : 30% 이하	△안정형 : 30% 이하	△일반안정형 : 40% 이하

- 펀드의 유형 분류가 통일되지 않아, 펀드를 비교함에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증
가하고 있음
- 분류 기준 외에도 과거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교 불가능한 펀드를 비교하는 등 투자자
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일부 평가사의 경우 평가 대상 펀드의 현금 비중 등을 제대로 갱신하고 있지 않
았으며, 이미 회사를 떠난 펀드매니저가 운용자로 소개된 경우도 있음
 - 주식투자 상한이 80%인 인덱스펀드와 100%인 인덱스펀드를 동일한 펀드로 분
류하여 비교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의무화

- 재경부는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결과의 공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곧 공표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르면,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가 신탁재산의 5% 이상이나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는 투자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
과 및 그 이유를 운용실적 보고서 등에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함

♣ 2002년 8월 5일 월요일 (2)

○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비 제휴 증대와 현행 문제점

-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은행과 외국계 보험사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은행들은 국내 보험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시도 하였으나, 국내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음
 - 국내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를 은행의 보험 산업 진출로 파악하여 방카슈랑스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보험사의 판매 채널을 통해 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어슈어 बैंकिंग (assure banking)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국내 보험사와의 제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은 외국계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비하고 있음
 - 신한금융지주와 BNP 파리는 공동 투자하여 방카슈랑스 전문 생명보험회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국민은행과 ING, 하나은행과 알리안cm 등이 방카슈랑스에 대비한 제휴를 추진 중에 있음
- 국내은행과 외국계 보험사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외국계 보험사와의 제휴를 막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2003년 8월 방카슈랑스의 시행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확정될 수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되어야 은행 점포가 보험 대리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보험모집인의 수, 은행에서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 및 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외국계 보험사들의 경우 방카슈랑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법령 정비의 미흡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음

♣ 2002년 8월 6일 화요일 (1)

○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재경부

- 정부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 환경에 적합한 선진적인 규제 체제를 마련할 목적으로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유로운 상품 개발이 보장되는 기반을 마련하여 투자자 수요에 부합되는 상품 개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펀드의 투자 대상, 설정, 운용, 판매 등 관련 제도를 전면 쇄신하여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대신 펀드의 내적, 외적인 감시장치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산의 건전한 운용 및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증진을 기대하고 있음
- 규제완화 방안에서 정부는 자산운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음
 - 펀드의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 뿐 아니라 부동산, 상품 등 실물 자산,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
 - 그룹내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의 경우 계열사 보유 유가증권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
- 펀드 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펀드 환매와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할 예정임
 - 판매 업무의 경쟁을 조장할 목적으로 증권회사와 은행 외에 보험회사 및 선물회사가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하였음
 - 환매 연기의 주체를 투신사로 명확히 하였으며, 환매 연기 사유를 명시하고 환매 연기 조치 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하였음
 - 일부 부실 자산을 별도로 놔두고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펀드 자산을 우선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토록 하는 부분 환매 제도를 도입하였음
- 객관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에 한해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할 예정임
- 사모펀드 설정에 있어서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임
 - 사모펀드가 약관을 제정할 경우 금감위에 사후 보고토록 하였으며 투자설명서 및 각종 보고서의 제공 의무를 완화하고 기준 가격 공시 주기를 1개월로 확대하는 등 사모펀드 설정에 관한 규제를 완화
 - 사모펀드의 경우 현금 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를 허용하였으며, 사모펀드의 대상을 수익자 30인 이하로 강화
- 자산운용사 설립 기준을 투신운용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수익증권의 설정 및 운용을 허용
 -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명칭을 자산운용사로 통일

♣ 2002년 8월 6일 화요일 (2)

○ 투신사 CEO의 잦은 교체

- 투신권 CEO의 잦은 교체가 투신사의 장기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 투신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LG, 동양, 동부 등 9개 투신사의 CEO가 교체되었으며, 이 중 임기를 마치고 CEO가 교체된 경우는 조흥투신 뿐이었음
 - 투신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투신권 CEO의 평균 임기는 2년 미만이었으며, 최근 2년 동안 30개 투신사 중 27개 투신사의 CEO가 교체되었음
- 투신 업계는 언제 해임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CEO들이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CEO 선임의 투명성 증대 및 객관적인 경영 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CEO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02년 8월 7일 수요일

○ 해외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일부 투자전문가

- 세계 증시의 침체와 환율 하락으로 해외펀드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지만, 장기 투자자의 경우 지금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적기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음
 - 세계 증시의 침체로 알리안츠의 동아시아블루칩주식 펀드는 -12.45%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티그룹의 시티가란트펀드도 현재 -2%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해외펀드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최근의 시장 폭락으로 미국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해외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이들은 지난 4월 이후 해외펀드의 수익률 악화를 가중시켰던 환율이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지금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적기라 주장하고 있음
-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해외펀드의 수익률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해외펀드에 투자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해외펀드 운용사의 수익률이 꾸준히 좋았는지를 따져볼 것과 투자 대상 국가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한 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여유 자금의 전부를 해외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여유 자금의 일부만을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를 결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

- 정부가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투신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투신 업계는 펀드의 투자 대상과 판매망이 확대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간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로까지 펀드 판매 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간접 상품을 접할 기회가 증가할 것이며, 사모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로 헤지펀드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투신 업계는 자산운용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로 자산 운용 시장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투신 업계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규제완화 방안은 펀드의 부동산 및 실물 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쉽지 않으며 매일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 투신 업계는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듯이 투자자들을 방문해 펀드를 판매할 경우 다른 판매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운용사의 이름을 자산운용사로 통일하는 규정에 대해, 투신운용사들은 30년 동안 쌓아온 투신운용사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동 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2002년 8월 8일 목요일

○ 비중이 낮은 장기 펀드

- 시장 상황에 민감한 투자자 및 투신운용사로 인해, 우리나라 펀드 산업의 경우 전체 펀드에서 장기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투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 (혼합형 포함)의 전체 설정액은 62조 871 억이지만, 설정된 지 2년 이상인 장기 펀드는 15조9,336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주식형 펀드의 26% 수준임
- 투신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 위주의 새로운 상품만 지향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펀드의 장기화가 달성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 함께 고객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단기 위주의 신상품 개발에만 집착하는 투신사의 행태도 펀드 장기화를 저해하는 원인임
- 투신 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투신운용사들이 시장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사 펀드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장기·대형화 펀드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수탁고가 감소하고 있는 장기저축 펀드

- 주식시장의 침체로 장기저축 펀드의 수탁고가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투신협회와 리퍼코리아에 따르면, 8월 5일 현재 장기증권저축의 수탁고는 2조 1,476억원으로 지난 3월 대비 1,344억원 감소하였음
- 투자자들은 최근 주식시장 폭락으로 장기저축 펀드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동 펀드의 환매를 증가시키고 있음

○ 트레이더로 변화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 주식시장 침체로 단기 차익을 통한 이익극대화 전략이 만연하면서 펀드매니저들이 트레이더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임
 - 펀드매니저들이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트레이드들에게 매매 주문을 내면, 트레이드들이 장 상황에 맞게 해당 종목을 매매하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음
 - 하지만 최근 들어 주식시장 침체로 펀드매니저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매주문 간격을 단기화함에 따라 이러한 업무 분담이 사라지고, 펀드매니저들이 트레이더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
- 펀드매니저들이 데이트레이더의 역할까지 함에 따라, 유망 종목 발굴을 위한 기업 방문이 감소하고 있음
 -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1,500개 이상이지만, 펀드매니저들의 기업 방문은 연 200회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단기 차익을 올리는데 집중하여 펀드매니저들은 본연의 임무인 기업 방문을 통한 유망 종목 발굴을 등한시하고 있음

♣ 2002년 8월 9일 금요일

○ 주식시장 도약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필요

- 최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투신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임
 - 각종 경제 지표상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악재로 인해 최근 국내 증시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13%로 미국의 1/4 수준임
 -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국내 경제 여건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에 따라 주식시장이 혼조를 보이고 있음
 -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상승 추세를 이끌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
-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시장 하락기에는 주식 매수를 통해 시장을 떠받칠 수 있어야 하며, 시장 상승기에는 상승 추세에 탄력을 주고 추세를 이끄는 역할을 하여야 함
 -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1987년 블랙먼데이를 비롯해 증시 폭락기에 적극적인 주식 매수를 통해 증시를 떠받쳤으며, 박스권에 머물던 다우 지수를 장기 상승 추세로 이끈 원동력도 기관투자자들이었음
 -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주식시장의 혼조를 막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증대가 필수적임
- 주식시장에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해 운용폭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 투자자 및 투신사의 인식 변화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확실적인 손절매 규정이 주식시장의 급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손절매 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 주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증가하고 있음
 - 투신운용사들도 시장 상황 및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 및 투자 행태의 변화가 필요함

○ 투자신탁 약관변경 공고

- 투자신탁협회는 MMF 투자신탁의 약관변경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투자신탁 약관변경을 공고하였음
 -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된 약관 시행일 등이 공시되었음

♣ 2002년 8월 10일 토요일

○ 펀드의 투자 현황 및 주총 활동 현황 공개를 요구한 노동계

- 회계부정 스캔들의 파문이 회계 법인 및 투자 은행에 이어 뮤추얼펀드로까지 번지고 있음
- 노동조합 연맹인 AFL-CIO는 뮤추얼펀드가 펀드의 투자 현황과 주주총회에서의 활동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가입 노동자가 1,300만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 연맹인 AFL-CIO는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연금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고 주장
 - AFL-CIO의 주장에 따르면, Fidelity의 경우 Enron사 기업연금 운용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Enron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Enron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하였음
 - 이러한 관행을 막고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펀드의 투자 현황과 주주총회에서의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AFL-CIO의 주장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펀드와 기업간 의견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계의 정보 공개 요구에 반대하고 있음

♣ 2002년 8월 12일 월요일

○ 합작 투신운용사 설립에 합의한 신한투신운용과 PAM

- 신한투신운용과 BNP 파리바 그룹은 오는 9월 합작 투신운용사인 신한-BNP 파리바 투신운용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음
 - 합작 투신운용사의 설립은 BNP 파리바의 자회사인 Paribas Asset Management (이하 PAM)가 신한투신운용 지분의 5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신한투신운용은 자본금 규모가 400억에 이르는 신한지주금융의 자회사이며, PAM은 운용 자산이 187조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임
 - BNP 파리바의 전문 인력들 상당수가 합작 법인에 투입될 예정이며, 2005년까지 국내 5대 투신사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펼칠 것이라 밝히고 있음
- 양 기업은 합작 투신운용사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신한투신운용은 선진 투자 기법 및 운용 기법의 도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PAM은 지점망 확충이나 인력 수급 등 비용 지출 없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음

♣ 2002년 8월 13일 화요일 (1)

○ 채권형 펀드 수익률 주식형 펀드 추월

- 최근 들어 주가는 하락한 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권형 펀드가 주식형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8월 9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1.33% 하락하였지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초 대비 0.63% 하락하였음
 -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주식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성장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2.79%를 기록하였지만 동 기간 동안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는 3.47%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동 기간 동안 안전성장형(주식 투자 비율 40~70%)의 평균 수익률은 3.27%를, 안정형(주식 투자 비율 40% 이하)의 수익률은 1.89%를 기록하였음
- 미국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의 침체로 주식형 펀드의 최근 수익률이 급락하였으며, 그 결과 채권형 펀드가 주식형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채권형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67%를 기록하였지만, 성장형 펀드의 경우 -17.66%, 안정성장형 펀드의 경우 -7.82%, 안정형 펀드의 경우 -4.06%를 기록하였음

○ 2년만에 신규 설립되는 자산운용사

- 이번 주내로 13번째 자산운용사가 신설될 것으로 보임
 - 신설될 자산운용사는 '알파 자산운용'으로 법인 설립은 마쳤으며, 현재 금감원 등록을 준비하고 있음
 - 알파 자산운용은 2000년 와이즈에셋 자산운용에 이어 2년만에 신설되는 자산운용사로, 자본금이 70억원이며 유리에셋 자산운용의 전 대표였던 박승덕씨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였음
- 알파 자산운용은 첫 상품으로 200억 규모의 사모 M&A 뮤추얼펀드를 설정할 계획이며, 파생상품을 이용한 펀드의 개발 및 운용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음
 - 알파 자산운용은 최근 코스닥에서 M&A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첫 상품으로 사모 M&A 뮤추얼펀드 설정을 계획하고 있음

♣ 2002년 8월 13일 화요일 [2]

○ 정부, 자산운용업법 제정 요강 발표

- 정부는 자산운용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산운용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 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자산운용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 위기 이후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대우 사태로 인해 자산운용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자산운용 산업으로의 자산 유입이 감소하고 있음
 - 자산운용 산업에 대한 감시 장치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규제 체제의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자산운용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산운용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공황 직후 자산운용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1940년 Investment Company Act 제정 후 자산운용 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으며 산업의 재도약도 가능했음
- 자산운용 산업 관련 규제는 4개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 자산운용 관련 업무에는 자산운용업법이 우선 적용됨
 - 현재 자산운용 산업 관련 내용들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에 개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고, 불특정 금전신탁 및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할 예정
 - 불특정 금전신탁 및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앞서 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
- 자산운용업법 제정 요강은 지난 6일 발표했던 자산운용 산업에 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새롭게 첨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탁형 펀드의 경우 수탁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회사형의 경우 펀드 감시를 위해 보관회사의 기능을 강화
 - 외부 감사를 모든 펀드로 확대하고, 외부 감사인의 선임권을 수탁회사에 부여하며, 수탁회사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외부 감사인의 업무를 한정
 - 투자신탁 설명서의 갱신을 의무화하고 신탁재산 운용 보고서의 제공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며, 수시 공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
 - 자산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재산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사가 동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신탁재산 평가를 하고 있는지 수탁회사 및 공인회계사 등이 점검하도록 할 계획
 - 부실 자산의 발생 사실을 수시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일 자산운용업자의 펀드에 편입된 동일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각율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
 - 불특정 금전신탁 및 변액보험의 경우 신탁재산과 고유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편출입을 제한하는 등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수탁 기능을 분리하도록 할 예정

♣ 2002년 8월 13일 화요일 [3]

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내용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 펀드의 투자 대상을 부동산, 실물자산,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 • 이해상충 우려 없는 경우, 계열사 보유 주식 거래 가능
펀드 판매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 및 선물회사의 펀드 판매 허용
펀드 설정 관련 규제 완화	•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 허용 • 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사모펀드 대상 기준 강화
펀드 환매 관련 규제 완화	• 환매 연기의 주체 투신사로 명시 • 환매 연기 조치 이후 진행 상황 수시 공시 의무화 • 환매 연기 사유 명확히 규정 • 부분 환매 제도 도입
펀드 감시 장치 강화	• 신탁형, 수탁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 운용사의 법령 이행 여부, 약관 및 투자설명서 내용 준수 여부 등 확인 - 수탁회사 법령 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 회사형, 보관회사의 기능 강화 - 보관회사에 신탁형의 수탁회사와 동일한 기능 부여
외부 감사 강화	• 외부 감사 대상 확대 • 외부 감사인의 선임권 수탁회사에 부여 • 외부감사인의 업무 한정
공시제도 개선	• 투자신탁 설명서 갱신 의무화 - 설명서 위반하여 운용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과 • 신탁재산 운용 보고서 제공 주기 단축(6개월 3개월) - 매매 회전율, 매매 거래 내역, 거래 수수료 관련 자료 포함 • 수시 공시 제도 도입 - 펀드 운용 관련 중요 사항 발생시 수시 공시
펀드 평가 제도 개선	• 신탁재산 평가에 관한 기준 마련 - 수탁회사 및 공인회계사, 운용사의 동 기준 준수 여부 점검 • 부실 자산에 대한 평가 - 동일 펀드에 편입된 동일 부실 자산에 대해 동일한 상각율 적용 - 신탁재산 운용 보고서에 편입된 부실 자산 및 상각율 등을 기재
은행·보험업과의 형평성	• 은행 및 보험사의 불특정 금전 신탁 및 변액 보험 판매 허용 - 신탁 재산과 고유 재산간 방화벽 구축 - 운용과 수탁 분리 • 불특정 금전 신탁의 대출 금지

-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을 확정된 후 올해 10월 말 개최되는 정기 국회에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 2002년 8월 14일 수요일 (1)

○ 채권형 펀드의 분류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한 한국펀드평가

- 투자신탁협회 및 투신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채권형 펀드에 대한 분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펀드 분류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펀드평가기관인 한국펀드평가는 13일 '채권펀드 분류에 대한 유용성 검토'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펀드 분류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였음
 - 선진국의 경우 펀드 내 보유 채권의 평균 만기에 따라 단기 및 장기로 펀드를 분류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채권형 펀드를 분류하고 있음
 - 채권형 펀드들은 자산 구성이나 수익률에 있어 차별화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므로, 펀드 유형 분류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였음
- 보고서에서 한국펀드평가는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채권형 펀드를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한국펀드평가는 먼저 90일, 180일, 1년으로 구분된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을 일원화할 것과 편입 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펀드 유형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음
 - 편입 채권들의 평균 잔존만기가 3년 이상인 펀드를 장기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펀드를 중기로, 그리고 1년 미만인 펀드 단기 채권형 펀드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편입 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채권형 펀드를 분류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신사들의 낙후된 투자 관행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1년 미만의 단기 채권만을 편입한 경우 채권형 펀드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거나, 3년 이상의 채권만을 편입한 경우 수익률이 급등락하므로 위험하다는 식의 낙후된 발상이 사라져야 함

♣ 2002년 8월 14일 수요일 [2]

○ 주식형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투신사들

- 최근 들어 주가가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지금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적기라는 분석이 증가하고 있음
 - 투신사들은 국내 경제 여건 등을 기초로 현재의 주가가 바닥 수준이며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내 주가 상승의 최대 변수가 미국 경제의 호전 여부지만,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회계부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금융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여 하반기부터는 미국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별 편입 종목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있어 가입 시기의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임
 - 투신사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바닥권인 현재가 가장 적기라 주장하면서 주식형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있음
- 투자 전문가들은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주식편입 비율을 조정하여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경우 주식 편입 비중이 낮은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
 - 또한 주식투자로 일정 부분 수익을 올리면 이를 바로 채권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확정하는 전환형 펀드도 주목할 만한 펀드로 권유하고 있음
 - 투자전문가들은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2002년 8월 16일 금요일 (1)

○ 펀드 직판을 요구하고 있는 투신 및 자산운용사

- 투신 및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운용사의 펀드 직접 판매를 허용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음
 - 지난 13일 투신 및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새로이 제정되는 자산운용법에 운용사들의 펀드 직판을 허용하는 조항을 첨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세계적으로 운용사의 펀드 직판이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만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자산운용법 개정 요강에는 투신 및 자산운용사들이 요구해 온 펀드 직판 문제가 제외되어 있음
- 투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및 증권사의 입장을 주로 반영함에 따라 투신 업계의 요구 사항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투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펀드 직판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1/4분기 동안 건전한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투신운용사들

- 침체된 주식시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들이 1/4분기 동안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감원에 따르면 1/4분기 투신운용사들의 세전 당기 순이익은 641억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35.2% 증가하였으며, 영업수익도 1,229억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8.9% 증가하였음
 - 1/4분기 동안 신설 운용사인 슈로더 투신운용을 제외한 29개 운용사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투신운용사들의 실적 호전은 평균 수탁고의 증가, 주식형 비중의 증가, 자문수수료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일부 운용사들, 기업에 자사주 매입 권유

- 운용사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권유하고 있음
 - 운용사들은 주주로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미래에셋 자산운용 및 대한투신운용 등은 자사가 설정한 펀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자사주 매입을 권고하였음
- 실적 호전으로 기업들의 현금 보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근처럼 주가 하락 압력이 증가할 때에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떠받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2002년 8월 16일 금요일 [2]

○ 시중 은행을 통한 펀드 판매 증가

- 올해 들어 채권형 펀드 및 MMF를 중심으로 시중 은행 창구를 통한 펀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식시장의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및 MMF로 유입되고 있음

주요 시중 은행 펀드 판매 현황

(단위: 억원, 잔액 기준)

은행	2001년 12월	2002년 8월 9일
국민	90,427	101,644
조흥	12,010	20,025
신한	8,698	14,479
하나	12,236	14,325
우리	3,260	8,689
외환	4,200	4,980

- 투신권 펀드에 대한 은행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들은 투자 위험 없이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2년 8월 17일 토요일

○ 거액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은행 PB

- 거액의 뭉치돈이 은행 Private Banking (이하 PB)으로 유입되고 있음
 - PB는 거액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자산 관리 상품으로, 자산의 투자 및 운용에서부터 세무 및 법률 상담에 이르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
 - 주식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거액의 자금이 은행 PB로 몰리고 있음
- 거액의 자산이 은행 PB로 몰림에 따라 은행들은 PB 전문 점포 개설을 늘리고 있음

♣ 2002년 8월 19일 월요일

○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채권단

-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단은 기업 가치의 하락을 막고 원할한 기업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하이닉스 채무 자문사인 도이체방크는 하이닉스 정상화를 위해 감자 또는 출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이닉스 채권단은 도이체방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부채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9천억원에 대한 출자 전환, CB 전환, 부채 탕감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채권단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충당금 범위 내에서 채무 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채권단은 채무 재조정과 함께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병행해 기업 정상화를 유도한 뒤,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매각 작업에 착수할 방침임
 - 채권단은 하이닉스에 대한 인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매각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임
- 채권단은 출자 전환에 앞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균등한 비율을 적용시켜 감자를 실시할 계획임

♣ 2002년 8월 20일 화요일

○ 1개 금융기관에 집중 예치되고 있는 정부 기금

- 기금운용평가단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 기금들이 기금 자산의 대부분을 해당 부처와 관련이 있는 1개 금융기관에 집중 예치하는 등 수익성을 무시하고 변칙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음
 - 기금운용평가단은 30여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부 기금들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건교부의 국민주택기금은 운용 자금 1조2,100억원 전액을 국민은행에,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은 전체 단기성 자금의 93%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을 우체국에 예치하였음
 - 국민주택기금의 지난 해 운용 수익률이 은행권의 평균 예금금리인 4.97%에도 못 미치는 4.67%를 기록하는 등 1개 금융기관 집중 예치는 기금의 낮은 수익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획예산처의 기금총괄과장은 1개 금융기관 집중 예치는 기금의 낮은 수익률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기금들이 연기금 투자권에 자산을 예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2002년 8월 21일 수요일 (1)

○ ETF 시장 9월 26일 경 개설

- 증권거래소는 ETF 시장을 9월 26일경에 개설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음
 - 증권거래소는 시험 운용이 끝나는 등 시장 개설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9월 26일 경에 ETF 시장이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음
 - ETF 시장은 8월말 개설 예정이었지만, ETF 시장 개설을 위한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정비 미비로 개설이 연기되어 왔음
 - 증권거래소는 9월 13일경 ETF 관련 규정의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하이닉스 편입 펀드의 환매를 요구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은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펀드를 즉각 환매해 줄 것과 하이닉스 채권 편입에 따라 발생한 펀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투신사들에 요구하였음
 - 각 지방별 신탁 대표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대투, 한투, 현투 및 대우증권 등을 방문하여,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와 손실의 보전을 요구하였음
 - 신탁은 투신권이 하이닉스 채권을 시가에 따라 사실상 0원으로 평가하여 환매를 거부하고 있지만, 채권액의 50%를 상각하고 남은 금액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은 투신권이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새마을 금고와의 형평성을 들어, 펀드의 즉각적인 환매와 손실의 일부 보전을 요구하고 있음
 - 신탁측은 과거 대우채 펀드를 어쩔 수 없이 재예치했던 것이며 펀드에 하이닉스 채권을 편입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올해 4월 부실채권이 편입되었던 새마을 금고의 펀드에 대해서는 투신권이 환매에 응하고 손실 보전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신탁에 대한 환매 거부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탁측은 다음 달 초까지 투신사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투신사의 해결 방안을 검토한 후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 신탁의 주장에 대해 투신권은 하이닉스 채권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환매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 투신권은 하이닉스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가 지났더라도 고객에게 환매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환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회사채를 매각하여야 하지만, 부실채권 시장이 없는 현 상황에서 환매를 위한 자금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금감원 역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투신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음
 - 투신권이 부실채권을 떠안거나 현물로 환매해주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므로 신탁의 환매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임

♣ 2002년 8월 21일 수요일 [2]

○ 월드컵 펀드 적립금을 축구 관련 공익 사업에 사용할 투신권

- 투신 업계는 월드컵 펀드 판매를 통해 적립한 기금을 축구 관련 공익 사업에 사용할 방침임
 - 투신권은 4월~6월 기간 동안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지원하며, '파이팅 코리아 펀드'라는 월드컵 펀드를 공동으로 판매하여 총 5,755억원을 모집하였음
 - '파이팅 코리아 펀드'의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을 만들었으며, 8월 현재 4억 5천만원의 축구 기금이 적립되었음
 - 투신권은 어린이 축구 교실 지원, 농어촌 지역에 축구용품 지원, 유소년 축구 발전 성금 기부 등 축구 관련 공익 사업에 상기 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임

○ 중소형주 전용 펀드에 4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신영투신운용을 투자기관으로 선정하고 신영투신운용의 중소형주 전용 펀드에 400억원을 투입하였음
 - 국민연금은 그 동안 신영, 현대, 서울 등 3개 투신사와 한가람, 메리츠 등 2개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투자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음
 - 국민연금은 5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신영투신운용을 투자기관으로 확정하고 4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음
- 신영투신운용은 향후 10여일 동안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할 예정임
 - 국민연금은 주가가 단기 저점이라고 판단될 때 투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것을 신영투신에 요구하였으며, 신영투신은 향후 10여일 동안 거래소에 상장된 우량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입할 계획임
 - 또한 투자금액의 20%인 80억원 한도에서 코스닥의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예정임
- 국민연금의 중소형주 전용 펀드 투자로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채권시장 지표수익률 토요 공시 폐지

- 24일부터 채권시장 지표수익률에 대한 토요일 공시가 사라짐
 - 증권업협회는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 자금 결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권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의 토요일 공시를 폐지한다고 밝혔음
 - 증권업협회는 최종 호가 수익률,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 등에 대한 토요일 공시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 증권업협회는 채권 실거래 내역, 전문 딜러에 의한 소액 채권 거래 등은 토요일 공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음

♣ 2002년 8월 22일 목요일 (1)

○ 펀드 분류 체계 변경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투신권

- 투신권은 지난 21일 펀드 분류 체계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펀드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음
 - 최근 펀드 분류 체계가 운용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토론회를 가졌음
 - 현행 규정은 주식 최고 편입비가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 펀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식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채권형과 동일하게 운용되어도 혼합형으로 분류되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임
 - 토론회에서는 채권혼합형의 분류 체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주식형 펀드의 주식 최저 편입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음
- 토론회에 참석한 투신사들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펀드 분류 체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신탁협회에 제출할 예정임 (자료: 머니투데이)

○ 9월 중순부터 변액연금보험 판매 개시

- 9월 중순부터 변액연금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변액보험 상품의 요율 검증을 받았으며, 현재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한 상태임
 - 삼성과 교보생명은 금감원 인가를 받는대로 9월 중순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임
 -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임
 - 신한생명은 현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요율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검증이 마무리되는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임
- 생명보험사들은 일단은 채권형을 위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차차 주식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삼성생명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CP나 CD에 투자하는 단기채권형, 그리고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의 3 종류 상품을 판매할 예정임
 - 교보생명 역시 채권형, 단기채권형, 혼합형을 판매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KOSPI에 연동되는 주식 인덱스형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신한생명의 경우 채권형과 혼합형의 두 종류를 준비하고 있음
 -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상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 상품 위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산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고 있음

♣ 2002년 8월 22일 목요일 (2)

○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 통신운용사의 시장 점유율

- 삼성, LG 통신 등 대기업 계열 통신운용사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투자신탁협회에 따르면, 7개 대기업 계열 통신운용사의 수탁고는 8월 17일 현재 54조7,590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이는 한투, 대투, 현투 등 3개 대형 투신사의 수탁고를 능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계열 투신의 수탁고가 3개 대형 투신사의 수탁고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임

주요투신사 수탁고 현황

(단위: 억원)

회사명	수탁고	회사명	수탁고
삼성투신	223,698	한국투신	174,941
제일투신	119,849	대한투신	171,957
LG투신	76,566	현대투신	171,125
동양투신	47,487	합계	518,029
한화투신	36,475		
동원투신	23,252		
SK투신	20,367		
합계	547,594		

자료: 투자신탁협회

- 투신권은 대우채 편입 파동과 공적 자금의 투입 등에 따른 대형 투신 3사의 기업 신인도 하락을 대기업 계열 통신운용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의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2000년 이전 3개 대형 투신사들의 수탁고는 각 사당 30조원에 육박하였으나, 대우채 파동과 공적 자금 투입 등을 겪으면서 현재 각 사당 17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한국펀드평가의 우재룡 대표 등은 주주권 행사 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대기업 계열 투신사로 시중 자금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02년 8월 23일 금요일 (1)

○ 굿모닝투신 매각 협상 사실상 결렬

- 굿모닝신한증권은 자회사인 굿모닝투신을 올림푸스캐피탈에 매각하려는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굿모닝신한증권은 올림푸스캐피탈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매각 협상을 하였으나, 올림푸스캐피탈이 처음 조건과 상이한 매각안을 제시하는 등 매각 조건이 맞지 않아 매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영국의 프루덴셜 UK, 얼라이언스캐피탈 등 인수 의사를 밝힌 3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새로이 선정할 예정임
- 올림푸스캐피탈은 금감원이 제시한 3년내 재매각 금지 조건과 미국 증시의 불안 등으로 인수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자 인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 증가세로 반전

- 8월 들어 답보 상태였던 투신사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음
 -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탁고는 8월 20일 현재 8월 초보다 336억원 증가한 9조1,341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뮤추얼펀드 수탁고도 8월 중순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8월 20일 현재 1조906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투신운용사들은 지금이 주식형 펀드 가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하면서,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주식형 펀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많은 운용사들은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1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정기 예금처럼 일정 금액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를 개발하고 있음

○ Vice Fund가 등장한 미국 펀드 시장

- 도박, 무기 제조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Vice Fund (이하 VF)가 미국에 등장하였음
 - 미국 텍사스 소재 자산운용사인 뮤추얼닷컴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VF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 VF는 도박장, 방산 업체, 담배 제조업체, 주류 제조업체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임
 - 뮤추얼닷컴은 1997년 6월부터 3년간 가상 운용해본 결과 VF가 52.96%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S&P 500 지수의 수익률 11.83%를 크게 상회하였다고 발표

♣ 2002년 8월 23일 금요일 (2)

○ 수익률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투기채 투자 펀드

-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하이일드펀드, CBO펀드 등이 최근 수익률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음
 -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는 8월 한달 동안 각각 -0.27%와 -0.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는 연초 1.4~2%의 월 수익률을 기록하였지만, 4월 이후 계속하여 음(-)의 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투신권은 기업의 부도율 증가와 주가 하락에 따른 공모 시장 침체를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전국 부도업체 수가 369개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부도가 증가하면서 펀드에 편입되어 있던 기업이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결국 편입 채권에 대한 상각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
 - 투기등급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목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허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신규 등록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
 - 일부 공모주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면서, 하이일드펀드 및 CBO펀드의 수익률 하락이 심화되고 있음
- 부도 위험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을 찾기 힘들고 코스닥시장의 급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기채 펀드의 수익률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8월 24일 토요일

○ 외국계 투신운용사 국내 진출 증가

-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의 국내 자산운용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영국 푸르덴셜그룹이 100% 출자한 PCA 투신운용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현재 본허가 신청을 준비 중임
 -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꼴투자신탁은 농협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피델리티도 투신사 설립을 통한 국내 자산운용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독일의 도이치방크가 설립한 도이치투신운용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 PCA 투신운용은 10월초에 금감원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설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외수펀드

-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투신사들이 설정한 외수 펀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외수펀드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펀드로, 국내 투신사가 설정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됨
 -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수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번 주 들어 한국투신이 설정한 외수펀드로 300억 가량이 추가로 유입되었으며, 대한투신의 외수펀드로 50억원이 유입되었음
- 외수펀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 한도가 설정된 종목을 제약 없이 매입할 수 있다는 점과 투자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이 적다는 점 등을 외수펀드를 선호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2002년 8월 26일 월요일

○ 구조조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한 하이닉스 채권단

- 도이체뱅크는 하이닉스에 대한 실사를 통해 부채 탕감과 비주력 기업의 매각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제출하였음
 - 도이체뱅크는 직접 출자나 CB 발행 등 출자 전환을 통해 3조7천억원에 이르는 무담보 채권의 절반인 1조8천억원~9천억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남은 부채에 대해서는 만기를 2~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미국의 유진 D램 반도체 공장의 매각을 우선 추진하되, 원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정부는 도이체뱅크가 제안한 구조조정안이 매각보다는 채무 재조정을 통한 기업 가치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보여 독자 생존 방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정부는 하이닉스의 해외 매각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채권단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도이체뱅크와의 조율을 통해 매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전면 수정할 예정임
 - 채권단은 23일로 예정된 채권단 회의를 9월초로 연기하고, 도이체뱅크가 마련한 구조조정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 하지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만들 수 있는 매각 방안이 제한적일 것이므로, 구조조정안의 확정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M&A 펀드

- 투자했던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사모 M&A 펀드들이 저조한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사모 M&A 펀드는 M&A를 목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적립된 자금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펀드로,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1년 5월 도입되었음
 - 첫 번째 사모 M&A 펀드인 거버너스 사모 M&A 펀드가 중앙디지텍의 경영권을 인수한 데 이어, 잇달아 설정된 사모 M&A 펀드들이 상장 및 등록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음
 - 1년이 지난 현재 중앙디지텍의 주가는 펀드의 주식 매수가 대비 38% 하락하였으며, 소프트뱅크코리아 사모 M&A 펀드가 투자한 코아 정보의 경우 주가가 주식 매수가 대비 67% 하락하였음
 - 투자했던 기업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사모 M&A 펀드의 수익률 역시 하락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사모 M&A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기업에서 투자 전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사모 M&A 펀드 수익률 저하의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2002년 8월 27일 화요일 [1]

○ 금리스왑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계약서 마련

- 투자신탁협회는 국민은행 및 서울은행과 공동으로 펀드의 금리스왑 거래시 사용될 수 있는 기본 계약서를 마련하였음
 - 지난해 초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펀드의 스왑 거래가 허용되었으나, 계약 당사자 규정 및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기준이 없어 법률적으로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돼왔음
 - 투신권과 스왑 은행 등은 국제스왑딜러협회 (이하 ISDA)의 표준 계약서에 따라 스왑 거래를 실시하여 왔으나, 국내 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
 - 국내 현실에 적합한 계약서를 마련할 목적으로, 투자신탁협회, 스왑 은행인 국민은행, 수탁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증권투자신탁의 스왑거래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거래계약서 내용에 대해 협의해 왔음
 - 투자신탁협회, 국민은행, 수탁은행은 ISDA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토대로, 국내 투신 제도에 맞게 보완하여 기본 계약서를 완성하였고 26일 이를 발표하였음
- 기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리스왑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는 모두 수탁회사가 아닌 개별 펀드로 귀속되며, 단 위탁회사의 위법이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의 경우 위탁회사가 손해를 부담함
 - 또한 금리스왑 거래시 펀드별로 동의서(conformation)를 작성할 필요 없이 거래 당사자인 투신운용사와 스왑 은행 간 하나의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도록 하였음
 - 국내 현실에 맞게, 하나의 펀드가 여러 개의 금융기관과 스왑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투자신탁협회는 기본 계약서가 거래대상을 국민은행으로 국한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충해가며 전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음

○ 주식시장 침체로 영업 실적이 악화된 투자자문사

-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4~6월 투자자문사들의 영업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금감원에 따르면, 61개 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 포함)들은 올해 1~3월 동안 27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4~6월 동안은 총 9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61개 자문사 중 21개사만이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40개사가 적자를 기록하였음
 - 자문사들의 영업 실적이 악화된 것은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것으로, 동 기간 동안 에셋 플러스가 36억원 그리고 우신이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문사가 높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2년 8월 27일 화요일 [2]

○ 온라인 법인 계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투신사들

- 기관투자자의 계좌를 도용한 델타정보통신 불법 주식매매 사건을 계기로 주요 투신사들이 온라인 법인 계좌를 폐쇄하고 있음
 - 지난 23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현대투신운용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1분 30초간 5차례의 주문을 통해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를 매수하였음
 - 법인 고객의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법인 계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사고의 재발 가능성은 높은 편임
 -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삼성투신, 대한투신 등은 기존에 있던 온라인 법인 계좌를 잠정 폐쇄하고 충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온라인을 통한 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음
- 대부분의 투신사들도 온라인 법인 계좌의 일부를 폐쇄하고 공인된 전자인증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를 통해서만 주식 매매를 할 예정이라 밝혔음
 - 한국투신은 모든 온라인 계좌를 폐쇄하기보다는 최근 사용 실적인 없는 온라인 계좌를 폐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메리츠, 신영, 동부 증권 등 전자인증시스템이 마련된 중소형 증권사들로 기관들의 매매주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 활발해지고 있는 투신권 인재 교육

- 투신운용사의 인적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
 - 최근 들어 외환 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투신운용사의 사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음
 - 한투운용은 최근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양성 과정과 일반직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대투운용은 연수 체계를 상시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고,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인력 양성을 시도하고 있음
- 투신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맞춰 직원들도 각 대학 부설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있음



♣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 펀드 직판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상충 증가

- 자산운용 통합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투신운용사, 전환증권사, 증권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투신권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자산운용 통합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을 목적으로 8월 30일 자산운용 통합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각 기관별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합리적인 방안의 수립보다는 밥그릇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임
 -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투신운용사의 펀드 직판 허용 여부로, 자산운용 통합법안에는 직판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신운용사의 펀드 직판은 금지되어 있으며, 대신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판매한 후 보수를 판매사와 운용사가 7대3 정도로 나누고 있음
- 펀드 직판 허용 문제에 대해 투신운용사와 증권사 특히 한투증권, 대투증권, 현투증권 등 전환 증권사의 이해상충이 증가하고 있음
 - 투신운용사들은 펀드 직판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다가 펀드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판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난 13일 개최된 회의에서도 운용사들은 펀드 직판을 허용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음
 - 투신운용사의 요구에 대해 증권사들은 투신운용사가 판매까지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워 펀드 직판 허용에 반대하고 있음
 - 특히, 판매수수료 의존 비율이 높은 전환 증권사의 경우 직판 허용은 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펀드 직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수수료에 대한 문제로 운용사측은 증권사에 판매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는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으로 자산운용 통합법안이 원칙을 준수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범위 내에서 어정쩡하게 타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자산운용 통합법안에 투신운용사의 펀드 직판을 허용하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시행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펀드 직판을 허용하는 대신 증권사에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자산운용 통합법안의 원칙이 준수되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양측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키는 어정쩡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

- 작년 7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종신보험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판매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메트라이프생명의 혼합형 상품이 가장 높은 34.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의 변액종신보험의 수익률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변액종신보험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상품 선택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에 따른 손익이 보험 가입자에 귀속되므로, 보험사별 변액보험 수익률을 비교하여 운영실적이 좋은 보험사를 선택할 것을 권유
 - 또한 재무상태가 우수한 보험사를 선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가입할 때의 시장 금리와 주가 동향을 판단해 채권형과 혼합형 중 유리한 상품에 가입할 것과 1년 동안 4회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금융 환경의 변화를 항상 주시할 것을 지적하고 있음

○ 굿모닝 투신운용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PCA

- 영국 푸르덴셜 계열의 Prudential Corporation Asia (이하 PCA)는 굿모닝 투신운용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PCA는 올림푸스 캐피탈과의 매각 협상이 결렬된 굿모닝 투신운용을 인수하기 위해 굿모닝 투신운용의 대주주인 굿모닝 신한 증권과 접촉하고 있음
 - 굿모닝 신한 증권에 따르면, PCA가 굿모닝 투신운용에 상당한 관심을 표하면서, 지분 100% 인수를 전제로 매각 대금으로 300억원 정도를 제안했음
- PCA는 국내 자산운용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법인 신설 혹은 국내 투신운용사 인수를 고려하고 있음
 - PCA는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PCA 투신운용을 설립하고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설립 예비 인가를 받은 상태임
 - PCA 투신운용은 10월까지 자본금 납입과 운용 인력이나 전산 설비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가를 반납해야 함
 - PCA는 최근 들어 PCA 투신운용 설립보다는 국내 투신운용 인수를 통한 국내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1)

○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정부와 증권사, 투신사

- 전윤철 경제 부총리는 30일 증권사 및 투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구하였음
 - 간담회에서 증권사 및 투신사 대표들은 증시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서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연기금의 투자 대상에 주식형 펀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와 함께 연기금에 대한 실적 평가 시스템을 중장기 평가로 바꾸어, 연기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음
- 간담회에서 전윤철 경제 부총리는 업계의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 투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음
 - 연기금 투자 풀의 투자 대상을 채권형과 혼합형 펀드 이외에 주식 편입 비율이 70% 이상인 순수주식형 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연기금에 대한 실적 평가 기간을 1년 이상의 장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따르는 뇌동 매매를 국내 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및 경기 전망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투자할 것을 당부하였음

○ 자산운용업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실시

- 30일 개최된 자산운용업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는 미비점 나열에만 그쳤으며,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임
 - 한국증권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산운용 통합법안에 대한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구할 목적으로 자산운용업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들은 자산운용 통합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였을 뿐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임
- 토론회에서는 운용사의 펀드 직판 문제를 비롯해 사모펀드 설정, 은행신탁 및 변액보험 관련 규제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음
 - 논란이 되고 있는 운용사의 펀드 직판 문제에 대해 증권사들은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하였음
 -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투자신탁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관을 위한 펀드인 사모 및 단독 펀드를 폐지하고 대신 일임형식의 펀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은행 및 보험사의 불특정금전신탁 및 변액보험 경영을 반대하였으며, 펀드 유형에 대해 명확한 분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2]

○ 펀드를 통한 불법적인 우회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발행한 CP를 중개한 증권사들을 적발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임
 -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발행한 CP를 중개해 투신 및 자산운용사의 사모 펀드에 편입시킨 사례를 적발하고, 이들 증권사를 검사국에 통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CP만을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계 대금업체가 발행한 CP를 중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임
- 금감원은 사모 펀드를 설정하고 펀드에 일본 대금업체 CP를 편입시킨 투신 및 자산운용사에 대해, 우회대출이 입증될 경우 징계를 고려하고 있음
 - 일부 투신사들이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수익자로 하는 사모 펀드를 설정하고, 동 펀드에 일본 대금업체 CP를 편입시키고 있음
 - 이들의 경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CP로 채워, 사실상 펀드가 대금업체들에 대한 자금 조달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임
 - 금감원은 일본 대금업체 CP를 다수 편입시킬 경우 펀드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익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관행을 엄중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임
 - 수익자가 다수이거나 펀드내 대금업체의 CP외에 다른 자산을 혼합해 편입한 경우, 우회대출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투신사 검사과정에서 우회대출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운용사를 징계할 방침임



9월

September

10대 주요 기사

1. 금감원의 기관증거금 징구 방침에 투신권 반발
(2일)
2. 약정 수익률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증권사
배상 판결 (4일)
3. 투신운용사 펀드 177조원 불법 자전거래
(13일)
4. 현투증권 '적기 시정조치' 유예 5개월 연장
(18일)
5. 대우채 보상 펀드 관련 현투증권과 새마을금고 마찰
(18일)
6. 증안기금의 출자 주식 ETF 증권으로 전환 건의
(19일)
7. KT, 펀드 편법 조성으로 공모가 떠받치기 논란
(23일)
8. 대형 기관의 펀드수수료 자니친 인하 요구 지적
(23일)
9. 투신권 단독 펀드 남발
(24일)
10.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 급감
(30일)

◆ 9월 목차 (9/1-9/10)

9/1 [일]	
9/2 [월]	○ 금감원의 기관증거금 징구 방침에 투신권 반발 ○ 투신협회의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제도 활성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투신업계
9/3 [화]	○ 내년까지 투신운용사를 세울 것이라고 밝힌 피델리티 신임 사장 에반 헤일 ○ 보험사도 펀드 상품 판매 ○ MSCI 인덱스 펀드 출시
9/4 [수]	○ 노동부 거액 펀드 환매 ○ 약정 수익률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증권사 배상 판결 ○ 적립식 펀드 잇따라 출시
9/5 [목]	○ '수재민돕기 펀드'를 만들 계획인 투신협회 ○ 농협, 프랑스 은행과 투신사 설립
9/6 [금]	○ 9월 26일 삼성투신의 상장지수펀드 상품 거래소 상장
9/7 [토]	○ 상장지수펀드의 출시로 증시에 활력 기대
9/8 [일]	
9/9 [월]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투자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 전액 손금 산입 추가 건의 ○ LG투신운용,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하여 SSgA와 투자자문 계약 체결
9/10 [화]	○ 헤지펀드 국내 도입 논란 ○ 농협,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 은행과 투신운용사 설립 본계약 체결 ○ 상장·등록사 여윌돈 MMF로 몰린다

◆ 9월 목차 (9/11-9/20)

9/11 [수]	○ 일부 투신운용사 감자 추진 ○ 상장지수펀드의 상장일이 10월로 연기 ○ 시스템펀드 도입의 증가로 펀드매니저 역할 감소
9/12 [목]	○ 투자자에게 펀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교보증권 ○ 만기가 짧아진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9/13 [금]	○ 투신운용사 펀드 177조원 불법 자전거래
9/14 [토]	○ PCA의 굿모닝투신운용 인수 여부 9월 16일 결정
9/15 [일]	
9/16 [월]	○ 실적이 저조한 해외펀드
9/17 [화]	○ 상장지수펀드 10월 14일경 상장 기대 ○ 변액연금보험 상품 최초 금감원 인가 ○ 굿모닝투신, PCA에 매각
9/18 [수]	○ 외국계 투신사 국내 투신 시장 점유율 확대 급물살 ○ 다우인터넷, 펀드평가사 신규 지정 ○ 대우채 보상 펀드 관련 현투증권과 새마을금고 마찰 ○ 현투증권 '적기시정' 유예 5개월 연장
9/19 [목]	○ SK증권, 신탁재산 자료 공개 요청서 법원에 제출 ○ 채권형 펀드 수익률 저조 ○ 증안기금의 출자 주식 ETF 증권으로 전환 건의 ○ 한투 및 대투, 공적자금 1,800억원 신탁형 저축상품 손실 보전 위해 허비
9/20 [금]	추 석 연 휴

◆ 9월 목차 (9/21-9/30)

9/21 [토]	추 석
9/22 [일]	
9/23 [월]	○ KT, 펀드 편법 조성으로 공모가 떠받치기 논란 ○ 정통부, 민관 합동 IT 펀드 조성 계획 ○ 대형기관의 펀드수수료 지나친 인하 요구 지적
9/24 [화]	○ 투신권 단독펀드 남발 ○ 폐쇄형 증권투자회사 투자 정보 빈약 ○ 신한투신, BNP 파riba에 지분 매각 ○ 금감위, 전환증권사 인센티브 부여 검토
9/25 [수]	○ '김정태 펀드' 1년 만에 40% 수익
9/26 [목]	○ 대한생명 인수로 한화투신 수탁고 증가 기대 ○ KAMCO, 투신사 부실채권 매입 추진
9/27 [금]	○ 상장지수펀드 편입 대형주 매수기반 증대 기대 ○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 투신운용사로 전환 준비 끝
9/28 [토]	○ 국민연금 내년 4조원 주식 투자 ○ 선박펀드운용사 첫 탄생
9/29 [일]	
9/30 [월]	○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 급감

♣ 2002년 9월 2일 월요일 (1)

○ 금감원의 기관증거금 징구 방침에 투신권 반발

- 금감원은 최근 대우증권 계좌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증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증거금을 차등화하여 일정률의 증거금을 징구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금감원은 기관투자자들의 증거금 차등화 적용에 필요한 신용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신용등급에 대한 결정은 각 증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음
 - 아울러 증거금 기준을 수량으로 할 것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신용 거래금액의 40%까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증거금 납부 규정이 없어 무한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 투신운용사들은 증거금을 징구하게 되면 각 사별 일괄매매시 펀드별 증거금 징구 문제와 수탁회사와의 연계 문제 등이 발생해 펀드 관리가 복잡해진다고 불만을 토로
 - 현재 투신운용사들은 펀드별로 수탁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주문을 낼 때마다 수탁 회사에 전화해서 매매자금을 거래 증권사로 이체해야 함
 - 투신사 관계자는 한 투신사가 만약 40개 증권사와 거래한다면 수탁회사를 통해 아침마다 거래 증권사 지점에 자금을 입금하고 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장이 끝나면 다시 출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고 언급
 - 펀드별 증거금을 수탁회사로 이체시 하루에 전화 통화만 수백통을 해야 하는 등 비용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임
 - 투신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기관증거금 징구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간을 갖고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음

♣ 2002년 9월 2일 월요일 (2)

○ 투신협회의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제도 활성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투신업계

- 투신협회는 7월 27일 투자신탁 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배타적 상품 권한 행사 기간을 기존의 1, 3, 6개월에서 2, 4, 6개월로 확대하는 등 내부 규정을 일부 수정했음
 - 이에 따라 독창적인 상품 개발로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을 획득하고도 권한 행사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홍보 및 영업을 못해 왔던 투신사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 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 획득에 대한 투신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그러나 투신사들은 협회의 이 같은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삼성투신의 경우 지난 1월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을 취득한 '삼성실버베스트혼합형펀드'의 판매를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 중에 있으며, 이후 더 이상 우선 상품 판매권 획득을 위한 후속 상품 개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LG투신의 경우 지난 1월 배타적 우선 상품 판매권을 획득한 'LG매크로시스템혼합형펀드'를 10월부터 판매할 계획이지만 역시 우선 판매권 부여기간이 훨씬 지나 의미 자체가 무색한 실정임
 - 투신권 관계자는 우선 상품 판매권 부여로 회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점은 상당히 공감하지만 시장 상황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상품 판매가 지연될 경우 우선 판매권 획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언급

♣ 2002년 9월 3일 화요일

○ 내년까지 투신운용사를 세울 것이라고 밝힌 피델리티 신임 사장 에반 헤일

-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의 새로운 한국 사장으로 선임된 에반 헤일씨는 내년까지 국내에 피델리티의 이름으로 투신운용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헤일씨는 한국은 아직도 많은 금융자산이 은행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투신시장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투신사 설립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해외 투자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
 - 그는 투신운용사 설립 전 단계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영업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사를 연내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사도 펀드 상품 판매

- 재경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앞으로 보험회사 창구에서도 수익증권 등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보험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금융회사간의 판매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고하고 실적 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라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 재경부는 다만 지나친 판매 경쟁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 지켜야 할 판매 행위 준칙을 마련키로 했다고 언급
 - 판매 행위 준칙에는 원금보장 행위 금지,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실적상품을 판매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와 관련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MSCI 인덱스 펀드 출시

- 국내 최초로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 지수를 이용한 인덱스 펀드가 나왔음
 - 굿모닝투신운용은 MSCI 코리아 지수를 벤치마킹 지수로 삼은 인덱스 펀드를 9월 4일부터 농협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 판매회사인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신탁증권은 이번 주 내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임
 - 이번에 내놓은 펀드 상품은 주식에 50%, 채권에 50%를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로 3개월 뒤부터는 환매수수료가 없음

♣ 2002년 9월 4일 수요일 (1)

○ 노동부 거액 펀드 환매

-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해 3/4분기 투신사에 위탁 운용한 자금이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1,900억원, 산재보험기금에서 1,700억원씩 총 3,600억원을 환매했다고 밝혔음
- 그는 주식 편입비율은 10%로 실제 주식 환매분은 360억원에 불과하며, 9월 6일 쯤 운용 실적이 좋은 투신사를 중심으로 재가입할 방침이라고 언급
- 아울러 9월 중에 고용보험기금 100억원, 산재보험기금 2,000억원 등 총 2,200억원이 추가 만기 도래함에 따라 이 역시 환매 후 재가입할 방침이라고 언급
- 노동부측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혼합형 펀드 혹은 주식형 펀드로의 투자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약정 수익률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증권사 배상 판결

- 증권사 직원의 수익률 보장 약정 행위가 법률상 무효지만 그런 약정 행위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가 났다면 증권사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 서울지법은 9월 3일 연 9.6%의 최저 금리를 보장한다는 말만 듣고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S새마을금고가 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 S새마을금고는 99년 6월 S증권 직원인 이 모씨와 홍 모씨로부터 연간 최저 9.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수익률 보장 약정을 받고 6억원을 예탁했으나, 1년 뒤 약 1억8,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었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뮤추얼펀드 통장에 피고회사 직원들이 서명날인하고 피고 지점장의 기명날인까지 한 행위는 고객에게 많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언급
-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음
- 원고도 수익률 보장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법률적 허용성 여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펀드에 가입하고 예탁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회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
-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소송에선 증권사측이 구두나 각서로 수익률을 보장하더라도 법원은 수익률 보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대부분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음
-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증권사의 불법 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증권사에 배상 책임을 지운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9월 4일 수요일 (2)

○ 적립식 펀드 잇따라 출시

- 은행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여러 해 동안 적립하면 투신사가 운용한 뒤 수익을 돌려주는 적립식 펀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음
 - 현투증권의 경우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BK나폴레옹', 'BK흑진주', '현대인덱스', '세이프가드' 등 주식형 상품과 '뉴패러다임' 채권형 상품 가운데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적립식 펀드 상품인 '드림★투자적금펀드'를 발매할 예정임
 - 삼성투신운용의 경우 9월 중순쯤 총 7개 펀드를 대상으로 고객 취향에 맞게 펀드에 적립할 수 있는 펀드인 '라이프케어펀드'를 발매할 예정임
- 투신사 관계자는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소액으로 펀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적립식 펀드의 인기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여 투신사들이 이 같은 상품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9월 5일 목요일

○ '수재민 돕기 펀드'를 만들 계획인 투신협회

- 투신협회는 9월 4일 투신사들이 공동으로 수재민 지원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투신협회는 9월 4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운용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펀드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투신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재민 돕기 펀드가 설정된 사례가 있다며 펀드 설정시 투신사가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수해 복구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투신사들이 특별 펀드를 설정하면 투신사들의 운용 수수료 중 일부분을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적립해 이 범위에서 지원하게 됨
 - 투신사들은 수재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원사별로 다각적인 모금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음

○ 농협, 프랑스 은행과 투신사 설립

- 농협이 프랑스 최대 은행인 크레디아그리콜앵도수에즈 (이하 CAA)와 합작 투신운용사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농협 관계자는 농협-크레디아그리콜투신운용 (가칭)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9월 9일쯤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로써 농협은 지난 4월 CAA와 양해각서 (MOU)를 교환한 후 5개월만에 본계약을 체결해 합작사 설립을 한 단계 진척시키게 됐다
 - 농협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 준비가 거의 완료돼, 본 계약 후 금감원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법인 설립을 서둘러 11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 농협은 신설 투신사 설립의 자본금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정했음
 -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경영권과 지분문제는 농협중앙회가 지분 60%를 보유하지만 경영권은 CAA가 행사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표이사는 CAA측에서 선임된 외국인 자산운용업계 전문가가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 농협은 총 80조원에 달하는 전체 운용자산 중 2~3조원 가량만 맡길 계획임

♣ 2002년 9월 6일 금요일

○ 9월 26일 삼성투신의 상장지수펀드 상품 거래소 상장

- 삼성투신운용은 KOSPI200 지수와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개방형 펀드인 상장지수펀드 (ETF)를 'Kodex200'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9월 26일 거래소에 상장시키기로 확정했음
- Kodex200의 한 주 가격은 KOSPI200 지수에 100을 곱한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최근처럼 KOSPI200 지수가 90 정도라면 1주의 가격은 9,000원이 됨
- 따라서, 거래소 최소 거래단위가 10주이므로 개인 소액투자자들도 90,000원 정도면 상장지수펀드 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삼성투신운용은 상장 초기에 지정판매사인 삼성증권, 한국투신증권, 굿모닝 신한증권, SSB, CSFB, 도이체증권 창구에서 일반 공모 방식으로 상장지수펀드를 설정함
- 지정판매사들은 자체로 총 1,500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을 예정임
- Kodex200 상품 특징

구 분	내 용
벤치마크	KOSPI200
운용 목적	KOSPI200 지수의 정확한 추정
배 당	분기별로 배당
추정 순자산가치	거래소가 10초 단위로 산출 공표
최소 거래단위	10주

♣ 2002년 9월 7일 토요일

○ 상장지수펀드의 출시로 증시에 활력 기대

- 오는 9월 26일 상장되는 4개의 상장지수펀드의 출시로 인해 최근 지지부진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상장지수펀드는 투신사별로 지정판매사가 정해져 있어 이들 증권사가 상장에 앞서 상장지수펀드 구성 종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들여 이를 투신사에 넘겨야 함
 - 투신사별 상장지수펀드 설정 규모는 삼성투신운용과 LG투신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경우 각각 2,500억원씩, 한국투신운용과 제일투신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경우 각각 500억원씩으로 총 6,000억원임
 - 9월 26일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시가총액 비율만큼 주식을 사들여야 하며, 투신사별 전체 상장지수펀드 설정 금액만큼 신규 수요 기반이 생기게 됨
 - 다만 지정판매사에서 기존에 보유할 물량을 상장지수펀드에 편입할 경우 매수 기반은 편입한 물량만큼 줄어들게 됨
 - 중장기적으로 상장지수펀드가 활성화될수록 대형주의 매수기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9월 26일 상장될 회사별 상장지수펀드 상품 특징

운용사명	상품명	지정판매사	설정규모	추종 지수	편입 종목수
삼성투신	KODEX200	삼성, 한국투신, 굿모닝신한, SSB, CSFB, 도이치증권	2,500억원	KOSPI200 지수	시가총액 상위 110개 종목
LG투신	KOSEF200	LG, 대우, 현대, 대신, 동원, 동양, 제일투자, 한화, 하나, 브릿지증권	2,500억원	KOSPI200 지수	시가총액 상위 120개 종목
한국투신	KODEX50	한투, 삼성, 굿모닝신한, 도이치증권	500억원	KOSPI50 지수	코스피 구성 50개 종목
제일투신	KOSEF50	LG, 현대, 대우, 대신, 동원, 제일, 동양, 한화, 하나증권	500억원	KOSPI50 지수	코스피 구성 50개 종목

♣ 2002년 9월 9일 월요일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투자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 전액 손금 산입 추가 건의

- 자산운용사들은 그 동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투자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금액을 전액 손금 산입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액 전부를 손금 산입하는 것이 가능함
 - 하지만, 동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동일한 금융상품인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전액 손금 인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수익의 50%만 손금 산입이 가능함
 -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고유 목적 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지칭
- 현행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의 투자 수익 전액 손금 산입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수익증권의 분배금 등임
 - 아울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등도 손금 산입 포함 대상임
-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증권투자회사가 기본적으로 수익증권과 같은 금융상품이지만, 수익증권에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 추가 주목됨

○ LG투신운용,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하여 SSgA와 투자자문 계약 체결

- LG투신운용은 오는 9월 26일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상장을 앞두고 운용자문사인 SSgA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SSgA사는 세계 최초로 ETF를 개발한 회사로 현재 미국 최대의 ETF인 'SPDR'와 홍콩 'TraHK'를 포함해 전세계 ETF의 33%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덱스 펀드 전문회사임
 - LG투신운용은 이번 자문 계약의 의미는 선진 운용 기법의 습득으로 안정적 운용 기반을 확충하고, 향후 홍콩,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에 교차 상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 SSgA사는 우선 ETF의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하여 LG투신운용에 적극 협조키로 하는 한편, 펀드 운용과 관련해 포트폴리오 조정 및 매일 공시되는 투자 바스켓의 구성 등에 관하여 자문할 방침임

♣ 2002년 9월 10일 화요일 (1)

○ 헤지펀드 국내 도입 논란

- 세계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오르내림과 관계없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음
-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헤지펀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 시장 전문가는 헤지펀드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투자 대상을 헤지펀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아시아와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막대한 손해를 보고 금융시장을 교란했던 조지 소로스의 퀴텀펀드 등은 특정시장의 한쪽 방향으로만 투자하는 펀드로 전체 헤지펀드의 5% 미만임
 - 나머지 95%의 헤지펀드는 시장의 오르내림에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말그대로 헤지 (위험 회피) 펀드라는 것임
 - 특히 재원이 고갈되고 있는 연기금이 해외 헤지펀드를 적절히 이용하면 적당한 위험으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임
- 그러나 헤지펀드가 안전한 상품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의 시각도 많음
 - 한 시장 관계자는 예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펀드매니저의 기법이 먹혀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다고 언급
 - 미국의 경우 최근 헤지펀드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투신협회 관계자는 헤지펀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임

○ 농협,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 은행과 투신운용사 설립 본계약 체결

- 농협중앙회는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 은행과 9월 9일 합작 투신운용사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2002년 9월 10일 화요일 [2]

○ 상장·등록사 여윳돈 MMF로 몰린다

- 상장·등록사의 여윳자금이 투신사 초단기 상품인 MMF로 몰리고 있음
 -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 LG, SK 등 3개 대그룹 계열 상장·등록사들이 8월 이후 지난 9월 6일까지 계열 투신운용사의 MMF에 맡긴 자금은 총 8,942억원에 이릅니다
 -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계열 투신사가 없어 비계열 투신사에 맡긴 상장·등록기업의 자금까지 포함할 경우 8월 이후 2조원 이상의 기업 여윳자금이 MMF로 몰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올 8월 이후 계열 투신사와 MMF 거래한 상장·등록사 (자료: 금감원)

투신운용사	기업
삼성	삼성전자,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코닝, 삼성종합화학
LG	LG건설, LG상사, LG생명, LG화학, LGEI, LG텔레콤, LG마이크론, LG홈쇼핑, LG애드
SK	(주)SK, SK건설

-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이 감소해 기업 내부 유동자금이 증가했음
 - 상장사들은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와 증시 침체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사의 증가된 내부 유동자금을 장기 상품보다 단기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9월 11일 수요일

○ 일부 투신운용사 감자 추진

- 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인 일부 투신운용사들이 투신운용사 설립 최저 자본금인 100억원 수준으로 감자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00년 1월 22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개정 이후, 투신운용사 설립 최저 자본금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음
 - 국내 30개 투신운용사 가운데 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1,500억원인 현투운을 비롯하여 삼성 (932억원), 대한 (450억원), 한국투신운용 (450억원) 등 22개사임
-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무분별한 감자가 투신운용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 감자는 불허한다는 방침임
 - 다만 투신운용사별 소송 및 합병 발생 상황, 재무건전성 등 투신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감자를 선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상장지수펀드의 상장일이 10월로 연기

- 대규모 주식 매입 수요가 기대됐던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상장일이 당초 9월 26일에서 오는 10월 7일이나 동월 10일로 연기됐음
 - 9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부처간 조율 미숙으로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음
 - 이에 따라 9월 13일 금감위에서의 감독규정 통과 일정도 9월 27일 이후로 연기되어, 당초 9월 말에 예정됐던 ETF 상품의 출시일이 미뤄지게 됐음
 - 증권거래소는 9월 10일 펀드운용사와 지정판매사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상장 일정을 오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의 시행령 통과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종 결정키로 했음

○ 시스템펀드 도입의 증가로 펀드매니저 역할 감소

- 최근 투신업계에서는 펀드매니저들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스템적인 운용기법을 도입한 펀드들의 도입이 증가되고 있음
 - 이는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른 주식 투자보다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성과측면이나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투신사들의 판단에 따른 것임
 - SK투신운용이 최근 내놓은 'OK트렌드팔로잉펀드'의 경우 KOSPI200 종목에 분산투자하되 전체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펀드의 일정 비율만큼 주식을 사고, 하향 돌파하면 펀드의 일정 비율만큼 주식을 팔도록 시스템화된 펀드임
 - 한투운용이 10월 초 출시할 '델타플러스 안정형 펀드'의 경우도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짐
- 과거 종목 구성과 매매타이밍에서 전권을 행사해왔던 펀드매니저들이 이 같은 시스템펀드의 등장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 2002년 9월 12일 목요일

○ 투자자에게 펀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교보증권

- 교보증권은 지난 9월 10일부터 투자자에게 펀드 관리 시스템인 '펀드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음
 - 교보증권측은 이 시스템에는 기존 펀드 관리 시스템의 펀드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고객 관리, 자산 관리, 펀드 리서치 기능까지 포함돼 있음
 - 교보증권의 영업직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아침 자산운용사 및 펀드평가사인 '모닝스타'로부터 펀드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개별 펀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자들이 요구할 경우 언제나 펀드 관련 정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
 - 교보증권측에 의하면 '펀드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신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임

○ 만기가 짧아진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 금감원이 9월 11일 박병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단기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식형 펀드의 경우 2000년 6월 만기 3개월 이하 단기 펀드가 전체 주식형 펀드의 3.8%에 불과했지만, 2001년 6월에는 38.9%, 2002년 6월에는 52.2%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만기가 1년을 넘는 장기 주식형 펀드 상품의 비중은 2000년 51.4%에서 올해 6월 현재 21.2%로 급감했음
 - 혼합형 펀드의 경우도 만기 3개월 이하의 단기 상품 비중이 2000년 6월 17.5%에서 올해 6월에는 22.2%로 증가했음
 - 여기에서 만기의 정확한 개념은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을 의미함
 - 일반 투자자들은 이 환매수수료 면제 시점을 펀드 만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업계에서는 만기 시점을 환매수수료 면제 시점으로 간주함
- 한 펀드 관계자는 펀드 만기가 단기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도 단타 거래를 많이 하는데 기인한다고 언급
 - 아울러 지난 1999년과 2000년 사이 펀드 열풍이 불 때만 해도 만기가 1년인 펀드가 많았지만, 그 뒤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동안 환매를 못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요구로 펀드 만기가 짧아졌다고 설명
 - 무엇보다 장기 투자를 유도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투신사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아쉬움을 토로했음

♣ 2002년 9월 13일 금요일

○ 투신운용사 펀드 177조원 불법 자전거래

- 투신운용사들이 수익률 관리 등을 위해 펀드끼리 불법으로 자전거래한 규모가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77조5,9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9월 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신운용사의 펀드간 불법 자전거래는 지난 2000년 142조9,051억원, 지난 해 33조8,244억원, 올해 들어 8월까지 8,234억원 규모임
 - 이 가운데 감독규정대로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거래한 채권 자전거래가 84조1,031억원이며, 가중평균회계적 수익률에 근접하지 않은 채권의 자전거래가 93조4,962억원임
 - 투신운용사들이 이렇듯 펀드간 불법 자전거래를 하는 것은 주로 특정 펀드에 대한 배려를 위해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9월 14일 토요일

○ PCA의 굿모닝투신운용 인수 여부 9월 16일 결정

- 영국 푸르덴셜 계열의 PCA (Purdencial Corpoation Asia)가 굿모닝투신운용을 인수할지 여부가 오는 9월 16일 결정됨
 - 9월 13일 PCA는 굿모닝투신운용의 실사를 마쳤으며, 굿모닝투신운용의 대주주인 굿모닝신한증권과 매각 가격뿐만 아니라 직원 고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짐
 -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협의는 마쳤으며, 인수 조건을 비롯한 세부 쟁점에 대한 협상만 남겨 놓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9월 16일 월요일

○ 실적이 저조한 해외펀드

- 최근 펀드 평가업체인 모닝스타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템플턴, 피델리티 등이 운용하는 유명 해외펀드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9월 15일 현재 모닝스타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주요 해외펀드 1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이 -5.6%로 나타났다
 - 연초 대비로 평가하자면 수익률이 -10.56%로 펀드 성과가 더욱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음
 - 조사 대상 펀드 중 38% (44개)만이 지난 1년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수익률이 10% 이상인 곳은 10개의 펀드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반해 국내 펀드의 경우는 지난 1년간 평균 25.98%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냈던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시장에 투자한 해외펀드의 경우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으나, 반면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해외펀드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음
 - 9월 15일 현재 과거 1년간 해외펀드 수익률 표 (자료: 모닝스타코리아)

수익률이 낮은 해외펀드			순위	수익률이 높은 해외펀드		
운용사	펀드명	수익률 (%)		운용사	펀드명	수익률 (%)
UBS	주식형-통신	-32.11	1	메릴린치	이머징유럽	22.85
슈로더	글로벌 테크놀러지	-30.87	2	피델리티	태국	19.25
피델리티	통신주	-30.86	3	메릴린치	이머징마켓	18.89
푸르메리카	미국 공격적 성장	-30.08	4	슈로더	아시안채권	16.82
피델리티	테크놀러지	-29.28	5	피델리티	동남아	14.63
UBS	주식형-환경산업	-25.71	6	슈로더	이머징마켓채권	13.70
슈로더	미국주식	-25.53	7	템플턴	템플턴차이나	13.41
피델리티	독일	-25.37	8	템플턴	이머징마켓본드	12.47
푸르메리카	미국프리미어주식형성장	-23.11	9	푸르메리카	이머징마켓고정수익	11.62
메릴린치	유럽오퍼츄니티	22.09	10	템플턴	아시안그로스	11.52

♣ 2002년 9월 17일 화요일

○ 상장지수펀드 10월 14일경 상장 기대

- 연기된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의 상장이 10월 14일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 지난 9월 1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
 - 따라서, 통과한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과 법제처 공포를 거친 후, 9월 27일경 금감위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음
 - 9월 27일 관련 규정에 대한 금감위 승인을 받게 되면 ETF의 상장 일자가 최종 확정되겠지만, 거래소 관계자는 아마도 10월 14일경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 금감원의 변액연금보험 상품 최초 인가

- 금감원은 교보생명보험이 신고한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9월 13일자로 수리하였음
 - 이로서 2001년 7월 변액종신보험의 도입 이후 업계 최초로 교보생명에서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음
 - 변액연금보험은 영업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 보험료 및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을 보험 계약자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임
 - 일반 보험 상품과는 달리 보험회사가 투자를 잘 할 경우 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 계약자는 투자 손실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품임
- 교보생명에서 신고 수리된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실적 배당상품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임
 - 따라서 투자 실적에 관계없이 연금 지급 개시 전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음
 - 아울러 보험회사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연금 지급 자원 (연금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최소 연금 지급이 가능한 구조의 상품이 되도록 했음
 - 하지만 이미 도입된 변액종신보험과 같이 해약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장은 없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품임

○ 굿모닝투신, PCA에 매각

- 굿모닝신한증권은 9월 16일 영국 프루덴셜 그룹의 자회사인 PCA (Prudential Corporation Asia holdings)에게 굿모닝투신운용 지분 100%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 총 매각대금은 250억원이며, 향후 굿모닝투신 실적에 따라 매각대금이 추가되는 조건이 덧붙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 PCA는 금감위 승인 이후 굿모닝투신의 이름을 'PCA투신운용'으로 개명하기로 했음
 - PCA의 총책임자인 마크터커는 굿모닝투신 인수는 PCA생명보험과 함께 한국에서 소매금융 서비스업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의 하나라고 언급

♣ 2002년 9월 18일 수요일 (1)

○ 외국계 투신사 국내 투신 시장 점유율 확대 급물살

- 투신업계에 따르면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국계 투신사의 수탁고는 8월 27일 현재 10조9,836억원으로 전체 투신 수탁고의 6.6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음
 - 이는 1년 전보다 6조2,396억원 만큼 늘어난 수치이며,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신사 자본 참여 비중도 2.98%에서 3.65%로 높아졌음
 - 아울러 최근 굿모닝투신이 영국계 금융그룹인 PCA에 매각됐으며, 프랑스계 BNP 파riba 금융그룹이 조만간 신한투신의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내 투신 시장의 외국계 투신사 시장 확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외국계 투신사의 수탁고가 급증한 것은 최근 영국의 슈로더투신과 독일의 도이체자산 운용이 한국에 투신운용사를 설립했으며, 모건스탠리 계열의 펀드 등이 국내 투신운용사를 매수하는 등 외국계 투신사가 국내 시장에 적극 진출한데 따른 것임
 - 반면, 대우그룹 등의 대규모 부실 사태로 펀드들의 운용 수익률이 저하되어 국내 투신사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도 외국계 투신사의 국내 투신 시장 확대 진출의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됨

○ 다우인터넛, 펀드평가사 신규 지정

- 투신협회는 9월 17일 다우인터넛을 투자신탁 평가전문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음
 - 기존 지정회사는 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모닝스타코리아, 리퍼코리아,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채권평가 등임
 - 올해 초 투자신탁 평가전문회사로 지정받았던 이머니는 지난 7월 다우인터넛과 합병했음
 - 펀드평가사는 법적으로 3인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납입 자본금 5억원 이상, 적정한 투자신탁 평가시스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

○ 현투증권 '적기 시정조치' 유예 5개월 연장

-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현투증권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경영개선 명령) 유예 기간이 5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임
 - 금감원은 9월 17일 현투증권의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경영개선 명령 대상이지만, 현재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9월 말로 끝나는 적기 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늘려 주기로 했음
 - 적기 시정조치 기한이 연장되면 현투증권은 금융사 재무 건전성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매각 협상을 계속할 수 있게 됨
 - 현재 현투증권은 푸르덴셜측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9월 18일 수요일 [2]

○ 대우채 보상 펀드 관련 현투증권과 새마을금고 마찰

- 현투증권이 오는 9월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4,700억원 규모의 대우채 관련 보상 펀드 처리 방안을 놓고 새마을금고와 마찰을 빚고 있음
 - 현투증권 관계자는 현금화시킬 수 없는 펀드내 자산에 대해 감독규정대로 80%를 상각하고 남은 자금을 환매해 주겠다고 새마을금고측에 전했지만 새마을금고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언급
 - 새마을금고와 문제가 된 투기채 펀드 규모는 약 4,700억원으로 이 중 하이닉스 반도체, 흥창 등의 부실채권이 상당량 포함돼 있음
- 현투증권측은 비유동화 자산의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미매각으로 떠안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대우채 보상 펀드라는 특수성과 금고의 수탁 규모를 감안할 경우 무턱대고 원칙론을 내세우기도 어려운 처지임
 - 특히, 대투, 한투, 삼성, LG, 대우증권 등 5개 판매사가 동일한 대우채 보상 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비유동화 자산을 미매각으로 떠안은 전례가 있어 더욱 난처한 입장임

♣ 2002년 9월 19일 목요일 (1)

○ SK증권, 신탁재산 자료 공개 요청서 법원에 제출

- SK증권은 9월 18일 한투증권과 한국투신을 상대로 1999년에 투자한 수익증권의 운용 장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음
 - SK증권은 이 신청서에서 신탁재산 내에 대우 관련 무보증채권과 기업어음을 지속적으로 부당 편입시킴으로써 상당량의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적지 않은 펀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 아울러 이러한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밝히기 위해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 SK증권은 이와 관련하여 한투증권 및 한국투신과 소송을 진행 중임

○ 증안기금의 출자 주식 ETF 증권으로 전환 건의

- LG투자증권의 ETF 컨소시엄 지정 판매회사로 참여할 10개 증권회사는 증안기금의 출자 주식을 ETF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음
 - 이들 증권사는 현대, 대우, LG투자, 동원, 대신, 제일투자, 한화, 하나, 동양증권, 브릿지증권 등임
 - 이들 10개 증권사의 증안기금 출자 금액은 총 3,500억원으로 현재 증안기금 잔고 (6,100억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출자 주식을 ETF로 전환한다는 것은 증안기금이 보유 중인 주식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ETF를 설정하고 설정한 대가로 받게된 ETF 증권을 각 증권사에 출자 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 증안기금은 지난 1990년 5월 주가 폭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사를 주축으로 은행, 보험, 상장기업 등 600여개사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출자해 조합 형태로 만든 기금임
 - 지난 1996년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뒤 1998년부터 매년 출자 주식을 출자 회사별로 일정 비율만큼 배분하고 있으며, 내년 5월 3일이 최종 청산일임
-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증안기금 보유 주식의 종목 구성이 KOSPI200지수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ETF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
 - 이 경우 시장 전체의 물량 부담을 피하면서 증안기금을 해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TF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재경부가 이런 방안을 수용하면 삼성투자증권의 ETF 컨소시엄 참여 지정 판매회사는 물론이며, 증안기금에 출자한 은행, 보험, 일반 기업들도 현물 주식인 ETF 증권의 형태로 출자 주식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2년 9월 19일 목요일 [2]

○ 채권형 펀드 수익률 저조

- 한국펀드평가회사가 국내 50억원 이상의 채권형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9월 13일 현재 최근 6개월간 평균 누적수익률이 3%를 넘는 투신사가 단기 상품의 경우 3개사, 장기 상품의 경우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단기 상품과 장기 상품은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음
 - 시장 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5.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신사 채권형 펀드의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
 - 투신사별 채권형 펀드 수익률 (9월 13일 기준, 단위: %, 자료: 한국펀드평가회사)

단기 펀드			장기 펀드		
투신운용사	3개월 평균 누적 수익률	6개월 평균 누적 수익률	투신운용사	3개월 평균 누적 수익률	6개월 평균 누적 수익률
조흥	1.73	3.14	LG	2.64	4.05
교보	1.94	3.14	교보	1.85	3.52
슈로더	1.91	3.02	국민	2.01	3.25
태광	1.60	2.79	조흥	1.91	3.08
국민	1.98	3.07	한화	1.58	3.11
굿모닝	1.52	1.76	하나	1.19	2.91
템플턴	1.80	2.76	제일	1.97	3.92
LG	1.59	2.74	동원	1.80	2.78
신영	1.49	2.67	현대	1.48	2.90
한화	1.45	2.68			
SK	1.32	2.71			
현대	1.42	2.89			
우리	1.31	2.69			
제일	1.59	2.68			
하나알리안츠	1.46	2.57			

- 이처럼 채권형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금리 예측 실수, 국공채 등 안전자산 위주의 자금 운용, 회사채 발행 감소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 투신사 채권매니저는 시가평가로 인해 금리 예측을 잘못할 경우 매매 손실을 볼 수 있는데다 지나치게 단기 채권 위주로 자금을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언급
 - 게다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2002년 9월 19일 목요일 [3]

○ 한국 및 대한투신, 공적자금 1,800억원 신탁형 저축상품 손실 보전 위해 허비

- 금감위가 자민련 안대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신, 대한투신이 신탁형 증권저축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약 1,800억원의 공적자금을 허비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00년 이후 이들 두 투신사는 자사의 신탁형 증권저축 상품으로부터 총 1,813억원 (한투: 963억원, 대투: 8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
 - 2002년 6월 말 현재 이들 두 투신사 신탁형 증권저축 내에 충분히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실채권 3조1,757억원 (한투: 2조613억원, 대투: 1조1,114억원)으로부터 매년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신탁형 증권저축은 만약 이러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유계정으로 떠안아야 함으로 투신사 부실 요인으로 계속 지적돼 왔음
- 안 의원은 당국이 공적자금 추가 투입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묵인해 사태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음
- 당초 금감위는 2000년 말 이후로는 투신사가 은행처럼 확정 금리 상품인 신탁형 증권저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음
 - 그러나 금감위는 6개월 뒤인 2001년 6월 이들 두 투신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2005년 3월까지 확정금리 상품을 완전히 정리하라는 조건 아래 사실상 신탁형 증권저축 상품을 허용했음

♣ 2002년 9월 23일 월요일 (1)

○ KT, 펀드 편법 조성으로 공모가 떠받치기 논란

- KT가 지난 5월 정부 보유 지분 매각 당시 2,0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를 편법으로 조성하여 공모가 결정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사장화된 기존 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단독 펀드화한데다 이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면서도 이사회 결의와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가에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증권업계에 따르면 KT는 정부 지분 매각을 위한 공모가격이 결정됐던 지난 5월 16일 대투운용의 W펀드에 2,000억원을 투입하여 이 펀드에서 KT 주식 200억원어치를 사들였음
 - W펀드는 1999년에 설정된 공모 펀드로 당시 KT 투자 직전 W펀드의 수탁고는 1,20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장돼 있던 펀드임
 - KT의 투자 이후 W펀드는 단독 사모 펀드화되어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10% 투자 한도 규정에 따른 최대 한도까지 KT 주식을 매입했음
 -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KT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0억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 따라서, KT가 지나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
- 시장 전문가들은 공모가격 산정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모펀드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사모펀드를 운용했다면 경영 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음
 - 아울러 이사회 결의와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자사주 취득에 나섰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음
 - KT는 공모 이후 전반적인 증시 침체에 따라 KT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투자 자금의 회수 시점을 찾지 못하다가 펀드 원금이 투자 자금 수준으로 되돌아온 지난 9월 17일에 투자 자금을 전격 회수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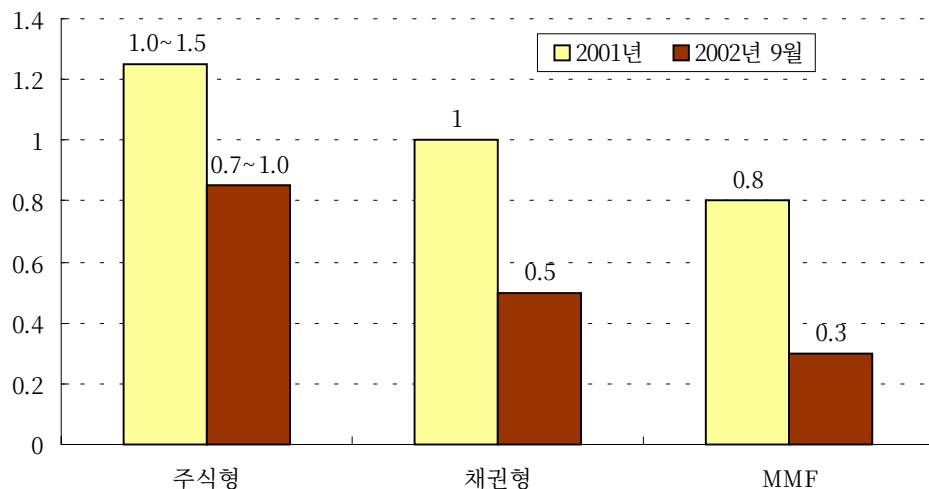
○ 정통부, 민관 합동 IT 펀드 조성 계획

-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9월 22일 정보기술 (IT)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의 IT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공모도 실시할 계획을 밝혔음
 - 특히 1조원 이상 조성될 이 펀드에서 3,000억원 가량을 컴퓨터 그래픽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화 제작에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9월 23일 월요일 (2)

○ 대형 기관의 펀드수수료 지나친 인하 요구 지적

- 최근 투신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연기금, 노동부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펀드 보수 인하 요구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국민연금이 맡긴 1개월짜리 클린MMF 펀드의 경우 수수료가 지난 해 평균인 0.8%에서 0.25%까지 하락했음
 - 노동부도 9월 중순경 3,600억원의 기금을 채권혼합형 펀드에 위탁하면서 보수를 지난 해 절반 수준인 0.5%로 낮췄음
 - 정보통신부의 경우 지난 2000년 위탁자금 집행시 평균 보수의 2/3 수준으로 출발한 후 지속적으로 보수 인하를 요구해 최근에는 채권형 펀드의 경우 보수를 0.4%까지 끌어내렸음
 - 지난 해 설정된 정보통신부의 일부 주식형 펀드는 평균 보수의 1/10 수준까지 인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대형 기관들의 펀드별 수수료 할인 현황 (단위: %)



- 이처럼 보수 과다 인하 요구가 갈수록 심화되자 투신권은 이 같은 추세를 더 이상 방치 하다가는 업계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투신권은 출혈 경쟁도 삼가야겠지만 수수료 최저 상한선이 있듯이 최저 하한선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2002년 9월 24일 화요일 (1)

○ 투신권 단독 펀드 남발

- 금감원이 9월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익자가 1명인 단독 펀드가 지난 8월 말 현재 1,715개 (52조7,623억원)로 투신권 전체 설정액 (165조8,965억원)의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 단독 펀드 설정액 비중이 전체 설정액의 절반이 넘는 투신사는 미래에셋 69.5%, 아이투신 69.1%, 외환코메르프 63.8%, 한화 64.5%, 신한 58.6%, SK 54.1%, 한일 51.7%, 랜드마크 51.3% 등으로 조사됨
- 투신업계에서는 주고객인 기관투자자들이 단독 펀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공모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운용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신사들이 기관투자자들의 단독 펀드에만 인력과 시간이 집중돼 개인투자자들의 일반 공모펀드의 수익률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임

○ 폐쇄형 증권투자회사 투자 정보 빈약

- 폐쇄형 증권투자회사는 코스닥시장에서 14개, 거래소시장에서 1개가 등록 및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거래에 나선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폐쇄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일반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만 그 펀드가 어떤 전략으로 어디에 투자되며, 과거 수익률이 어떠한 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일부 증권사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 (이하 HTS) 정보망을 통해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보의 수준이 빈약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감원, 투신협회가 증권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분기, 연도별로 받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투신협회 웹사이트에서 위의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주식의 경우 언제든지 HTS나 인터넷을 통해 과거의 자료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보고서도 입수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증권전문가들은 폐쇄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일반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되도록 할 것이며, 자료가 공개되는 투신협회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 2002년 9월 24일 화요일 [2]

○ 신한투신, BNP 파riba에 지분 매각

- 신한지주사는 9월 23일 투신운용사 합작을 위해 BNP 파riba의 자산 운용 부문 지주사인 BNP PAM 그룹에 지분 50%에서 1주가 모자라는 지분을 237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최초 매각 대금 외에 향후 3년간 신한그룹내 판매망을 통한 영업 성과에 연동하여 추가로 최고 11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 합작사로 출범할 신한BNP파riba투신운용 (가칭)은 BNP파riba측이 제공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판매 노하우, 신한그룹의 판매망을 이용해 연내 업계 10위, 오는 2005년까지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신한지주사는 그룹내 자산 운용의 상당 부분을 신한 BNP파riba투신운용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 전환증권사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전환증권사들의 경영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는 그 동안 5개 전환증권사들의 주된 수익기반이 돼 온 수익증권 판매가 투신운용사 직판 및 보험회사 판매 허용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는 최근 5개 전환증권사로부터 '투신 전환증권사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전달받았음
 - 이 건의서에는 투신사 직판 및 보험회사 판매 허용 연기, 신탁형 증권저축 상품 의 해소 기한 연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 2002년 9월 25일 수요일

○ '김정태 펀드' 1년 만에 40% 수익

- 국민은행이 지난 해 9.11 테러 사태 직후 증시 안정을 위해 긴급 투입한 펀드가 1년 만에 40%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투신운용은 9월 23일 지난 해 국민은행이 투입해 조성한 5,000억원 규모의 '주은베스트성장1호' 펀드의 결산 결과 39%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밝혔음
 - 이 펀드는 당시 김정태 행장이 증시 안정을 위해 은행이 나서야 한다며 단기간에 5,000억원의 단독 펀드를 설정함에 따라 '김정태 펀드'라고도 불렸음
 - 이 펀드는 그 동안 국민은행이 1,500억원 가량 환매해 원본 기준으로는 3,500억원 정도가 남아 있음
- 김영일 국민투신 주식 운용 본부장은 펀드 설정 이후 주식 편입비를 평균 65% 정도 유지했으며, 나머지는 채권과 유동자산으로 운용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주식 운용 부문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편입했으며,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02년 9월 26일 목요일

○ 대한생명 인수로 한화투신 수탁고 증가 기대

- 최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확정되면서 대한생명측이 운용하고 있는 유가증권 자산의 향후 움직임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대한생명은 지난 8월 말 현재 약 12조원의 채권과 3,000억원의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데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투신운용이 자금 운용을 위임받게 될 경우 투신운용사 수탁고 서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추정
 - 한화투신운용은 지난 9월 23일 현재 총 수탁고가 3조9,431억원으로 업계 수탁고 서열 12위를 달리고 있음
 - 하지만 대한생명의 자산을 투자자문 형태로 이관받게 되면 외형상 수탁고 변화는 없지만 실질 자산 운용 규모가 최대 16조원에 이르게 돼 삼성, 한국, 대한, 현대 투신운용에 이어 업계 5위로 올라서게 될 것임
 - 이는 지난 4월 삼성생명이 자산 운용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투신운용 등 5개 투자 운용 전문기관에 15조원의 채권과 5,000억원의 주식을 투자자문의 형태로 이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화투신운용 관계자는 아직 본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언급
 - 하지만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유가증권 자산을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일반화되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이관될 가능성은 있다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음

○ KAMCO, 투신사 부실채권 매입 추진

- 투신업계에 따르면 KAMCO는 오는 11월에 운용 기간이 끝나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문제를 투신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KAMCO 관계자는 이번 KAMCO의 부실채권 매입 추진은 아직 매입 규모나 대상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며 매각을 희망하는 투신사에 한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
 -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24일 투신사와 첫 회의를 가져 상호간 입장을 타진하는 것을 시발로 10월까지 관련 채권 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투신사 관계자는 KAMCO가 제시하는 부실채권 매입 단가와 투신사의 매각 단가간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언급
 - 투신사 입장에서는 KAMCO의 매입단가가 투신사의 보유 부실채권 회수 현금흐름과 동일하거나 보다 높아야 매각을 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KAMCO측은 보유 부실채권 회수 현금흐름보다 매입단가 더 낮아야 매입이 가능한 만큼 향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

♣ 2002년 9월 27일 금요일

○ 상장지수펀드 편입 대형주 매수기반 증대 기대

- 투신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상장을 준비 중인 삼성, LG, 한국, 제일 등 4개 투신운용사와 지정판매사로 선정된 각 증권사가 10월부터 물량 확보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초기 설정 규모는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과 LG투신운용의 경우 각각 1,500억원씩, KOSPI5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과 제일은 각각 500억원씩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들 투신운용사 및 지정판매사는 10월 9일까지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기간에 대거 주식을 사들일 것으로 예상됨
 - 주식을 사는 방식은 총 금액을 시가총액 비율만큼 나눠 각 종목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국민은행, KT 등 대형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 삼성투신운용의 한 관계자는 ETF 상장을 위해 종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 종목의 수급 상황은 호전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이들 투신운용사는 장기적으로 ETF 규모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어서 ETF 시장이 활발해질수록 대형주 위주의 매수 기반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

○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 투신운용사로 전환 준비 끝

-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통합 자산운용업법 시행을 앞두고 투신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확충을 끝내고 법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음
 - 특히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투신운용사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자산운용사들이 투신운용사로 전환할 경우 증권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수익증권과 MMF 등의 상품도 판매가 가능해 수익원의 다원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합 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들의 투신업계 진출로 국내 투신업계는 치열한 경쟁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추정됨

♣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 국민연금 내년 4조원 주식 투자

- 내년 중 올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4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될 계획이며, 부동산 관련 간접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10월 초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등을 합해 모두 42조8,157억원으로 잡혔음
 - 이 중 연금 급여 지급, 공단 운영 관리비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 39조9,660억원이 운용될 예정임
 - 채권과 금융상품에 35조2,660억원이, 주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1조원과 투신운용사에 위탁하는 3조원 등 4조원이 각각 투자될 것으로 알려짐
 - 부동산 관련 간접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의 대체 투자에도 처음으로 7,000억원이 배정되어 운용될 계획임
-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운용 규모까지 감안하면 연기금의 주식 투자 금액은 8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
 - 국민연금에 영향을 받아 다른 연기금들도 주식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선박펀드운용사 첫 탄생 예정

- 한투증권은 국내 2개 조선회사와 함께 이르면 10월 중에 선박펀드운용사 (가칭 한국선박운용)를 국내 첫 출범시키고 5년 이상 장기펀드 상품을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선박펀드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건조한 뒤 선박 용선료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임
- 한투증권은 이를 위해 지난 해 초 사내에 별도의 선박투자회사팀을 설치하고 투자자 유치, 상품 개발 등에 주력해 왔음
 - 10월 설립 예정인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100억원 규모이며, 연내에 5년 이상의 장기 펀드 1호를 출시하고 초기 연도에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짐
 - 시장 관계자는 선박펀드는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운사들도 운용사를 통해 선박 발주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언급

♣ 2002년 9월 30일 월요일

○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 급감

- 최근 증권사들의 수익증권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삼성, LG 등 12개 증권사들의 지난 8월 말 현재 수익증권 판매액은 총 66조9,864 억원에서 9월 25일 현재 66조7,110억원으로 약 한 달 동안 무려 2,700억원 이상이 감소했음
 - 특히 업계 선두 증권사인 삼성증권이 같은 기간 1,891억원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현대증권도 1,478억원이 감소해 상위 증권사들의 수익증권 판매액 감소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LG투자증권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300억원의 수익증권 판매 증가분을 기록해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증권사들의 수익증권 전체 판매액이 줄어든 것은 경쟁사인 은행권의 수익증권 마케팅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은행권은 기존 고객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은행이 보다 안정적인 금융기관임을 인식하도록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향후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될 경우 보험사도 수익증권의 판매를 할 수 있어 증권사들의 수익증권 판매 입지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됨



10월

October

10대 주요 기사

1. 상장지수펀드 거래소 안착
(1일, 4일, 9일, 10일, 15일, 16일, 17일, 21일, 22일, 28일)
2. 한투·대투, 투자자 손실 보전을 위해 공적자금 약 8조원 지원
(4일)
3. 투신-직판, 증권-일임형 랩 교차 허용 검토
(5일)
4. 기업연금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
(7일, 9일, 14일, 17일)
5. IMF 당시 대우채 매입에 경영진 손해 배상 책임 없다 판결
(8일)
6. 투신운용사들간 채권형 펀드 수수료 인하 문제로 논쟁
(10일, 22일, 24일, 26일)
7. 투기채 펀드 공모주 혜택 폐지 검토
(21일)
8.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인상률 적용 방식 변경
(22일)
9. 투신권, 대우채 소송의 공동 대처를 위해 탄원서 제출
(30일)
10. 수익증권 판매, 계열사 의존 여전
(31일)

◆ 10월 목차 (10/1-10/10)

10/1 [화]	○ ETF 상장으로 증시 추가 매수세력 2,000억원 ○ 올들어 주식형 펀드 수익률 선전
10/2 [수]	○ 투신사, 주식 편입비 크게 줄어 ○ 투자자문업계 자율 윤리 강령 선포 ○ 국내 주요 펀드 장·단기 수익률 순위 분석 ○ MOU 목표치 미달로 한투증권·대투증권 제재 ○ 연기금 내년 6조원 증시 투입
10/3 [목]	개 천 절
10/4 [금]	○ 상장지수펀드 10월 4일부터 청약 ○ 투신권 펀드 직판 대립 ○ 국민연금 올해 주식 매수 여력 소진 ○ 한투, 대투 투자자 손실 보전을 위해 공적자금 약 8조원 지원
10/5 [토]	○ 투신-직판, 증권-일임형랩 교차 허용 검토
10/6 [일]	
10/7 [월]	○ 도이치자산운용 기업 지배구조 펀드 연내 설립 ○ 기업연금제 정부 시안 10월 중 확정 예정
10/8 [화]	○ IMF 당시 투자적격 대우채 매입에 경영진 손해 배상 책임 없다 판결 ○ 투신, 주식 편입비중 높다고 지적 ○ 씨티은행, 성장형 펀드 판매 눈길
10/9 [수]	○ 기업연금 내년 상반기 도입 ○ 증시 수급에 큰 도움을 주는 상장지수펀드
10/10 [목]	○ 코스닥도 연내 ETF 시장 개설 예정 ○ 미래에셋투신운용, 채권형 펀드 수수료 파격 인하 논란 ○ 상장지수펀드 첫 설정액 3,614억원

◆ 10월 목차 (10/11-10/20)

10/11 [금]	○ 현대 금융 3사 해외 매각 연내 타결 기대
10/12 [토]	○ 정부, 증시 안정 대책 발표 ○ 금감위 굿모닝투신 매각 승인 ○ 증권·투신사 사장단 증권시장 안정 대책 회의
10/13 [일]	
10/14 [월]	○ 사측 각출금만으로 기업연금 가입 가능
10/15 [화]	○ 상장지수펀드 상장 첫 날 활발한 거래 기록 ○ 민주당, 내년도 연기금 주식 투자 자금 확대 및 올해 조기 투입 논의
10/16 [수]	○ 상장지수펀드 공매도 등장 ○ 정부, 현대증권 분리 매각 검토
10/17 [목]	○ 기업연금 노사 쟁점 급부상 ○ 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펀드가 쏟아진다 ○ 대투의 6,030억원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예금보험공사 패소
10/18 [금]	○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 조짐
10/19 [토]	○ 외국인 장기 펀드 국내 주식 대규모 매수
10/20 [일]	

◆ 10월 목차 (10/21-10/31)

10/21 [월]	○ 상장지수펀드 거래 활발로 성공적 평가 ○ 은행연합회, 자산운용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투기채 펀드 공모주 혜택 폐지 예정
10/22 [화]	○ 상장지수펀드, 운용은 LG투신운용, 거래는 삼성투신운용 ○ 투신운용사 올 1/4분기 이익,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증가 ○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인상을 적용 방식 변경 ○ 투신운용사들간 수수료 인하 문제로 논쟁
10/23 [수]	○ 개인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 신용거래 허용 제의
10/24 [목]	○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초저가 수수료펀드 논란 확산 ○ 피델리티 투자자문업 신규 진출
10/25 [금]	○ 주식형 펀드 10조원 눈앞
10/26 [토]	○ 덤핑 논란이된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초저가 펀드, 법인 판매 중단
10/27 [일]	
10/28 [월]	○ 상장지수펀드 거래소 안착
10/29 [화]	○ 국민연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 제살 깎기 경쟁 ○ 상장지수펀드 거래량 이상 경쟁 조짐 ○ 상장지수펀드의 투자를 통해 계열사 투자 효과를 노리는 삼성투신운용
10/30 [수]	○ 투신권, 대우채 소송의 공동 대처를 위해 탄원서 제출 ○ 동원그룹, 동원금융지주회사 설립위해 금감원 예비인가 신청 ○ 신한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으로 사명 변경
10/31 [목]	○ 수익증권 판매 계열사 의존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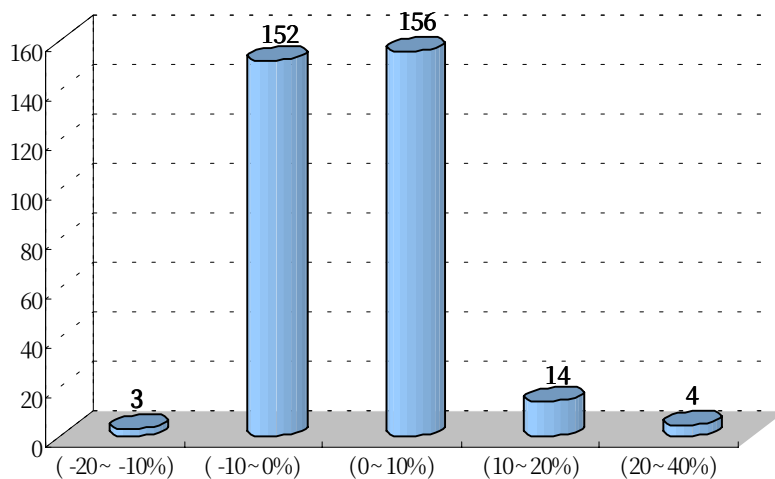
♣ 2002년 10월 1일 화요일

○ ETF 상장으로 증시 추가 매수 세력 2,000억원

- 오는 10월 14일 ETF (상장지수퍼드) 상장과 관련된 증권사의 주식 수요는 현재까지 2,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투신의 ETF컨소시엄에 참여한 삼성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는 초기 ETF 설정금액 (자본금)을 총 1,500억원으로 정했음
 - 삼성증권의 500억원을 비롯하여 다른 5개 증권사가 각각 200억원씩을 출자하기로 했음
 -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신규 주식 매수 금액만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을 극소화할 계획이라고 언급
- LG투신의 ETF컨소시엄에 동참한 10개 증권사는 아직 초기 설정 금액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선 LG투자증권이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LG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기관 및 일반인 대상의 공모로 자금을 모집한 뒤 부족한 부분은 현물로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들어 주식형 펀드 수익률 선전

- 펀드 평가회사인 제로인은 9월 30일 현재 50억원 이상인 주식 성장형 펀드 329개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조사했음
 - 조사 결과 연초 이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인 -4.51%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펀드가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90%에 가까운 주식형 펀드가 벤치마킹이 되는 주가지수 수익률보다 높았다는 분석임
 -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 분포 (단위: 개, 자료: 제로인)



- 가장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세이에셋자산운용의 '고배당장기증권저축' 펀드로 수익률이 38.21%로 나타났다

♣ 2002년 10월 2일 수요일 (1)

○ 투신사, 주식 편입비 크게 줄어

- 투신사들이 최근 주가 하락기를 틈타 펀드 내의 주식 편입 비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가 전망이 불투명해 주식 편입 비율을 줄이는 대신 선물 매도를 늘리는 등 수익 증가보다는 위험 관리에 치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장형 (주식형) 펀드의 투신사별 주식 편입비 (자료: 제로인)

10대 투신사	순자산 총액 (단위: 10억원)	주식 편입비 (%)	
		8월 30일	9월 30일
현대	1,891	81.62	80.31
대한	1,553	87.61	85.69
한국	1,285	82.47	81.61
국민	772	72.42	74.93
삼성	760	81.51	79.87
프랭클린	671	85.69	85.79
LG	442	81.84	82.46
제일	269	84.77	87.23
동양	246	87.32	80.33
한일	228	71.20	72.67
전체	10,698	82.45	81.65

* 운용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로 성장형 펀드 순자산 총액 규모 순으로 10대 투신사를 나열했음

○ 투자자문업계 자율 윤리 강령 선포

-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증권업계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문사들이 임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총 21개 조항에 달하는 윤리 강령을 선포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옮기기로 했음
 - 윤리 강령의 내용
 - 임직원이 고객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말 것
 - 회사 이익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할 것
 - 업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의 향응과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할 것
 - 구두·서면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투자 수익률, 운용 능력 등에 대해 허위 표시를 금지해야 함
 - 이러한 윤리 강령을 어겼을 경우 서면 경고, 부당 거래를 통한 매매 차익 몰수, 벌금, 정직 또는 해고, 관리 기간 또는 법 집행기관으로의 소환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임직원은 이 윤리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입사일 또는 강령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 2002년 10월 2일 수요일 [2]

○ 국내 주요 펀드 장·단기 수익률 순위 분석

- 한국펀드평가사와 증권거래소는 펀드 설정 기간이 2년 이상으로 99년 이후 설정된 국내 주요 주식형,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 순위가 가입 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했음
- 주식형 (자산배분형: 주식 편입비 70% 이상) 펀드 303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수익률이 20위권 안에 드는 펀드 가운데 1년 누적 수익률이 20위권 안에 드는 펀드는 단 3개 밖에 없었음
 -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 대상 89개의 채권형 펀드 경우 6개로 주식형 펀드에 비해 채권형 펀드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개월 수익률이 20위권인 펀드의 기간별 누적수익률이 20위권에 드는 개수 (자료: 한국펀드평가, 증권거래소)

(단위: 개)

	6개월	1년	2년	설정 이후
주식 자산배분형	14	3	4	3
채권형	12	6	11	11

* 수익률 순위는 9월 27일 기준임

- 주식형 펀드가 유난히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주식 시황이 급변하는데다 펀드매니저의 투자 패턴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펀드매니저의 투자 성향과 주식시장의 시황이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음
 - 상승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만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수익률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임

○ MOU 목표치 미달로 한투증권·대투증권 제재

- 예금보험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이 올 2/4분기에 1인당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에서 지난 2월 체결한 경영 정상화 이행 양해각서(MOU)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 한투증권은 주식 등 유가증권 손실 424억원을 포함해 총 6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어 6월 말 현재 자본 잠식액은 지난 해보다 오히려 1,743억원이 늘어난 4,902억원을 기록했음
 - 대투증권도 같은 기간 주식 운용 손실 674억원과 부실 채권 상각 등을 포함해 총 938억원의 당기순손실로 MOU 목표치를 밑돌았음
 - 이들 회사가 일부 항목에서 MOU 목표치에 미달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측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보유자산 처분, 영업 일부 정지 및 양도 등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10월 2일 수요일 [3]

○ 연기금 내년 6조원 증시 투입

- 정부는 10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음
 -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47개 연기금이 6조원을 웃도는 신규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이 계획안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 기금 10개를 제외한 47개 연기금의 운용 계획안을 기획예산처가 협의 조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국회 심의를 받게 됨
- 내년도 47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올해 144조8,000억원보다 10.4%가 늘어난 15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음
 -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4개 연금 기금의 운용 규모가 16조9,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보험료 수입 및 운용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임
 - 수입은 보험료 등 자체 수입이 60조7,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5.7%로 늘어날 예정임
 - 반면, 예산에서 지원받는 출연금과 융자금은 2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줄어들게 됨
 - 기금 사업비는 40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56조7,000억원으로 29.1%나 증가하게 됨
-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기금 운용은 흑자 기초 유지에 역점을 뒀다고 언급
 - 기금과 재정 건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2002년 10월 4일 금요일 (1)

○ 투신권 펀드 직판 대립

-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상품인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 등의 직접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투신권 내에서도 직판 허용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은 직판 허용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전환증권사들은 이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임
-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은 직판이 허용되면 막강한 법인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 강력히 직판을 요청하는 입장임
 -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직판을 허용하는 점과 투자자의 판매수수료 절감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은 직판이 허용되면 판매 보수를 절감하는 no load 펀드를 통해 기관 대상 영업을 강화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반면 판매 보수가 전체 영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투증권, 대투증권, 현투증권, 제투증권 등의 전환증권사들은 운용사의 직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한편 일반 증권사를 모회사로 둔 투신운용사들은 직판 허용이 어차피 계열사간 판매 수익 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 역시 난감해하고 있으며, 업계 내부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추정됨

○ 한투, 대투 투자자 손실 보전을 위해 공적자금 약 8조원 지원

- 감사원은 국회 공적자금 국정 조사 특위에 제출한 특감 자료에서 정부가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7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음
 -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 말까지 대우그룹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투신 고객에게 원금과 이자의 95%까지 보장해 주기 위해 한투 2조원, 대투 8,000억원을 지원했음
 - 2000년 6월 금감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한투 3조원과 대투 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음
 - 이 지원금액 중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부실 채권 6조414억원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3조4,830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측은 대우 사태 직후 금융 공황 심리를 막고 투신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으며, 당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부처 장관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음

♣ 2002년 10월 4일 금요일 (2)

○ 상장지수펀드 10월 4일 청약

- 삼성투신운용과 LG투신운용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투자를 원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게 됨
 - 이들 두 투신운용사는 오는 10월 9일까지 ETF 설정을 위한 주식 매수를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10월 11일에는 펀드 설정 및 ETF 증권이 발행되며, 10월 14일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 국민연금 올해 주식 매수 여력 소진

-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직접 투자분 6,000억원, 간접 투자분 6,000억원 투입을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연말까지 신규 투입 자금이 없다고 언급
 - 아울러 기금운용 본부장 선임 등 내부 인사 등으로 인해 내년 주식 투자 자금을 올해로 당기기로 한 내부 계획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 2002년 10월 5일 토요일

○ 투신-직판, 증권-일임형 랩 교차 허용 검토

- 재경부는 투신사에 직판을 허용해 주는 대신 증권사에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재경부는 투신 직판 허용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증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가 있음
 - 우선 제1방안은 투신 직판을 허용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즉시 허용한다는 것임
 - 제2방안은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즉시 허용하면서 투신 직판 허용은 MMF를 제외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투신사 수탁고 20%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음
 - 제3방안은 둘 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동안 증권사들이 자산운용업법 제정 과정에서 소외돼 온 측면을 고려해 판매 외에 운용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언급
- 그러나 랩어카운트를 취급할 능력이 안되는 중소형 증권사들과 전환증권사들은 둘 다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음

♣ 2002년 10월 7일 월요일

○ 도이치자산운용 기업 지배구조 펀드 연내 설립

- 기업 지배구조가 잘 갖춰져 경영 투명성이 높고 기업 이익이 주주 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기업지배구조 펀드'가 설립될 예정임
 - 도이치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국제금융공사 (IFC)의 후원을 받아 올해 안에 \$7,000~\$2억 규모의 기업 지배구조 펀드를 설립해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 투자 대상 기업은 기업 지배구조가 좋은 10~15개 상장·등록 기업임
 - 펀드는 외국 연기금과 한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임
- 도이치자산운용의 관계자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가 기업 지배구조라고 언급
 -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기업 이익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기업연금제 정부 시안 10월 중 확정 예정

- 재경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10월 중 기업연금제 도입 시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기업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시안에서 미국처럼 별도의 기업연금법을 제정해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한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연금이 도입될 경우 현재 10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기업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향후 30년간 매년 1조원 정도가 증시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노동계는 기업연금제도가 퇴직금 제도보다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재계는 기업들의 퇴직금 적립 부담률을 현재 8.33%보다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아직 정부 시안이 노사정위를 통과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기업연금 조기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1]

○ IMF 당시 투자 적격 대우채 매입에 경영진 손해 배상 책임 없다 판결

- 98년 외환 위기 당시 대우 계열사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더라도 채권 매입 과정과 사후 처리가 적절했다면 당시 임원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
 - 최근 서울지법은 한투증권이 자사의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음
 - 한투증권은 전직 임원 등이 98년 외환위기 때 2조2,000억원대의 대우 계열사 채권을 매입해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해 손해 소송을 제기했었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 매입시 대우 계열사들은 신용평가 기관에 의해 투자 적격 기업으로 평가됐고 채권이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된 지난 99년 2월 이후에는 대우채 보유 비율을 축소할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
 -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전직 임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음

○ 투신, 주식 편입비중 높다고 지적

- 투신권은 주식 편입비중이 높아 매수 여력이 저점 수준에 있으며 경기 관련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투자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왔음
 - 미래에셋증권은 '수급 함정에 빠진 외국인과 투신권' 보고서를 통해 투신권은 지난 9월 말까지 거래소 시장에서만 주식을 2조7,000억원을 순매수 했으나, 주식 관련 수익증권 잔액 증가는 1조3,700억원에 그쳐 주식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
 - 그 결과 큰 폭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 편입비중은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주식 매수 여력은 저점 수준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언급
 - 특히 4월 중순 이후의 주가 하락 국면에서 주식 비중 축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9,000억원을 순매수함으로써 손실을 많이 안고 있다고 분석했음
 - 아울러 연초 이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신권 매수는 전기·전자, 철강, 화학, 운수 장비 등 경기 관련주에 76.6%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
 - 이는 최근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2]

○ 씨티은행, 성장형 펀드 판매 눈길

- 씨티은행이 슈로더투신운용과 손잡고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성장형 펀드를 출시했음
 - 증시 침체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재산가 고객이 많은 씨티은행이 성장형 펀드 판매에 본격 나섰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씨티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추가 하락의 위험보다는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확산되면서 순수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고객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
 - 그는 1년 이상 자금 운용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 2002년 10월 9일 수요일

○ 기업연금 내년 상반기 도입

-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월 8일 기업연금 도입 방안과 퇴직금 제도 개편안을 10월 말까지 노사정위에 제출한 뒤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안되면 11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음
 - 이 관계자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노사 자율로 기업연금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기업연금 도입 방안과 퇴직금 제도 개편안에는 아래의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음
 - 정부는 기업이 일정액을 낸 뒤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을 돌려받는 확정각출형 기업 연금을 권장하되 지급받을 연금을 미리 정해 놓은 확정급부형도 허용하기로 했음
 - 노동부는 확정각출형의 경우 기업이 내야 하는 납부금 하한선을 현행 퇴직금 부담률 (종업원 연 급여의 8.33%)보다 낮은 6% 내외로 정할 방침임
 - 기업연금 운용은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며, 중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중도 인출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했음
 -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 방식을 따르되 주택 구입 등의 사유에 한해 일시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음
 - 기업연금은 보험과 은행 신탁, 투자신탁 등 자산 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면 모두 취급할 수 있으며 이자가 보장되는 은행의 일반예금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정부는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퇴직금이나 연금 납부액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음
 -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연금 납부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고 근로자가 따로 낼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임

○ 증시 수급에 큰 도움을 주는 상장지수펀드

- 10월 8일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삼성, LG투신 컨소시엄의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지정판매사 (이하 AP)로 참여하고 있는 15개 증권사들은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음
 - ETF는 오는 14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AP들은 11일까지 펀드에 편입할 주식을 삼성투신과 LG투신에 넘겨줘야 하므로 AP들은 9일까지 3,000억원 가량의 초기 설정 금액만큼 주식을 확보해야 함
 - 10월 9일에도 ETF와 관련하여 약 1,0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수세가 예상됨
- 한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시작한 ETF의 공모 청약은 현재 40억원에 그쳐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는 ETF가 개인투자자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증시 침체의 여파도 겹친 탓이라고 설명했다

♣ 2002년 10월 10일 목요일 (1)

○ 코스닥도 연내 ETF 시장 개설 예정

-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증권시장은 10월 중 ETF와 관련된 시스템 및 인력 구조 등 기준을 만족시키는 회사를 선정한 후 연내 코스닥 ETF 시장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코스닥 증권시장은 지난 10월 1일 각 투신운용사에 '코스닥 50 지수'를 이용한 ETF 지수 사용 제안서를 발송한 이후, 삼성투신운용으로부터 참여 의사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 따라서 코스닥 증권시장은 삼성투신운용이 지정판매사 선정 등 제반 문제를 추후 보완 가능하도록 했다고 언급
- 코스닥 ETF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LG투신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은 마감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LG투신운용은 아직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래에셋투신운용은 당초 코스닥시장의 참여를 목표로 지정판매사들과 협의했지만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여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최근 코스닥시장이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지고 외국의 기술주 시장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코스닥시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 그는 코스닥 ETF 시장이 개설되면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새로운 매수 기반이 형성돼 코스닥 시장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미래에셋투신운용, 채권형 펀드 수수료 파격 인하 논란

- 미래에셋투신운용은 자사의 채권형 펀드에 대한 수수료를 업계 평균 1/8 수준 (약 0.1%)으로 대폭 인하해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끌어 모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음
 - 10월 8일 출시한 이 채권형 펀드의 이름은 Almighty 채권형 펀드로 판매 첫 날에만 2,000억원이 판매됐으며, 이 중 개인 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요즘 같은 불투명한 채권시장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그것도 개인 자금을 대규모로 모집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고 언급
 - 하지만 아무리 수탁액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지만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업계 수익 구조를 해치는 '제살깎기'라고 비난했음

♣ 2002년 10월 10일 목요일 (2)

○ 상장지수펀드 첫 설정액 3,614억원

- 오는 10월 14일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의 최초 설정액이 3,614억원으로 집계됐음
- 10월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ETF 운용사인 삼성, LG, 한국, 제일투신운용 등 4곳이 기관과 일반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초 설정액은 모두 3,614억원이었음
- 운용사별로는 삼성 1,765억원, LG 1,176억원, 한국 500억원, 제일투신운용 173억원임
- LG투신운용은 다음 주 중 5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어서 전체 운용 규모는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2002년 10월 11일 금요일

○ 현대 금융 3사 해외 매각 연내 타결 기대

- 무려 2년 6개월 넘게 끌어 온 현대투신운용, 현대증권, 현투증권 등 현대 금융 3사의 해외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월 10일 해외 금융그룹과 현대 금융 3사의 매각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고 언급
 - 매각에 관한 큰 틀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었고 세부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매각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이 해외 금융그룹은 한국에서의 금융 비즈니스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아시아 금융사업의 전략 축으로 한국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2002년 10월 12일 토요일 (1)

○ 정부, 증시 안정 대책 발표

- 정부는 10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의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음
 -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과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투자 심리의 위축에 기인한다고 언급
 -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비중 (35%)이 높고 장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증시의 구조로 인해 향후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음
-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 시장이 장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증시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우선 장기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
 - 정부는 이에 대해 10월까지 노사정위에서 기업연금법 제정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음
 - 연기금의 직접 주식 투자 규모를 확대 (2002년 2조3,000억원→2003년 4조9,000억원)하고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를 중장기로 전환하기로 했음
 - 연기금 공동 투자플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투자 상품을 도입하고 투자플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경우 기금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장치 마련
 -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실적 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 관련 세제 개선 검토

○ 금감위 굿모닝투신 매각 승인

- 금감위는 10월 11일 굿모닝신한증권이 굿모닝투신 지분을 영국 푸르덴셜그룹에 양도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음
 - 양도 대상 주식은 굿모닝투신 보통주 300만주로 굿모닝투신운용 발행 주식 총수의 100%에 해당
 - 지분을 넘겨 받은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td.로 지난 해 10월 PCA생명 (구 영풍생명)을 인수로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한 금융회사임

♣ 2002년 10월 12일 토요일 (2)

○ 증권·투신사 사장단 증권시장 안정 대책 회의

- 증권·투신사 사장단은 10월 11일 각각 증권업협회 및 투신협회에서 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증시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증권·투신사 사장단은 각 사장단 간담회에서 모두 증시 수요 진작을 위해 내년에 투입할 예정인 연기금 주식 투자자금 4조9,000억원 중 일부를 조기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음
- 증권사 사장단은 연기금 주식 투자자금 조기 도입과 더불어 지난 해 도입돼 4조 5,000억원의 실질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가져온 장기증권저축 상품과 유사한 세제 혜택 상품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음
 - 아울러 증권사 사장단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코스닥 진입·퇴출 제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증권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키로 했음
- 투신사 사장단은 연기금 주식 투자자금 조기 도입과 함께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상품 허용, 기관투자자 육성 정책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음
 - 투신사 사장단은 이를 위해 1년 단위로 수익률과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풍토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 힘들다고 지적
 - 따라서 5년, 혹은 10년 정도의 장기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시행하는 손절매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2002년 10월 14일 월요일

○ 사측 각출금만으로 기업연금 가입 가능

- 정부는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연금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삼아 근로자들이 각출금을 내지 않아도 사측이 기업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음
 - 재경부 관계자는 10월 13일 기업연금 각출 부담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자의 경우 집단으로든 개별적으로든 기업연금에 각출금을 낼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
 - 사측과 근로자 모두 각출금을 내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기업연금은 기업의 의무인 법정 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인 만큼 사측의 각출금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됨
 -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자기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각출금으로 내서 퇴직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근로자 출연분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증식 과정에서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해 줄 방침임
 - 아울러 직장을 옮길 때에도 기업연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음

♣ 2002년 10월 15일 화요일

○ 상장지수펀드 상장 첫 날 활발한 거래 기록

- 10월 14일 첫 상장된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의 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뤄져 ETF 시장이 조기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삼성투신운용의 '코덱스200' ETF는 10월 14일 257만주의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상장된 '코덱스200' ETF 증권 (2,260만주)의 11.4%에 달하는 수치임
 - '코덱스200' 증권의 주가는 이날 4.87% 상승했으며, KOSPI200 지수 상승률 3.41%를 상회했음
 - LG투신운용의 '코세프'는 이날 전체 '코세프' ETF 증권 (1,470만주)의 12.5%가 거래됐으며, '코세프' 증권의 주가 상승률은 4.19%였음
 - KOSPI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코덱스50', '코세프50'의 거래량은 2만주와 1만6천주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 이날 ETF를 매수한 주체는 향후 주가 상승을 예상한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이었음
 - 업계의 한 관계자는 ETF는 매도시 일반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매매가 활발했다고 언급

○ 민주당, 내년도 연기금 주식 투자 자금 확대 및 올해 조기 투입 논의

- 민주당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자금 투입 시기도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당정회의에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 규모를 4조9,000억원 (내년도 계획안)에서 6~7조원으로 늘리고 투입 시기도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기금 자산운용가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주가지수와 연계해 2~3년 단위로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음
-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의 내년도 주식 투자 규모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
 - 현재 증시에 투입하지 않고 보유 중인 연기금의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주식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덧붙임

♣ 2002년 10월 16일 수요일

○ 상장지수펀드 공매도 등장

- 10월 14일 외국계 한 증권사에 의해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증권 45만주 가량이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공매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이를 주목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ETF 증권의 공매도로 시장 유동성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에 포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음
 - 이는 지정판매사 (이하 AP)가 ETF를 공매도한 후 결제를 위해 공매도한 금액만큼 현물 주식을 사야 하기 때문임
- ETF 증권의 공매도 결제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됨
 - AP는 ETF 증권을 공매도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만큼 개별 주식을 매수한 후 ETF 설정을 신청해야 함
 - 이날 매수한 주식이 3일 후 입고되면 바스켓을 만들어 투신운용사에 납입하여 발행받은 ETF 증권 (주식과 동일한 3일 결제)으로 공매도를 결제하게 됨
 - 이 과정에서 현물 주식이 공매도한 ETF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됨

○ 정부, 현대증권 분리 매각 검토

- 정부 관계자는 10월 15일 현대 금융 3사 지분을 연계 매각하는 기존 방안 이외에 현 투증권, 현투운용과 별도로 현대증권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완전히 별도 매각이라고 할 수 없는 컨소시엄 형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하여 현대 금융 3사 매각 협상 대상자인 미국 푸르덴셜그룹 아트 라이언 회장이 오는 10월 22일 방한하여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됨
 - 10월 14일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실무자에게 현대 금융 3사 매각과 하이닉스 반도체 등 현 정권의 남은 구조조정 과제가 흔들림 없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10월 17일 목요일 (1)

○ 기업연금 노사 쟁점 급부상

- 법정 퇴직금 제도를 대신할 기업연금 제도 도입 문제가 노사간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는 10월 16일 경제사회 소위원회를 열고 기업연금 도입 형태를 논의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
 -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그 동안 논의 결과를 오는 10월 24일 차관급 협의체인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뒤 11월 초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음
- 노동계와 재계는 다음의 부분에서 기업연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 재계는 기본적으로 확정각출형을 선호하지만 확정급부형과 함께 도입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음
 - 반면 노동계는 확정각출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만 줄여줄 뿐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 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들어 확정급부형만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확정각출형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노후 보장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
 -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확정급부형과 확정각출형을 모두 허용할 경우 대부분이 확정각출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임
 - 아울러 노동계는 재정부 등이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제 도입을 서두르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펀드가 쏟아진다

- 최근 지난 10월 14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를 이용한 간접상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음
 - 굿모닝신한증권과 그린이셋자산운용은 10월 16일부터 각각 '굿모닝세이프ETF펀드'와 '그린코지라이프혼합형펀드' 판매를 시작했음
- 굿모닝신한증권이 내놓은 '굿모닝세이프ETF펀드'의 경우 우선 신탁재산의 80%를 우량 등급 회사채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해 펀드의 만기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매칭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함
 - 이후 나머지 신탁재산의 20%를 ETF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임

♣ 2002년 10월 17일 목요일 (2)

○ 대투의 6,030억원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예금보험공사 패소

- 대투증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6,03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금 보험금을 받게될 전망임
 - 10월 16일 서울지법은 지난 99년 당시 대한투자신탁이 종금사를 자금 매개사로 개입시켜 대우그룹에 우회 제공했던 '브릿지 론'이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음
 - 이에 따라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예보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대투증권은 예보로부터 원금 5,390억원과 지연이자 640억원을 받는 즉시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됨
- 재판부는 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예금이 2천만원을 넘을 때 "예금 등"은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
 - 대한투신이 나라종금의 자기발행 어음을 인수한 뒤 나라종금이 이 돈으로 회사채 매입 방식을 취해 대우를 지원케 한 것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음
 - 재판부는 대한투신→나라종금→대우로 이어진 우회적 자금 지원 방식이 탈법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시인
 - 하지만 법 조항에 의하면 대한투신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
- 금융계는 이번 판결로 대투증권이 제기해 놓은 한국종금 (1,929억원), 삼신올스테이트생명 (300억원), 서울투신운용 (1,599억원)을 통한 대우그룹 지원 자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도 예보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국민 혈세로 조성되었으며, 공적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음

♣ 2002년 10월 18일 금요일

○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 조짐

- 최근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채권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0월 17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1% 급등하면서 연 5.5%로 마감하는 등 채권 금리가 지난 10월 11일 이후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안전 자산 선호 현상 (flight to quality)'이 둔화되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채권 가격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장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격 수준으로 부동산과 채권 가격은 예상보다 과도하게 올라 거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주식은 저평가됐다는 생각이 시장에 팽배해져 있다고 언급
 -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음

♣ 2002년 10월 19일 토요일

○ 외국인 장기 펀드 국내 주식 대규모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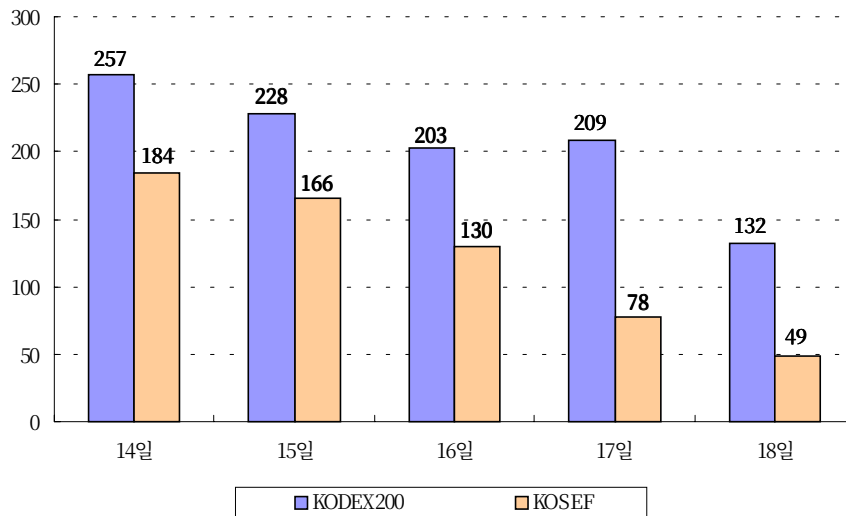
- 10월 18일 뮤추얼펀드, 장기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5,074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226억원 등 총 5,300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했음
 - 이는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 연중 최대치이며, 지난해 4월 15일 (6,716억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일부 헤지펀드가 가세하고 있지만 뮤추얼펀드 등 장기 자금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국민은행, 신세계, LG화학 등의 대표주를 매수했다고 밝혔음
 - 증권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와 관련하여 지난 9개월간 지속된 매도 공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사자'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아울러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외국인의 추가 매수를 기대해도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제시했음



♣ 2002년 10월 21일 월요일 (1)

○ 상장지수펀드 거래 활발로 성공적 평가

-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가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난 주 거래일 5일 동안 두 종목의 거래량은 약 1,600만주로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짐
- 거래량 면에서 삼성투신운용의 KODEX200이 LG투신운용의 KOSEF에 비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KODEX200과 KOSEF간 거래량 비교 (단위: 1만주)



- KODEX200의 경우 지난 10월 18일 132만주가 거래된 것을 제외하면 매일 200만주 이상이 거래됐음
- 반면 KOSEF는 10월 14일 첫 날 최고인 184만주가 거래된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18일에는 49만주로 거래량이 뚝 떨어졌음
-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활발한 차익거래가 일어나야 ETF 가격이 기초지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언급
 - 따라서 차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ETF의 설정금액과 거래량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은행연합회, 자산운용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은행연합회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자산운용법 제정안에 대한 은행권 의견서를 10월 18일 재경부에 제출했음
 - 은행연합회는 간사은행인 신한은행을 통해 동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했음
 - 각 은행별로 신탁계정의 사정이 조금씩 다르고, 이에 따라 금번 자산운용업법안에 대한 이견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2002년 10월 21일 월요일 [2]

－ 의견서로 제출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은행의 연금신탁, 퇴직신탁, 부동산투자신탁은 현재와 같이 신탁업법 적용
- 은행 임직원의 자산운용회사 업무 등에 대한 겸직 금지 및 전산 설비, 사무실의 공동 사용 금지 조항 완화
- 은행의 자산운용회사 업무에 대한 제한은 '투자회사 재산 운용' 업무에 한정하고 신탁업무는 현행 유지
- 운용전문인력 확보 기준은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금융 겸업화와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판매회사의 수익자 정보 이용 제한 규정 삭제
- 간접 투자자산의 차입과 대출 운용을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대출 운용 제한 조항 폐지
-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판매회사 업무 겸업 허용과 은행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 삭제
- 자산운용업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간접 투자기구도 종전에 판매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 조항 삽입
- 자산운용업법 관련 업무 영위권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것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투기채 펀드 공모주 혜택 폐지 예정

－ CBO펀드나 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공모주 의무 배정비율이 철폐될 전망이다

-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인수·공모 제도의 보완책으로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된 공모주 편입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현재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제도에 따르면 CBO펀드나 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펀드에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주식의 45%를 배정하고 등록기업은 55%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음
- 이와 별도로 기관투자자에게는 상장기업 15%, 등록기업 10%씩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별 배정 물량을 정하도록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방안임
- 그동안 이들 고수익펀드들은 상장 및 등록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매도에 나서 공모가 붕괴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금감위 관계자는 고수익펀드에 배정하는 물량을 줄이고 주간사의 인수 의무와 시장조성 의무가 늘어난다면 주간사들이 자발적으로 공모가의 거품을 줄일 것이며, 결국 양질의 공모주 청약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그런 측면에서 공모주 편입비율 철폐 여부를 논의 중이나 시행시기는 연내에 할지 내년으로 미루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
- 다만 현재와 같이 침체된 공모시장에서 수요부족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2002년 10월 22일 화요일 (1)**○ **상장지수펀드, 운용은 LG투신운용, 거래는 삼성투신운용**

—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의 운용 능력을 나타내 주는 추적오차율에서는 LG투신운용의 KOSEF, 유동성면에서는 삼성투신운용의 KODEX200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됨

• KODEX200과 KOSEF간 자료 비교 (단위: 원, %)

구분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거래가격	KODEX200	7,750.00	7,940.00	7,970.00	8,080.00	8,430.00
	KOSEF	7,700.00	7,850.00	7,950.00	8,060.00	8,350.00
주당 순자산가치	KODEX200	7,727.89	7,921.53	8,010.07	8,118.38	8,456.22
	KOSEF	7,727.03	7,920.37	8,011.12	8,117.02	8,452.20
거래량	KODEX200	2,577,000	2,288,500	2,039,060	2,090,675	1,321,300
	KOSEF	1,845,894	1,663,154	1,303,910	781,644	492,249
KOSPI200 지수		77.27	79.21	80.10	81.16	84.50
추적오차	KODEX200	0.01	0.01	0.00	0.03	0.08
	KOSEF	0.00	-0.01	0.01	0.01	0.03

○ **투신운용사 올 1/4분기 이익,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증가**

— 투신운용사들이 올 1/4분기 (2002.4~9월) 세전 이익이 1,0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억원 (11.4%)이 증가했음

- 국민투신 (구 주은투신)의 이익이 121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업계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 위탁자 보수는 1,9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7억원 (16.9%)이 증가했으며, 투자자문 수수료도 지난해 상반기 43억원에서 올 1/4분기에는 201억원으로 158억원이 증가했음
- 투신운용사 영업 실적 (단위: 개, 10억원)

구분	2001년 1/4분기		2002년 1/4분기		세전 증감 이익
	회사 수	세전 이익	회사 수	세전 이익	
국내사	22	70.7	22	76.9	6.2 (8.8%)
외국사	8	26.2	9	31.1	4.9 (18.7%)
전체	30	96.9	31	108.0	11.1 (11.4%)

- 주요 투신운용사 1/4분기 세전 이익 (단위: 10억원)

투신운용사	2001년	2002년	증감률 (%)
국민	13.4	12.1	-9.70
삼성	8.8	9.5	7.85
LG	6.6	9.4	42.42
현대	6.6	8.9	34.85
조흥	9.8	8.2	-16.33

♣ 2002년 10월 22일 화요일 (2)

○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인상률 적용 방식 변경

- 행자부는 10월 22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 적용 방식을 현행 물가 인상률 기준에서 보수 인상률 기준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보수인상률에서 2%를 뺀 수치를 연금 인상률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언급
 - 이는 최근 2년간 공무원 보수 현실화 조치로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의 격차 가 크게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짐
 - 행자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퇴직 연도에 따라 후배나 하급자나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해 연금 인상률 적용 방식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행자부는 이에 따라 군인, 공무원, 사학 3개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3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매년 군인연금 1,207억원, 공무원연금 3,169억원, 사학연금 384억원 등 모두 4,76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보수 인상률에 따라 연금을 올려주던 방식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인상토록 한 지난 2000년 개정법을 2년 만에 환원한 셈이 됨

○ 투신운용사들간 수수료 인하 문제로 논쟁

- 최근 투신업계에 수수료 인하 논쟁이 한창임
 - 한 중소 투신운용사가 수수료의 거품을 빼자며 채권형 펀드의 운용수수료를 대폭 낮추자 기존 대형 투신운용사들이 덤핑으로 질 낮은 서비스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사건의 발단은 미래에셋투신운용사가 10월 8일부터 출시된 '올마이티채권형' 펀드의 운용수수료가 기존 채권형 펀드의 운용수수료인 순자산총액의 0.5~1%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0.132%로 판매한 것이 비롯되었음
 - 이에 대해 대형 판매사들은 수수료 덤핑은 제살 깎아먹기라고 주장하며, 10월 14일 금감원에 이 펀드의 판매를 제한하고 수수료 책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건의했음
- 저가 펀드 운용수수료의 쟁점과 양측 주장 주요 논지

미래에셋투신운용측 주장	대형 투신운용사측 주장
· 충실한 서비스가 가능함 · 연기금이 지불하는 수수료 수준에 맞춘 것임 · 은행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흡수해 투신업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질 낮은 서비스 불가피 · 연기금의 저가 수수료 지불 관행은 결국 수익률에 악 영향 · 은행 자금 흡수가 어렵고, 투신업계 공동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음

♣ 2002년 10월 23일 수요일

○ 개인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 신용거래 허용 제의

- 일반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신용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ETF의 지정판매사들 (이하 AP)은 ETF의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일반투자자의 ETF 신용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음
 - 이들 AP들은 기관투자자의 경우 ETF의 공매도가 가능한데 비해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신용대주가 금지돼 있어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제도 상으로 투자 주체간의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TF에 대한 신용대주는 허용돼야 하지만 수수료율이나 한도 등에 대해 ETF 대주 공여 의사가 있는 해당 증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
- 반면 감독당국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일단 초기 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후 신용거래 허용여부를 결정하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ETF는 기관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상품이어서 초기 시장 활성화는 전적으로 판매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
 -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의 ETF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수단을 넓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2002년 10월 24일 목요일

○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초저가 수수료펀드 논란 확산

- 초저가 수수료를 받아 업계에 덤핑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올마이티펀드'가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음
 - 30여개 투신운용사 사장들은 10월 23일 투신협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올마이티펀드' 판매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고 다른 운용회사가 '올마이티펀드'와 유사한 초저가 펀드를 내놓지 않도록 자율 결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음
 - 개별 투신운용사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투신운용사 사장들이 대책회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것임
- 일부 운용사들은 미래에셋투신운용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하지만 일부 중소형 투신운용사 관계자들은 법이나 규정상 하자가 없는 펀드에 대해 업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담합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신중한 대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피델리티 투자자문업 신규 진출

- 그동안 꾸준히 국내 투신시장 진출을 타진해 오던 피델리티가 지난 8월 중순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신사 설립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초 피델리티가 투신사를 설립해 국내 투신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피델리티가 국내 투신시장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 우선 투자자문업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피델리티는 투자자문업을 통해 해외의 자사 펀드에서 편입돼 있는 한국 자산을 운용할 것이며, 사모펀드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업계 관계자는 피델리티가 사모펀드에 주력하는 것은 공모펀드의 판매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본국과 현지 체제의 운용 프로세서가 달라 이를 정립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음

♣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 주식형 펀드 10조원 눈앞

- 최근 주식형 펀드에 설정된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0월 23일 현재 9조7,345억원으로 지난 9월 말과 대비하여 4,105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5월 (6,229억원) 이후 최고치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의 경우 향후 채권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형 펀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 실제로 10월 들어 투신운용사들이 내놓은 주식형 펀드만 이미 35개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은행권에서도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형 펀드 상품에 대한 판매 계획을 늘린 점도 주식형 펀드 설정잔고의 증가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 2002년 10월 26일 토요일

○ 덤핑 논란이된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초저가 펀드, 법인 판매 중단

- 초저가 수수료 펀드인 '올마이티펀드'를 선보임, 덤핑시비 논란을 야기시켰던 미래에셋투신운용이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법인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힘
 - 미래에셋투신운용이 다른 투신운용사 사장들이 주장한 저가 수수료 경쟁이 자칫 펀드 업계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다른 투신사들의 판매 중단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개인과 소액 법인의 자금 유치는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음
 - 미래에셋 관계자는 업계의 자율결의를 일부 수용한 것 뿐이지 영업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영업은 지속하는 등 펀드 판매를 완전히 그만 둘 생각은 없다고 언급
- 이에 대해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기관의 수수료를 어느 정도 낮춰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정상 보수를 받는 개인들의 보수를 크게 깎는 것은 투신권 전체의 수익기반을 잠식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음
 - 아울러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업계의 건전한 경쟁에도 큰 해를 끼친다며 개인자금 유치 중단을 요구했음

♣ 2002년 10월 28일 월요일

○ 상장지수펀드 거래소 안착

- 투신운용업체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는 지난 10월 14일 상장 이후 25일까지 2주 동안 활발한 거래를 보이면서 일 평균 170~200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음
 - 거래대금만을 비교하면 상장 종목 가운데 30위권에 이르는 규모이며, 전반적인 거래량도 활발해 KODEX200의 경우 일 평균 200만주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아직까지도 선물과 차익거래를 하기에는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본격적인 차익거래는 향후 거래량 증가 상황에 좌우될 것으로 분석됐음
- KOSPI200 지수와 의 괴리율도 0.3%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어 지수 추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주 동안 지수수익률과 펀드수익률의 차이는 KODEX200이 +0.01%, KOSEF가 0.00%인 것으로 나타나 지수 추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음

♣ 2002년 10월 29일 화요일 (2)

○ 국민연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 제살 깎기 경쟁

-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주문을 내는 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주문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해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짐
 - 증권사들은 최근 국민연금 수수료 입찰 과정에서 개인과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의 절반 수준 정도로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 주문을 내는 증권사 26곳과 사이버 투자 주문을 내는 증권사 4곳을 선정해 이들과만 거래를 할 예정임
 - 전화주문 증권사 26곳 선정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리서치 능력, 주식 계약 체결 등을 지표와 각 증권사가 써내는 수수료 수준까지 감안해, 4개의 등급으로 나눠 거래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각 증권사는 국민연금 주문을 받기 위해 낮은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상장지수펀드 거래량 이상 경쟁 조짐

-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시장에 거래량 경쟁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이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지정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자전거래를 부추기기 때문임
- 10월 28일 증권거래소에서 KOSPI200 지수를 추적하는 ETF인 삼성투신운용의 KODEX200과 LG투신운용의 KOSEF는 각각 319만주, 279만주의 거래량을 기록했음
 - 이 거래량 수치는 KODEX200의 경우 지난 25일 (235만주)보다 불과 35% 정도 증가한 것이나, KOSEF의 경우 지난 25일 (117만주)에 비해 138%가 증가했음
 - KODEX200은 상장 당시보다 ETF 설정에 의해 상장 주수가 280만주 가량 증가한 반면, KOSEF의 경우 ETF 설정보다 환매가 많아 상장일보다 상장 주식 수가 60만주 줄어들었음
 - 이를 감안하면 KOSEF의 거래 급증은 지정판매사들의 자전거래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한 투신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KOSEF가 KODEX200에 비해 거래량 면에서 절대 열세를 보여 온 점을 감안하면 KOSEF 관계 지정판매사들이 자전거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러한 배경에는 ETF 증권 매매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아 자전거래 규모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지정판매사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별 손해가 없기 때문임
 - 이를 두고 시장 관계자들은 초기 시장 형성 과정인 ETF가 거래량 대결 구도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02년 10월 29일 화요일 [2]

○ 상장지수펀드의 투자를 통해 계열사 투자 효과를 노리는 삼성투신운용

- 최근 삼성투신운용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운용에 KODEX200 펀드 등 ETF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 동안 삼성투신운용은 계열사 투자 한도 (10%) 규정에 묶여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 블루칩에 적극 투자하지 못해 펀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음
 - 인덱스 펀드의 경우 이 같은 애로를 덜기 위해 주로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삼성투신운용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 주식에 마음대로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ETF를 편입함으로써 지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됐다고 언급

♣ 2002년 10월 30일 수요일 (1)

○ 투신권, 대우채 소송의 공동 대처를 위해 탄원서 제출

- 10월 29일 11개 투신운용사 사장들은 투신협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우채 부당 자전거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공동 대응키로 중지를 모았음
 - 사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99년 당시 투신업계의 대우채 편입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되는 등 범국가적으로 대우그룹 살리기가 진행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해명
 - 결과론적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적배당과 투자자 손실 부담이 기본인 업계의 투자신탁 상품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
 -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손해배상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투신업계의 영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금융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음
- 소송의 주요 쟁점은 지난 99년 7월 19일 대우그룹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 8월 12일 금감위의 수익증권 환매 대책이 나온 시점까지의 약 1개월 동안 이뤄진 펀드내 대우채 자전거래임
 - 투자자들은 이 기간 중 수익증권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우채를 우량 펀드로 옮김으로써 우량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임
- 주요 투신사들이 대우 채권의 수익증권 편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 당한 금액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8건에 1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까지 파악된 투신권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 내역

소송자	소송 대상	소송 금액
토지공사	11개 투신사	70억원
동광금고	현투운용	6억1,000만원
한국감정원	5개 투신사	1억2,000만원
현대중공업	현투운용	27억원
신협중앙회	현투운용	9억원
금양	현투운용	6억1,000만원
BC카드	우리투신운용	24억원
푸르덴셜생명	한투운용	3억8,000만원

- 일부 투신운용사들이 아직까지 피소 소송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나 앞으로 소송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난해 일부 기관투자자가 한투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자 최근 법인 투자자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개인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31개 투신사의 올 상반기 세전이익이 1,048억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투신권의 존립 기반에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언급

♣ 2002년 10월 30일 수요일 (2)

○ 동원그룹, 동원금융지주회사 설립위해 금감원 예비인가 신청

- 동원그룹은 10월 29일 금감원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음
- 동원금융지주회사는 동원증권, 동원투신운용, 동원창업투자, 동원캐피탈, 동원저축은행 등 7개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투자 관리를 전담할 예정임

○ 신한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으로 사명 변경

- BNP파리바그룹과 합작한 신한투신운용은 10월 29일 회사명을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으로 변경하고 합작 투신운용사로 새출발했음
-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은 지난 10월 24일 임시주총을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향후 사업방향과 임원인사 등을 결정했음
- 현재 외국자본 참여 투신운용사 현황

투신운용사명	외국인 출자 내역	
	주주명	지분율
국민	ING (호주)	20%
굿모닝	Prudential Corporation Asia (영국)	100%
대신	스미토모 생명보험 (일본)	20%
도이치	도이치에셋 매니지먼트그룹 (영국)	100%
랜드마크	코리아펀드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모건스탠리그룹, 말레이시아)	87%
슈로더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영국)	100%
신한BNP파리바	BNP PAM그룹 (프랑스)	50%-1주
외환코메르츠	코메르츠 은행 (독일)	45%
프랭클린 템플턴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카운셀, 템플턴 에셋매니지먼트 (미국)	100%
하나알리안츠	알리안츠AG (독일)	50%
한화	얼라이언스 캐피탈 (미국)	20%

♣ 2002년 10월 31일 목요일

○ 수익증권 판매 계열사 의존 여전

－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운용사들은 판매처 다변화 전략을 통해 지난해에 비해 계열사 판매 비중을 다소 줄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관계가 여전히 계열관계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에 의해 판매사의 객관적 선정 기준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해와 비교한 주요 투신운용사 계열사 판매 비중 (단위: 10억원)

투신사명	계열 판매사	10월 28일 기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수탁고	계열사 판매분	비중 (%)	전체 수탁고	계열사 판매분	비중 (%)
삼성	삼성증권	22,210	19,472	88	19,535	17,693	91
한국	한투증권	17,839	16,021	89	16,811	16,386	97
대한	대투증권	17,708	15,595	88	16,687	15,940	95
현대	현투증권	16,599	14,979	90	15,430	13,944	90
제일	제투증권	12,923	8,190	63	10,451	7,734	74
LG	LG증권	8,122	5,175	64	6,660	4,830	72
신한BNP*	신한은행, 신한증권, 굿모닝증권	4,515	3,240	72	3,453	2,100	62

* 신한BNP투신운용은 2002년 5월 1일 기준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투자신탁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열 관계에 의해 얽혀 있는 폐쇄적 구조에서 개방된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 판매사들은 객관적 기준으로 좋은 신탁상품을 선정해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임



11월

November

10대 주요 기사

1. 한국투신, 투신안정기금으로 구성된 펀드에서 부실채권 편입으로 큰 손실 초래 (1일)
2.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2030년엔 200조원 예상 (2일)
3. 자금 유치 운용사에 대해 일부 연기금의 과도한 수준의 보장 금리 요구 (7일)
4. 원금보장형 투자 상품을 놓고 투신권과 은행권의 논쟁 치열 (8일)
5. 한국증권금융, 12월부터 고객예탁금을 신탁 방식으로 운용 예정 (9일)
6. 투신운용사, 특정 증권사에 대한 주식 주문 담합 의혹 (12일)
7. 금감원, 미매각 수익증권에 포함된 부실채권 상각 기준 일원화 방침 (17일)
8. 최근 자금의 급속한 이탈 양상을 보이는 투기채 펀드 (19일)
9. 불특정신탁업무를 은행의 자회사로 분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금감위 (26일)
10. 대투운용의 프리코스닥펀드, 고객의 환매 요청 거부로 파문 (27일)

◆ 11월 목차 (11/1-11/10)

11/1 [금]	○ 은행권 펀드 판매 비중 급증 ○ 한국투신, 투신안정기금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1,000억원대 부실 초래 ○ 5개 전환증권사, 수익성 개선 위해 대책 건의
11/2 [토]	○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2030년엔 200조원 예상
11/3 [일]	
11/4 [월]	○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 1.9조원 증가 ○ 은행 특정금전신탁 30조원 돌파 ○ 장기증권저축 만기 연장 많아
11/5 [화]	○ 삼성전자주 편입 비중에 따라 펀드 수익률 천차만별
11/6 [수]	○ 채권 장부가 펀드 감소세
11/7 [목]	○ 금감원, 미매각 수익증권에 포함된 부실채권 상각 기준 일원화 계획 ○ 기업연금 주식 투자 비중 높지 않을 듯 ○ 농협-CA투신운용 예비 허가 신청 ○ 자금 유치 운용사에 대해 일부 연기금의 과도한 수준의 보장 금리 요구 ○ 투신사 MMF 유치 경쟁 치열 ○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파생상품에도 투자
11/8 [금]	○ 자산운용사, 부익부 빈익빈 ○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을 놓고 투신권과 은행권의 논쟁 치열 ○ 상장지수펀드 발행증권 수 감소
11/9 [토]	○ 연기금 투자폴 유명무실 ○ 한국증권금융, 12월부터 고객예탁금 신탁방식으로 운용 예정
11/10 [일]	

◆ 11월 목차 (11/11-11/20)

11/11 [월]	○ 미래에셋, 초저가 수수료 펀드 판촉 강화로 논란 재연
11/12 [화]	○ 최근 채권형 펀드 수익률 저조 ○ 투신운용사, 특정 증권사에 대한 주식 주문 담합 의혹 ○ 굿모닝투신운용회사 11월 11일부터 PCA투신운용회사로 사명을 개명
11/13 [수]	○ 투신업계 수수료 할인 경쟁 본격화 ○ 장외파생상품, 내년에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
11/14 [목]	○ 은행권, 운용사 선정 기준은 경쟁력 있는 상품 ○ MSCI, 한국 선진국 격상 없다
11/15 [금]	○ IT ETF 설립에 따른 논쟁
11/16 [토]	○ 무디스 한국 신용 전망 '긍정적' 상향
11/17 [일]	
11/18 [월]	○ 투신상품, 운용 성과 보수 금지
11/19 [화]	○ 투기채 펀드 자금 최근 급속도로 이탈
11/20 [수]	○ 외수펀드 편입자금 급격히 감소

◆ 11월 목차 (11/21-11/30)

11/21 [목]	○ S&P, 헤지펀드 지수 개발 ○ 상장지수펀드를 이용하는 금융상품 속속 등장
11/22 [금]	○ 국민연금운용위 상설화 추진 ○ 랜드마크투신 및 유리자산운용사의 상품 4개월 배타적 우선 판매권 부여
11/23 [토]	○ 올들어 단기 채권형 펀드 수탁고 급증
11/24 [일]	
11/25 [월]	○ 태광투신운용, '쇼핑업브렐러펀드' 2주만에 3,500억원 몰려
11/26 [화]	○ 은행 불특정신탁업무, 이르면 2005년부터 은행의 자회사로 분리 ○ 상장지수펀드 신용거래 허용 전망
11/27 [수]	○ 대투운용의 프리코스닥펀드, 고객 환매 요청 거부로 파문 ○ 투신운용사 사장단 초단기 상품 자제 결의
11/28 [목]	○ 금감원 등, '신탁재산 예탁·결제 인프라 구축 협의회' 구성 ○ 사학연금, 벤처·선물 투자 허용
11/29 [금]	○ 내년 시행될 자산운용업법에 수익자 총회제 도입 ○ 연기금 통합 펀드 2조1,000억원에 그쳐 ○ 증안기금 4,000억원 배분
11/30 [토]	○ 투신사 하이닉스 채무 조정안 반대

♣ 2002년 11월 1일 금요일 (1)

○ 한국투신, 투신안정기금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1,000억원대 부실 초래

- 한국투신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투신안정기금으로부터 7,179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조성한 '대표안정기금펀드'에서 하이닉스 채권 등 1,000억원대의 부실채권을 편입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한국투신은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펀드에 편입된 하이닉스 채권 등에 대해서는 50% 부실 상각으로 처리한 반면, 이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은 전체 투신업계 반발을 우려하여 상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 '대표안정기금펀드'의 설립 배경은 아래와 같음
 -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파산한 신세기투신 고객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한국투신에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신세기투신의 자산과 부채를 넘겼음
 - 대신 한국투신은 98년 2월 투신안정기금으로부터 5년 만기로 7,179억원을 지원받아 '대표안정기금펀드'를 운용해왔음
 - 정부는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금에서 이자 (현재 4.1%)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을 한국투신의 몫으로 주어 신세기투신 부실을 보전해 주려했음
 - 당시에는 시중 금리가 20% 이상의 고금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점차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음
 - 본 펀드의 상환 시기는 내년 2월 13일로 지금으로부터 약 100일 정도 남아 있음
- 최근 투신협회가 삼성증권으로부터 조합원 탈퇴 소송을 당하고 있어 투신안정기금 해체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태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임
 - 투신안정기금 운용 현황 (자료: 투신협회)

(11월 29일 현재, 단위: 10억원)

사명	운용 자금	지원 자금	합 계
한국투신증권	297.4	717.9	0.0
현대투신증권	366.7	500.0	1,015.3
제일투신증권	345.5		866.7
대한투신증권	373.8		345.5
동양투신증권	150.3		373.8
한국증권금융	256.5		150.3
합계	1,533.7	1,217.9	256.5

- 현재 금감위와 한투증권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미봉책이나마 일단 상환시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투증권 일각에서는 실적배당 원칙에 맞게 수익자인 회원사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반면 투신협회는 펀드 손실을 회원사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되고 한투증권이 떠안아야 한다며 회원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는 입장임
- 한편, 금감원측에서는 투신협회가 기금을 지원한 후에 전혀 감독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며, 한국투신의 펀드 운용 뿐만 아니라 투신협회의 감독 책임론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11월 1일 금요일 [2]

○ 은행권 펀드 판매 비중 급증

- 투신협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간접상품 판매 비중은 지난 9월 현재 14% (약 22조원)로 지난해 1월 7% (약 9조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음
 - 이는 올초 약 15조원 (11%)에 비해서도 약 7조원 정도 증가한 것임
 - 반면, 주요 판매사인 증권사의 비중은 지난해 1월 93%에서 9월 86%로 급감했음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안정 성향의 일반 개인 자금이 간접투자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의미여서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5개 전환증권사, 수익성 개선 위해 대책 건의

- 10월 31일 한국, 대한, 현대, 제일, 동양오리온 등 5개 전환증권사들은 경영난 타개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음
- 건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우선 자발어음과 CMA (어음관리계좌) 취급과 같은 종금사 업무를 허용해 줄 것
 - 확정금리 상품인 신탁형 증권저축의 한도와 취급 기간을 연장시켜 수익기반을 보장해 줄 것
 -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투신안정기금의 상환 연장
 -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 직접 판매를 불허할 것
 - 한투와 대투증권의 경우 각종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손실과 CBO 관련 손실을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MOU상의 경영개선목표 대상 항목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
-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송 판결 및 CBO 관련 손실을 경영개선 평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건의 내용 중에는 현실성이 없는 대목이 많고 일반 증권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환증권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음

♣ 2002년 11월 2일 토요일

○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2030년엔 200조원 예상

- 한국개발연구원 (이하 KDI)은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누적 적자 규모가 약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음
 - 이는 내년부터 25년간 국민이 갚아야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공적자금 국민 부담액 69조원의 3배나 되는 규모임
 - 아울러 공무원연금 적자는 모두 예산에서 메우기로 돼 있어 적자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며, 재정 압박으로 경제 정책 운용의 발목도 잡을 것으로 예상됨
- KDI는 11월 1일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대비 연금을 타 가는 퇴직 공무원연금 비율인 부양률이 해마다 가파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 현행 제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이 타 가는 연금 급여에서 현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뺀 연간 연금 적자 규모 (현재가치 기준)는 2005년 1,000억원, 2010년 2조원, 2020년 9조원, 2030년 18조원임
 - 이에 따라 2003~2030년까지 28년 동안 누적 적자는 현재가치로 총 200조원에 이른다는 것임
-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연금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정치권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 연금 지급 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음
 - 여야가 지난 10월 25일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연금 지급 산정 기준을 현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이보다 높은 '사실상의 봉급 인상률' 기준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
 - 행자부에 따르면 연금 지급 기준이 이번 개정 법안대로 적용되면 내년 한해에만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른 국민 부담이 3,169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2002년 11월 4일 월요일

○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 1.9조원 증가

- 증권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12개 주요 증권사의 수익증권 판매 (증권투자회사 포함) 합계액은 67조7,213억원으로 지난 9월 말보다 1조9,030억원 (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음
 -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판매보다는 대체로 채권형 수익증권의 판매가 증가했으며, 채권형 수익증권 중에서도 단기형 상품 위주로 판매가 늘었다고 언급
 - 반면, 한투증권, 대투증권, 현투증권 등 3대 전환증권사의 10월 말 현재 수익증권 판매액의 합계액은 46조3,886억원으로 지난 9월 말에 비해 오히려 1조2,94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은행 특정금전신탁 30조원 돌파

- 11월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현재 국내 19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 규모는 총 30조7,370억원으로 지난 해 말 22조5,000억원보다 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반면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은행권의 금전신탁 전체 수탁 규모는 73조1,083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81조4,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8조3,000억원 정도가 감소했음
-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직접 운용자산과 편입비율을 정하는 신탁상품으로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 또는 특정 주식을 사달라고 주문하고 투자 비중도 고객이 직접 결정함
 - 일반인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은행들이 직접 상품을 구성해 고객들에게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음
 - 통상 가입 규모는 1억원 이상이며 운용 기간은 1년 정도인데, 최근에는 가입 한도를 3천만원까지 낮추고 운용 기간도 3개월 미만인 단기 상품이 많이 선보이고 있음

○ 장기증권저축 만기 연장 많아

- 11월 3일 펀드평가 전문회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장기증권저축 펀드 규모는 2조1,261억원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9월 말보다 350억원 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음
 - 지난 10월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왔던 장기증권저축 펀드 가입자들이 대부분 환매보다는 만기 연장을 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향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내년 증시를 밝게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2002년 11월 5일 화요일

○ 삼성전자주 편입 비중에 따라 펀드 수익률 천차만별

-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삼성전자 독주 현상으로 인해 투신운용사들의 펀드 수익률도 크게 엇갈리고 있음
 - 10월 1일 현재 종가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 652.13일 때 삼성전자 주가 297,500원이었음
 - 그러나 10월 31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58.92로 10월 1일에 비해 약 1%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345,000원으로 약 16%가 상승했음
 - 현재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시가 총액의 약 18%에 이름
- 올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5% 이상 하락하는 동안 성장형 펀드 시장을 주도했던 SEI에셋자산운용, 프랭클린투신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3개 투신사의 펀드 상품에서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음
 -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5.26%에 달하는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간 펀드 수익률에서 업계 1위를 차지했음
 - 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낮은 프랭클린투신운용과 SEI에셋자산운용은 각각 1.13%, 0.93%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업계 월간 수익률 기록면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음
 - 이들 두 운용사의 주식형 펀드들은 지수 상승률 1.93%에 크게 못미치는 성과를 냈음
- 현재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성장형 펀드 시장에서 SEI에셋자산운용은 올 들어 11월 1일 현재까지 32%를 웃도는 펀드 수익률을 보이며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동기간 동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5%, 프랭클린투신운용은 10%로 나란히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02년 11월 6일 수요일

○ 채권 장부가 펀드 감소세

-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현재 장부가 펀드의 총 수탁고는 5조1,697억원으로 연초에 비해 1조9,945억원이 감소했음
 - 현재 장부가 펀드의 유형을 보면 채권형 3조2,600억원, 주식형 9,100억원, 주식혼합형 1,300억원, 채권혼합형 8,700억원임
 - 회사별로 보면 대투운용과 한투운용이 각각 1조879억원, 1조743억원으로 가장 많으나, 이들 회사의 각 전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에 불과함
 - 반면 서울투신운용의 경우 9,434억원으로 전체 수탁고의 24%에 이르러 장부가 펀드의 비중이 투신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이들 장부가 펀드는 주로 1998년 시가평가 제도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부실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알려짐
 - 투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판매사들이 운용사의 상품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운용사 내부의 장부가 펀드 규모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음

♣ 2002년 11월 7일 목요일 (1)

○ 금감원, 미매각 수익증권에 포함된 부실채권 상각 기준 일원화 계획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미매각 수익증권내 포함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증권사 재무구조 판단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따라서 미매각 수익증권에 포함된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기준을 일원화해 올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국내 43개 증권사가 갖고 있는 미매각 수익증권 규모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4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만약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 규모가 크거나 그간 결산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비율을 낮게 적용해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온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에 큰 타격이 예상됨

○ 기업연금 주식 투자 비중 높지 않을 듯

- LG경제연구원은 11월 6일 '기업연금 제도의 증시 부양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돼도 다른 운용 자산보다 위험이 큰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위험도가 높은 반면 중장기 수익률은 다른 운용 자산보다 떨어져 연금의 투자처로는 부적당한 것으로 조사됐음
 - 따라서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연금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금의 운용 특성상 증시 수요기반이 크게 확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음
 - LG경제연구원은 주식, 채권, 부동산의 최근 15년간 월평균 수익률과 위험도 (월 수익률 표준편차)를 측정한 결과 수익률에선 회사채가 월 0.9%로 가장 높았고, 주식과 부동산이 각각 0.7%, 0.1%로 나타났음
 - 반면 위험도 수치는 주식이 11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과 회사채는 각각 0.8과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농협-CA투신운용 예비 허가 신청

- 11월 6일 농협중앙회와 프랑스의 Credit Agricole 금융그룹의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는 농협-CA투자신탁운용 (가칭)의 설립을 위한 예비 허가를 금감위에 신청했음
 - 농협-CA투자신탁운용은 총 3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농협중앙회와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가 각각 180억원, 120억원씩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1894년 설립된 프랑스의 Credit Agricole 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및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프랑스내 은행 그룹 중 총 자산기준 2위 (세계 17위)에 해당하는 회사임

♣ 2002년 11월 7일 목요일 (2)

○ 자금 유치 운용사에 대해 일부 연기금의 과도한 수준의 보장 금리 요구

- 일부 연기금 등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투신운용사에 자금을 맡기면서 확정수익률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하면서 확정수익률을 요구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현행 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최근 금리 하락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노골적으로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자금을 유치하려는 투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타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 서라도 자금을 끌어오려다 보니 운용사간 수익률 제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문제는 요구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무리한 운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으며, 일부 투신사들의 경우 운용수수료를 낮춰 수익률을 맞추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MMF의 경우 평균 수익률보다 0.1% 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가 하면, 1년짜리 채권형 펀드의 경우 연 5.8~6.0%가 정상적이지만 연 7~7.5% 이상까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
 - 따라서 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은 이러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매매 차익을 추구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카드채 및 CP 등을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운용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 아니라, 만약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투신사 MMF 유치 경쟁 치열

- 최근 투신업계는 MMF 자금 유치를 위해 판매 운용 보수를 인하하고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 기관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등 그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투신사들이 팔고 있는 MMF의 제시 수익률을 보면 신종MMF가 4.3~4.4%이고, 클린MMF의 경우 4.5~4.6%로 적정 평균 수익률인 4.3%보다 금리를 높게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투신사 보수는 평균 50bp에서 10bp 정도 내려간 40bp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제살깎기 경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음
- 투신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금리가 불안하고 투신권으로 자금 유치가 잘안되는 상황에서 투신사들이 MMF를 통해 무리한 수탁고 경쟁을 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 아울러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경우 MMF 대량 환매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 2002년 11월 7일 목요일 [3]

○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 파생상품에도 투자

-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면서 생긴 여유 자금이 내년부터 파생상품에도 투자되는 등 본격적으로 증시에 투입될 예정임
 - 11월 6일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여유 자금이 생겨도 예금과 상장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과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11월 6일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았음
 - 국민주택기금은 영세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데 쓰이며, 대출 잔액은 42조원, 연간 사업비 10조원 규모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기금 중 예선 가장 규모가 큰 기금임
-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이 예년엔 연간 5,000~7,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서 국민주택 채권 판매가 늘어나 여유 자금이 2조원이나 적립됐다고 언급
 - 건교부는 이 자금을 앞으로 기획예산처의 기금 운용 풀에 넣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올해 여유 자금 2조원은 정부가 내년엔 증시에 투입할 연기금 여유 자금 6~7조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체 연기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임

♣ 2002년 11월 8일 금요일 (1)

○ 원금보장형 투자 상품을 놓고 투신권과 은행권의 논쟁 치열

- 최근 은행권이 원금보장이 되면서 예금의 일부를 주가지수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내놓자 투신권은 이 상품이 투신권의 실적배당형 상품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음
 - 투신권은 이 상품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위탁받아 투자 성과에 따른 실적을 배분하는 특성상 신탁상품으로 분류돼야 하는데도 예보에 의해 원금 보장을 받는 예금상품으로 분류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음
 - 따라서 투신권은 이들 상품이 예보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는 특혜를 앞세워 투신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정식으로 항의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논쟁이 되는 원금보장형 상품의 한 예로 하나은행이 내놓은 '하나지수플러스정기예금'은 정기예금 가입자의 예금을 모아 KOSPI200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해 지수가 상승하면 옵션 투자에 따른 차익에 따라 예금 금리도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최소 예금 금액은 1,000만원이며, 지수 상승폭에 따라 최저 0%에서 최대 13.5%의 변동 이자율이 적용됨
-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에 대한 투신권 및 은행권의 주요 논점

구 분	투신권 주장	은행권 주장
상품 구조의 정의	· 주가지수에 연동돼 예금 이자율이 변하는 투자상품인 장외 파생상품에 가까움	· 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
원금보장 여부	·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원금보장 대상에서 제외돼야 함	· 정기예금인 만큼 예보에 의해 원금 보장 해야 함
투자자 책임 원칙	· 은행의 투자 결과가 나쁠 때는 예보에 의해서 보장되는 상품으로 투자자 책임 원칙에 위배	· 투자수익의 일부만 예금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상품 구조를 가진 다양한 예금 상품이 있음
은행 리스크 관리 측면	· 고위험 자산인 만큼 은행의 BIS비율 산정에서 위험 가중치를 높여 적용해야 함	· 옵션 매수·매도 포지션에 동시 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할 우려 없음

○ 상장지수펀드 발행증권 수 감소

- 삼성투신운용의 KODEX200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가 신규 설정보다 환매가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ETF 발행 증권 수 변동 상황

(단위: 1,000주)

구 분	10월 14일 (최초 상장일)	11월 7일 현재	증감률 (%)
KODEX200	22,600	27,400	21.2
KOSEF	14,700	12,900	-12.2
KODEX50	8,700	4,800	-44.8
KOSEF50	3,000	2,900	-3.3

♣ 2002년 11월 8일 금요일 [2]

○ 자산운용사, 부익부 빈익빈

- 투신협회에 따르면 11월 5일 현재 증권투자회사의 수탁고는 7조9,778억원으로 연초 대비 2조2,551억원이 증가했으나, 수탁고의 증가분이 대형 자산운용회사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소형 자산운용회사들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적극적인 활로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현황 (자료: 투신협회)

(단위: 10억원)

회사명	수탁고		회사명	수탁고	
	11월 5일	연초 대비		11월 5일	연초 대비
SEI에셋코리아	1,437.6	45.0	글로벌에셋	174.9	56.5
미래에셋	1,322.0	716.7	마이에셋	168.0	74.6
마이다스에셋	1,281.1	470.7	그린에셋	139.9	-165.3
맥쿼리-IMM	1,153.1	615.7	와이즈에셋	54.4	47.6
KTB	1,012.2	625.2	알파	43.1	-
유리	527.6	-25.2	뉴스테이트	20.8	18.7
다임인베스트먼트	261.1	-337.6	총 계	7,977.8	2,555.1

♣ 2002년 11월 9일 토요일 (1)

○ 연기금 투자폴 유명무실

- 연기금 통합 펀드가 증시 수요기반 확대라는 당초 정부측의 취지와는 달리 운용 1년이 지나도록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MMF와 채권형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기금 통합 펀드는 정부가 중소 연기금들의 자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침체된 증시 수요기반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에 만든 투자폴임
 - 통합펀드는 11월 8일 현재 MMF 1조3,600억원, 채권형 9,200억원, 채권혼합형 2,400억원을 투자해 전체 운용자금의 95% 이상을 채권관련 상품에만 투자하고 있음
- 예탁 규모도 올 연말 목표치 5조원의 절반인 2조5,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음
 - 그나마 이정도 금액이 모인 것도 중·소연기금 외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대형 연기금들이 정부의 권고하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준 결과임
 - 이는 자체 규정상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 연기금들이 정부 주도하의 연기금 투자폴 구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연기금의 투자폴을 통해 증시 수요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됨
- 투신업계 관계자들도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규정이나 기금 운용 실무진들에 대한 투자 교육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의욕만 앞세운 결과라고 설명

♣ 2002년 11월 9일 토요일 [2]

○ 한국증권금융, 12월부터 고객예탁금을 신탁 방식으로 운용 예정

-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및 선물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이 오는 12월부터 신탁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임
 - 금감위는 11월 8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신청한 고객예탁금의 신탁 영업 허용안을 승인했음
 -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증권회사, 선물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12월부터 예탁금의 신탁 운용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증권금융은 그동안 예탁금을 증권사에 빌려주거나 은행 예금과 국공채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를 증권사에 지급해 왔음
 - 예탁금이 신탁 방식으로 운용되면 한국증권금융은 운용수수료를 받게 되며, 증권회사들은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게 됨
 - 반면 투자자들은 연 2~3%의 이자만 받는 등 종전과 달라지는 게 없음
 - 한국증권금융측은 현재 예탁금을 기준으로 75% 정도의 증권사가 예탁금 운용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예탁금을 투자자 동의 없이 신탁 운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탁금의 신탁 운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음
 - 이에 대해 증권금융 관계자는 신탁 운용으로 바뀌도 종전처럼 투자 대상이 국공채나 유가증권 담보 대출,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은행 예금 등으로 제한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
 - 신탁 운용되는 예탁금은 증권금융의 고유자산에서 신탁재산으로 분리돼 증권금융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보호받게 된다고 주장했음

♣ 2002년 11월 11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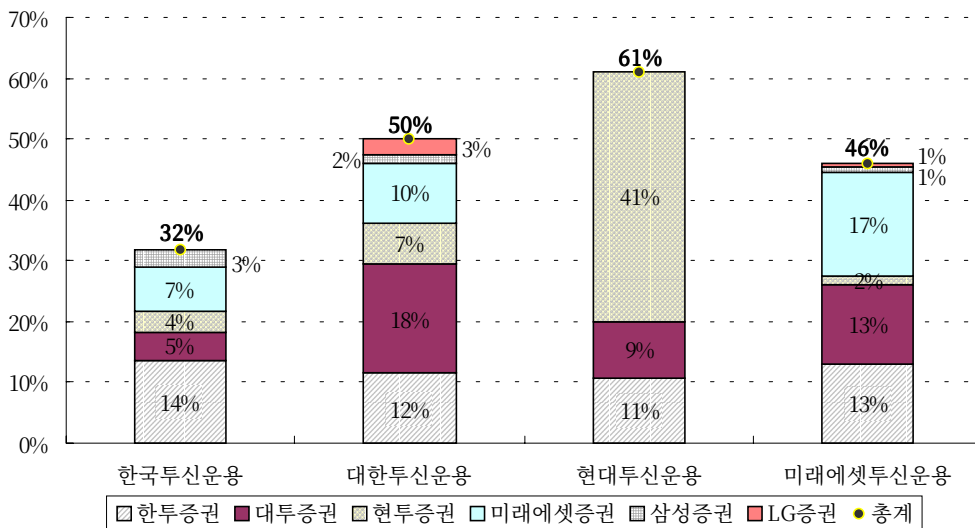
○ 미래에셋, 초저가 수수료 펀드 판촉 강화로 논란 재연

- 지난 10월 초저가 수수료 논란을 불러왔던 "올마이티채권형펀드"에 대해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판촉을 다시 강화하고 있어 투신권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음
 - 지난 10월 8일에 설정된 이 펀드는 판매 첫 날에만 약 2,000억원을 판매했으며, 8일만에 수탁고 5,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채권형 펀드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음
 - 본 펀드의 만기는 한 달로 시가 평가형 펀드 상품 가운데 가장 짧은 MMF와 유사한데다 수수료도 국내 최저인 0.132%를 적용하여 법인들의 단기 여유자금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이었음
 - 투신사들은 사장단 회의를 열어 미래에셋측에 법인 영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미래에셋측은 당분간 소규모 법인과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영업하겠다고 양측의 갈등이 마무리 됐음
- 그러나 투신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측이 판촉 활동을 강화하면서 11월 7일 하루에만 "올마이티채권형펀드"에 170억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펀드 전체 규모가 약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미래에셋 관계자는 펀드 설정 이후 한 달이 돼 만기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며 펀드 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일부 법인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최근 수탁 규모를 다시 늘리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11월 12일 화요일 (1)

○ 투신운용사, 특정 증권사에 대한 주식 주문 담합 의혹

- 국내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투신운용사의 주식 주문이 특정 증권사로 몰리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금감원이 11월 11일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투신운용사의 1~9월 증권사별 주문 현황"에 따르면 주요 4개 투신운용사가 계열 증권사 및 2,3개 특정 증권사에 낸 주문이 전체의 32~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각 투신운용사는 계열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주문 물량이 전체 주문 금액의 20%로 제한돼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투신운용사들이 이러한 현행 규제를 피해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 간 계약을 맺어 주식 주문을 교환하는 바터식 (물물교환식) 주식 주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4개 투신운용사의 특정 증권사별 주문 비중 (자료: 금감원)



* 현대투자증권에서 현대증권의 주문 비중에는 현투증권이 포함돼 있음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주요 투신운용사가 위탁수수료 시장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바터식 주식 주문 계약에서 제외된 증권사에게는 주요 투신운용사가 큰 고객이 될 수 없다고 언급
 - 바터식 주식 주문 계약에서 제외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아예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투신운용사에게 주식 주문 계약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조차 갖지 않는다고 덧붙임

○ 굿모닝투신운용회사 11월 11일부터 PCA투신운용회사로 사명을 개명

♣ 2002년 11월 12일 화요일 [2]

○ 최근 채권형 펀드 수익률 저조

- 최근 3개월 수익률이 1% (연 4%)를 밑도는 채권형 펀드가 속출하는 등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11월 8일 현재 주요 투신운용사별 채권형 펀드 수익률 (자료: 제로인)

투신운용사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교보	0.76	2.27
SK	0.80	2.20
삼성	0.97	2.50
제일	1.00	2.77
한국	1.02	2.50
국민	1.23	3.35

- 투신운용사들은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스왑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이나 FRN 채권의 편입을 늘렸었음
- 그러나 최근 미국 FOMC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와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로 인해 이들 투신운용사의 금리 전망이 어긋난 것이 수익률 하락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임

♣ 2002년 11월 13일 수요일

○ 투신업계 수수료 할인 경쟁 본격화

- 미래에셋투신운용에 이어 태광투신운용이 판매사인 동양증권증권을 통해 기존 상품 수수료가 극히 낮은 채권형 펀드 상품을 출시하여 저가 마케팅이 투신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동양증권증권은 11월 8일부터 신탁보수율이 MMF 절반 수준 (0.22%)인 "태광소핑엠브렐라펀드"를 출시했음
 - 이에 앞서 미래에셋투신운용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사를 통해 신탁보수율이 0.13%에 불과한 "미래에셋올마이티채권형펀드"를 내놓아 1주일만에 5,000억원의 수탁고를 올린 바 있음
- 동양증권증권 관계자는 새로 판매한 펀드 상품의 보수 신탁률을 미래에셋측이 내놓은 상품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었으나, 대형 투신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
 - 따라서 향후 보수 신탁률을 더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음
- 이에 대해 주요 대형 투신사들은 이 같은 저가 마케팅이 궁극적으로 제살깎기 식의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투신운용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 장외파생상품, 내년에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

- 이르면 내년부터 장외파생상품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일반 개인을 비롯하여 투신권의 펀드에서도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금감원이 최근 채권 이자를 옵션 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인 원금보장형 펀드 상품이나 채권 원리금 상환액을 주가에 연동시키는 주가 연동형 채권 등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국내 증권사 중 삼성, LG, 대우증권 3곳에서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받아 보험사와 은행, 상장 및 등록법인에만 계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중개수수료에 의지해 영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을 유가증권으로 취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 은행권, 운용사 선정 기준은 경쟁력 있는 상품

- 은행들이 상품 판매를 위한 운용사 선정시 자회사 등의 특정 회사 제품만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은행들의 이 같은 인식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수익률은 좋았지만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 투신운용사나 외국계 자산운용회사들의 입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실제로 지난해 주식형 펀드 부문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한 템플턴투신운용은 판매사가 지난해 12개에서 올들어 27개로 대폭 늘어나며 수탁고가 지난 11월 8일 현재 지난해 연말보다 약 1조원이 증가한 2조3,313억원으로 증가했음
 - 투신협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간접상품 판매 비중은 지난 9월 현재 약 22조원으로 전체의 15%에 이름
- 판매회사인 은행권의 이 같은 인식 변화는 계열 관계에 입각한 현재의 운용사와 판매사와의 관계를 와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운용사 선정 기준의 변화는 투신운용사간 상품 경쟁을 유발시켜 투신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MSCI, 한국 선진국 격상 없다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의 관계자는 MSCI 지수에서 한국의 지위 변화 (이머징 마켓→선진국)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음
 - 시장 참여자들은 MSCI가 한국시간 15일 새벽 4시 15분경 분기 구성 종목 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의 지위를 이머징마켓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킬 가능성을 조심스레 기대했었음
 - 특히 지난 8월 세계은행이 한국의 지위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면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졌음
- MSCI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MSCI가 특별한 결정을 할 경우 오랜 시간 내부 검토 단계를 거치고 이후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공언했음
 - 그는 지난 5월 선진국으로 격상된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 그리스는 지위 변화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기까지 18개월이나 소요됐다고 언급
 - 한편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인 MSCI 지수는 12월 2일부터 효과가 발휘될 예정임

♣ 2002년 11월 15일 금요일

○ IT ETF 설립에 따른 논쟁

- 삼성투신운용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IT ETF (상장지수펀드)의 개설 요건을 놓고 재경부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IT ETF의 기초지수인 IT 지수에 편입돼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구성 비율이 전체 지수 종목 중에 40%임
 - 그러나 지난 10월 1일에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상장지수 투자신탁의 지수 요건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당해 지수에서 30%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재경부에서는 법이 개정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다시 법안을 개정한다면 법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음
 - 아울러 삼성전자 한 종목을 펀드에 40%나 편입시키면 펀드의 수익률이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삼성투신운용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IT 지수를 구성하는 업종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한데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
 - 만약 40%를 허용하지 않으면 새로 설립될 IT ETF의 경우 지수 추적 오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음

♣ 2002년 11월 16일 토요일

○ 무디스 한국 신용 전망 '긍정적' 상황

- 재경부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1월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 (stable)에서 긍정적 (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음
 - 무디스는 지속적인 대외 부문의 개선 및 건실한 경제정책 유지, 유연한 환율정책, 외환 보유액 확충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평가했음
 - 아울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진전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켰다고 상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음
- 한편 무디스는 대선 이후 정부가 경제 정책과 시장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하고 향후 중점 점검 사항을 언급했음
 - 무디스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외 여건하에서 그간의 경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했음
 - 대선 이후 안정적 정부 이양,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향후 남북 관계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음

♣ 2002년 11월 18일 월요일

○ 투신상품, 운용 성과 보수 금지

-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자산운용업법안에 성과 보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펀드에 대한 성과 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모 펀드에는 예외 규정(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58조의3 제1항)을 두는 현행 법안과 동일함
 - 성과 보수제는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운용사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리스크 부담이 큰 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운용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부 펀드에 성과 보수제를 적용할 경우 법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원칙적으로 성과 보수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간접투자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래수수료 성격의 부담은 거래에 관계한 투자자가 맡고 운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펀드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존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마련했음
 - 예를 들면, 투자자가 1,000만원을 펀드에 가입할 경우 선취 판매수수료가 10만원이면 10만원을 수수료로 제외한 990만원이 펀드에 투자됨
 - 이후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경우 전체 펀드 자산에서 차감하여 환매를 하는 펀드 투자자에게 간접적으로 부과됨
 - 아울러 간접투자 상품 발매시 금감위에 약관을 보고하기 전 또는 펀드 설정 전에는 상품 판매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보험회사에 간접투자 상품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자산운용업법안에 포함됐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배당 상품 판매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의한 판매를 일단 허용하지 않기로 했음

♣ 2002년 11월 19일 화요일

○ 투기채 펀드 자금 최근 급속도로 이탈

- 최근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이들 펀드 자금이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과거 투기채 펀드들은 배정 받은 공모주의 시장가격 상승으로 펀드 수익률 제고에 큰 혜택을 보았음
 - 그러나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유통시장으로 나온 공모주의 시장 가격이 공모 확정 단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펀드 수익률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투기채 펀드 수익률 현황 (11월 15일 현재 시점, 자료: 한국펀드평가)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CBO펀드	1.37%	6.32%	15.70%
하이일드펀드	-0.54%	3.58%	10.83%

- 투기채 펀드 설정잔고 추이 (자료: 한국펀드평가)

(단위: 10억원)

	2002.1.2	2002.11.15	증감액
CBO펀드	1,246	956	-290
하이일드펀드	13,731	10,228	-350

- 투신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투기채 펀드 등이 수익률이 저조하자 많은 일반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투기채 펀드에서 자금을 빼 MMF나 단기 채권형 상품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11월 20일 수요일

○ 외수펀드 편입자금 급격히 감소

- 지난해 말 투신운용사들이 앞다퉈 설정했던 외수펀드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추세로 인해 펀드 자금 규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
 - 지난 4월 18일 종합주가지수 937.61로 연중 최고점을 찍은 이후 외국인 매도로 인한 침체장에 접어들면서 외수펀드 설정액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음
 - 외수펀드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투신운용사가 그 자금을 국내에 투자·운용하는 펀드임
 - 주요 외수펀드 자금 보유 추이 (자료: 제로인)

(단위: 10억원)

펀드 명	운용사	2001.12.31 현재	2002.4.19 현재	2002.11.18 현재
삼성프라임투자신탁	삼성투신	55.6	46.7	29.1
삼성코리아프리미엄	삼성투신	202.2	211.5	100.0
Peninsula Recovery Trust	동양투신	42.0	33.7	13.9
HLET	현대투신	46.0	75.8	40.5
한국ISL 투자신탁	한국투신	139.6	267.2	209.4
한국한강캐피탈 투자신탁	한국투신		250.0	8.0
대한프로엑티브	대한투신		26.5	24.2

♣ 2002년 11월 21일 목요일

○ S&P, 헤지펀드 지수 개발

-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헤지펀드의 9가지 전형적인 투자 전략을 대표하는 40개 펀드로 구성된 'S&P 헤지펀드 지수'를 개발했다고 CBS마켓워치가 19일 현지 시각으로 발표했다
- 기존의 지수들이 자본 규모에 가중치를 두는 것과 달리 S&P가 개발한 헤지펀드 지수는 투자 전략별 가중치를 두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헤지펀드의 전형적인 9가지 전략은 다시 차익거래 전략, 사건 위주 (event-driven) 전략, 전술적 (tactical) 전략 등 3가지 세부 지표로 다시 구분되고 있음
- S&P의 피터 로프먼 부회장은 이 헤지펀드 지수 개발의 목적은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헤지펀드 지수에 연동하는 투자 상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등 자산 시장의 투자 대안으로 최근 헤지펀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상장지수펀드를 이용하는 금융상품 속속 등장

-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를 이용한 간접 투자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거래량이 줄고 있는 ETF의 구성 종목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됨
- ETF 관련 상품

상품 명	운용사	ETF 투자 비율	판매 시기
KOSEF 업종 대표 주식 혼합형	LG투신	30%	11/14
KB ETF 신탁	국민은행	30%	11/21
굿모닝 세이프 ETF 펀드	PCA투신	20%	10/14
그린에셋 코지 라이프 혼합형	그린에셋자산운용	10%	10/14
랜드마크 이익 배당 혼합	랜드마크투신	10%	12월초 예정

♣ 2002년 11월 22일 금요일

○ 국민연금운용위 상설화 추진

-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내에서 추진 가능한 4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 운용 실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공단과 별도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도 이들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들로 교체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을 만들기로 했음
 - 아울러 기금 운용 책임 범위, 투자 상품, 위험 관리 등 기금 운용 전반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투자정책 지침서 (Investment Policy Statement)도 제정하기로 했음

○ 랜드마크투신 및 유리자산운용사의 상품 4개월 배타적 우선 판매권 부여

- 11월 21일 투신협회에서는 랜드마크투신운용의 '랜드마크이익배당알파투자신탁'과 유리자산운용의 '유리유니콘채권혼합형펀드'가 상품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하고 4개월 동안 배타적 우선 판매권을 부여했음
 - 랜드마크투신운용의 '랜드마크이익배당알파투자신탁'은 발생한 이익을 이자 소득과 자본 소득으로 분리하고 회계 기간 종료에 따라 이자 소득은 현금 분배하고 자본 소득은 수익자가 환매 또는 해지시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익 분배구조를 가짐
 - 유리자산운용의 '유리유니콘채권혼합형펀드'는 채권에 90% 수준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지수 선물뿐만 아니라 금리 선물 등 여러 선물 상품에 중복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임
 - 두 상품간 특징 비교

구 분	랜드마크이익배당알파투자신탁	유리유니콘채권혼합형펀드
상품 유형	채권혼합형, 추가형, 공모형	채권혼합형, 추가형, 개방
특징	이자 소득 현금 배당	여러 선물에 분산 투자하고 각 선물에 대한 체계적 매매 규칙을 적용해 추가 이익 추구
운용 내용	채권 60% 이상, 주식 10% 이하	채권 90% 이상, 유동성 10% 이상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70%, 180일 미만 50%, 1년 미만 20%	6개월 미만 70%
운용회사	랜드마크투신운용	유리자산운용
판매사	LG, 대투, 현대증권 등	SK증권
기타	12월 초부터 판매	미정

♣ 2002년 11월 23일 토요일

○ 올들어 단기 채권형 펀드 수탁고 급증

- 투신협회에 따르면 투신운용사의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가 수탁고 사상 처음으로 50조원 (11월 21일 현재 50조680억원)을 돌파했음
 - 아울러 만기 6개월 미만인 단기 채권형 펀드에도 역대 최고 수준인 36조2,000억 원이나 몰려 있는 등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말 MMF 수탁고가 35조2,570억원인 것과 고려하면 올들어 MMF에는 약 14조 8,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임
 - 단기 채권형 펀드의 경우도 지난해 말 수탁고 25조4,570억원과 비교해서 9조 7,570억원이나 증가했음
- 시장 전문가들은 이는 상장사들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는 반면, 여전히 불확실한 경기 전망 때문에 신규 투자에 주저하면서 여유 자금을 초단기 채권형 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하지만 시중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수탁고에서 자금 이탈 현상이 급격히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

♣ 2002년 11월 25일 월요일

○ 태광투신운용, '쇼핑엄브렐러펀드' 2주만에 3,500억원 몰려

-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올마이티채권형펀드'에 이어 투신권에서 두 번째로 초저가 수수료를 표방한 태광투신운용의 '쇼핑엄브렐러펀드'에도 발매 2주일만에 3,500억원이 몰렸음
 - 이 펀드는 총수수료가 보통 펀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0.22%에 불과하며,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1개월이어서 통상적으로 일컫는 펀드 만기가 MMF를 제외하고 가장 짧은 편임
- 미래에셋투신의 '올마이티채권형펀드'의 경우 총수수료 0.132%를 내걸고 8일만에 판매고가 5,000억원을 넘겼음
 - 이에 비해 수탁고 증가 속도는 조금 늦지만, 태광투신운용의 전체 수탁고 (1조 3,000억원)를 감안하면 '쇼핑엄브렐러펀드' (전체 수탁고의 27%)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11월 26일 화요일

○ 금감위, 은행의 불특정신탁업무 관련 은행의 자회사로 분리 의견 제시

- 금감위는 이르면 2005년부터 은행 불특정금전신탁 운용 부문이 은행의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음
-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5월에 발생한 외환은행 사례처럼 신탁상품 손실을 은행 고유계정에서 메워주는 식의 변칙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신탁상품과 예·적금 등 고유상품운용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는 다만 한꺼번에 분리하도록 하면 은행들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3~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음
 - 분리가 확정되면 은행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계속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면서 자산 운용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설립될 투자신탁운용회사에서 맡게 될 것임
 - 당초 재경부는 입법 예고안에서 신탁상품 판매와 운용 부문 겸업을 계속 허용하되 은행 고유상품과 신탁상품을 연계 운용하지 못하도록 방화벽 (fire wall)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었음

○ 상장지수펀드 신용거래 허용 전망

- 이르면 12월부터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도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금감원은 ETF의 조기 정착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거래를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음
 - 금감원은 이를 위해 12월 6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합동간담회에 ETF 신용거래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 2002년 11월 27일 수요일 (1)

○ 대투운용의 프리코스닥펀드, 고객 환매 요청 거부로 파문

- 벤처 투자 열풍을 타고 한동안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했던 프리코스닥펀드가 고객의 투자 자금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파문이 일고 있음
 - 지난 2000년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신탁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원원프리코스닥펀드'를 설정했던 대투운용은 이 펀드 투자자의 환매 요청 금액을 전액 되돌려 주지 못하고 있음
 - 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상장이나 등록 이전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에 투자했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했던 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대투운용의 '원원프리코스닥펀드' 수탁고는 설정 초기 400억원이 넘었지만 11월 26일 현재 50억원 정도만 남아 있음
- 업계에서는 대투운용 외에 다른 대형투신운용사의 프리코스닥펀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요 투신운용사들의 프리코스닥 펀드 현황

(11월 26일 현재, 단위: 10억원)

투신운용사	펀드 명	설정잔고	만기일
대한투신운용	원원프리코스닥	5.0	2001년 3월
한국투신운용	코스닥M-1	3.5	2001년 11월
	코스닥 엔젤3	6.5	2003년 4월
현대투신운용	바이코리아 프리코스닥1-1	5.8	2002년 1월
	바이코리아 프리코스닥2-1	7.1	2002년 2월
	바이코리아 프리코스닥2-2	6.7	2002년 1월
삼성투신운용	새천년프리코스닥	0.2	2001년 1월
	드래곤프리코스닥1-1	0.2	2001년 1월
	드래곤프리코스닥1-2	5.9	2001년 1월

- 투신업계 관계자는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추가 입금과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설정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함
 -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환매한 투자자는 장외기업 주식이 장부가로 반영된 펀드의 기준가격대로 환매가 가능했지만 남은 투자자들은 환매를 제약당할 뿐만 아니라 휴지 조각이 돼 버린 장외기업 주식을 나눠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미리 환매해 간 투자자와 현재 남아있는 투자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임
 - 투신운용사들이 펀드의 유동성 위기를 미리 알아채고 '단골 고객'에게만 미리 환매해 갈 것을 알렸을 개연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금융당국은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 불능 사태에 대해 투자자 피해 발생과 법적 분쟁 가능성 등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현행 법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금감원은 11월 26일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 불능 사태와 관련하여 투신사가 고객의 환매에 응해 돈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경우 환매를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 2002년 11월 27일 수요일 (2)

○ 투신운용사 사장단 초단기 상품 자제 결의

- 6개 주요 투신운용사 사장들은 투신협회에서 운용위원회를 열고 시중 투자자금의 부동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음
 - 이들은 최근 일부 투신운용사들과 판매사들이 저가 수수료를 앞세워 벌이고 있는 과열 경쟁 양상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아울러 최근 들어 앞다퉂 내놓고 있는 초단기 상품이 증권 투자의 단기화를 가져오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해당사에 건의하기로 했음

♣ 2002년 11월 28일 목요일

○ 금감원 등, '신탁재산 예탁·결제 인프라 구축 협의회' 구성

- 금감원은 지난 11월 14일 증권, 은행, 증권전산, 증권예탁원 등 27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신탁재산 예탁·결제 인프라 구축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이 협의회에서는 펀드 운용 업무 처리 과정을 표준화하고 펀드별로 신탁재산의 예탁 및 결제가 이뤄지도록 자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원은 이 협의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7~8월 통합 테스트를 거쳐 9월에 가동할 계획임
 - 아울러 펀드별 편입 자산의 이동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외부 준법 감시가 가능토록 할 방침임
- 펀드별 자동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투신운용사들의 매매 주문이 체결되면, 즉시 수탁회사나 판매사, 예탁원 등 관련기관에 그 내역이 일괄적으로 전달됨
 - 현재는 팩스나 전화를 통해 주고 받는 등 운용의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음

○ 사학연금, 벤처·선물 투자 허용

- 내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기금 운용 범위가 벤처 투자, 선물 거래, 외국환 거래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2일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와 같이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규제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에 따라 현재 주식과 채권, 금융회사 예입 및 신탁,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연금기금의 자산 운용이 앞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11월 29일 금요일

○ 내년 시행될 자산운용업법에 수익자 총회제 도입

- 금감원은 11월 28일 내년 중 시행될 자산운용업법에 수익자 총회 제도를 추가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펀드 수익자 총회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주총회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될 것임
- 최근 프리코스닥펀드 환매 거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이 매각되지 않아 환매 연기가 불가피하지만 무작정 환매를 연기할 수는 없는 실정임
 - 이 경우 수익자 총회제가 도입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환매 자금을 현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사태가 긴급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야 현물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현물 지급이 불가능함

○ 연기금 통합 펀드 2조1,000억원에 그쳐

- 지난해 12월 출범한 연기금 통합펀드의 규모가 2조1,000억원대로 당초 정부 목표인 5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기금 투자품의 운용 성과는 투신권의 경쟁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종 기금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임
 - 현재 운용되는 연기금 통합펀드는 MMF 9,600억원, 채권형 펀드 9,000억원, 채권혼합형 펀드 2,500억원 정도임

○ 증안기금 4,000억원 배분

- 증안기금이 12월 3일 증권사 등 470여개 출자회사에 4,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출자 비율대로 나눠줄 예정임
 - 증안기금 관계자는 지난 3월 2,600억원을 이미 출자회사에 배분했으며, 그 뒤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모아둔 현금과 배당금 등을 합한 금액 4,000억원을 오는 12월 3일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자회사 중에서 증권사들은 1,800억원 (대우증권 251억원, LG투자증권 220억원), 비증권 출자기업은 2,200억원을 받게 될 예정임

♣ 2002년 11월 30일 토요일

○ 투신사 하이닉스 채무 조정안 반대

- 지난 11월 26일 도이체방크가 마련한 하이닉스반도체 채무 재조정 안에 따라 하이닉스의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은 채무 1조9,000억원을 주당 708원의 가격에 출자 전환하자고 제안했음
- 그러나 채권단 의결권의 15% 이상을 갖고 있는 투신사들은 출자 전환에 대한 단가 (708원)가 너무 높다며 이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음
- 투신사 실무진들은 11월 29일 모임을 갖고 708원의 출자 전환 가격은 하이닉스 주가가 700원대이던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현재 주가가 400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투신사들은 이 모임에서 출자 전환을 해서 받은 주식을 2006년까지 팔지 못하도록 한 채무 재조정 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음
- 아울러 하이닉스 유진공장이 차입한 8,000억원의 해외 채무는 이번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8,000억원도 출자 전환 대상에 포함해 채권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December

10대 주요 기사

1. 3,300억원 규모의 투신운용사 부실채권, 캠코에 매각
(2일)
2. 금감원, 연금 상품 비교 공시 제도 실시
(5일)
3. 투신권, 자체적 수탁 전문사 설립 추진
(5일, 11일)
4. 투신협회, 운용전문인력 관리 강화 및 투자자 교육 확대 방침
(6일)
5. 투신운용사, 상장지수펀드 분배 방식 변경 건의
(16일)
6. 혼합형 펀드의 과세 형평 문제를 지적하는 투자자들
(17일)
7. 금감위, 투신·자산운용사도 대형화 방침
(18일)
8. 시가 채권형 펀드 중 75%가 단기성 펀드
(24일)
9. 금감원, 투신운용사 선별적으로 감자 허용 방침
(26일)
10. 금융회사들의 고유재산, 내년부터 투신권에 위탁 운용 허용
(27일)

◆ 12월 목차 (12/1-12/10)

12/1 [일]	
12/2 [월]	○ 3,300억원 규모의 투신운용사 부실채권, 캠프에 매각
12/3 [화]	○ 신종 개인연금 상품, 상품 전환 연 2회 허용
12/4 [수]	○ '공인기관 애널리스트 평가 프로그램' 내년 초부터 가동 ○ 신규 설정 펀드, 채권형 펀드로 편중 심화
12/5 [목]	○ 투신권,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투자 대상 확대 법안 철회 건의 ○ 금감원, 연금 상품 비교공시제도 실시 ○ 투신권, 독자 전문수탁회사 추진
12/6 [금]	○ 투신협회, 투자자 보호 위해 운용전문인력 관리 강화 및 투자자 교육 확대 방침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투자 다변화 시행안 의결
12/7 [토]	○ 투신사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내역 중 위규 사안을 요구하는 노동부
12/8 [일]	
12/9 [월]	○ 원활한 자금 재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투기채 펀드
12/10 [화]	○ 외국계 투신운용사의 성장형 펀드 수익률이 국내 투신운용사보다 한 수 위

◆ 12월 목차 (12/11-12/20)

12/11 [수]	○ 투신권 자체적 수탁전문사 설립의 실제 이유 ○ 사모펀드 수탁고 급증 ○ 투신운용사 MMF 수탁고 위험 수위
12/12 [목]	○ 현대차, 주식형 펀드에 1,250억원 투자 ○ 연기금 9,000억원 채권형 유입
12/13 [금]	○ 비교적 높은 펀드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연기금 투자폴 ○ '나스닥 코리아 펀드'의 결성으로 \$1억 규모의 자금이 한국 기업에 투자될 전망
12/14 [토]	○ 창투사 유동성 지원 펀드 결성
12/15 [일]	
12/16 [월]	○ 상장지수펀드, 신용거래 허용 ○ 투신운용사, 상장지수펀드 분배 방식 변경 건의
12/17 [화]	○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혼합형 펀드의 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투자자
12/18 [수]	○ 금감위, 투신·자산운용사도 대형화 방침
12/19 [목]	대통령 선거일
12/20 [금]	○ 한국 투자 펀드 수익률 아시아 국가에서 수위 차지 ○ LG투자증권 미수 사고, 투기 펀드의 운용 착오가 원인

◆ 12월 목차 (12/21-12/31)

12/21 [토]	○ 연말 증권거래소 납회일 관련 펀드 환매 처리 ○ 은행권, 증권투자회사 판매 지지 부진
12/22 [일]	
12/23 [월]	○ 국민주택기금 9,000억원 채권형 펀드에 투자
12/24 [화]	○ 시가 채권형 펀드 중 75%가 단기성 펀드
12/25 [수]	성 탄 절
12/26 [목]	○ 금감원, 투신운용사 선별적으로 감자 허용 방침 ○ ELN 상품의 투신권 펀드 편입 허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금감원
12/27 [금]	○ 금융회사들의 고유재산, 내년부터 투신권에 위탁 운용 허용
12/28 [토]	○ 금감위, 동원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 인가
12/29 [일]	
12/30 [월]	○ 삼성증권, 제2차 투신안정기금 탈퇴 소송에도 '각하' 판정 ○ 국민연금, 내년 1월 약 3,000억원 증시에 투입 계획
12/31 [화]	○ 수익률 낮은 투신사, 연기금 투자풀에서 제외

♣ 2002년 12월 2일 월요일

○ 3,300억원 규모의 투신운용사 부실채권, 캠코에 매각

- 지난 11월 21일 캠코는 투신운용사를 비롯하여 대우캐피탈, 수협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3조원 이상 사들임에 따라 이들 회사들의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이중 투신업계는 11개 투신운용사가 갖고 있던 특별 채권과 워크아웃 채권 등 총 3,231억원을 캠코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짐
 - 투신운용사 부실채권 매각 현황

(단위: 10억원)

투신운용사	특별 채권 ^a	워크아웃 채권	합계
국민		67.7	0.0
현대	3.6	61.0	67.7
SK	8.0	50.6	64.6
삼성		42.9	58.6
신한		37.5	42.9
우리		29.5	37.5
기타	10.7	11.6	29.5
합계	11.6	289.2	271.3

a. 캠코에서는 법정관리 기업과 화의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을 특별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 대우캐피탈의 경우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총 2조6,500억원으로 매각을 추진한 회사 중 매각 규모가 가장 크며, 수협의 경우 총 768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했음
- 한 투신권 관계자는 그 동안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상당 부분 캠코에 매각했다는 점에서 향후 투신운용사의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2002년 12월 3일 화요일

○ 신종 개인연금 상품, 상품 전환 연 2회 허용

- 최근 금감원은 11월 27일부터 신종 개인연금 상품내 주식형과 채권형 상품의 전환 신청을 연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투신운용사에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힘
 - 과거 구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가입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주식형 상품에서 채권형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했음
 - 하지만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들은 구 개인연금 상품을 신종 개인연금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구 개인연금 상품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장부가 방식으로 판매되었으며, 신종 개인연금 상품은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시가 방식으로 판매되는 한시적 상품이었음
 - 이후 2001년부터 세제 혜택이 변경되면서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이 상품은 초기부터 상품 전환권이 연 2회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 2002년 12월 4일 수요일

○ '공인기관 애널리스트 평가 프로그램' 내년 초부터 가동

- 투신협회,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이 애널리스트 순위를 매기는 이른바 '공인기관 애널리스트 평가 프로그램'이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애널리스트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져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감원의 한 당국자는 당초 이달부터 '공인기관 애널리스트 평가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공정 공시제와 애널리스트 불법 행위에 대한 금감원 조사 등이 겹쳐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금감원은 일단 투신협회를 통한 애널리스트 평가시스템을 가동한 뒤 순차적으로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 의해서도 순위를 매겨 발표하기로 했음
 - 투신협회 평가시스템은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발표하는 종목 투자 추천 보고서를 매일 전산으로 접수 받아 '투자 등급'과 '추정 주당순이익'의 적정성을 검증해 평가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임
- 금감원은 이 시스템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최대 5단계까지 세분화돼 있는 국내 증권사 투자 평가 등급을 미국 증권사처럼 3단계로 통일하도록 유도하는 등 평가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음

○ 신규 설정 펀드, 채권형 펀드로 편중 심화

- 펀드평가기관인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채권형 펀드의 경우 지난 11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각각 87개, 13개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에서 지난해보다 각각 85개와 7개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과 2002년 펀드 신규 설정 현황

(단위: 개)

수익증권			펀드 유형	증권투자회사		
2002년	2001년	차이		2002년	2001년	차이
806	719	1	채권형	21	8	1
190	275	87	주식형	12	19	13
223	252	-85	주식혼합형	27	22	-7
614	396	-29	채권혼합형	73	79	5
167	314	218	MMF	0	0	-6
3,835	3,643	-147	합계	2,135	2,129	0

- 한편, 2002년 들어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신규 설정 펀드 수는 2,133개이지만 전체 운용 펀드 수는 1,000여개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대형 투신운용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펀드 통폐합 움직임으로 인해 신규 설정 펀드가 증가했음에도 운용 펀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2002년 12월 5일 목요일 (1)

○ 투신권,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투자 대상 확대 법안 철회 건의

- 투신권은 지난 12월 2일 발표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증권사 랩어카운트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기로 했음
 - 이번 개정안에는 랩어카운트의 투자 대상을 지금까지는 고수익 채권과 펀드에만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투신사들은 만일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펀드보다는 개별 주식 위주로 랩어카운트를 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투신사와 증권사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투신 업무 영역이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 금감원, 연금 상품 비교 공시 제도 실시

- 금감원은 12월 5일부터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연금 상품의 수익률 등을 인터넷을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금상품 비교 공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음
 - 비교 공시 제도란 각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 상품의 상품 명칭, 상품 유형, 판매 개시일, 기금 적립액, 직전 3년간 수익률, 기금의 투자 내역 등을 비교 공시하는 제도임
 - 각 권역별 협회 홈페이지에 "연금 상품 공시" 코너를 클릭하면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타 권역의 연금 상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직접 연결하도록 했음
- 연금 상품은 통상 20~30년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퇴직 후 10~20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하여 수취하게 되므로 수익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금융회사 및 상품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가입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수익률 등을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수익률 등이 우량한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 하는 것이 필요함
- 연금 상품 비교 공시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 및 상품별 수익률 비교가 용이해짐에 따라 계약 이전 제도가 활성화되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금융회사간 선의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12월 5일 목요일 [2]

○ 투신권, 독자 전문수탁회사 추진

-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투신운용사들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그동안 국내 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수탁 업무를 투신권 자체내 독자적 전문수탁회사를 세워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통합 자산운용업법이 펀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탁회사 기능을 크게 강화했음에도 은행들의 수탁회사 기능이나 전문성이 현저하게 낙후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아울러 그동안 투신운용사들은 신탁보수로 연간 약 750억원 정도를 은행에게 지불해 왔는데, 자체 전문수탁회사의 설립으로 투신권이 은행과 본격적으로 수탁회사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판단됨



♣ 2002년 12월 6일 금요일

○ 투신협회, 투자자 보호 위해 운용전문인력 관리 강화 및 투자자 교육 확대 방침

- 투신협회는 투신권의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용전문인력 (이하 펀드매니저)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를 위해 펀드매니저들의 이직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일부 투자자들은 유능한 펀드매니저를 믿고 돈을 맡겼다가 펀드매니저가 곧바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당황했던 경험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음
 -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높은 연봉을 쫓아 지나치게 직장을 자주 옮기는 펀드매니저들을 투자자들이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 투신협회는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투자관을 심어주기 위해 투자자 교육을 내년 투신업계와 협회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투자자 교육을 공공 및 민간 연수원, 문화 센터, 민방위 예비군 교육장으로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투자자 교육 내용을 수록하여 조기에 올바른 투자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양만기 투신협회장은 단순히 투자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금감원, 증권업협회, 언론 등과 협의하여 금융 소비자 교육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언급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투자 다변화 시행안 의결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12월 5일 내년 신규 조성되는 자금 39조9,660억원 중 약 1조 2,000억원을 외국 채권과 SOC 및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 상품 등에 신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다변화 시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음
-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REITs 1,000억원, SOC 투·융자 2,000억원 등 부동산 관련 상품에 3,000억원을 상반기에 중점 투자할 예정
 - 벤처 투자 조합 2,000억원, 기업구조조정펀드 (CRC) 1,000억원, 기타 사모 펀드 1,000억원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
 -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미국 국채 등 외국 채권에 5,00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해외 채권 투자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음
 - 아울러 해외 주식 투자에는 올해와 같은 5,000억원을 배정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급속한 기금 규모 증가와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글로벌화돼 가는 투자 환경 등 기금 운용 여건이 변함에 따라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져 이 같은 대체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

♣ 2002년 12월 7일 토요일

○ 투신사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내역 중 위규 사안을 요구하는 노동부

- 최근 5조원의 자금을 투신권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노동부는 펀드 수익률 저조와 펀드 관리가 잘 안된다는 판단 아래 투신사에 컴플라이언스 점검 내역 중 위규 사안을 요구했음
 - 하지만 투신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그러한 사안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현재 재경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임
 - 업계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투신사에 법규 위반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 펀드가 단독 수익자인데다 투신사 최대 큰손임을 감안하면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언급
- 투신사들은 이에 대해 노동부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위규 내용만을 체크해서 달라는 것은 사실상 힘들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사항이라 노동부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
 -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펀드 운용 행위에 대해 감시를 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어떤 근거에서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임

♣ 2002년 12월 9일 월요일 (1)

○ 원활한 자금 재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투기채 펀드

- 최근 투신운용사들은 만기가 도래하여 환매된 투기채 펀드에 대해 판촉 활동을 강화하여 자금을 재유치하려고 했지만 그 시도가 뜻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CBO펀드의 경우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해지 규모가 4개 펀드 2,047억원이었으나, 신규 설정 규모는 3개 펀드 1,4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동 기간 동안 해지 규모가 12개 펀드 4,145억원이었으나, 신규 설정된 펀드는 3개 펀드 2,436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짐
- 투기채 펀드의 자금 이탈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0월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의 감소 규모는 각각 2,177억원, 3,428억원이었으나, 11월에는 각각 3,393억원, 5,696억원씩으로 그 감소 규모가 증가했음
 - 주요 투신운용사별 투기채 펀드 현황 (자료: 제로인)

(단위: 10억원)

투신운용사	하이일드펀드		CBO펀드	
	11월 말	11월 증감 규모	11월 말	11월 증감 규모
삼성	2,358.6	-52.1	737.2	-134.3
한국	2,343.2	-260.8	103.2	-69.5
대한	2,053.8	-17.1	1363.6	-83.4
현대	1,872.3	-178.1	1486.3	-34.3
제일	752.4	-16.8	185.8	-24.2
동양	432.2	-15.2	326.5	5.0
조흥	272.9	-2.9		
한화	248.5	-22.0		
LG	125.3	-10.4		
한일	122.7	1.0		
교보	112.5	2.7		
기타	137.3	2.1	356.3	1.4
합계	0.0	10,705.4	-560.7	4,213.6

- 이처럼 투기채 펀드의 재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펀드에 편입돼 있는 투기채나 후순위채의 수요처를 찾을 수 없어 투신운용사들이 유동성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짐
 - 한 투신권 관계자는 최근 만기가 도래한 투기채 펀드 투자자들에게 펀드 재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투기채 펀드내 편입된 투기채 및 후순위채를 다른 펀드로 넘기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12월 9일 월요일 [2]

○ 외국계 투신운용사의 성장형 펀드 수익률이 국내 투신운용사보다 한 수 위

-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의 성장형 펀드 수익률이 국내 주요 투신운용사들 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돼 자금 운용에서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이 국내사보다 한 수 위인 것으로 나타남
 -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외국 자본이 50% 이상 참여한 6개 투신 및 자산 운용사의 성장형 펀드 연초 대비 수익률은 평균 18.9%로 국내 주요 5개 투신운용사의 11.5%보다 8% 이상 높았음
 - 성장형 펀드란 신탁재산내 주식 편입비가 70%를 초과하는 펀드를 지칭
 - 주요 외국계 및 국내 운용사 성장형 펀드 수익률 현황

(12월 6일 현재, 단위: 10억원, %)

투신 (자산)운용사	NAV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현대	2,054.5	1.64	-7.92	-17.02
대한	1,708.0	3.16	-8.13	12.90
한국	1,378.4	0.59	10.69	7.19
삼성	800.8	1.68	-9.67	8.56
제일	281.8	2.52	-7.74	11.84
프랭클린	691.2	-1.20	-10.22	26.68
알리안츠	116.2	1.48	-10.39	9.48
랜드마크	61.4	3.40	-8.42	12.07
SEI에셋	42.3	-2.19	1.30	46.99
슈로더	26.5	2.44	-9.01	15.92
맥쿼리IMM	1.8	-0.54	-12.76	2.41

♣ 2002년 12월 11일 수요일 (1)

○ 투신권 자체적 수탁 전문사 설립의 실제 이유

-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투신협회 주도로 전문 수탁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투신권이 전문 수탁회사를 설립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 수탁회사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수탁회사들이 수탁보수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수탁 자산의 0.03~0.04% 정도의 수탁보수로는 내년 도입될 자산운용업법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투신사의 입장에서는 최근 과당 경쟁으로 펀드 보수가 큰 폭 줄어든 상황에서 신탁보수까지 인상되면 투신권의 경쟁력이 타 금융권에 비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투신권에서는 자체적 수탁 전문사의 설립을 통해 수탁시장에 경쟁을 유도하여 신탁보수를 낮출 의도인 것으로 판단됨

○ 투신운용사 MMF 수탁고 비중 과다

-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현재 53조5,39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 12월 들어 일주일간 무려 2조2,700억원이나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투신권의 총 수탁고 중 MMF 비중이 31.4%로 크게 높아졌음
- 특히 MMF 비중이 위험 수준 (전체 수탁고의 50%)으로 분류되는 투신운용사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흥투신의 경우 MMF 규모가 약 4조원으로 전체 수탁고에서 무려 60%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MMF 비중을 구성하고 있는 투신운용사는 우리투신 58%, 서울투신 52%, SK투신 50% 등임
 - 이밖에 태광투신, 대신투신, 세종투신, 제일투신 등도 50%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업계 관계자는 MMF내 편입 채권 잔존만기를 예전보다 강화해 안정성이 높아졌지만, MMF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데다 갑작스러운 대량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도사린다고 언급
 - 투신협회는 최근 MMF 수탁고 비중이 과다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고 과거 MMF 환매 사태처럼 투신 상품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전 투신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음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MMF에 몰리고 있지만 연말에는 상당 규모의 자금이 MMF에서 이탈했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고 언급

♣ 2002년 12월 11일 수요일 [2]

○ 사모펀드 수탁고 급증

-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 특정인을 가입자로 하는 사모펀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펀드평가회사인 한국펀드평가회사에 따르면 투신 및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수탁고는 올초 10조1,000억원 (펀드 수 152개)에서 12월 9일 현재 약 40조9,000억원 (펀드 수 890개)으로 급증했음
 -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사모펀드의 비중 (금액 기준)도 6.5%에서 22.5%로 증가했음
 - 이 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모펀드는 약 145조원에서 약 141조원으로 감소하여 대조를 이뤘음
 - 공모 및 사모펀드 현황 (자료: 한국펀드평가, 투신협회)

(12월 9일 현재, 단위: 10억원, 개)

구분	공모펀드		사모펀드		사모 비중
	설정잔고	펀드 수	설정잔고	펀드 수	
주식형	9,247.1	365	1,388.5	68	13.1%
주식혼합형	13,252.9	1,209	3,067.4	120	18.8%
채권혼합형	26,822.2	1,433	11,423.7	446	29.9%
채권형	38,929.5	1,607	22,743.6	251	36.9%
MMF	52,397.6	414	-	-	4.2%
합계*	140,649.3	5,033	40,923.1	890	22.5%

* 모자형 펀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의 경우 펀드 자금이 중복 계산될 수 있어 투신협회에서 제공하는 12월 9일 현재 180조4,001억원보다 약 1조원이 많은 181조5,724억원으로 집계됨

- 지난 2000년 말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사모펀드는 올초 금감원이 각 투신사에 공모 형식을 빌린 기관 고객의 단독 펀드를 사모펀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와 공모펀드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도 보다 체계화됐다고 언급
 -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 등도 사모펀드를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사모펀드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그러나 업계는 사모펀드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는 사모펀드의 자금이 대부분 법인의 단기자금이라서 펀드 운용이 단기화되고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한 업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돼야 시장이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02년 12월 12일 목요일

○ 현대차, 주식형 펀드에 1,250억원 투자

- 현대자동차가 일시에 1,250억원을 순수 주식형 펀드에 투입하여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프랭클린템플턴투신, 한일투신, 한화투신에 각각 250억원씩, 미래에셋자산운용에 500억원을 각 사의 순수 주식형 펀드에 투입했음
- 현대차의 이같은 공격적인 자금운용 전략은 상장기업이 본업보다 주식 투자에 몰입한다는 비판이 지적될 수 있지만, 투신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눈치임
 - 투신업계 관계자는 여유 자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단순히 MMF 위주로만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

○ 연기금 9,000억원 채권형 유입

- 투신업계에 따르면 12월 10일 연기금폴에서 9,000억원이 1년 6개월 만기 채권형 펀드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짐
 - 펀드 운용 관계자들은 12월 10일 당일 유입된 전체 자금 중 10~20% 정도만 운용 자금으로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했기 때문에 아직 펀드내 추가 편입 여유 자금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수요가 증가해 회사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

♣ 2002년 12월 13일 금요일

○ 비교적 높은 펀드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연기금 투자폴

- 기획예산처는 12월 12일 연기금 투자폴 제도 운용 1주년을 맞아 연기금 투자폴의 운용 수익률을 집계하여 발표했음
 - 연기금 투자폴의 펀드별 운용 수익률 현황

(12월 12일 현재, 단위: %)

구분	연기금 투자폴	업계 평균
혼합형	11.85	6.21
채권형	6.13	5.49
MMF	4.66	4.30

-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부터 연기금 투자폴을 통해 투자되는 펀드들의 수익성, 안정성, 운용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높은 펀드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펀드간 운용 자금 차등화 제도"를 도입했음
 - 기획예산처는 연기금 투자폴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투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나스닥 코리아 펀드'의 결성으로 \$1억 규모의 자금이 한국 기업에 투자될 전망

- 미국 투자회사인 인프라베이직은 12월 12일 뉴욕의 7개 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총 \$1억 규모의 코리아펀드를 결성 중이라고 밝혔음
 - 이 펀드는 한국의 코스닥과 증권거래소에 등록 및 상장돼 있는 회사 가운데 우수 기업을 물색하여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때까지 투자하게 됨
 - 특히 블루칩 기업과 기술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최고 \$1,500만까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나스닥 코리아 펀드"는 내년 1월 말까지 펀드 결성을 끝내고 3월 말부터 한국내 투자를 시작할 계획임
 - 인프라베이직은 이 펀드의 운영을 총괄하며 서울에 심사 사무실을 둘 예정임
 - 한 시장 관계자는 이 펀드의 결성으로 아직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나스닥 상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음

♣ 2002년 12월 14일 토요일

○ 창투사 유동성 지원 펀드 결성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프리코스닥 유동화 펀드 결성에 따른 운용사로 두산 계열 창투사인 네오플렉스가 선정됐으며, 조성될 5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프리코스닥 기업들에게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 이 펀드는 중기청 200억원, 산업은행 200억원, 네오플렉스가 50억원을 출자하고 일본 미쓰비시와 동양증권이 나머지 50억원을 출자할 예정임
 - 프리코스닥 유동화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벤처캐피탈이 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기업의 코스닥 등록도 돕기 위해 마련됐음
 - 이로써 최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투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

♣ 2002년 12월 16일 월요일

○ 상장지수펀드, 신용거래 허용

-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ETF에 대한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음
 - 따라서 증권회사는 12월 16일부터 신용거래가 허용됨
 - 신용거래 관련 근거 규정

담보 사정가격	·당일종가, 대용가격
추가 담보 요구 시점	·소정의 담보유지 비율 미달시 지체없이
담보권의 실행	·미상환 대출금 등이 발생한 경우 상환 기일 익일에 동시호가로 처분, 단, 추가 담보 미이행시에는 요구일부터 4일이 경과한 그 익일에 처분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ETF의 매매 방식 등이 주식과 비슷한데도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
 - 신용거래가 허용되면 유동성이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언급

○ 투신운용사, 상장지수펀드 분배 방식 변경 건의

- 최근 투신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분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증권투자신탁 형태의 현행 ETF는 12월 말 결산법인들의 예상 배당분을 배당락 당일 기준가부터 반영하게 돼 있음
 - 따라서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는 4월 말경까지 정 (+)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환매가 발생할 경우 가공의 배당금을 분배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운용사 입장에서는 현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투자자는 실제 4월 말에 지급 받게 될 배당금을 이르면 1월 초에 환매를 통해 분배받을 수 있어 배당금 수령일 단축에 따른 기간 이익의 향유가 가능함
- 투신운용사측은 개선안에서 보유 주식에서 발생하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수입을 실제 배당금이 유입되는 4월 말 이후에 지급하되, 그 분배금의 권리자를 12월 말 수익자로 고정하도록 건의했음
 - 다시 말하자면 예상 배당분 및 유입된 배당금을 기준가 산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정판매사 등 관련 증권사의 수익자 명부 확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실질 수익자 명부 확정을 위한 예탁원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02년 12월 17일 화요일

○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혼합형 펀드의 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투자자

- 올들어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게 되자 이를 이유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늘어나면서 과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 부문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펀드 전체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및 매매 평가 차익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됨
 -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펀드 과표에 반영되지 않으나, 채권의 이자수익 및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과표에 합산토록 돼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투자자들은 펀드에서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과세 부담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임
 -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환매 영수증 내역에 대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채권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 것임을 이해시키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언급

♣ 2002년 12월 18일 수요일

○ 금감위, 투신·자산운용사도 대형화 방침

- 증권업계에 이어 투신운용 및 자산운용업계에도 정부의 대형화 유도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경우, 현재처럼 중소형 투신운용 및 자산운용사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 구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형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는 특히 투신운용사에 펀드 직판을 허용하기 위해서라면 펀드 환매에 대한 책임을 투신운용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투신운용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위탁운용 수수료 감소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데다 은행 및 증권회사가 지수연동형 예금이나 랩어카운트 등 투신운용사와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면서 이들 업계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운용 및 자산운용사들 대부분이 은행 및 증권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증권사와 은행간 통합 바람과 맞물려 운용사간 M&A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2년 12월 20일 금요일

○ 한국 투자 펀드 수익률 아시아 국가에서 수위 차지

- 올들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지난 11월 말까지 수익률이 다른 아시아 주식형 펀드보다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조사됨
 - S&P 펀드 서비스는 12월 18일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 말 현재까지 아시아 지역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829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한국 관련 펀드들이 수익률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 휩쓸었다고 밝혔음
 - '템플턴코리아A'펀드가 11월 말 현재 13.33%를 기록하며 최고 수익률을 올렸으며, '피델리티펀드코리아'가 13.18%로 2위를 차지했음
 - 이어 'JF코리아' 13.17%, '한사드·베어링코리아' 13.03%, '드레스드너 RCM ASF 코리아' 12.59%가 각각 3, 4, 5위를 차지하는 등 10위까지 한국 관련 투자 펀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음

○ LG투자증권 미수 사고, 투기 펀드의 운용 착오가 원인

- LG투자증권의 고위 관계자는 홍콩 법인에서 발생한 미수 사고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전형적인 투기 펀드의 차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운용 착오가 원인이라고 밝혔음
 - 그는 미수 사고를 낸 12개 기관 계좌는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대신증권 등 우량주를 주로 거래해 비중이 70% 이상이었으며, K전자 등 소형주도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
 - 이들 기관이 법적인 외국 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가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에 의해 운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
 - 아울러 이들 기관이 삼성전자를 주로 거래한 것은 대형 우량주로서 리스크가 작고 소폭 상승해도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부담 능력 이상의 과다 주문을 내었다 주가가 빠지자 미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음
 - LG투자증권은 조만간 홍콩 법인장 등을 교체하고 이번 사고를 포함한 현지 법인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이는 동시에 사고 기관에 미수금 결제를 촉구하는 등 손실 최소화해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002년 12월 21일 토요일

○ 연말 증권거래소 납회일 관련 펀드 환매 처리

- 12월 19일 투신협회는 최근 증권거래소 납회일 관련 펀드 환매 처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업무 처리 기준안을 발표했음
 - 현행 투신협회 규정에 의하면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환매는 환매 청구일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하며, 채권형 펀드는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3영업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음
 -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 영업일 계산시 증권거래소 개장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거래소가 휴장하는 31일을 영업일에 포함시키지 않음
 - 그러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환매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영업일인 31일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성탄절인 25일, 토요일과 일요일인 28, 29일, 휴장인 31일을 제외하여 환매 대금 지급일을 계산할 수 있음
- 주식에 한 주라도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올해 안으로 돈을 찾으려면 늦어도 12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함
 - 하지만 펀드에 편입된 주식 (12월 결산법인 기업) 배당을 원한다면 26일 이후에 환매 신청을 해야 배당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주식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27일까지 환매 신청을 하면 12월 31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은행권, 증권투자회사 판매 지지 부진

-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증권투자회사의 총 판매고는 올들어 2,300억원으로 동 기간 21조원을 판매한 수익증권에 비해 판매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자산운용사 마케팅 담당자들은 수익증권에 비해 증권투자회사는 판매 이후 펀드 관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품 구조도 은행 판매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언급
 -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수익증권을 비롯하여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매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점차 은행권의 증권투자회사 판매 계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들이 자회사로 투신 및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는데다 자회사 위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그렇지 못한 운용사들은 판매망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 따라서 내년에는 판매력이 강한 은행들과 광범하게 접촉해 판매망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언급

♣ 2002년 12월 23일 월요일

○ 국민주택기금 9,000억원 채권형 펀드에 투자

- 건설교통부는 연간 운용 규모가 9조5,000억원인 국민주택기금의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려는 방침의 일환으로 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연기금 투자펀드의 채권형 펀드에 예치했다고 밝혔다
-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 기금 투자의 대부분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상장주식이었지만, 12월 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한 이후 투자 대상이 비상장주식과 회사채 등 모든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으로 확대됐다고 언급
- 그는 연기금 투자펀드 운용으로 운용 수익이 늘어날 경우 투자펀드 예치 금액을 확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
- 지난해 12월 현재 운용 중인 연기금 투자펀드는 지난 12월 11일 현재 41개 기금에서 3조3,105억원을 운용 중임

♣ 2002년 12월 24일 화요일

○ 시가 채권형 펀드 중 75%가 단기성 펀드

-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시가 채권형 펀드를 조사한 결과 전체 53조8,488억 원 중 74.49%인 40조1,122억원 규모가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성 펀드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자료 분석은 12월 17일 현재 수탁고가 1,000억원 이상인 운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 특히 기관 등 1인 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단기형 비중이 86.05%로 공모펀드의 63.66%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중소형 투신 및 자산운용사의 단기형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전체 시가 채권형 펀드 설정액 중 한화투신 95.90% (1조7,204억원), 대신투신 95.80% (6,235억원), 태광투신 93.10% (6,511억원), 아이투신 89.10% (5,892억원), SEI에셋자산운용사 87.00% (5,277억원) 등임
- 시장의 한 관계자는 채권형 펀드의 이 같은 단기화 현상은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산화 현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저금리에다 주가 수준도 낮은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만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장단기 금리 차가 크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02년 12월 26일 목요일 (1)

○ 금감원, 투신운용사 선별적으로 감자 허용 방침

- 최근 금감원은 투신운용사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자본금 감자에 대해 이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감자에 적극성을 보여 온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이 조만간 금감원에 공식 허가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외국계 투신운용사 중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설립 자본금이 300억원 대인 프랭클린템플턴, 외환코메르쓰, 랜드마크 등임
 - 외국계 투신운용사들은 감자로 인해 납입자본금 대비 투자수익률 지표인 ROE (총자본이익률)가 높아져 수익 위주의 경영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외국계 투신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 대부분이 시가 평가가 되고 있어 손실 준비금 성격을 갖고 있는 자본금 규모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언급
- 외국계를 제외한 국내 투신운용사들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계열사가 대부분이고, 외국계에 비해 부실채권 정리 등이 완결되지 않아 감자에 따른 리스크가 있어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은행이나 증권사 등 모회사들도 자회사인 투신운용사들의 수익 위주 경영 방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 2002년 12월 26일 목요일 (2)

○ ELN 상품의 투신권 펀드 편입 허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금감원

-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장외 파생상품 취급 증권사에 허용한 ELN (주식연계 채권) 업무에 대해 일부 투신사들이 펀드에 편입해 줄 것을 건의해 오면서 금감원이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금감원측에서는 주가나 주가지수 연동 증권인 ELN을 투신운용사 펀드에 편입할 경우 펀드 평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즉 ELN에 내재돼 있는 옵션 가격의 변동성이 큰데다 그 가치 계산이 어려워 전체 펀드 평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임
 - ELN이란 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 규모가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동된 구조 설계된 채권으로 자산의 95%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여 만기시 투자 원금을 보존하도록 하며, 나머지에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임
- ELN 편입 허용을 주장하는 투신운용사의 경우 ELN을 통해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며, 원금이 보존되면서도 추가 수익이 가능한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임
 - 관련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ELN을 펀드에 자유롭게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이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 편입 허용을 반대하는 투신운용사의 경우 현재 펀드 자체에서도 ELN과 유사한 상품 구성을 통해 운용할 수 있는데 굳이 펀드에 편입해 수수료 부담을 지면서까지 펀드 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임
 - 아울러 국내 채권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002년 12월 27일 금요일

○ 금융회사들의 고유재산, 내년부터 투신권에 위탁 운용 허용

- 내년부터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고유재산을 투신 및 자산운용회사에 위탁·운용할 수 있게 됨
 - 12월 26일 금감위는 최근 금융회사들이 계열 투신 및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우회적으로 위탁·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독규정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계열 투신운용사에 투자자문 형태나 공모를 가장한 사모펀드 형태로 우회적 혹은 제한적으로 운용해 왔음
 - 예컨대 자산 규모 69조9,500억원 (지난 10월 말 기준)인 삼성생명의 경우 15조원 가량을 계열 삼성투신운용에 투자자문 형태로 위탁해 운용해 왔음
-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금융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신 및 자산운용회사에 펀드 형태로 위탁해 운용하는 경우 관리하기 쉽도록 사모 단독펀드 형태로 한정했음
 - 이 사모 단독펀드에 주식이나 채권 등 현물로 납입할 수는 있지만 부도 채권이나 관리 종목 및 비상장 (등록) 주식 등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은 현물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음
 - 이 사모 단독펀드가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일반 공모펀드와 자전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신 및 자산운용회사는 사모 단독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전문인력을 분리해 운용해야 하며, 펀드의 기준가격이나 수익률 등 실적을 공시할 때도 두 펀드를 구분해 발표하도록 했음
 - 금융회사는 이러한 형태로 자산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자산 운용 목적, 전략, 투자 제한 등을 담은 자산운용 지침서를 작성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자산운용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 등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함
- 이에 따라 국민, 하나, 우리 등 대형 은행과 삼성, 교보, 대한 등 대형 생명 보험회사들이 계열 투신운용사들에 대규모 자산을 위탁·운용할 것으로 보여 투신운용사 수탁고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12월 28일 토요일

○ 금감위, 동원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 인가

－ 금감위는 12월 27일 동원금융지주주식회사 (가칭)의 설립을 예비 인가했음

- 동원금융지주회사는 동원산업의 자산과 부채의 일부 (자산 1,621억원, 부채 702억원)를 분할하여 신설될 예정임
- 동원금융지주회사는 동원증권, 동원창업투자, 동원캐피탈, 동원상호저축은행 등을 자회사로 두고, 동원투신운용, 동원증권 뉴욕·런던 현지 법인 등을 손자회사로 둘 예정임
- 하지만 동원증권의 비금융 자회사인 이스텔시스템즈와 동원경제연구소는 각각 매각, 청산할 계획임
- 한편, 산업 자본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 우려를 해소하고자 2005년 말까지 동원 기업집단과 동원금융지주회사간 계열 분리를 완료할 예정임



♣ 2002년 12월 30일 월요일

○ 삼성증권, 제2차 투신안정기금 탈퇴 소송에도 '각하' 판정

- 삼성증권이 투신안정기금에서 탈퇴하기 위해 투신협회를 상대로 낸 제2차 소송에서도 기각됐음
 - 지난 12월 27일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5월의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인 투신안정기금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음
-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삼성증권이 삼성투신증권과 합병 이후, 삼성증권이 투신안정기금의 조합원 자격에서 자동 탈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음
 - 삼성증권의 조합 탈퇴가 가능할 경우 삼성증권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타조합원들의 기금 탈퇴를 촉발할 가능성이 예상됐으나, 이번 판정으로 인해 투신안정기금이 당분간 존속될 것으로 판단
-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 역시 패소라기 보다는 투신안정기금이 피고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다며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를 새로운 소송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

○ 국민연금, 내년 1월 약 3,000억원 증시에 투입 계획

- 국민연금은 지난 12월 27일, 오는 2003년 자금 투자 집행과 관련하여 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상·하반기 투자 비중 및 1월 자금 집행 규모를 잠정 확정했음
 - 국민연금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에 간접투자분 1,500~2,000억원, 직접투자 1,000~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안팎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음
 - 간접투자의 경우 주식 비중이 90% 이상인 성장형 펀드에 대부분 위탁하고, 중소형주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대형 우량주를 집중 공략하는 쪽으로 아웃소싱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 국민연금은 시장 상황을 보가며 적절한 시기에 자금 집행을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월 초쯤에 기존 또는 신규 운용사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국민연금은 이번 회의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증시 전망을 밝게 보고 주가가 오르기 전인 상반기에 하반기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 투자 성격이 짙은데다 하반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상반기가 적절한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언급
 -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6대4의 비율로 나눠 올해 4조원 가량의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2002년 12월 31일 화요일

○ 수익률 낮은 투신사, 연기금 투자폴에서 제외

- 기획예산처는 12월 30일 제5차 연기금 투자폴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기금 투자폴 개별 운용 펀드 재선정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새롭게 마련된 '연기금 투자폴 개별 운용 펀드 재선정 방안'에 따르면 펀드 운용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수익률이 업계 평균과 투자폴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짐